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2, 제8호

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Vol. 8

발간사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이 수 성

명예교수협의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써 다섯 해가 됩니다만 협의회 출범 3년 전부터 발간된 명예교수회보는 제8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회원들께서 귀한 논설, 칼럼, 제언 등을 투고해 주심에 따라 명예교수회보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께서 1년간 이룩하신 학술, 연구, 봉사업적을 정리하여 발표하시는 학술활동 보고는 명예교수님들께서 비록 정년에 의하여 현직을 떠났어도 사회와 국가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기록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교수회보에 옥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에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로 명예교수협의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를 설립하여 3월 26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에 법인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는 명예교수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꾀하고, 명예교수들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따라서 이 진흥회는 앞으로 명예교수님들께서 사회에 널리 공헌하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교수협의회는 명예교수님들께서 이끌어가는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깊은 관심과 격려로 보듬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8호 명예교수회보를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오연천 총장님과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원고를 모집하고 편집하며 교열하느라 밤낮으로 수고한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홍식 명예교수와 편집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2013년 3월

축사

서울대학교 총장
오 연 천

존경하는 명예교수님,

명예교수회보의 여덟 번째 발간을 축하합니다.

2006년 창간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명예교수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식견을 우리 후배 교수들과 직원, 학생들이 접하는 지적 광장의 하나입니다. 명예교수님들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시대를 선도하는 보편적 가치를 정립하고 국가와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지식과 지혜의 기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명예교수님들께서 이룩해 낸 가치와 성과를 발판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명예교수님!

서울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명예교수님들의 자긍심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더 매진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루어 갈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축사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 광 수

모교 명예교수님들의 여덟 번째 회보 출간에 대해 33만 서울대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국가 동량지재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교수님들의 헌신은 남다른 소명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육 일선에서 물러난 지금도 국내외 학문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명예교수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순자 권학편에 '높은 산에 오르지 않으면 하늘이 높은 줄을 알지 못하고 (중략) 선왕이 남긴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듯, 이번에 발간된 명예교수회보 또한 교수님들의 고귀한 가르침을 그대로 담아 후학들의 학문적 성취에 좋은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개교 원년 찾기 운동과 장학빌딩 신축사업을 성공시킴으로써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동문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데 이바지한 총동창회는, 2025년 내에 모교를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모교와 70억원 규모의 장학연구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한 동창회는 모교에 세계 초일류 학과와 학부를 만드는 '교육혁신 프로그램'과 모교의 우수한 강의를 인터넷에 무상 공개함으로써 모교가 국민 속으로 깊숙이 다가가는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후에 개학 120주년을 맞는 모교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기 위한 '서울대 120년사' 편찬 사업과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100억원 규모의 역사기념관을 건립하여 모교에 기증하는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교와 동창회, 나아가 국가의 더 큰 비상을 위해 명예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교수님들의 친목 활성화와 명예교수회보 제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명예교수협의회 이수성 회장님과 이홍식 편집위원장님,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차례 ...

발간사 | 이수성 명예교수협의회 회장 ····· 5
축사 |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 ····· 6
축사 | 임광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 7

제1부 논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트렌드 분석 | 박성현(통계학과) ····· 17
종이의 위력과 재활용 | 신동소(산림과학부) ····· 24
창작과 전략: 우리와 동시대 시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 김용직(국어국문학과) ····· 31
사회변화를 위한 민주도 실천 연구방법, 참여연구 | 정지웅(농경제사회학부)····· 41
왜곡된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은 바로잡아야 | 이영순(수의학과)····· 48
TV, 영상시대의 여명 | 이충웅(전기정보공학부) ····· 53
한자의 기원 | 안수길(전자공학과) ····· 59
한말글의 지구촌 시대 역할 조망: 세종 대업 완성을 꿈꾸다 | 김병동(식물생산과학부)··· 64
대북 유화(宥和)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역작용 한다 | 김호징(화학부) ····· 72

제2부 칼럼

일반 칼럼

지조와 관용의 길(道): 석당(石棠)의 당시(唐詩) 새긴 피장(藣杖)의 교훈 |
이흥재(법학부) ····· 83
과학과 시 – 그 3. 호수(湖水)와 못 | 이상만(지구환경과학부) ····· 91
내가 걸어온 역사학의 길 | 한영우(국사학과) ····· 95
대한민국이 과연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 한인규(농생명공학부) ····· 105

나의 제언

교수 정년 65세 이후의 연구참여에 관한 견해 | 권욱현(전기·컴퓨터공학부) …… 112
선행학습 자체에는 죄가 없지요 | 이정민(언어학과) …… 115

수상

칠십 세의 경지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 116
옛날 길과 지금 길 | 고영근(국어국문학과) …… 118
공릉동 캠퍼스 1호관 301호실의 회상 | 김효철(조선해양공학과) …… 120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렵니까? | 임창윤(치의학과) …… 123
결혼식 주례에 얽힌 이야기들 | 전효택(에너지자원공학과) …… 126

제3부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인문대학

고영근(국어국문학과) … 131
김용직(국어국문학과) … 131
김학주(중어중문학과) … 132
박환덕(독어독문학과) … 133
안삼환(독어독문학과) … 133
안휘준(고고미술사학과) … 134
오병남(미학과) … 136
이정민(언어학과) … 136
이현복(언어학과) … 138
임효재(고고미술사학과) … 139
최몽룡(고고미술사학과) … 140

사회과학대학

김경동(사회학과) … 141
김수행(경제학부) … 142
박삼옥(지리학과) … 143
신용하(사회학과) … 144

안청시(정치외교학부) … 146
이광규(인류학과) … 147

자연과학대학

박상대(생명과학부) … 147
박성현(통계학과) … 150
박세희(수리과학부) … 152
박용안(지구환경과학부) … 155
소광섭(물리천문학부) … 155
이광웅(생명과학부) … 155
이동규(지구환경과학부) … 156
이인규(생명과학부) … 158
전종갑(지구환경과학부) … 160

간호대학

이소우(간호학과) … 162

경영대학

최종태(경영학과) … 164

공과대학

권욱현(전기·컴퓨터공학부) … 166
김효철(조선해양공학과) … 167
이동녕(재료공학부) … 168
이정인(에너지시스템공학부) … 170
이희근(자원공학과) … 171
장창두(산업조선공학부) … 172
전효택(에너지자원공학과) … 172
최창균(화학생물공학부) … 174
한송엽(전기공학부) … 174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식물생산과학부) … 176
나용준(농생명공학부) … 177
신동소(산림과학부) … 177
우건석(농생명공학부) … 178
이무근(농산업교육과) … 179
이병일(식물생산과학부) … 180
정하우(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182
한인규(농생명공학부) … 182

미술대학

한운성(서양화과) … 184

법과대학

김철수(법학부) … 185
황적인(법학부) … 185
이홍재(법학대학원) … 185

사범대학

김신일(교육학과) … 186
임번장(체육교육과) … 188
차경수(사회교육과) … 191
박성익(교육학과) … 186
진교훈(윤리교육과) … 189
허승일(역사교육과) … 191

생활과학대학

이연숙(식품영양학과) … 192

수의과대학

신광순(수의학과) … 193
이영순(수의학과) … 194
이문한(수의학과) … 193
이홍식(수의학과) … 195

약학대학

고광호(약학과) … 196
김영중(약학과) … 196

음악대학

백병동(작곡과) … 198

의과대학

강순범(의학과) … 199
김주현(의학과) … 200
이부영(의학과) … 202
장윤석(의학과) … 203
지제근(의학과) … 205
김정룡(의학과) … 199
윤재일(의학과) … 201
이순형(의학과) … 203
정명희(의학과) … 204

치의학대학원

고재승(치의학과) … 207
김명국(치의학과) … 208
김영수(치의학과) … 209
양재호(치의학과) … 210

행정대학원

노화준(행정학과) … 211

환경대학원

김안제(환경계획학과) … 212

보건대학원

김정근(보건학과) … 214
백남원(환경보건학과) … 214

제4부 명예교수 현황

1. 명예교수 동정 …… 217
   1) 시상 …… 217
   2) 수상 …… 217
   3) 인사 …… 218
   4) 행사 …… 219
   5) 출판 …… 219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 220
3. 신규 명예교수 추대자 명단 …… 223
4. 전체 명예교수 명단 …… 225
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 235
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도로명 주소록 …… 236

제5부 소식 및 기타

1. 학교 소식 …… 245
   1) 2013년도 대학 운영계획 발표 …… 245
   2) 서울대학교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단행 …… 245
   3)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역사 자료 수집 …… 247
   4)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벨상 수상자 전임교수 임용… 247
   5) 서울대학교,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7위 …… 248
   6) 제2중앙도서관 신축 내년에 완공 예정 …… 249
   7) 부설학교 다시 서울대학교의 품으로 …… 251
   8) 동아시아 연구 중심대학 협의회 제18차 총회 개최 …… 251
   9) 서울대-북경대, 연석회의 정례화 …… 252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 253
   1) 경과 보고 …… 253
   2) 협의회 주요 사업 …… 257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 257
   4)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 257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 258
   6)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 260
3. 공지사항 …… 260
   1) 주소(도로명주소), 전화, 이메일 변경 통보 요망 …… 260
   2) 재능기부사업 안내 …… 261
   3) 애경사 연락 …… 261
   4) Email의 활용 …… 261
   5)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 261
   6)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 안내 …… 261
   7)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 262
4. 투고 안내 …… 263

회보 편집 일지 …… 267
편집후기 …… 269

1부 논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트렌드 분석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박 성 현

1. R&D 투자의 중요성과 경제성장

지구촌의 글로벌화(globalization)가 진전되면서 고급과학기술인력들의 활동범위가 넓어져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또한 최근 국제 경제 환경은 지식중심사회라고 일컬어지는 과학기술진보의 조류에 편승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제구조는 지식기반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 재구성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국내외적인 글로벌 변화에 대해 적절히 준비하는 것은 반드시 실행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에는 특히 과학기술 분야가 개인, 집단, 국가의 경쟁력을 주도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며, 국가의 경제발전의 과학기술 의존도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나라의 R&D에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R&D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한 보고서('우리나라 R&D의 경제성장 기여도', 2007)에서 1970년대에는 20.8%, 1990년대에는 36.1%이었으나 2000년대에 와서는 41.5%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과학기술 인력이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과학기술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야 하고, 다음으로 실력 있는 과학기술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2. 경제성장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트렌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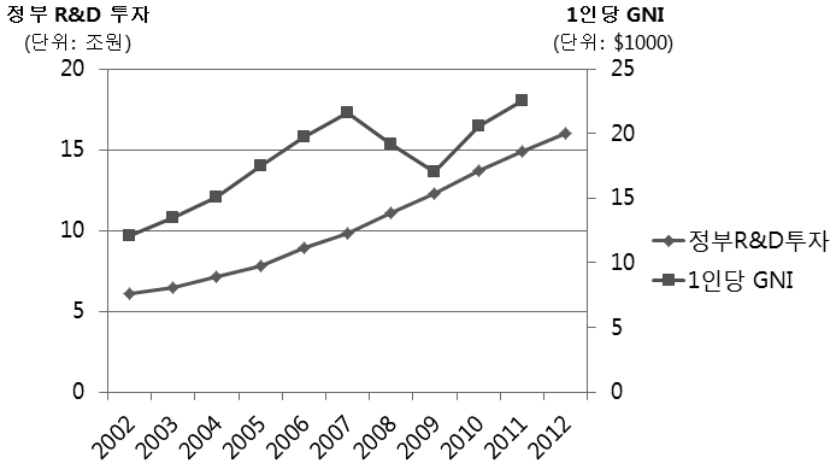
2.1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과 정부 R&D 투자

과학기술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기술 경쟁력은 R&D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지난 10년간의 정부 R&D 투자규모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살펴보면 〈표 1〉과 〈그림 1〉과 같다.

정부 R&D 투자금액을 살펴보면 2002년에 6조 1천억원에서 2012년에 1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10% 정도의 투자가 확대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폭제가 되어 왔다.

〈표 1〉 지난 10년간 1인당 GNI와 정부 R&D 투자 변화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인당 GNI (단위: 천불)	12.1	13.5	15.1	17.5	19.7	21.6	19.2	17.0	20.6	22.5	-
정부R&D 투자금액 (단위: 조원)	6.1	6.5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6.0



〈그림 1〉 지난 10년간 1인당 GNI와 정부 R&D 투자 변화 추이도

1인당 국민총소득을 보면 2007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로는 2만 불 선에서 후퇴하거나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2만 불의 굴레에서 벗어나 3, 4만 불 선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부 R&D 투자규모는 연 10% 정도의 계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필요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의식한 복지 약속이 봇물을 이루고 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 위주의 정부정책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성장전략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도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1.18%), 필란드(1.10%) 등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직도 선진국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국과위에서 발표한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R&D 예산 중에서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에 30.7%(개발연구 49.2%, 응용연구 20.1%)로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창조적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중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오늘날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초연구가 원천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 R&D 예산 중 기초연구에 더욱 과감히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2.2 2013년도 전망과 R&D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정부 R&D 예산규모는 5.3% 늘어난 16조 9,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정부 R&D 투자 확대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과거 10년간 매년 10% 정도의 투자확대에 비하면 내년도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이다. 민간부분의 R&D 투자도 경기전망 불투명 등으로 투자 확대가 의심스러운 형편이므로 내년도 정보와 민간 부분을 합친 국가 R&D 투자액 증가율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R&D 예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연구 투자는 주로 지식경제부의 R&D 예산에서 대기업 R&D 지원 금액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대기업은 스스로 R&D에 투자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기업 지원 몫은 줄이고, 이를 기초연구나 응용연구 부문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기초 · 원천기술에 대한 정부 투자는 주로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한다. 올해 재단의 연구비는 약 3조 2천억원 규모이며, 이 중 개인연구지원사업의 기초연구비는 8천억 규모이다. 지난 10년간 이 기초연구비도 계속 증가되어 왔으나 내년도에는 증가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공계 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비율은 30% 수준으로 아직도 10명 중 7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비도 증액하여 좀 더 많은 연구자가 지원을 받아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야야 할 것이다. 특히 신진연구자들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연구비 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비를 연구장비 및 시설 등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면, 연구장비 및 시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살아날 것이며,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구과제 지원금으로 연구인력이 고용되면 새로운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연구결과로 새로운 벤처기업이 태어나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6 · 25전쟁을 겪으면서 극심한 혼란과 빈곤에 허덕이던 60 ·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중흥정책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대덕연구단지 설립,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1970년에 국민 1인당 GDP가 단지 255불에 지나지 않았으나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여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결과 2007년에는 2만 불이 넘는 21,632불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 2만 불 근처에서 맴돌면서 확실한 성장 동력을 찾지 못

〈표 2〉 2011년도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단위: 억원, %, 건)

부처	금액	금액 비중	사업수	세부과제수
교육과학기술부	46,981	31.6	127	21,24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437	0.3	5	143
국무총리실	4,199	2.8	24	1,433
국방부	306	0.2	2	30
국토해양부	6,161	4.1	24	409
기상청	608	0.4	20	196
농림수산식품부	2,803	1.9	20	883
농촌진흥청	5,028	3.4	44	1,876
문화재청	329	0.2	6	100
문화체육관광부	622	0.4	6	122
방송통신위원회	2,098	1.4	14	248
방위사업청	20,008	13.5	6	498
보건복지부	3,370	2.3	28	1,197
산림청	798	0.5	3	269
소방방재청	182	0.1	4	52
식품의약품안전청	582	0.4	7	492
중소기업청	6,288	4.2	8	5,340
지식경제부	45,161	30.4	101	6,273
환경부	2,354	1.6	25	544
기타 부 · 청	213	0.1	19	270
합계	148,528	100.0	493	41,619

한 채 소위 '선진국 문턱의 덫'에 갇혀 있다. 이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추격형' 과학기술 패러다임에서 '창조형' 과학기술 패러다임으로 빨리 전환하여야 하고, 종래에 개발연구 중심의 정부 R&D 투자전략도 창조적 기초연구 중심의 전략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3.1 부처별 투자현황

2011년도에 집행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14조 8,528억원으로, 30개 정부 부 · 청의 493개 사업, 41,619개 과제에 사용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의 순으로 투자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 5개 부 · 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의 83.9%(12조 4,599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교육과학기술부는 31.6%, 지식경제부는 30.4%로 두 부처가 62.0%를 차지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주요주체로 나타났다. 〈표 2〉에서 위의 5개 부 · 청

〈표 3〉 2011년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단위: 억원, %)

부처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지식경제부	5,328	14.7	7,456	20.5	23,507	64.8	36,291	100.0
교육과학기술부	19,543	68.3	4,944	17.3	4,130	14.4	28,617	100.0
방위사업청	414	2.6	3,959	24.5	11,757	72.9	16,130	100.0
국토해양부	1,087	18.7	1,418	24.5	3,294	56.8	5,800	100.0
중소기업청	0	0.0	34	0.6	6,006	99.4	6,040	100.0
농촌진흥청	1,202	43.3	845	30.4	729	26.3	2,777	100.0
기타부 · 청	3,645	32.7	3,842	34.4	3,688	32.9	11,156	100.0
합계	31,220	29.2	22,499	21.1	53,091	49.7	106,811	100.0

다음으로 농촌진흥청,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투자액이 높으며, 이 표에서 기타 부 · 청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법제처, 여성부, 외교통산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12개 부 · 청이 포함된다.

3.2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부처별 연구개발 단계(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으며, 교육과학기술부(68.3%)는 기초연구, 중소기업청(99.4%), 방위사업청(72.9%), 지식경제부(64.8%), 국토해양부(56.8%)는 개발연구의 투자비중이 높다.

기초연구비 전체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62.6%의 비중을 차지하여 기초연구지원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개발연구에 있어서는 지식경제부 44.3%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는 방위사업청이 22.1%로 높은 비중을 나타낸다. 연구개발단계 측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초연구에, 지식경제부는 개발연구에 치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수행주체별로 주요 지원부처가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지식경제부 · 방위사업청 · 국토해양부는 출연(연),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농진청은 국공립연구소의 연구수행에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다.

우선 대학의 경우 〈표 4〉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비중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학연구비 총액 37,672억원 중에서 25,747억원으로 68.3%의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출연(연)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가 양대 주요 지원부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기업

〈표 4〉 2011년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단위: 억원, %)

부처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소 기업	정부 부처	기타	합계
교육과학 기술부	8 (0.0)	19,082 (40.6)	25,747 (54.8)	125 (0.3)	232 (0.5)	34 (0.1)	1,756 (3.7)	46,981 (100.0)
지식경제부	8 (0.0)	14,951 (33.1)	4,619 (10.2)	7,984 (17.7)	11,509 (25.5)	19 (0.0)	6,071 (13.4)	45,161 (100.0)
방위사업청	-	11,865 (59.3)	328 (1.6)	4,280 (21.4)	347 (1.7)	2,908 (14.5)	281 (1.4)	20,008 (100.0)
중소기업청	-	341 (5.4)	695 (11.1)	6 (0.1)	4,643 (73.8)	-	602 (9.6)	6,288 (100.0)
국토해양부	3 (0.0)	3,014 (48.9)	1,508 (24.5)	928 (15.1)	253 (4.1)	-	455 (7.4)	6,161 (100.0)
농촌진흥청	3,571 (71.0)	51 (1.0)	712 (14.2)	8 (0.2)	39 (0.8)	609 (12.1)	38 (0.8)	5,028 (100.0)
기타 부청	3,730 (19.7)	7,797 (41.3)	4,063 (21.5)	530 (2.8)	1,446 (7.7)	175 (0.9)	1,160 (6.1)	18,901 (100.0)
합계	7,319 (4.9)	57,099 (38.4)	37,672 (25.4)	13,861 (9.3)	18,469 (12.4)	3,744 (2.5)	10,363 (7.0)	148,528 (100.0)

의 경우는 지식경제부의 지원비중이 절대적이며, 대기업의 경우는 방위사업청과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의 경우는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의 지원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액 비중은 기계 1조 8,908억원(13.9%), 정보/통신 1조 5,411억원(11.3%), 전기/전자 1조 3,887억원(10.2%) 분야가 높게 나타나며, 수학 533억원(0.4%), 화학 2,742억원(2.0%), 물리학 2,967억원(2.2%) 등 순수 기초과학의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순수 기초과학인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이 합쳐서 12.3%의 투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20%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국제협동연구 현황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체분석 대상과제

〈표 5〉 2011년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현황(단위: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구분	금액	비중
수학	533	0.4	화공	3,158	2.3
물리학	2,967	2.2	전기/전자	13,887	10.2
화학	2,742	2.0	정보/통신	15,411	11.3
지구과학	3,752	2.8	에너지/자원	10,028	7.4
생명과학	6,712	4.9	원자력	5,986	4.4
농림수산식품	9,249	6.8	환경	4,262	3.1
보건의료	10,710	7.9	건설/교통	7,744	5.7
기계	18,980	13.9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4,463	3.3
재료	5,174	3.8	기타	10,423	7.7
합계				136,107	100.0

주: 기타는 과학기술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표 6〉 2011년도 부처별 국제협력 현황(단위, 건, %)

부처명	사업수	수행과제		협력건수		과제 1개당 협력건수 (B/A)
		건수(A)	비중	건수(B)	비중	
교육과학기술부	44	932	71.3	2,344	81.0	2.5
국토해양부	11	22	1.7	55	1.9	2.5
기상청	4	5	0.4	7	0.2	1.4
농림수산식품부	1	1	0.1	1	0.0	1.0
농촌진흥청	11	36	2.8	36	1.2	1.0
문화재청	1	4	0.3	6	0.2	1.5
방송통신위원회	4	19	1.5	27	0.9	1.4
방위사업청	2	19	1.5	19	0.7	1.0
보건복지부	2	2	0.2	2	0.1	1.0
산림청	1	2	0.2	2	0.1	1.0
소방방재청	1	1	0.1	1	0.0	1.0
중소기업청	1	35	2.7	35	1.2	1.0
지식경제부	19	201	15.4	331	11.4	1.6
환경부	3	29	2.2	29	1.0	1.0
합계	105	1,308	100.0	2,895	100.0	평균 2.2

(과학기술계열 및 국방 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계열 제외) 34,134개)의 3.8%인 1,308과제에서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6〉을 보면 이들 중에서 국제협력 건수는 2,895건으로, 교육과학기술부(2,344건)와 지식경제부(331건)가 합계 2,675건으로 전체의 92.4%를 차지하였다. 국제협동과제 1개당 협력건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2.5건으로 가장 높고 지식경제부(1.6건)가 그 뒤를 이었으며, 과제당 평균 2.2건수를 나타내었다.

종이의 위력과 재활용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신 동 소

1. 머리말

종이는 동서고금을 통해 항상 역사의 증인으로서뿐만 아니라 인류발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쓰는 종이는 옛날에는 정말 진귀한 물건이었으며 외경스러운 마음으로 쓰였다. 일상 헤프게 쓰이는 종이 한 장도 지구의 생명으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 위력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중한 물질 중, 물과 공기에 못지않게 종이는 귀중한 소재이다. 우리의 하루 일과도 종이로부터 시작하여 종이로써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한시라도 종이의 신세를 지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종이의 신세를 면하는 날엔 인생의 종언이라 하겠다. 종이야말로 생활의 기초이며 문화의 견인차요, 창조의 주역이다. 인류에게 있어서 큰 기여를 했던 발명품인 증기기관, 전기, 화약, 반도체 같은 것 가운데서도 종이는 인류의 사상 및 문화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21세기 첨단산업인 생명공학, 유전공학, 우주공학, 북극 남극탐험에 이르기까지 종이는 주요 소재가 되므로 그 위력이 날로 더해 가고 있다. 인류의 총아로 등장한 컴퓨터의 이기(利器)도 종이 없이는 한낱 절름발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종이 대신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여도 자료의 보존수명이 얼마나 될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종이의 수명은 한지(韓紙)의 경우 1000년 이상이나 보존되고 있으므로 천연종이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더해 가며, 21세기 첨단산업에도 종이의 기능은 더 발전되며 종이의 신세를 지지 않는 첨단과학은 있을 수 없다.

설사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하여도 종이는 지식의 보고이므로 종이가 담고 있는 자료만 있다면 복원이 가능하므로 종이의 위력은 간접적으로 표현한 웅변이라고 하겠다. 현대 산업에 일반 종이와 동종인 각종 판지, 즉 포장재는 물류의 기초가 되며 넓게는 인쇄 및 정보용으로도 필수불가결하며, 특히 정보용지는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매체가 되고 있다.

2. 종이의 유래, 국내제지 및 펄프공업의 발자취

1) 종이의 유래

종이는 필사재료로서 발명되었다. 그 이전엔 필사재료는 암석, 점토판, 뼈, 귀갑(龜甲), 포, 죽간, 가죽, 나무, 금속판 등이며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가 B.C. 2500년경부터 11세기 중엽까지 사용된 필사재료였다. 파피루스는 영어의 paper란 어원이 되었으며, 당시 이집트 정부가 전매하여 각 국은 입수가 매우 어려웠다. 근대 종이는 뽕나무, 나무껍질, 삼 등을 원료로 A.D. 105년 중국 후한(後漢) 화제(和帝)시대 채륜(蔡倫)이 발명한 것으로 공인되고 있다. 한지(韓紙)는 우리나라엔 A.D. 600년 고구려시대에 전수되었으며 중국의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소위 종이 문화의 대국이었다. 그리고 일본에 제지술을 전수한 것은 고구려 26대 영양왕 21년 A.D. 610년 고승 담징(曇徵)에 의해 전하였다. 한편 고구려 유민출신인 고선지(高仙芝) 장군이 중국 당나라 군사를 통솔하여 싸운 타라스 전투가 계기가 되어 제지술이 중앙아시아와 아랍제국에 전파되고, 그것이 다시 12세기 중엽 유럽에 알려졌으며 이를 계기로 서구문명의 발전을 앞당기게 되었다.

2) 국내 제지공업의 발자취

양지(洋紙)의 태동은 대한제국시대인 1902년 6월 16일 용산에 전환국(典圜局)에서 지폐용지를 생산한 것이 근대식 제지공장의 시초였다. 광복을 맞아 일본인이 본국으로 철수하여 북선제지 군산공장이 1943년에 운전을 그쳤다. 그 후 6 · 25전쟁으로 그 기반이 무너졌으나 내수산업으로 1950년대 후반에 백상지, 신문지 및 판지공장 등이 등장하였다. 1965년 관주도(官主導)에 의한 최신공정으로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급속히 성장하여 1990년 중반까지 신문지, 인쇄용지, 판지 등 주요 지종이 연 평균 9.9% 증가하였다. 국내 제지공업은 GDP 신장과, 컴퓨터, 사무 자동화 기기 보급과 편리성, 문화의 향상으로 종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문화의 바로미터로 면면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제 세계 7대 교역국에 달하는 경제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나 원료의 확보, 국제가격 대외경쟁력이 성장의 관건이 된다.

3) 국내 펄프공업의 발자취

펄프공업은 1912년 대한제지합자회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44년 고려제지가 설립되었으며 광복 후 1961년~1968년 남선제지(주)가 아마, 볏짚을 원료로 가성소다와 생석회로 증해

하였다. 태영펄프가 설립되었지만 채산성 악화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동해펄프(주)는 한국종합화학(주)이 투자하여 일산 450t(톤) 규모로 1980년 9월에 준공되었으며 그 후 민간 제지회사가 공동 인수하여 민영화되었다. 이 회사는 1994년 연속식 증해 공정으로 확장 증설되어, 현재 일산 1,100t에 이르며 무림제지(주)가 운영하고 있다.

3. 종이의 원료인 펄프의 종류

펄프공업은 종이, 인견 등 섬유소 기질로 된 원료이다. 한지는 닥나무 등의 껍질인 인피섬유를 원료로 만든 종이로 가볍고 유연하여 내구력이 뛰어나므로 필묵에 적합하다. 문방사우로 선비정신을 지녀 마치 살아있는 꽃에 비유되며, 팔만대장경과 같이 천년의 수명을 간직한다.

목재나 볏짚 등을 기계적 및 화학 약품으로 처리하여 섬유를 분리 또는 용해시켜 처리하여 만든 펄프를 기계펄프와 화학펄프로 구분하며, 양자를 모두 적용하여 만든 펄프를 반화학펄프라고 하며 모두 종이의 원료가 된다. 일반 종이는 문화용과 산업용에 절반씩 사용되며 두꺼운 판지(板紙: 0.3mm 이상 두께, 220g/㎡)는 주로 포장과 지기(紙器)에 쓰인다. 이 외에 약품으로 용해한 인조섬유와 섬유소유도체인 카복시메틸셀룰로즈(CMC), 질산섬유소도 있다. 종이 소재에 합성 고분자 물질을 써서 만든 합성섬유지도 애용된다.

종이의 원료인 목재 조각을 아황산과 황산염으로 처리하며 전자를 아황산펄프, 후자를 황산염펄프라 부르며, 후자의 공법이 산업용에 90% 이상 점하고 있다. 그리고 섬유에 부착된 착색물질인 리그닌을 표백처리하는 데 주로 이산화염소(ClO_2)를 표백 처리하여 백색도가 높은 표백펄프를 얻는다.

일반 지종 중 인쇄용지, 도공지, 필기용지를 비롯하여 정보용지, 기능지, 특수지는 고급펄프를 쓰는데 나무조각은 약품으로 처리하여 백옥과 같이 정제된 펄프로 사람이 만든 물건 중에서 꽃처럼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애용하고 애착을 가져야 한다.

4. 종이의 종류와 수요

1) 종이의 종류

종이는 원료, 두께, 제조법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그 용도도 가정용, 인쇄용, 문화, 정보, 문화매체, 산업용 및 포장용에 널리 쓰인다. 물성으로는 천연섬유의 종이가 석유자원으로부터 만든 비닐론, 나일론, 폴리에틸렌 소재로 된 합성수지시트와는 상호물성이 다르다. 전자는

자연계에서 스스로 정화기능을 지니고 있으나 후자는 정화기능이 없는 것이 대조적이다. 일반종이는 제조법에 따라 섬유 자체가 절연지가 되고 약품 첨가만으로 황산지가 된다. 종이의 기능은 쓰는 것(write), 감싸는 것(wrap), 재사용(reuse) 외 work, 즉 기능을 중시한 가공지, 특수지, 정보용지, 기능지 등으로 분류된다. 부연하면,

① 가공지는 특수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도공, 함침, 첩합, 증착(蒸着)을 실시한 종이.

② 특수지는 특수 용도에 적합하고 특수한 것으로 초지 또는 가공된 종이이며 예컨대 통계카드종이, 천공테이프 등 정보용의 종이.

③ 정보용지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되는 과정에 정보화 사회, 정보산업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이들에 쓰이는 기기용 종이로서 정보용지의 개념으로 정착된 종이.

④ 기능지는 가공지의 개념을 포함한 종이. 예컨대 방충지, 방취지, 감열기록지, 증착기록지(metalized paper), 자기기록지(magnetic recording paper), 노카본지(carbonless paper), POS(point of sale) 용지, 감열지(thermal paper), 광학적마크녹취용지(OMR, optical mark reader) 등이 있다.

가공지, 특수지, 정보용지 및 기능지는 명확한 구분보다 상호개념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2) 종이의 수요

일반 종이와 판지를 통칭 지류라고 하며 양자가 전체 지류 소비량의 대종을 차지하며, 일단 사용되었거나 오랫동안 보관된 지류를 고지펄프라고 한다. 2011년도 미국, 일본 등에 있어서 종이와 판지의 생산량 비율은 전체 55~58%, 판지 42~45% 점하였다. 같은 해 우리나라 지류 생산량을 1,148천t으로 종이 대 판지 비율이 49.3대 50.7%이다. 2010년 주요국가의 지류생산량에 있어서 중국이 92,599천t으로 1위이며, 미국 75,849천t에 2위, 일본 27,288천t으로 3위였다. 우리나라는 11,106천t으로 8위이다.

2010년 지류 소비량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지류생산량과 대등하며 우리나라는 지류생산량보다 약간 부족한 9,149천t으로 10위에 속한다. 1인당 지류소비량은 2010년 미국 240㎏, 일본 220㎏, 중국 68㎏, 우리나라는 187㎏로 세계 13위에 이른다. 지류소비량은 생활수준과 문화 향상에 따라 지류소비도 증가하였는데, 1960년 우리나라는 1인당 지류소비량이 32㎏, 1980년 40㎏, 1990년 100㎏, 2010년 187㎏으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1980년대 9~11%에서 2011년은 3% 대로 둔화되었다.

펄프 생산량은 2010년 중국이 22,042천t, 미국 49,243천t, 일본 9,393천t으로 미국이 1위를 점하며 우리나라는 511천t으로 28위에 머물러 항구적으로 원료 수입국에 속한다. 펄프사용량은 2011년 우리나라는 2,952천t으로 기계펄프 14.6%, 화학펄프 85.4%이며 자급률은 15%에 불과하다. 그간 증가율은 5.5%이며 고급지용 화학펄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므로 수입

절감대책이 요망된다. 특히 회수고지의 극대화와 재활용이 제지산업발전에 관건이다.

5. 판지와 포장

포장(包裝)은 인류와 함께 탄생한 생활의 지혜로서 발달해왔다. 앞으로 문명을 향유하고, 특히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포장은 제2 증산의 역할을 한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 앞으로 포장이 경제성장의 척도가 되며 산업발전의 바로미터이다. 현대 무역에 있어서 국제간 교역인 유통, 물류, 판매의 합리화에 판지포장이 핵심요소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자원절약, 자원감량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판지 포장은 매우 우수한 소재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러 기능을 갖는 재료가 출현되고 있는데, 판지 포장은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판매에 적합하며 금후에 더욱 큰 역할을 차지할 것이다.

포장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생활문화이며 현대 문명의 총아인 가전제품과 전자제품 포장에 중핵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 보호차원에서 역시 제2 증산 역할에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유제품(乳製品)이 시중에 쏟아지고 있는 핵심 요소는 판지 포장에 의해 6개월간 연장되고 식품포장에 혁신을 일으켰다.

금후 포장의 과제는 일상생활과 밀착함에 따라 과대포장, 과잉포장보다 적정포장이 중요하다. 그리고 포장의 신뢰성, 포장의 폐기물처리, 포장 폐기물 발생과 환경보전 대응, 자원의 절약과 에너지 절약 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어떤 포장재보다 판지포장이 으뜸이 될 것이다.

6. 지류는 재활용의 챔피언

포장재 중에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 포장재가 있으나 지류포장은 재료로써 많은 장점을 가진다. 신문지, 인쇄용지, 가정용 종이 등 문화용과 산업용에 절반씩 쓰인다. 후자는 내용물의 보호, 내충격, 진동방지, 차광, 방충, 가스차단, 단열 등 인체의 안전과 상품표시 디자인에 적합하다. 지류는 재활용이 용이하며 각종 제품의 낱포장, 곡물 시멘트, 과채류, 과실상자 등에 쓰이며 이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며 펄프 몰드에 의한 계란난좌, 단열재, 농업용 말찌, 가축축사의 깔개, 지관에 적합하다.

천연펄프로써 제품을 만든 다음에도 지류는 경제적, 에너지 및 친환경적으로 재활용이 우수한 챔피언이다. 지류는 물성상 화학펄프인 경우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거치는데, 강도가 뚜렷하게 떨어져 3회 정도 재사용 시 강도가 절반으로 약해진다. 반면, 기계펄프의 경우 초기 고유 강도가 낮은 탓으로 몇 번 되풀이해도 강도 변화가 크지 않은데, 신문지용 제조에 50% 정도 장섬유를 혼합하여 재생한다. 제품에 따라 다르나, 고지펄프는 7회 정도 재사용된다. 펄

프의 물성의 변화 외에 지류는 열, 습도, 빛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열, 특히 반복된 종이의 건조와 약품에 의한 변질, 종이 가공 시 외력에 의한 섬유의 변질, 첨가제의 부착 등 물리적, 화학적 변질로 강도저하를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일회용으로 버리는 신문, 복사지, 포장지는 결코 1회용이 아니며, 천연펄프로 만든 에너지 소비에 비해 종이 재활용이 매우 유리하므로 친환경 제품이 된다.

7. 종이의 운명과 고지 자원 및 고지의 경제성

1) 종이의 운명과 고지 자원

종이의 운명은 결코 1회용이 아니고 소중한 제지산업의 기초자재이며 우리 주변에 굴러다니는 외화이다. 고지 회수는 도시에 조림을 하는 격과 같으므로, 국토를 푸르게 하는 일석삼조이다. 고지는 펄프 대용이며 도시 쓰레기의 1/3이 고지이므로 쓰레기 전쟁을 완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만든다. 2011년 국내 고지사용에 있어서 국산고지가 86%인 8,827천t에 수입고지 14%인 1,425천t이다. 주로 산업용 원지에 쓰이며 고신문지(ONP) 21.6%, 고판지(OCC) 65.5%, 기타 12.9%에 충당되며 고지 회수율이 94.5%에 달하며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이다. 그 배경은 1995년 국가단위로는 세계에서 처음 폐기물종량제가 실시된 것과 관련 있다.

국내 제지산업은 수입고지 및 수입펄프에 의존하며 원료확보가 취약하다. 그러므로 수입고지 확보가 제지산업의 관건이다. 최근 각국은 고지 수출입에 첨예화하여 국제적인 상품으로 정착되었다. 우리의 고지수입국인 미국과 미국의 주수입국인 중국의 고지무역과 유통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점하나, 산림면적은 세계 산림 면적의 4%에 불과하므로 소요자원을 절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고지 무역량은 2006년 4,500만t 중 22%뿐인데, 78%가 자국에서 소비되었다. 2006년 세계 고지 이용률은 51%이며 2015년에는 58%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2005년 세계 고지 무역량의 40%를 점하였으며 2015년에는 60%를 예측하여 4,5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종이를 헤프게 쓰며 예사로 취급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고지를 경제자원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고지의 경제성

고지는 소중한 자원으로서 고지 회수와 재활용은 경제를 살리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작업이며 환경과 경제적 효과가 크다. 국내 고지를 1%만 회수해도 30억원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산림이 보전케 된다. 고지 1t을 회수하는 것은 펄프 소비 원목 20그루(직경

14cm, 높이 8m)에 상당하며, 에너지 측면에서도 연료, 물 등이 원목으로부터 펄프를 생산하는 것보다 1/3로 충당된다.

한편 고지를 t당 기준, 쌀값과 대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가치를 가진다. 고지 1t을 재생하면 850kg의 종이(일반 인쇄용지)를 생산하게 되며 쇄목펄프, 즉 신문지 펄프 제조에 원 단위로 유류(B/C) 약 170 ℓ /t, 물 50t/t, 전력 1,200kWh/t이 소요되는데 고지를 탈묵하여 펄프를 재생하면 그 에너지 원단위가 1/3로 감소되는 이득이 있다.

펄프산업을 용수형, 원료형 산업으로 에너지의 화신이라고 표현한다면, 고지 자원을 회수하여 재생하면 에너지 자원을 크게 완화하는 것이다.

8. 맺음말

종이는 진정 인류문화의 총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종이야 말로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귀중한 물질이다. 사람이 요람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종이의 신세를 지고 간다. 종이는 문화의 매체이며 창조의 주역으로서 산업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종이의 기능과 위력은 더할 것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이의 소중함을 모르고 헤프게 쓴다면, 이는 종이를 모독하는 것이며 종이는 결코 1회용 사치품이 아니다.

종이 한 장을 아끼는 것은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다. 친환경적 제지산업의 요체는 종이의 절약, 재활용과 고지 수집을 극대화하여 안정적 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지는 귀중한 외화이며 물과 에너지 절감, 환경 보호의 근간이므로 1석 3조의 귀중한 자원이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쓰는 종이류는 재활용의 챔피언이며 종이류의 재활용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창작과 전략
우리와 동시대 시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 용 직

1 이 작업은 시조의 본질을 되새기는 가운데 궁극적 노림수를 오늘 우리가 갖는 창작활동의 올바른 방향 설정에 둔다. 우리가 목표하는 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정도의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시조의 형태적 특징에 관한 것이며 그 다음에 문제되어야 할 것이 창작기법의 문제다. 한마디로 시조의 형태적 특성은 우리 고전시가 가운데서 정형성이 가장 강한 점에 있다. 다른 한국의 고전시가에 비해 언어 표현 솜씨 또한 두드러지게 세련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 시조 양식이다. 시조의 형태적 특징은 조윤제(趙潤濟) 박사의 「시조자수고(時調字數考)」 이후 우리 주변에서 거듭 검토, 파악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밝혀진 것이 이 유형에 속하는 작품들이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초장이 3 · 4 · 3 · 4, 중장 3 · 4 · 3 · 4, 종장 3 · 5 · 4 · 3 등의 자수율에 의거하고 있는 점이다(『韓國의 詩歌硏究』, 을유문화사, 1948).

시조의 또 다른 특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말의 결을 최대한 살려서 쓴 점이다. 널리 알려진대로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의 양이 매우 풍부하다. 우리말은 그 순열과 조합을 통해 다른 언어와는 대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맛을 낼 수가 있으며 그것으로 운율상의 기능을 살릴 수가 있다. 매우 다양한 음성상징의 효과를 내는 표현을 구사해 온 것도 시조가 지니고 있는 특징적 단면이다.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가 높이 평가한 정송강(鄭松江)의 작품에 훈민가(訓民歌)의 한 절이 있다. '죵긔밧귀는 얻기에 쉽거니와/ 어데가 또 얻을 것이라 흘긧할긧 하나다.' 여기서 '죵긔밧긔'란 종, 노비와 전답을 가리킨다. 그리고 '흘긧할긧'은 반목질시를 뜻한다. 그러면서 송강(松江)이 쓴 이들 말은 사전적 뜻만을 지닌 것이 아니라 관련 대상을 가시화가 이루어지도록 쓴 단면을 지녔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음성 상징의 효과를 살리려는 감각이 검출된다. 그 구체적 예가 되는 것이 〈죵긔밧긔〉와 〈흘긧할긧〉이다. 의성어, 의태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 것이 있다. 이때의 '아해', '어해'는 음운론의 시각에서 보면 모음이 하나씩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 어감에서 두 말은 아주 뚜렷하게 다른 느낌을 준다. 송강의 「훈민가」에는 이에 준하는 감각이 담겨 있는 셈이다.

우리 한국어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곡용과 활용어미가 매우 다양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말의 단순 종결 어미의 하나에는 '-다', '-이다'가 있다. 그 접속 형태는 '-이고', '-이며', '-이니', '-이어서', '-이어도', '-이라도', '-이려니', '-이여', '-이야'등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차

원에서 이들 말을 구별해서 쓰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다. 그러나 시조와 같은 시가의 경우에는 그 기능적인 사용이 말의 맛과 작품의 가락을 기능적으로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한다.

어져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다냐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타야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황진이의 이 작품에서 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그의 곁을 떠나간 정인(情人)을 못 잊어 하는 연모의 정이다. 작중 화자는 그리운 님을 떠나보낸 다음 그를 절절한 마음으로 그리워한다. 거기서 빚어진 사모의 정이 이 작품의 기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 황진이는 그런 정을 시조로 읊어내기 위해 먼저 〈어져〉라는 감탄사를 썼다. 〈-이야〉, 〈모르다냐〉와 같은 곡용어미를 사용한 점도 주목된다. 그것으로 그의 정인을 그리는 정이 휘돌아 감기는 가락을 얻어 물살처럼 퍼지는 가운데 회돌아 감기는 느낌을 얻게 된 것이다.

2 오늘 우리 주변의 시조가 갖는 위상을 기능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전개를 크게 두 단계로 구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제1단계가 고전문학기의 시조이며 제2단계가 현대문학기, 또는 우리와 동시대에 형성, 전개가 이루어진 시조다. 우리 문학사에서 고전문학기의 시조는 거의 자연 발생적 상태에서 제작, 발표되어 19세기 말까지에 이르렀다. 개항기, 또는 개화기라고 통칭되는 시기에 이르자 우리 문학과 문화사의 환경,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이때부터 우리 주변에는 근대 서구(西歐)와 아서구화(亞西歐化)한 일본문화의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 그 결과 그 무렵까지 우리 주변을 지배해 온 시와 산문의 문체, 문장, 양식 해석에 일대 지각변동 현상이 일어났다.

서구적 충격과 함께 우리 문학 가운데 고전문학기의 대표 양식인 가사와 한문을 토대로 한 절구(絕句), 율시(律詩) 등은 구시대의 유물로 낙인 찍혀 전면적으로 외면당하는 양식이 되었다. 춘향전과 심청전, 구운몽, 사씨남정기로 대표된 고전소설 또한 비슷한 대접을 받았다. 그들 역시 새시대의 문화 상황에 부응할 수 없는 양식으로 규정되어 내당이나 복노방의 차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유독 시조만이 이런 여건 속에서 예외적 존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 중반기에 이르자 우리 문단 일각에서 시조를 시대의 요구에 부응시키기 위한 변혁 시도로 곧 시조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시조양식에 일대 혁신운동을 가한 것은 국민문학파(國民文學派)였다. 이 유파는 본래 계급지향 문학집단인 카프(KAPF)에 대한 대타의식(對他意識)과 함께 출발하였다. 그 중요 구성원으로는 육당 최남선(六堂 崔南善), 이광수(李光洙), 김동인(金東仁), 현진건(玄鎭健), 정인보(鄭寅普), 염상섭(廉想涉), 박종화(朴鍾和), 무애 양주동(无涯

梁柱東), 가람 이병기(嘉藍 李秉岐), 노산 이은상(鷺山 李殷相), 조운(曺雲), 문일평(文一平), 윤백남(尹白南), 김영진(金永鎭), 김성근(金聲根)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KAPF의 계급지상주의에 맞서 국적 있는 문학, 곧 민족에 뿌리를 내린 시와 소설을 쓰기를 지향하고 그 실천을 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운동은 하나의 구호를 앞세운 형태로 시도되었다. 〈새 술은 새 푸대에〉가 그것이었다. 그들이 KAPF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형성된 것은 거듭 지적을 거친 바와 같다. 그런 국민문학파가 특정 양식인 시조부흥운동을 시도한 것에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KAPF가 일제의 압제와 착취에 의해 노예상태로 전락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인식한 가운데 그 타파를 지향한 입장에는 명백히 일면의 진실이 있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그들은 문학활동의 대전제인 민족과 그 절대 요건인 모국어, 문화 전통에 대한 의의를 뒷전으로 돌렸다. 문학활동에서 언제나 변할 수 없는 진실은 작가가 쓰는 작품이다. 작품은 표현매체를 통해서 제작된다.

우리 시인, 작가에게 유일, 최대의 표현매체는 우리말과 글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아울러 작가는 완전히 단독자로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가 쓰는 시와 소설은 반드시 관습, 전통에 의거한다. 이것은 시와 소설의 절대적 전제 가운데 하나가 문장, 문체의 문제인 동시에 양식의 선택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뜻한다. KAPF의 계급 지상주의는 문학활동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이들 사실에 맹목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국민문학파는 KAPF가 갖는 이들 논리적 결극을 지양하려는 의식을 가지는 가운데 시도되었다.

> 시조는 조선인의 손으로 인류의 韻律界에 제출된 一詩形이다. 조선의 풍토와 조선인의 性情이 音調를 빌어 그 渦動의 一形相을 구현한 것이다. 音波 위에 던진 朝鮮我의 그림자이다. 어떻게 자기 그대로 가락 있는 말로 그려낼까 하여 조선인의 오랫동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서 이때까지 막다른 골이다.
>
> - 최남선,「조선국민문학으로서의 시조」

얼핏 보아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글은 시조가 우리 민족문학, 특히 그 시가양식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육당 나름의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이 글에는 시조에 민족의식, 민족적 자아가 꿈틀댄다는 인식의 자취가 뚜렷한 선으로 나타난다. 국민문학파가 이런 인식과 함께 시조에 접근했을 때 그와 함께 고개를 쳐든 강한 의문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평가되든 시조는 지난 날의 문학양식이었고 고전문학의 갈래에 드는 시가의 한 갈래였다. 새삼스레 밝힐 것도 없이 문학과 예술은 그 생명을 창조적 차원 구축을 통해 얻어 내어야 한다. 창조적 차원 구축에서 최량의 방법은 작품에 새로운 세계를 담아내는 데 있다. 그렇다면 고전문학기 양식인 시조의 틀이 과연 국민문학파의 단계에서도 그대로 묵수되어 쓰일 수 있는 것

인가. 국민문학파는 이렇게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단연 새로운 차원 구축의 의지를 불태우는 입장을 취했다. 그들의 행동 강령격으로 〈새 술은 새 푸대에〉가 내걸린 것은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결과였다.

3 국민문학파의 시조 부흥운동에서 단연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것이 가람 이병기다. 1920년대 후반기에 그는 〈새 술은 새 푸대에〉의 실천 형태에 해당되는 글로 「시조는 혁신하자」를 썼다. 이 글은 국민문학파가 제출한 거의 유일한 본격 시조창작론이었다. 이 글을 보면 새 시대의 한국시로서 시조가 살아남을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한 가람 나름의 자취가 뚜렷한 선으로 드러난다. 이 글에서 가람은 시조부흥운동이 헛된 수사를 벗어나 사실에 입각하고 실감(實感)을 노래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 실행 방법으로 가람은 〈투식화(套式化)〉된 말과 구태의연한 생각을 배제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가 생각한 〈套式〉이란 고전시조에 흔히 나타난 틀에 박힌 말과 진부한 생각들을 가리킨다. 그 지양, 극복책으로 가람은 취재(取材)의 범위를 확장하여 신선한 느낌을 주는 표현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우리 조선 말에도 時調의 套語로 된 것이 있으니, 이를테면 '아희야'라든지, '아마도'라든지, '어즈버'라든지, '어찌타'라든지는 시조의 종장 첫 句에 전용어처럼 쓰이는 것이며, 또는 어느 句 끝에 흔히 쓰이는 '-고야'라든지, '-는구나'라든지 '-하노라'라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에는 그대로 써도 좋은 말도 있지마는, 편지 문안처럼 번번이 너무도 쓰는지라, 자연 이것에 대하여 권태도 염증도 날 것이다. 어떠한 名詩, 名句라도 항상 듣고 보면 도리어 싫은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 다음에 가람은 새 시조가 "기차, 전등" 따위의 말은 물론 "보이, 버스, 포플라" 등 외래어까지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상당히 현대적인 어휘수용론을 통해서 시조를 현대시와 다름없는 말로 이루어지기를 기한 생각의 결과가 되는 셈이다.

가람은 이에 이어 시조가 노래하는 세계의 사실화 내지 현장 체험화를 전제로 한 연작 시조론을 폈다. 여기서도 시조의 현대화를 기한 가람의 독창적 생각이 번뜩인다. 그는 그의 지론 가운데 하나인 연작시조를 정의해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한 수 이상으로 몇 수까지든지를 지어 한 편으로 하는데, 한 제목에 대하여 그 시간이나 위치는 같든 다르든 다만 그 감정의 통일만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말하자면 독립된 각 수를 단위로 하면서 정서의 유기성 내지 일체감이 빚어진 시조를 연작시조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어 가람 이병기는 시조의 혁신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 전략을 피력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고전문학기 시조가 갖는 관념성과 도덕적 단면을 지양, 극복하고자 한 점이다. 그는 그에 대치하여 시조에서 서경성을 강조하고 그 실현 전략으로 사경(寫景)이 이루어지는 말을 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의 좋은 보기가 되는 것이 그의 작품

「봄」이다.

봄날 宮闕 안은 고요도 고요하다
御苑 넓은 언덕 버들은 푸르르고
素服한 宮人은 홀로 하염없이 거닐어라

석은 고목 아래 殿閣은 비어 있고
파란 못물 우에 비오리 한 雌雄이
온종일 서로 따르며 한가로히 떠돈다

-「봄 2」, 전문

가람 단계에서 민족문학파의 시인 작가들이 공통으로 가진 작품 경향의 하나가 즐겨서 민족과 국토 산하를 제재로 택한 점이다. 제재 면에서 이 작품도 그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았다. 다만 그런 제재를 문맥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람은 같은 무렵의 작가인 육당이나 춘원과 그 입장을 근본적으로 달리했다. 한때는 왕이 거처하던 어원(御苑) 뜰에서 그가 읊조리고 있는 것은 나라와 겨레에 대한 회고투의 감정이 아니다. 그는 그가 품은 생각을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되는 버들 빛이라든가 궁인(宮人)들의 옷, 또는 파란 못물 위에 뜬 비오리에 기탁해서 제시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관념이나 감정의 직접적인 토로가 아니다. 그것으로 시인의 감정은 소재상태에 그치지 않는다. 그에 대신하여 고원(古苑)의 정경이 그림처럼 나타날 뿐이다. 이것은 가람이 그의 시조를 통하여 정감의 감각화 내지 심상화를 시도한 것임을 뜻한다. 결국 KAPF에 대한 대타의식으로 출발한 국민문학파가 조선주의에 매달리는 것은 계급주의 이념을 또다른 이념 형태로 이전시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 차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념 우선주의를 넘어선 제3의 차원 구축이 필요했다. 그것이 관념 내지 이념의 정서화임은 달리 군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사상, 관념의 구체화 또는 감각화로만 가능했다. 가람은 이와 같이 손쉽지 않은 일을 최초로 이루어낸 국민문학파의 일원이었다.

노산 이은상은 가람 이병기와 함께 국민문학파의 시조부흥 운동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을 이룬 시인이다. 본격적으로 시조를 쓰기 전 그는 자유시를 습작했다고 한다. 무애 양주동의 회고에 따르면 그 솜씨는 별로 볼만한 것이 없었다(양주동, 『문주반생기(文酒半生記)』). 친구들에게 몇 번 핀잔을 맞고 한때 그는 전공인 사학(史學)에 전념할 듯 보였다. 그러나 타고난 문인 기질은 어이할 길이 없었던 듯 그는 그 후 자유시 쓰기에서 방향을 바꾸어 시조 쓰기에 매달렸다.

노산의 시조가 본격화된 것은 1930년대 초부터로 파악된다. 이 무렵에 이르자 『신민(新民)』, 『조선문단(朝鮮文壇)』, 『동광(東光)』 등을 통해서 그는 잇달아 창작시조를 발표했다. 이 무렵에 그가 쓴 대표작의 하나가 금강산을 제재로 한 노래다.

金剛이 무엇이뇨 그리운 님이로다
만날제 눈물이러니 떠날제도 눈물일러라
萬二千 눈물에 어리어 뵌동만동 하여라

金剛이 어떻드뇨 돌이요 물이로다
돌이요 물일러니 안개요 구름일러라
안개요 구름이어니 있고 없고 하더라

金剛이 어드메뇨 東海의 가이로다
갈제는 거길러니 올제는 胸中에 있네
囉囉囉 이대로 지켜 함께 늙자 하노라

노산의 이 작품은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국민문학파의 시조운동에 한 전기를 만들어 내었다. 두루 알려진 것처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다. 형식 논리로 보면 그런 산이 있고 없다는 것은 헛소리다. 그것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노산은 그가 본 금강을 돌과 물이라고 표현했다.

돌로 된 산을 헤집고 흐르는 물은 때에 따라 안개로 피어나고 구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름과 안개는 기체이므로 무시로 변화하여 골짜기를 휘덮게 되고 봉우리에 오른다. 그 단계에서 그것들은 기체가 되어 허공 중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노산은 그다운 말솜씨로 〈있고 없고 하더라〉라고 썼다. 이것으로 이 시조는 감각적 실체들을 눈앞에 그렸다가 사라지게 하는 묘기를 보여 주었다. 자연의 일부인 산과 물이 그것으로 새롭게 해석, 창조된 것이다.

다음 주목되어야 할 것이 노산 시조에 나타나는 음성구조다. 형태상으로 3장 6구의 정형을 지킨 점에서 노산의 시조와 그 이전의 작품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두 유형의 작품을 같은 자리에서 읊조려 보는 경우 이 작품은 앞의 것과 그 느낌이 크게 다르다. 첫 수에서 마지막 수까지 노산의 시조는 모든 행의 어미를 모음 〈-아〉로 끝내고 있다(예외가 있다면 셋째 수 둘째 줄에 〈-네〉가 쓰인 정도다). 뿐만 아니라 노산의 시조에는 두드러지게 〈-러니〉, 〈-러라〉, 〈-로다〉, 〈-노라〉 등과 같이 유음을 이용한 형태부 사용의 자취가 되풀이로 나타난다. 이런 말솜씨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가운데 휘늘어지면서 감돌아 휘감기는 가락을 느끼도록 만든다.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질 결론의 하나가 손쉽게 드러난다. 먼저 창작시조는 여느 자유시와 다를 바가 없이 언어의 감각적 사용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그와 함께 그 나름의 음성구조에 대한 솜씨도 구사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와 동시대 창작시조 제작의 요체다. 노산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시조 시단에 최초로 그런 요건을 갖춘 시조를 등록시킨 것이다. 우리가 노산을 국민문학파의 시조 시인 가운데 가람과 함께 손꼽아야 할 새 차원의 개척자로 보아야 할 까닭이 여기에 있다.

4 위에서 우리는 국민문학파 단계의 시조 창작 활동이 그 전단계의 것과 뚜렷이 다른 변별적 특징을 가졌음을 확인했다. 그 하나가 작품에 회화성을 도입한 것이며 다른 하나가 음성구조를 중심으로 한 형태적 개혁을 시도한 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의 창작 여건은 국민문학파의 시대와 뚜렷이 다르다. 한마디로 우리 시대의 상황은 일찍이 그 예를 찾아볼 길이 없을 정도로 큰 문화적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경우다. 이 변혁기에 시조가 어엿하게 현대예술의 주류적 자리를 차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것이 좁은 의미의 시조만에 국한되지 않는 우리 나름의 형태해석이며 새 기법의 수용, 또는 개발이다.

이제 우리는 필요로 하는 창작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정도의 안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첫째 안건이 시조의 의미구조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현대시의 한 특징은 모순충돌하는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독특한 의미구조를 이루어 내는 데 있다. 우리는 그것을 병치적 기법(juxtaposition)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기상(奇想)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이에 속하는 가장 손쉬운 보기로는 에즈라 파운드의 〈지하철 정거장에서〉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첫 줄 주제어가 되어 있는 것은 '환영(apparition)'이다. 그리고 둘째 줄의 그것은 '꽃잎들(petals)'이다. 이들 두 말은 그 다음에 수식어 절을 거느리고 있을 뿐, 첫 줄과 둘째 줄의 주제어 사이에는 그 밖의 어떤 관계 설정의 장치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탈바가지 또는 '환영'과 '꽃잎들'은 전혀 그 의미내용에 유사성이 없고 매우 이질적이다. 그것을 병치시키기만 한 것으로 비유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대시론이다. 의미구조를 위해 현대시는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이질적 요소를 폭력적으로 문맥화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런 경우의 우리에게 보기가 되는 것들이 김춘수(金春洙)와 서정주(徐廷柱)의 작품이다.

>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당신은
> 늙은 悲哀다
> 푸줏간에 걸린 커다란 살점이다
> 詩人 릴케가 만난
> 슬라브 女子의 마음속에 갈앉은
> 놋쇠 항아리다
>
> - 김춘수, 「나의 하나님」 전반부

이 작품에서 비유의 주지가 된 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신의 궁극적 형태이며 지고(至高), 지상(至上)의 경지를 가정한 절대의 차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다분히 관념적인 것이어서 물질적 차원이나 감각적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김춘수는 그것을 〈푸줏간에 걸린 살점〉, 〈슬라브 여자의 마음속에 갈앉은 놋쇠 항아리〉 등 감각적 차원의 물체로 전이시켰다. 이것으로 이 시의 하나님은 매우 육감적 심상을 지니게 되며 작품의 창조성이 큰 팽창계수를 갖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현대시의 기법이 1:1의 상태에서 시조가 될 수는 없다. 시조에서 이런 모양의 실험적 언어사용은 창작의 실제에서 일단 재해석되어 조직, 편성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본래 시조는 그 속성상 현대성만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시가 아니다. 그것은 아무리 테두리를 넓게 잡아도 우리 민족의 정조를 그 자체에 함축시켜야 하는 전통적 양식이다. 여기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 현대시의 기법을 수용할 때 시조가 가져야 할 전략이다.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 보기 위해 우리는 서정주의 한 작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역사여 역사여 한국 역사여,
흙 속에 파묻힌 李朝白磁 빛깔의
새벽 두 시 흙 속의 李朝白磁 빛깔의
역사여 역사여 한국 역사여

새벽 비가 개이어 아침 해가 뜨거든
가야금 소리로 걸어 나와서
春香이 걸음으로 걸어 나와서
全羅道 石榴꽃이라도 한번 돼 봐라.

시집을 가든지, 안 上客을 가든지,
해 뜨건 꽃가마나 한번 타 봐라.
내 이제는 차라리 네 婚行 길을 뒤따르는
한 마리 나무 기러기나 되려 하노니.

역사여 역사여 한국 역사여,
외씨버선 신고
다홍치마 입고 나와서
울타리 가 石榴꽃이라도 한번 돼 봐라.

- 서정주,「역사여 한국역사여」

이질적 요소들의 문맥화를 통해 심상을 제시한 점에서 이 작품과 김춘수의 것 사이에는 거의 격차가 없다. 하느님의 사랑이 그랬듯 한국의 역사 역시, 관념적인 것이지 감각적 실체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서정주는 첫 연에서 〈새벽 두 시 흙 속의 이조백자 빛깔〉과 일체화시켰다. 다음 연에서 서정주의 작품에 나타나는 비유의 주지와 매체의 관계 설정은 더욱 비약적이다. 일찍 우리 시인 가운데 그 누구도 한국민족의 역사를 한반도의 특정지역에 핀 석류꽃으로 전이시킨 예는 없었다. 그 석류꽃이 시인의 교묘한 말솜씨에 의해 한국 전통사회 여성의 한 전형이 되는 성춘향의 모습과 일체화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감각적 실체가 아니므로 볼 수 없고 만질 길도 없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송두리째 아름답고 선연한 색조까지를 지

닌 한국 여성의 모습으로 탈바꿈이 되었다. 그와 아울러 김춘수의 경우보다 이 작품의 정조는 적지 않게 전통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도의 잠정적 결론을 가질 수 있다. 서정주의 시는 김춘수의 것보다 정서, 또는 감정의 상태로 보아 시조 쪽에 한발 다가 서 있는 작품이다. 우리가 시도하는 시조의 혁신을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감안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서 현대화 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이 시조의 새 차원구축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시조의 현대화를 위해 또 하나 검토되어야 할 것이 연형체(連形体)의 문제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형성 초기에서 조선왕조 전반기에 이르기까지 시조는 대체로 3장 6구 단형의 시가를 뜻했다. 고려 말기의 이조년(李兆年), 원천석(元天錫), 이색(李穡), 정몽주(鄭夢周), 길재(吉再) 등의 작품이 모두 그런 것이다. 이런 단형시조는 그 장점과 함께 한계를 아울러 가진다. 단형시가로서의 단시조는 시의 이상인 긴축성, 집약미를 최대한 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축약적 성격으로 하여 단형시조는 인생과 세계의 의미나 의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시로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양식으로 형성된 것이 연시조다. 흔히 이야기되는 대로 이 유형의 시조로 초기에 나타난 것은 퇴계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이며, 율곡의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이다. 정철(鄭澈)의 「훈민가(訓民歌)」나 윤선도(尹善道)의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오우가(五友歌)」 역시 그런 예들에 속한다.

이들 고전문학기의 연형체 시조에는 그 나름의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구축한 정신세계를 항목별로 노래한 것이다. 율곡의 「고산구곡가」도 그와 비슷한 작품이다. 이들 작품은 큰 제목 아래 몇 개의 작은 제목들이 서로 독립된 단위를 이루면서 자리잡고 있다. 거기에는 부분과 부분이 생동감을 가진 가운데 전체가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면서 상승작용을 하는 구조적 탄력감이 충분할 정도로 확보되지 못했다. 시조가 현대문학의 양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연립주택식 형태, 시멘트 블록으로 이루어진 방과 같은 비구조적 속성이 지양,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 가능성의 하나를 다음과 같은 현대시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월도 강물따라 七百里를 흐르다가
마지막 바다 가까운 河口에선 지쳤던가
乙叔島 갈대밭 베고 질펀히도 누웠데.

그래서 목로주점엔 한낮에도 등을 달고
흔들리는 흰술 한잔을 落日 앞에 받아 놓면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 와 떨어지데.
白髮이 갈대처럼 서걱이는 노사공도
강물만이 강이 아니라 하루 해도 강이라며

金海ㅅ벌 막막히 저무는 또하나의 강을 보데.

- 정완영,「을숙도」 전문

이 작품의 제목이 된 을숙도는 물리적인 차원으로 치면 낙동강이 바다와 맞닿은 곳에 생긴 한 자연공간일 뿐이다. 그런 소재를 3연 18행의 연시조로 읊은 것이 이 작품이다. 첫머리에서 시인은 을숙도를 자연 공간에 그치지 않는 인간 생활의 한 무대로 탈바꿈시켰다.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낙동강은 다분히 신화, 전설에 나오는 거인의 심상을 갖도록 의인화되어 있다. '갈대밭 베고 질펀히도 누었데'로 의인화된 을숙도는 자연공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낙동강은 신화, 전설에 나옴직한 거인의 심상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둘째 수에서 이 작품에는 비로소 우리 시대와 호흡을 같이 하는 인간이 나타난다. 여기서 화자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 국토 어디에나 있는 목로주점의 손님이다. 그는 붉게 타오르는 석양 앞에 탁주에 지나지 않는 '흰술 한잔'을 받아들었다. 그것이 다시 '갈매기 울음소리가 술잔에 와 떨어지데'와 일체화된 것이 이 부분이다.

이것으로 화자를 에워싼 자연은 빛깔과 소리를 아울러 지닌 공감각의 차원에 이른다. 그와 아울러 을숙도의 석조가 선명무비한 동영상의 한 장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셋째 수에는 을숙도 지역에 사는 주민이 등장한다. 여기서 그는 오랫동안 세상을 살면서 강물과 같은 시간 속에서 그 나름의 삶을 엮어낸 사람이다. 이것으로 자연 자체인 강과 을숙도라는 자연공간이 일상적인 삶을 엮은 인간과 일체화된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바로 저녁 노을 속의 벌판, 곧 '김해ㅅ벌'이 또 하나의 강이 된 비밀의 열쇠가 놓여 있다. 이것으로 이 시는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에 밀착되는 생활의 노래를 이룬다. 그를 통해 이 작품은 서경(敍景)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역사, 현실을 포함시킨 생활의 시가 되었으며 나아가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상생활이 원색적인 동영상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을숙도」의 구조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백하다. 이 작품의 각 연은 매우 인상적이며 동시에 독자적이다. 그러나 그 독자성은 전체 작품을 떠나서 고립되는 심상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각 부분이 전체에 수용되면서 유기체적 구조가 되어 있다. 특히 2연 첫수의 '그래서'와 같은 접속사 사용은 매우 독특한 기법이다. 그것으로 시조만의 몫인 연속적 어조, 또는 휘늘어진 가락이 빚어지도록 첫째 수와 둘째 수가 연결고리를 갖게 되고 의미 맥락상의 접착성도 확보되었다. 그와 아울러 이 작품의 뼈대를 이룬 음성구조가 독특한 의미구조와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총체적 효과를 얻어 내기에 성공하고 있다. 오늘 우리 주변의 시조에는 이에 비견될만한 작품이 다수 있다. 이런 고무적 상황을 확충, 개발해 나가면서 한국 국민시가 양식인 시조의 푸른 서부를 개척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담당할 가장 보람 있는 과제일 것이다.

사회변화를 위한 민주도 실천 연구방법, 참여연구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정 지 웅

1. 머리말

참여란 말이 정치나 사회에서 유행처럼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참여연구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정부의 농림행정에서 참여행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노무현정부를 참여정부라 일컫기도 한다. 그에 앞서 참여연대를 주도한 박원순이 2011년 서울시장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참여"란 용어는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종북 세력이란 의혹을 받으면서 참여가 진정 민주적 방법의 전제일까 하는 회의도 있다.

김대중정부시에 민간주도 새마을운동을 지휘하던 강문규회장(전 YMCA 총무)의 초청으로 한국을 다녀간 세계참여연구보급운동 아시아지역 총책이었던 인도학자 탄돈(Rajesh Tandon)이 한국을 떠나면서 그로부터 참여연구에 대한 아시아지역 첫 모임에서 만난 인연으로 인하여 김포공항에서 잠시 배웅회합을 가졌을 때, 한반도의 당면과제인 남북통일을 참여연구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는 없겠는지를 암시해 준 바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체제에서는 누구도 그것을 이룰 수 없다고 보아 이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야 이 글을 통해 이 연구방법에 대한 배경과 현실을 음미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구는 실제행동인지 과학적 방법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방법이 정립, 제안된 지 얼마 안 되어 1980년대부터는 사회과학은 물론 일부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도 세계를 풍미하는 연구방법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미국 노스다코타 주 바켄(Bakken)의 새 유전지역에서 참여 실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스다코타 주립대학교 사회/인류학과 교수 고어햄(Gary Goreham) 박사가 이 연구방법으로 그 지역을 살기 좋게 만들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자 한국에 다녀갔으며 그의 연구사업을 서울대 농생대(대학원 농산업교육전공), 공주대(대학원 교육학과),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에서 발표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방법이 어떤 방법이기에 전 세계의 학계와 실제에서 큰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2. 참여연구의 대두와 확산

참여연구법(participatory research method)은 Convergence란 정기학술지를 발간하는 국제성인교육협회(ICAE: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ucation)가 1978에 정립, 제창한 새로운 연구방법이다. 그 때까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론연구와 조사연구가 과학적 방법으로 소개되어 왔지만 이들은 실제로 사회변화보다는 이론만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경우로 낭비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연구에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이론도 실증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실제 변화도 가져오도록 만드는 실질적 참여연구를 제안한다는 것이었다.

1838년 꽁트(A. Comte)에 의하여 인간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고 사회(과)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조사와 계량적 접근을 많이 적용하였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에 도전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문화인류학계서의 주된 방법으로 참여자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과 주요인사 회동(meeting with key informants) 등이 특히 미개사회의 실상을 밝히는 연구방법으로 부각되었었다. 이 두 접근 방법들은 서로의 방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대의 방법에서 보완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도 꾸준한 발전을 꾀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들 방법이 인간이 사는 실제 생활이나 사회 현실을 변화시키는 데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론이나 따지는 탁상공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하여 반성을 하기도 한 것이다. 특히 질적 연구는 종래의 조사중심의 계량적 연구의 제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참여를 간과함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도전하여 대두된 실용적 연구방법으로 출현한 대표적인 것이 실천연구(action research)와 참여연구였다.

실천연구는 1940년대로부터 연구가 실제적인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실천(action)과 현장에의 응용을 강조하는 응용연구로서 한국 교육현장에서는 현장연구란 용어로 유행이 되어 왔다. 1940년 Tavistock연구소에서 처음 action이란 용어를 쓰고 1949년 이 연구소의 연구원 쿨러(Curler)의 연구논문이 나왔고, 이 연구방법을 본격 활용한 학자는 위상심리학자 레빈(Kurt Lewin)과 동료들이었고, 사회개발분야에서는 1965년 와이트(Whyte)와 해밀톤(Hamilton)이 Tavistock 연구소의 연구내용과의 연구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분석 연구한 것이 있었다. 이와 맥을 같이하여 교육학에서는 현장연구란 말로 교육현장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현장연구나 실천연구들은 자연과학의 실험실 연구와 같이 실험대상을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비인간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인간을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인간집단의 특성과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입장과 시각을 최대한 반영시킨 민주적 접근에 의한 사회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에서 질적 접근의 중시, 실제적 변화, 연구대상자의 연구에의 주체적 참여란 세 이념을 가지고 국제성인교육협회(ICAE)가 1978년에 공식적으로 정리하여 발표한

새로운 연구방법이 곧 참여연구였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란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캐나다 토론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AE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홀(Budd L. Hall)이 ICAE 정기학술지인 Convergence의 8권 2호(1975)에 "참여연구법: 변화를 위한 한 가지 접근방법"이란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뒤 이어 많은 학자들이 큰 호응을 보였고 성원을 하였다. 1976년에는 하나의 실제적인 참여연구로 스웨덴의 인류학자 스완츠(M.L. Swantz)가 탄자니아에서 주민들을 연구의 주체자로 참여시키고 단계별 연구과업을 그들과 합의하며 그들의 시각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시한 후 평가도 함께 한 후 그 과정에서 발견된 학습사항을 새로운 이론과 지식으로 제시한 사례를 학술지 Convergence에 다른 관련 논문들과 함께 발표되면서 그 방법론을 보완하였었다. 이어 1977년 9월에는 참여연구에 관한 유럽회의가 열려 많은 국제기관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켜 좋은 호응을 받았고 그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참여연구란 용어를 새로운 학술용어로 정리하기에 이른 것이다.

1978년에 ICAE가 공식적으로 참여연구법을 새 연구방법으로 제창하고 세계로의 확산사업을 운동으로 벌이기 시작할 것을 선표하면서 "참여연구란 농촌주민이나 근로자와 같은 연구대상자들이 연구주체가 되어 함께 영농기술을 향상시키거나 기술을 습득하여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연구를 공동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연구방법"이라고 정의였다. 그러한 운동의 하나로 아시아 참여연구회(PRIA: Society for 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가 결성되고 인도 뉴델리에 사무국을 두고 탄동(R. Tandon)이 조정책임을 맡았었다.

PRIA의 첫 번째 아시아지역 참여연구세미나가 1979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성인교육협회(ASPBAE: Asia-Pacific Bureau of Adult Education)의 후원으로 태국에서 열려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참여연구를 촉구하였다. 이 세미나에 한국사회교육협회(현재는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를 대표하여 유사한 실천연구사업을 벌였던 필자가 참여하였다. 1975년과 1977년에 아시아재단의 지원으로 용인 남사면 3개의 마을에서 3명의 대학원생/졸업생을 마을에 거주하게 하면서 주민들이 협동사업을 벌이게 한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을 수행하고 있던 차 이 사업이 하나의 참여연구 사례로 인정되어 발표되었다. 1980년 4월에는 ICAE 주최 제1차 세계참여연구대회가 유럽 유고슬라비아의 류블리아나(Ljubliana)에서 열렸고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의 한 마을의 부녀회가 주도하여 공동구판장을 운영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초대를 받아 원고를 써 보낸 바 있다. 비록 당시 유고와 비수교관계인지라 출국허가를 받지 못하여 필자가 대회에는 참여하지는 못하였으나 발표원고는 다른 참여자에 의하여 대신 읽혀지고 출간된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그대로 발표되었다.

그 후 2005년 정년퇴임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학의 지원을 받고 국제(국제농촌사회학회, 국제경험학습확회 등) 및 해외학회(미국농촌사회학회, 미국지역사회개발학회, 아시아농촌인간자원개발협회 등)에 수십 번 세계 사회과학계 학회에 참여하면서 이 참여연구가 얼마나 큰 호응을 받고 넓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하여 감탄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실천연구가 연구자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열등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연구대상자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가 되니 그 결과는 실제적 변화가 되고 그러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이론과 지식의 창출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종래 실천연구란 용어를 쓰던 학자들은 이 참여연구와 입장을 같이하여 '참여적실천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란 용어를 쓰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참여연구는 주민들의 교육, 조직 및 다른 개발활동과 함께 수행되기도 하는 것이며 그러한 활동들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데 직접 기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개발활동을 강조하는 각종 UN기관 – 예컨대 UNESCO(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UNICEF(국제아동기금), FAO(국제식량농업기구), ILO(국제노동기구) – 과 다른 많은 개발기관의 인기를 모았고 실용성을 강조하는 모든 응용사회과학 전 분야세서 널리 활용되었다. 이와 동시에 참여교육/훈련, 참여조직, 참여개발, 참여계획, 참여평가, 참여커뮤니케이션, 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파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아울러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 결과를 평가할 때까지 종래의 연구 같으면 연구대상이 되고 말았을 대상 집단을 참여시켜 참여계획, 참여수행, 참여평가의 방법을 쓰게 하며, 연구수행과정에서 쓰인 모든 수단과 자료들은 그 연구결과를 이끈 검증자료가 되어 관련 이론과 지식을 분명히 제시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 이 연구방법을 즐겨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3. 한국에서의 참여연구 활동

ICAE가 참여연구란 용어의 새로운 연구방법을 처음 소개했던 1975년에 서울대 농과대학과 수의대학이 있었던 수원캠퍼스에는 농업과학연구소란 부설연구소가 농업개발연구소로 명칭을 바꾸면서 아시아재단이 지원한 농촌개발실습장사업을 하나의 대형 실천연구사업으로 개시하였었다. 농촌지도요원을 양성하는 농업교육과 지도교육전공의 학생들에게 농촌생활과 농민과의 접촉경험을 주기 위하여 용인 남사면의 3개 지역(아곡, 방축동, 각궁/아리실)을 주민과 합의하여 선정하고 주민주도의 농촌개발을 협동적으로 이룩하도록 실습장화하는 실천연구사업을 본인이 계획하여 아시아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농업개발연구소의 공식연구로 승인 받았는데 이 실천연구사업을 주민주도로 수행한 것이 참여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의 인정을 받는 계기를 가져왔다.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학, 석사과정을 마친 본인이 농대 농업교육과에서 교직교과 강사로 있으면서 1969부터 3년간 국립 필리핀대학교 로스바뇨스 캠퍼스(UPLB)에서 지역사회개발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동안 학위논문과 관련된 대학사회교육사업을 탐구하는 중 사회실습장(Social Laboratory)이란 실천연구사업모형을 개발한 장지웬(Chi-wen Chang) 석좌교수의 이념과 현장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1972년 귀국 후 몇 년 동안 마침 수원캠퍼스와 그리 멀지 않은 용인 남사면에 주 1회 농촌진흥청 FAO 파견 지역사

회개발전문가 키드(David Kidd) 박사와 한 마을에 나가 유숙하면서 일을 도우며 전문적 견해를 나누며 교분을 쌓았는데, 이 남사지역 일대에서 1975년부터 새로운 전공으로 시작된 농촌지도교육전공을 기점으로 농촌개발실습장 사업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자연과학연구 분야 학생연수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실험실이 꼭 있어야 하듯이, 농촌지도요원을 양성하는 농촌지도교육전공의 연구나 양성수련에서 농촌마을을 실습장으로 하여 농민과 함께 일하는 체험을 갖게 하도록 시작한 이 사업에는 3개의 농촌마을에 각각 1명의 개발요원(대학원생)을 마을에 머물게 하면서 그 주민들이 협동하여 그들이 원하는 잘 살기 사업을 잘 하도록 돕게 하는 것이었다.

그 중의 한 마을(방축동)에서는 시장과의 거리가 10km 이상이라 불편한 점을 해결하고자 부녀회를 조직하고 회원의 공동출자로 공동구판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구판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규정까지 정하면서 구판장의 기금을 모았다. 물론 이 마을을 연구마을로 지정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은 연구자나 개발요원이 정한 것이 아니고 부녀회원들의 발의와 합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이득도 그들의 몫이고 잘못될 때의 책임도 그들 스스로가 지는 것이었다. 이 연구과정에서 회원 45명 중 30명(주로 40, 50대 부녀)이 기능적으로 비문해(非文解)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농촌 부녀자들의 문자해득의 실정을 전국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다른 조사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규모로 임의표본조사를 실시해 보니 전국 15세 이상의 농촌여성 52퍼센트가 초등학교 3학년의 문해 수준에 미달함을 밝혀낸 바도 있다. 물론 실습장 활동에서 이러한 낮은 문해 수준의 실정은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러한 사실이 당시 한국지식인들에게는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 여겨져 학계에서 그 문제를 은밀히 제시하였을 뿐이다.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들 농촌부녀들이 과반수 글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농사일이며 살기에 분주하여 글을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가 별로 없어 보였다는 사실이다. 최근 2000년대에 와서야 이들 비문해 여성 수백여만 명이 수백여 개의 교육복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문해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의 문해율을 나타내던 통계의 허구성과 이들 취약집단에 대한 교육적 소외가 얼마나 은폐 혹은 무시되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

이토록 문해수준이 낮은 마을부녀자들이지만 구판장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단기간 동안 상당한 이득을 낸 성공적 사례가 1979년 PRIA 세미나와 1980년 ICAE 세계대회에서 발표된 후 1981년 말에는 한국사회교육협회(당시 회장은 김종서 서울대 사대 명예교수)가 주관한 첫 참여연구세미나에서 연구마을에서 주재했던 당시 대학원생(김선요 서울여대 교수)에 의해 발표되었다. 물론 이 세미나에서는 참여연구의 이념과 특성이 발표되었고 관련된 몇 개의 사례들이 함께 발표되었었다.

이러한 참여연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 사회과학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점에 힘을 얻어 본인은 국내에서의 학술활동과 각종 강의와 논설에서 참여연구를 소개하고 촉구, 적용하였다. 1983년 여름에는 본인이 서울대 새마을운동 종합연구소 부소장(당시 소장은 고 이질현

명예교수)일 때에 UNICEF 농촌개발사업인 나주 반남면 지도자집단에게 참여계획세미나를 3일에 걸쳐 수립하도록 도와 주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원주에서 열린 한국사회교육협회 연차대회에서 "사회교육방법으로서의 참여연구"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사회교육의 방법이 곧 참여연구의 자료수집활동이 되기도 함을 밝혀 주었다. 그리고 1986년 7월 12~18일에는 이천 설봉호텔에서 한국사회교육협회와 PRIA가 공동주관한 '참여연수 방법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연찬회(Regional Workshop on Participatory Training Methodology)를 열기도 하였다.

한편 1992년에는 경기도 농어민후계자를 위한 고등교육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을 설치하고 수원의 서울대 농대로 하여금 1993년부터 제1기생 50명의 도내 최고 농업경영인을 선발하여 6개월간 주 1일 교육을 실시하였다. 당시 농업교육과 농촌사회교육 전공주임이었던 고 최민호 교수가 학장을 도와 이 과정을 운영하였고, 본인은 수강생 농민후계자들이 곧 참여연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참여연구〉란 교과를 맡았었다. 그리하여 수강자들이 원하는 대로 매주 정규강좌 수강 2시간 전에 모여, 참여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특별모임을 1년간 운영하게 되었었고, 이 모임에 끝까지 참여하고 마무리를 지은 농민은 2명이었고, 수행한 연구과제는 3개였다. 그 후 참여연구에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도 참여연구회원이 되어 외국연구의 사례를 탐구하고 보고서를 우리 글로 번역하여 1995년 참여연구법과 그 사례(서울대출판부)란 제목의 책자로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의 참여연구로 시흥 무랑저수지 부근 한 마을의 작목반장이 중심이 되어 저수지 주변의 환경정화를 위한 축산작목반원 전원이 자조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하고 저수지오염방지를 수행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이들의 허락을 받고 본인은 이 사례를 3명의 이름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지에 발표하였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영문논문을 만들어 국제농촌사회학회(IRSA)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본인이 참석한 60차 미국 농촌사회학회(Annual Meeting of the Rural Sociological Society, August 13-17, 1997)가 마침 ICAE 사무국이 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려 그 사무국도 방문하였고, IRSA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는 재정리하여 전문학술지인 Convergence 31권 3호(1998년)에 "Participatory research and anti-polution dairy farming in Korea"이란 제목으로 게재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 참여연구물이 수백 편에 달하고 참여연구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경우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국내 지역사회개발과 평생교육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례는 뒤늦게 2000년대에 들어와 2편이 있을 뿐이다. 즉 2006년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사회개발 전공생이었던 강상빈의 생활협동조합운영을 참여연구로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사례가 있고, 몇 년 뒤에는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대학원생이었던 김정율(현재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서울의 취약지역인 강서지역에서 청소년회관에 근무하면서 강서'푸른이학교'를 참여연구로 운영하여 큰 성과를 거둔 사례였다. 전자는 그 요약본이 지도교수(김성수 명예교수)와의 공동발표로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지에 게재된 바 있고, 후자의 사례

는 평생교육에서의 참여연구를 특집으로 다룬 한국평생교육학회 2012년 6월의 월례학술발표회에서 “참여연구사례와 학위논문 구성의 방법론 고찰”이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4. 맺음말

사회변화를 위한 실천이요 연구방법이기도 한 참여연구가 영미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지난 삼십 수년에 걸쳐 각계각층에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막상 경제발전과 민주화에서 다른 작고 약한 나라들이 부러워하기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참여연구의 활약이 매우 미약한 편이며 15년전부터 불어닥친 민주화의 바람과 함께 정부는 참여행정, 참여정부란 말까지 써가면서 소외된 민초(民草)를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가져오기도 하였으나, 아직 연구의 측면에서 그들 민초들을 주체로 삼아 참여시키는 면에서는 미흡한 현실에서 앞으로는 참여연구를 모든 학문에서 적용하여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연구결과 이론도 실용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더욱 단단한 기반 위에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싸이와 같이 세계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구자는 적어도 세상을 보는 좌우 편중 지양의 올바른 가치관과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연구 참여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합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본인은 학력수준이 매우 낮은 농민들과 여러 해 일하면서 그들이 가진 농사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박사학위를 가진 수준 높은 학자들에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고 이들을 조금만 도와 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일하면 학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믿음은 최근 많은 농민의 혁신기술에 의한 획기적 소득증대와 사회적 기여에서 잘 입증되고 있기도 하다.

왜곡된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은 바로잡아야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이 영 순

광우병의 발생

품종에 따라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소의 정육률은 약 40%이다.

소의 전체 무게에서 머리와 내장, 그리고 뼈다귀를 발라낸 것을 정육이라 한다. 소 한 마리에서 버려지는 뼈와 내장 등은 처리도 곤란하던 차에 영국이 처음으로 육골분(meat bone meal)을 만들어 소사료의 일부인 단백질, 칼슘원으로 사용해 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1972년부터 소에서 후일에 광우병(mad cow disease)이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불안한 증세 또는 광폭한 증세 등 신경질적인 과민반응을 나타내거나 뒷다리의 운동실조로 덜덜 떨다가 그대로 주저앉는 등, 소리나 접촉에 대해서도 평소와 다른 감각과민증상을 나타냈다. 갑자기 많이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의 소는 수의 병리학자들에 의해 자세히 조사 연구되어 학계에 보고하였고,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으로 병명이 정식 확정되었다.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소의 뇌에 스폰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어진 병리조직상이 특징이어서 면양의 스크래피(Scrapie) 원인체가 육골분 사료를 통해 소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 마리정도의 면양에서 한 마리 정도의 비율로 자연 발생하며 전염성이 없는 면양의 스크래피라는 질병과 병리조직상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었다.

1988년 영국은 즉시 소에게 육골분의 사료를 먹이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1732년에 최초로 발견된 면양의 스크래피가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지금까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체 감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3~4년 후, 즉 1992년경부터 사람에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질병의 발생보고가 줄을 잇기 시작했다. 이것이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이다. 영국왕립의학회는 1996년 공식적으로 소의 BSE가 사람에 감염된다고 발표하였고, 이때부터 BSE는 인수공통전염병(zoonosis)으로 인정되었다.

광우병의 원인체

앞에서도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BSE의 원인체는 양의 스크래피에서 온 변형 프리온이

원인체라고 생각했다. 변형 프리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크래피나 사람의 CJD, Kuru병 등은 1997년 이전까지만 해도 학계에서는 slow virus가 원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호주의 북쪽에 위치하는 뉴기니아의 포레부족에게서 발견되던 Kuru라는 질병을 연구하던 하버드 대학의 Gajdusek 박사가 Kuru로 숨진 사람의 뇌조직을 원숭이에 전달하는 시험에 성공하여 바이러스라고 인정했고 이로써 1978년 노벨상을 수상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캘리포니아대학 생화학교수 Prusiner교수가 DNA, RNA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변형 프리온(prion)이라는 단백질이 원인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학계도 이것을 인정하여 1997년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정상의 프리온 단백은 33 kDa의 정상적인 세포막 glycoprotein이며 기능은 잘 밝혀져 있지 않으나 α-helix 구조가 많은 데 비해서, 변형된 프리온은 β-sheet 구조가 많으며 열, 자외선, 화학물질 및 단백질 분해효소에 저항성을 가지는 것이 특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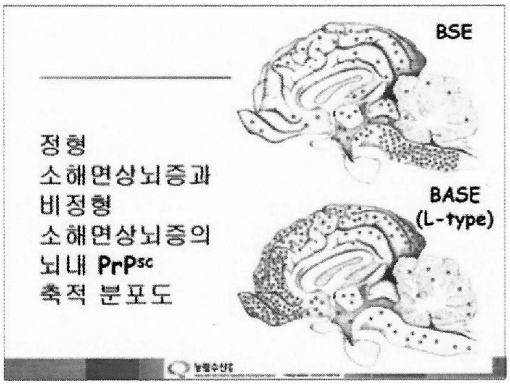
지금까지 알려진 변형 프리온에 의한 질병은 사람에서 sCJD(1920), GSS(1936), Kuru(1956), FFI(1986), vCJD(2008), 동물에서는 양의 Scrapie(1732), 밍크의 TME(1965), 사슴의 CWD(1978), 소의 BSE(1986), 고양이의 FSE(1990)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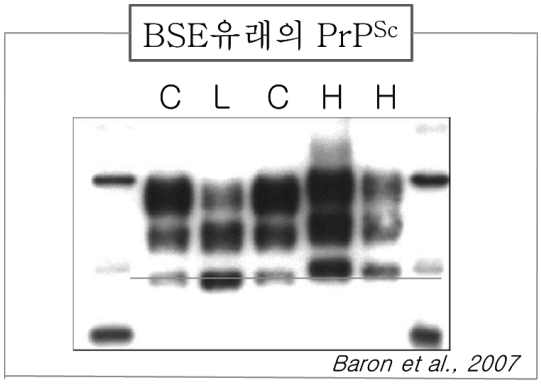
육골분 사료를 제조할 때에 소나 양 등 동물의 뼈와 내장을 가리지 않고 섞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양에서의 스크래피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이 BSE를 일으켰다고 생각했으나, BSE를 일으킨 변형 프리온과 스크래피를 일으킨 변형 프리온의 생화학적 구조가 다른 반면, BSE와 vCJD를 일으킨 변형 프리온의 생화학적 구조는 일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소에서는 비정형 BSE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영국에서 19만여 마리나 발생한 BSE를 classical type으로 부르는 데 반하여 H-type(미국, 프랑스, 독일 등), L-type(이탈리아, 일본, 벨기에)이 그것이다. H-type은 뇌조직검사상 변형 프리온의 양이 classical type에 비해 20분의 1 정도로 낮다.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2마리의 L-type은 모두 11세, 15세의 고령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L-type을 마우스에 반복적으로 계대하니까 영국의 classical type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L-type이 영국 광우병의 원형이 아니냐는 등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비정형광우병(bovine atypical spongiform encephalopathy, BASE)으로 불리우며, 일본에서의 23개월령을 제외하면 거의 10세 이상의 고령우에서 발생하는데,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생화학적 성상이 전형적인 BSE와 다르며, 정형 BSE에서 변형 프리온이 주로 뇌간에 축적되는 반면, 비정형 BSE는 소뇌를 포함한 뇌조직 전체에 광범위하게 축적된다는 특성을 나타낸다. 광우병 전문가들은 BASE의 발생원인에 대해서 대략 3가지 정도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사람의 산발적 CJD처럼 소에서도 산발적 BSE 즉, 자연발생가능성이 있고, 둘째, 사람의 유전적 CJD와 같이 소에서도 유전적 변이 가능성이 있고 셋째, 면양에서의 스크래피 여러 strain 중 하나가 소에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학계에서는 BASE의 발생원인을 돌연변이 또는 자연발생적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지금까지 광우병 발생이 없는 모든 국가에서 비정형광우병(BASE)이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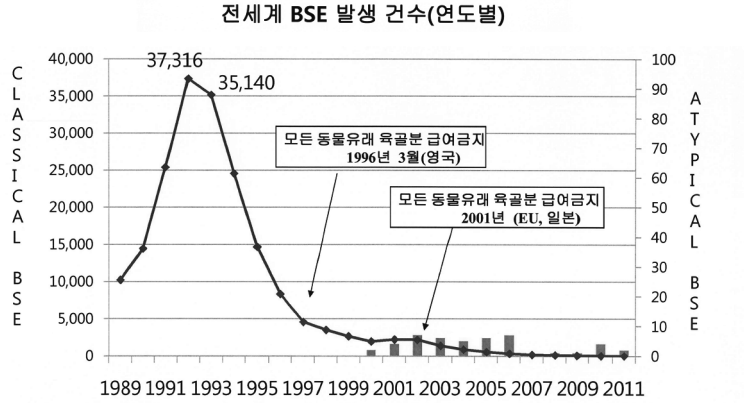




광우병의 발생상황

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BSE는 1989년 1만여 마리를 시작으로 1992년에는 한해에 3만 7천여 마리까지 발생했으나, 영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육골분을 소에게 먹이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면서 BSE 발생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45마리, 2011년 29마리에서 올해는 현재까지 4마리의 발생보고가 있을 따름이다. 미국은 동물성 사료를 사용금지시킨 것이 1997년 8월이며, 그 이후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사례는 없었다. 현재 약 1억 마리 가량의 소를 기르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4건의 BSE 발생보고가 있었지만, 캐나다에서 육골분 사료를 먹고 미국으로 수출된 소에서 BSE가 발생된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형이 아닌 BASE로 판명되었다.

또 사람에서의 vCJD 발생은 모두 225명이며 그 중에서 영국이 압도적 다수인 176명, 프랑스가 25명,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4~5명, 그 밖에 8개국은 1~3명에 불과하다. 미국의 3명은 국



적만 미국일 뿐 영국에서 위험했던 기간 중 6개월 이상을 거주했던 사람들로 밝혀져 있다. 발병 총계를 보면 1995년에 3명으로 시작하여 2000년에는 29명의 발생을 보이다가 서서히 줄어들어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 연속해서 발생보고가 없다.

광우병의 제압

전염병 발생의 3대 요소는 원인체, 숙주, 그리고 감염경로가 갖추어져 있어야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원인체와 숙주에 대한 대책보다는 감염경로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제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에서의 감염경로는 육골분 사료였다. 모든 국가는 시간적으로는 5~6년의 차이를 보이지만 모든 동물유래 육골분의 사료급여를 법적으로 금지시켰다. 미국도 1997년 8월부터 육골분 사료를 전면 금지시켰고 그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지금까지 한 마리도 광우병의 발생이 없었다.

또 사람의 광우병은 소에서 변형 프리온이 많이 축적된 부위 즉, 뇌, 척수, 머리뼈 등 SRM (specified risk material)을 섭취해야만 발병되는데, 세계 각국은 30개월령 이상의 소 SRM은 법적으로 섭식을 금지시켰고, 그래서 3년째 사람광우병 발생은 없으므로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소와 사람에서의 광우병이 육골분 사료 급여금지와 30개월 이상 소의 SRM의 섭취금지 조치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 배경에는 원인체인 변형 프리온의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전염병의 원인체인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접촉, 동거, 오염된 사료의 섭취, 바람에 의해서 각지로 전파되기 때문에 감염경로 차단이 어렵고 실패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변형 프리온은 접촉, 동거, 오염된 사료, 바람 등에 의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료와 SRM조치만으로 쉽사리 해결되었다고 본다.

미국의 과학저술가이며, 퓰리처상 수상작가인 Richard Rods는 그의 저서 “죽음의 향연(원저 Deadly Feasts)”에서 1997년 당시 광우병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2015년이 되면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8월에 그는 “내가 예상했던 vCJD(인간광우병) 대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광우병은 멀지 않아 소멸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 vCJD에 걸릴 확률은 담배 한 개비로 암에 걸리거나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 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사태에서 얻어야 할 교훈

이번의 광우병사태는 인간의 짤막한 과학적 지식과 윤리의 상실이 가져다 준 재앙이라고

생각된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자기 동족의 사체 일부를 먹였던 것은 커다란 실수였다. 소에게 육골분을 급여하면 보다 많은 고기와 젖을 생산할 수 있다는 선전에도 "윤리적으로 소에게 자기 동족의 고기를 먹일 수는 없다"고 끝까지 육골분 사료 수입을 거부한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는 광우병이 한 마리도 발병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축산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보다 많은 젖과 고기를 얻기 위해서 항생제, 호르몬제를 적당히 사용해 오던 공장식 사육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그 개편의 방향은 물론 환경친화적이면서도 자연 생리학에 위배 되지 않는 축산으로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8년 5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모두 반성할 부분이 있다. 우선 정부는 국민들의 식생활에 대한 정서를 이해하는 데 소홀했다고 본다. 주변의 일본은 20개월령 이하, 중국, 대만도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만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만 전연령의 소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한 불만을 초래한 것이 사실이다. 잘못을 바로잡고 곧 30개월령 이하로 수정하여 수입을 하고 있으나 국민의 불신을 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물론, 심지어 대학의 교수 신분을 가진 일부 학자들까지도 그런 정치인들과 언행을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학자들만은 바르게 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묻고 싶다.

TV, 영상시대의 여명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이 충 웅

1. TV 시대의 여명

오늘날 우리는 TV, 영상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 TV, 영상기술이 없다고 가정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암흑시대가 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TV를 틀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듣고 일기예보도 본다. 스마트폰으로 친지들과 영상통화로 소식을 주고받고 필요한 정보도 수집한다. TV, 영상기기가 없다면 눈과 귀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텔레비전을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누구일까? 텔레비전의 원리를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Paul G. Nipkow이다. 여기서 Nipkow가 텔레비전을 생각하게 된 일화가 생각이 나서 소개한다.

1879년 어느 날 독일의 서프로이센의 작은 신도시 노이슈탓트에 있는 김나지움에서 최상급생 둘이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공학기술의 비밀과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하나는 Bell이 발명한 벨전화기이다. 당시 전화기 1대를 시청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 학생들은 이 전화기를 시청에서 하루 밤 빌려다 분해하여 미세한 부품까지 잘 살펴보고 조립하여 반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호기심이 많은 청년들은 전화기의 내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즉 사람 말소리의 진동을 전기진동으로 바꾸어 전선을 통하여 멀리 보낸 다음 다시 전기적인 진동을 기계적인 진동으로 바꾸면 말소리가 전달된다는 간단한 원리를 알았다. 이 두 사람 중의 한 사람은 저 유명한 Nipkow이다.

Nipkow는 말소리를 전화기로 멀리 보내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광경도 전기로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다. 즉 말소리의 강약을 전화기의 송화기에 의해서 전류의 강약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빛의 강약도 다른 어떤 수단에 의해서 전류의 강약으로 바꾸면 광경도 멀리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Nipkow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전화기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는 것처럼 먼 곳에 있는 사람과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9세의 Nipkow에게 떠올랐다. 이것이 우리 인류역사상 TV 영상시대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대사건이 발생하는 순간이 되었다.

1883년의 크리스마스이브 날 한 학생이 홀로 베를린의 북부의 어득어득한 거리에 제대로

난방도 되어 있지 않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없는 하숙방에 쓸쓸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자연과학과 수학을 전공하는 학생 Nipkow가 텔레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숙망의 문제해결의 단서를 찾아냈던 것이다. 즉 상을 전선을 통하여 먼 곳에 보내려면 우선 상을 많은 수평한 선으로 쪼개고, 그리고 이 선을 가능한 많은 점들로 구성하게 하면, 결국 전체의 상은 많은 점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상을 무수히 많은 점들로 구성되고 각 점 들의 밝기는 광전지에 의하여 점의 밝기에 따라 다르게 전류로 바뀌게 된다.

그림 1. 텔레비전의 원리를 세계 최초로 생각해낸 Paul G. Nipkow (1860–1940)

이와 같이 각 점들의 광도가 각 점들의 광도에 대응되는 전기펄스로 바꾸어 전송하면 수신단의 각 점들은 송신단의 상의 광도에 대응되는 광점들로 구성되어 원래의 이미지 상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의 구상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1884년 초 베를린의 루이제가의 창가에는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귀엽고 아리따운 젊은 여교사인 Josephine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눈을 들어 저 멀리 거리를 내다 볼 때마다 대단히 화가 났다. 왜냐하면 건너편 창가에 추하게 생기지는 않았으나 대단히 뻔뻔스럽게 생긴 청년이 서서 그녀를 긴 망원경으로 뚫어지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중심가에서 우연히 그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이 청년은 인사를 하고 같이 걷기를 청하였다. 이 순간이야 말로 텔레비전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는 의미깊은 찰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정처없이 천천히 걷고 있는 동안에 이 젊은 남학생은 한 숨 섞인 목소리로 옆에 있는 숙녀에게 자기가 먼 곳을 볼 수 있는 것을 발명했는데 이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을 자금이 없어서 큰 걱정거리라고 했다. 확실히 이 젊은 아가씨는 젊은 남학생이 그녀에게 텔레비전에 관해 말한 것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동반자에 완전히 감격해 버렸으므로, 기꺼이 특허료 30마르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젊은 남학생은 다름 아닌 Nipkow였으며, 이 젊은 여선생은 나중에 Nipkow의 처가 되었다.

2. 전기기계식 TV 시대

우선 1880년대에 먼 곳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전기망원경을 최초로 생각한 사람은 Nipkow이다. 그러면 최초로 화상을 주사(scanning)하고, 잘게 분해(dessecting)하고, 이것을 전기펄스로 고쳐 송신하고 수신단에서 이 신호를 재합성하여 원래의 화상을 완성하는 기술은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전기기계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기계식 TV를 구상하여 1884년에 특허를 얻은 사람은 Nipkow이다. TV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잔상이 1/16초가 되는 특성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60Hz의 교류전기이다. 우리는 이 전기로 전등을 켠다.

그러면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는 60Hz의 교류이므로 등불이 초당 120번 밝았다 어두웠다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명멸을 못 느낀다. 왜냐하면 명멸기간이 1/16초보다 훨씬 짧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1/16초의 잔상이 있기 때문에 1/120초의 속도로 명멸이 생기는 것을 감지 못하고 등불이 계속해서 켜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방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을 키운다. 그런데 강아지나 고양이의 잔상이 우리 인간과 비슷하면 우리 인간과 똑같이 TV 화면을 즐길 것이다. 만일에 이 동물의 잔상이 우리 인간보다 짧다면 TV 화면은 자연스러운 그림이 아니라 명암이 반복되는 껌벅거림의 연속으로 느낄 것이고, 만일에 잔상이 우리 인간보다 길다면 TV 화면은 앞그림과 뒷그림이 겹쳐져서 뭐가 뭔지 알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아직 우리 인간은 인간 외의 다른 동물의 잔상을 조사 연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Nipkow는 인간의 잔상을 이용하여 그림을 보내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이 방식은 회전하는 평면원판에 작은 구멍을 나선상으로 그림 2와 같이 뚫어 화상을 주사하여 상대편으로 보내고 수신단에서 화상을 얻는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사공은 나선상으로 배열되어 있다. 텔레비전 송수신장치의 동작원리를 Alexanderson 방식으로 그린 것이다. 도면에서 좌측은 상을 보내는 송상장치와 음성을 보내는 마이크이다. 음성과 이미지는 각각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우측은 텔레비전의 수신 장치이다.

Charles Francis Jenkins는 송 · 수신측의 프리즘을 붙인 환(環)과 원판을 송수신 양측이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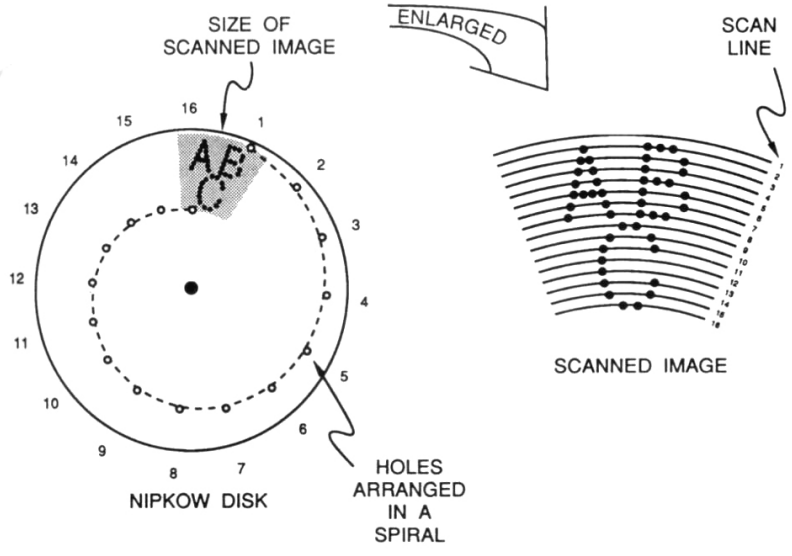


그림 2. 회전하는 평면원판에 나선상으로 구멍을 뚫어 이미지를 주사하는 방식이 독일의 Paul G. Nipkow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이것을 복원한 이미지는 아주 조잡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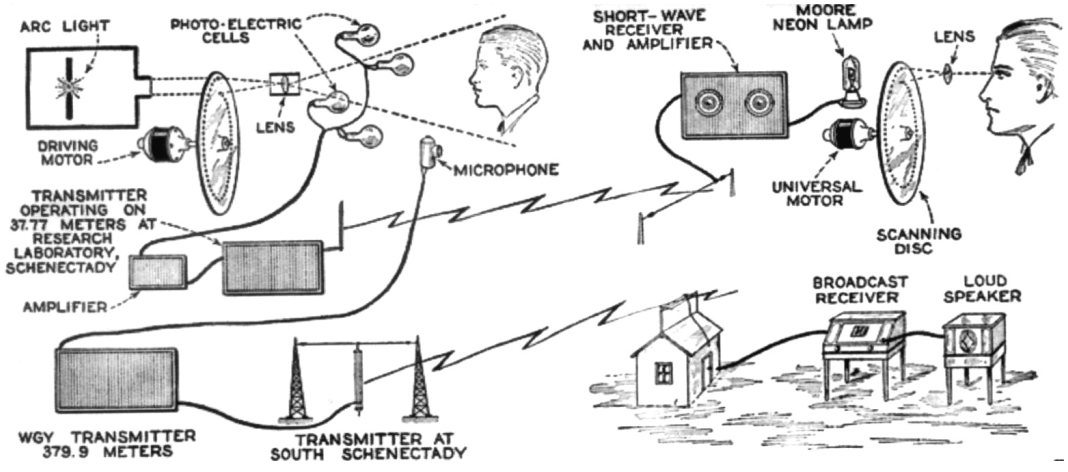


그림 3. 텔레비전 송수신장치의 동작 원리

기되어 쾌속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화상을 수신측에 조잡하게 나타내는 초보적인 TV시스템을 구성하였다. Jenkins는 1922년 3월 13일에 이 TV시스템의 특허를 출원했다. 1925년에 Jenkins는 이 TV시스템을 사용해서 TV 화상을 Washington D.C.에서 Philadelphia로 무선으로 송신했다. Jenkins는 TV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했다.

Jenkins는 이 TV시스템의 상업적 가능성을 내다보았으나 세계 대경제불황으로 인하여 Jenkins Television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 RCA (Radio Corporation of America)는 Jenkins의 많은 특허권을 인수했다.

한편, 1925년경에 영국의 John L. Baird는 런던에서 많은 TV실험을 했다. Baird의 TV실험은 Jenkins가 행한 TV실험과 유사한 것이었으나 다만 송신방식이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었던 점이 달랐다. Baird는 초기실험에서 화상의 윤곽이 보다 선명하다는 평을 받았다. 수년 후에 영국의 BBC (British Broadcasting Company)는 Baird 방식으로 정규 TV방송을 하였다.

일본도 1927년에 다까야나기 겐지로(高柳健次郎)가 TV연구를 시작하였다. 송신단에서는 Nipkow 원판을 사용하고 수신단에서는 최초로 Brown관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에서 일본의 가타가나(片假名)의 "イ" 자를 송신하는 데 성공하였다. 다까야나기 TV연구를 필두로, 와세다(早稲田)대학, 일본 체신성 전기시험소, 일본방송협회, 일본전기, 동경전기 등 여러 곳에서 TV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것이 일본 TV산업의 초석을 이루게 되었다.

1925년경에 John L. Baird에 의해 TV개발 연구를 시작한 영국은 1932년까지는 해상도가 주사선수 30의 Nipkow 원판을 사용한 TV수상기가 10,000대 가량 팔렸다.

1927년 4월에 세계최초로 TV방송신호를 Washington D. C.에서 New York으로 장거리 송출을 하였다. 이 때 사용한 장비는 Bell Lab 연구원들이 개발한 전기 기계식 장비였다. Television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신문, 잡지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이 때

의 표시장치는 다극 네온관의 배열과 모터제어시스템으로 구성되었다. 동기신호는 휘도신호와 같이 송출되었다. 같은 시기에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연구원들에 의해서 드럼경면형 투사영상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약 1년 후인 1928년에는 Bell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Washington D. C.와 New York 사이에 전기기계시스템을 개량하여 컬러 TV영상을 보냈다.

이 전기기계식 TV의 중요한 결점이 화면이 조잡하고 껌벅거리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곤란한 문제는 순전자식 주사와 표시관이 출현하여 해결되었다.

TV에 순전자식 디스플레이, 즉 cathode ray tube(CRT)의 사용을 제안한 것은 1907年에 러시아의 St. Petersberg의 Boris Rosing이었다. 1911년에 Boris Rosing은 송신상측에 회전미러식 촬상기와 수신상측에는 냉음극 표시관을 사용하여 조잡한 화상의 TV를 전시하였다. TV 수상관에 필요한 주사신호를 얻기 위하여 자기코일을 사용하였다.

Vladimir K. Zworykin은 1910년부터 1912년 사이의 2년간 Rosing교수의 제자였다. Zworykin은 1919년에 러시아를 떠나 미국 New York으로 이민왔으며, 곧 Pittsburgh에 있는 Westinghouse 전기회사에서 TV연구를 시작하였다. 1923년에 Zworykin은 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전자식 텔레비전의 기초가 되었다. 1924년에 Zworykin은 Westinghouse 연구소에 있는 동안 전자비임을 정전전자식으로 편향하는 7인치 CRT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선보였다. 같은 해에, Zworykin은 어떤 장면을 전자적으로 주사하는 전자장치 즉, Iconoscope를 발명하였다. 1925년에 Zworykin은 전전자식컬러 텔레비전 특허를 출원했다. David Sarnnoff(RCA부사장)는 텔레비전의 상업적인 다양한 가능성을 확신하고 Westinghouse사에 있는 Zworykin의 TV연구를 대폭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림 4. Iconoscope를 발명한 Vladmir K. Zworykin(1888–1982)

1929년 말에 Zworykin은 Westinghouse를 사직하고 RCA사로 옮겨 텔레비전 연구를 주도 했다. Zworykin은 RCA의 텔레비전 상업방송국 개발자로 공인을 받았다. 1929년에는 Philo T. Farnsworth는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텔레비전에 전자편향방식을 사용한 CRT(브라운관)를 사용하여 순전자식 TV를 전시하였다. 이미 1927년 9월에 Farnsworth는 이미지 해상관(image dissector) 이라는 전전자식 TV 카메라를 개발했다. 1931년에 Farnsworth는 Philco 사에 입사하여 거기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였다. 1939년에 최초의 정규 TV프로그램이 지상에 보도되었다. New York, Schenectady와 Los Angeles에 있는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NBC) TV방송국들이 주당 1시간짜리 프로그램 2개를 방송했다. 1941년 7월 1일에 New York에 있는 NBC와 Columbia TV방송국은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에서 최초로 상업TV방송국 인가를 받았다. 이 TV방송국은 525개 수평주사선으로 방송을 했으며, FCC는 이 방송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였다.

세계 2차대전은 TV방송국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1945년에 미국의 FCC는 13개의 VHF TV

채널을 배당했다. 1952년 4월에 FCC는 VHF TV방송채널 외에 70개의 새로운 UHF 채널을 추가로 배당하였다. Zworykin은 현대의 전전자식 TV가 출현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Zworykin은 미국의 RCA사에 TV방송 및 TV수상기 사업에 큰 업적을 남겨 오늘의 TV전성시대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그림 4는 Vladimir K. Zworykin의 초상이다. Zworykin은 1933년에 Iconoscope(송상관)의 발명으로 유명하다. Iconoscope은 TV카메라의 심장이다. 라디오의 마이크에 해당된다.

일본은 1957년에 TV방송을 정식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은 1956년 6월에 TV방송을 HLKZ로 RCA 지사에서 400W의 실험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12월 31일에 KBS TV방송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중국은 1962년 10월 10일에 TV방송을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884년에 Nipkow 원판을 시작한 것이 TV시대의 효시가 되어 전기기계식 TV를 거쳐 1960년대에 진입하여 전자식 TV 시대가 시작되었다. Color TV에 관한 약사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한자의 기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안 수 길

이 글의 전반(前半)은 주제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1970년대의 한국 국토개발 계획을 우리는 이미 모른다"는 내용으로, 그와 같이 무관계한 전단계가 필요한 까닭은 예전에 꽃 피웠던 문명을 후세 인간 들이 얼마나 쉽게 망각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이전 일을 모르게 되는 것 역시 30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용하는 편리한 많은 것이 '조상들의 공'이라는 인식을 하려 하지 않고 태양과 공기와 마찬가지로 '당연한 것'으로 알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 못하고, 그들이 남긴 것에서 진지하게 그 가치를 찾아 높게 평가하려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침(鍼)과 한약 등 동양의 의학은 존경하면서 수련 끝에 심안을 열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서양 사람의 재평가가 있어야만 겨우 되살아나게 되는 등이다.

브리타니카 사전에 의하면 '태안반도(泰安半島)'는 "충청남도 북서부에 돌출한 반도"로 되어 있다. 이 서산-당진을 연장해 서해로 뻗고 있는 태안반도에서 남북으로 가장 폭이 좁은 곳이 북쪽에서 먹어 들어온 가로림만(加露林灣)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뻗는 천수만(부남호)의 북단과의 사이일 것이다.

고파도(古波島), 웅도(熊島)를 그 속에 품은 거대한 가로림灣은 사실은 서해안을 포함해 한반도 산업화 계획을 위해서 전체 국토가 박정희(朴正熙) 혁명정부의 브레인(brain) 들의 계획 도마 위에 내맡겨져 있을 무렵〈완전히 맡겨져 있었기 때문에 완벽한 계획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장 원대한 국토계획을 세우게 된 중심지역이었다. 그 때 그 브레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한국 산업을 대규모로 육성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큰 견제가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사실 그것은 우리 전폭적 국토종합계획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 오원철(吳源哲) 등 몇 사람이 국토산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가로림灣을 주목하게 된 이유는 그 가로림灣의 입지, 그리고 크기와 깊이 때문이었다.

서해안 뻘(개흙)판의 구배가 완만해 멀리까지도 바다가 깊지 않아서 6 · 25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때에도 교두보 확보에 필요한 거대 군수물량 양륙(揚陸)을 위해 (적지 않는 수의 군함 들이〉 한정된 '물때'인 "4시간" 내에 하역(荷役)을 끝내지 않으면 적군에게 반격돼서 교두보 장병 들이 몰살을 당할 상황이었는데 그 경우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것이 서해안의 '대형선박 접안(接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당시 서해안에서 가장 넓고 깊은 가로림灣만이 크게 손을 안 대도 20만 t(톤) 급의 배를 댈 수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 브레인 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서해 활용

을 꾀하였고, 그 새로 만들 거대 항만(가로림)을 기점으로 내륙으로 점점 뻗어가는 동심원(同心圓)으로 무역단지, 산업단지, 행정단지, 그리고 (그 드넓은 산업기지에서 일 할〉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단지 등을 만들어 서산(瑞山)은 물론 예산(禮山)까지도 그 번영권으로 만들어 한반도 서해안을 한국 도약의 중심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는 한국 서해안 전체를 걸쳐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발전계획이었다.

20만t(톤) 급의 선박이 많은 물량을 하역할 수 있는 거대 항만건설 계획! 그러나 그러한 꿈은 그 다음 정권들이 존중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마치 전임자를 미워하기라도 하듯 그 위대한 계획에 칼질을 하기 시작해서 오원철씨는 부정부패로 몰려 수억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가로림灣 계획은 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20만t급 선박 접안이 가능했을 그 가로림灣이 '서해안 개발'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사장(死藏)하고 만 것은 한국 발전을 위해서는 크나 큰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 서해안 관문(關門)으로 평택항(평균 수심 14m, 5만t급 이상의 대형 선박 기항(寄港)이 가능), 아산만(2만t~10만t급)이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산업화 최선을 위해서 가장 부담 없이 출발해서 만들어진〉 가로림灣 계획에 비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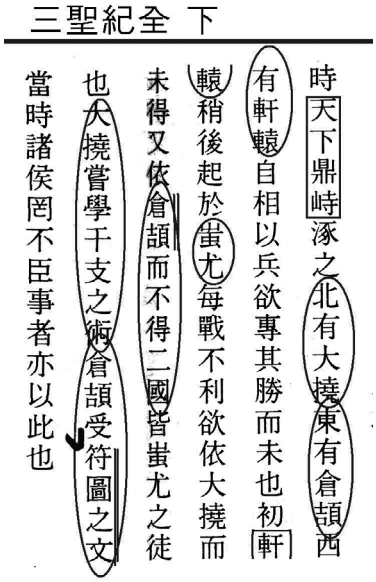
그 후 '가로림灣'이란 이름은 의도적으로 묵살이 되어 한 동안은 이 '가로림灣'은 'Naver' 등 검색기능은 물론 인공위성 지도 'Google'에서까지도 찾기가 어려워서 '중국편 Yahoo' 등을 찾아야 그곳 자료에서 박정희/오원철의 가로림灣 계획의 규모를 알 수 있었던 시기까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엄연히 있었던 일까지도 말살이 되었던 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 다시 일부 자료에서 '가로림灣'을 찾게 되었으나 이제 '가로림灣'은 "이슬을 더해줄 숲"이라는 뜻을 상상할 수 있는 '유의(有意) 것'이 아니고 'Carolyn'을 연상케 하면서 '언젠가 뭔가가 있었을 것 같다'는 정도로 완전히 망각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史實) 유실(流失)은 (페르시아문명의 경우에도 1000년을 망각이 됐던 것이지만〉 '가로림灣'의 경우를 보면 한국 땅 지금 세상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엄연히 있었던 일을 반고의(半故意)로 말살하는 것이어서 분개(憤慨)할만 하지만 이제 시대가 달라 우리들의 '그럴 수가 없다'는 반항적 인식을 애써 '그럴 수도 있다'로 고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일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사를 두고 훌륭한' 문명을 제 땅에서 제 손(孫)들이 말살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자(漢字) 문명'에 관해서도 (비교적 지금까지 기록물이 많이 남아있는〉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위대한 문명발생과정 기록에는 역점이 주어지지 않았고, 단지 "창힐(蒼頡)이 도입했다"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도 그들 중국사람들이 관심을 쏟을 중국의 문명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거의 같은 시대의 황제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소녀경(素女經)을 포함해 250권의 전적(典籍)을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한자의 역사는 황제시대(BC 2679)를 넘나들 정도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에 비해서 알파벳(alphabet)의 유럽 도입은 BC14세기이니 그 간 유럽에서는 역사적 사실의 후세 전달은 주로 음유시인(吟遊詩人)들의 구전(口傳)에 의했던 것이다.


三聖紀全 下

時天下鼎峙涿之北有大撓東有倉頡西有軒轅自相以兵欲專其勝而未也初軒轅稍後起於蚩尤每戰不利欲依大撓而未得又依倉頡而不得二國皆蚩尤之徒也大撓嘗學干支之術倉頡受符圖之文當時諸侯罔不臣事者亦以此也

그림 1.

한 편 일청 성세영(一晴 成世永) 옹의 '일청사고(一晴私稿)'에 의하면

> "古文"은 蒼帝의 所作이라 하며 文得(?)于天이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蒼帝는 과연 누구인가 알아보기로 하자. 史皇氏 蒼頡은 蒼帝라 하였고, 蒼帝는 '東皇'이라, '玉皇'이라, '玉皇君(?)'이라, '木公'이라, 또는 '東王公'이라 한 것을 모두 다 종합해보면 결국 蒼頡은 우리 東쪽 "한배"를 일음이지만…

라 하니 결국 창힐(BC 2563)은 동방에서 많은 고자(동방문자, 즉 한자의 기원이 된 기호(記號)군 중 배달국{일월국(日月國)의 것}을 그곳에 도입한 것이다. 나아가서는 '女'자 변의 대부분의 한자는 창힐, 그가 창제(創制)한 것이라고 하니 그는 '웅녀(熊女)'계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림 1에 제시된 글에서 보면 당시 창힐(倉頡)제는 황제의 신하(臣下)가 아니고 대요(大撓)와 함께 황제와 "정치(鼎峙): tripod"의 대등한 입장에 있었고, 게다가 대요는 '간지술(干支術)', 그리고 창힐은 '부도지문(符圖之文)'을 받고 있어서 누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蘇塗經典 三一神誥

卽與郎河里岩刻的是皆實跡也世傳神市有鹿書 紫府有雨書 蚩尤有花書 開佃文東卽其殘痕也 伏羲有龍書 檀君有神篆此等字書遍用 於白山黑水 靑邱九黎之域 夫餘人王文始以篆爲煩而 稍省其劃 新作符隸而書之秦時程邈奉使於肅愼得王文隸法於漢水又因其劃而小變之形是今之八分也 晋時王次仲又作楷

그림 2.

게다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도경전본훈(蘇塗經典本訓) 삼일신고(三一神誥)에서 보면 당시에 있었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들은 녹서(鹿書), 우서(雨書), 화서(花書), 용서(龍書), 단군의 신전(神篆) 등이고, 그 후에도 부여(夫餘) 왕문(王文)이 부예(符隸), 숙신(肅愼)에서 예(隸), 진(晋)나라에서 해서(楷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나라들은 모두 '한(漢)나라'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동방문자의 결집인 '한字'를 '漢字'로

표기하게 된 까닭은 (‘진(辰)’으로 나타내 ‘동이족’을 뜻하는〉 “은하수(銀河水) 한”[‘한(漢)’의 제이의(第二義)]의 뜻으로 ‘漢’을 쓴 것이다.

원래 태곳(太古)적부터 있어 왔던 ‘한’이라는 ‘소리’가 강력하고, 큰 것을 뜻해 왔기 때문에 한 나라가 건국할 때 “漢”을 써서 이미 존경 받고 있던 ‘한’을 표방한 것이다.

그 다음 ‘한나라’가 더욱 더 강성했기 때문에 자전에서도 제일의 자리로 나오고, 은하수 한은 뒤로 밀린 것으로, 이 제이의(第二義)의 ‘한’은 오히려 ‘干’나라, 즉 ‘東夷의 나라’라는 이야기이다.

일청 성세영 옹은 같은 글에서 다시 태호(太昊) 복희(伏羲) 역시 우리 일월국(배달국)사람임을 논증하고 나아가서 주역(周易)의 설쾌전(說卦傳)을 인용하면서 동방에 월등히 더 발달한 문명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다시 설명하기를

帝出乎震하여 齊乎巽하고〈중략〉 萬物이 出乎震하니 震은 東方也

를 인용하면서 당시 ‘제(帝)’다운 제는 동방에서 나왔고, 모든 발달된 사물 역시 동방에서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2에서 2중 측선(側線)은 ‘신벌(神市)’, ‘청구(靑邱)’, ‘구려(九黎)’ 등 국명을 나타내고 단일 측선부분은 당시 존재했던 동방문자들(proto-한자)의 명칭이다.

그림 3.

이것들을 후세에 진시황(秦始皇)이 대전(大篆)과 소전(小篆)으로 정리하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옛것들을 폐기시킨 과정이 후세에 악성(惡性)루머로 전해진 것이 ‘분서갱유(焚書坑儒)’인 것이다. 당시 왕은 ‘천자(天子)’의 이름을 걸어 일력(日曆), 도량형(度量衡) 등에 있어서 하나의 ‘표준’만을 제정하고 시행했다. 한편 기록에 보면 당시 장의업(葬儀業)으로 유생(儒生)들의 악행은 대량처벌할 만한 사회악(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분서갱유’에 의해 동방문자들은 이제 기록이 드물지만 진시황이 대전/소전으로 정리한 상술 고문(古文)/첨자(尖字)는 그 후 ‘한(漢) 나라’에서 고치고, ‘당(唐) 나

라'에서 해서(楷書)로 발달해 갔던 것이다.

그 다음 후세에 우리는 이 해서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들의 것이고, 오히려 원형인 고문/첨자에 이질감을 느끼지만 우리 연구자들은 아래에 있는 첨자(尖字), 전서(篆書), 그리고 해서(楷書)의 비교표에서 이성(理性)으로 그 이질감(異質感)을 극복해 가면서 찾아진 '한자의 근원' 글자들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질감 극복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일청 성세영 선생은 후세의 이러한 변천을 "조자(造字)의 주권 창탈"로 부각/지적하면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어서 일단은 불편한 느낌이겠지만, 그러한 '중국인(中國人)들의 악의(惡意)'는 사실상 있어왔던 것이다.

특히 '명 나라' 이후 조선조 조신/학자들이 한 동안 청조(淸朝)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나라'까지의 동방(중화 中華: flowering in the universe center)문화를 '소중화(小中華)'라 호칭하면서 (함께 향유하던 명나라가 망해 버렸기 때문에) 조선에만 남은 것이라고 하는 조선조의 뼈대 있는 한학자들이 청국(淸國)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동안 '청 나라'(강희제, 건륭제)에서도 열등감을 갖고 경쟁의식으로 그들의 서적 한국반출을 불허한 시기도 있었기에 후일에 의암 류인석(毅菴 柳麟錫) 등도 "우리가 소(小)중화"라는 한국의 위상을 주장했던 것이다. 청국 초기의 대륙인들의 열등감은 오늘날 '동북공정(東北工程)'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니, 역시 상기 일청선생의 "창탈", "임의산삭(任意刪削)" 등 강한 표현을 이해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가면서 위에서 제시한 일월국(배달국)의 첨자와 그 후에 전변(轉変)된 (우리에게 익숙한) 전자(篆字)와 해서를 비교해 보면 무당들의 부적과 아울러 한자 역사의 유구함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민족의 관심이 변천해서 흐지부지 흘러 버리게 된 (한 나라의) 지난 문화의 사례는 '페르시아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가로림灣 계획'과 같이 (같은 땅의) 후손에 의해서도 그렇게도 쉽게 망각되고, 유실될 수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탐색하는 마음으로 드물게 남은 역사 자료들을 조사하고, 또 다시 다른 시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고시대에 올라갈수록 우리의 문명이 깊이가 더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금의 잘못된 흐름에 편승해서 의도적으로 묵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말글의 지구촌 시대 역할 조망
세종 대업 완성을 꿈꾸다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김 병 동

들어가며

언어와 유전자는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의 특성과 직결된다. 오늘날 생명과학은 생명공학이라는 산업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서 거대한 정보 과학으로서 인문 사회적 의미에까지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인간유전체 완독(2000년대 초) 후 이제는 인간 1000명을 각종 특징으로 비교하고 개인 유전정보도 분석하는 맞춤형 의학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미국처럼 온 누리에서 다양한 인종이 몰려와 섞여 사는 나라에서는 소량의 혈액 시료로 각자의 뿌리를 찾게 해 주는 인터넷 서비스까지 이미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메리카대륙 원주민의 유래를 유전자 변이의 정도로 추적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시아계 언어와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 영어 계통 학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노력은 역사적 기록은 물론 고고인류학적 유물, 민속학, 특히 언어의 연구에 의해서 종합될 때 그 완성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한말글이 얼마나 중요한 인류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지 그 여건과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말글이 세계사, 인류사, 문화사 연구의 필수도구임을 인식하여 다학제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국운 상승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종대왕이 꿈꾸고 시작한 세종 대업(세종 프로젝트)의 완성을 향한 첫걸음을 이 세대가 시작하자.

한말글

필자가 이 글에서 의미하는 한글은 훈민정음으로 반포(1446)되어 오늘날 우리가 매일 쓰는 문자라면, 한말글은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담아 써 오던 넓은 의미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근세에 기록되기 시작한 한글 문자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대와 국경과 문화의 경계도 넘어서 검토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에 사멸할 뻔했던 우리말을 한글로 지켜 낸 한글학자들과 한글성경 전파 등 노력은 대한민국의 한글전용 정책으로 이어졌다. 한글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맹률과 높은 교육열로 연결되어 한국의 비약적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했다. 다만

한글전용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글은 대한민국 문자, 한자는 중국 문자라는 인식이 부지불식간에 자리 잡았다. 한글 애용을 위해 우리 고유의 말을 찾아 쓰면서 한자어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자 기피의 부작용으로 선조들이 쌓아 온 수천 년 문화유산이 외면당하고 전승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나라 발전의 거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는 현대 과학문명이 모두 영어로 통용되는 현실도 이에 한몫 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구미 자본주의 경제와 소비문화가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아시아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는 오늘날 세계는 동양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한류 바람이 진정 뿌리내리고 힘을 발휘하려면 한글만이 아닌 한말글이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말글에 관한 한 비전문가인 필자가 무모한 시도를 무릅쓰는 이유를 구태여 밝힌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유전자 정보를 다루는 분자유전학자들에게는 인류와 생물의 분류, 진화, 이동, 그리고 언어, 문법, 논리 등은 관심이 높은 주제로서 각자의 좁은 전문영역을 벗어나 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욕구가 크다. 둘째,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면서 여러 나라 학자들과 교류하고 세계 여러 지방과 문화에 접근할 기회가 많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현상을 관찰하는 기회가 많다. 필자도 이러한 연유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한말글에 가져왔던 관심이 단편적 지식으로 모아지고 조금씩 관련 전문가나 문헌에 연결되면서 지극히 초보적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식견을 갖게 되었다. 셋째, 한 개인의 단편적 통찰은 호기심 수준으로 끝나버릴 수 있으나 티끌이 모여 태산을 이룰 수도 있다. 나 하나의 침묵은 진리 발견의 기회를 영원히 외면하고 묻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자각에 이르게 되면 오류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함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충정을 대변하듯이 영국의 존 스튜아트 밀(John Stewart Mill, 1806-1873)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진리의 추구와 발견에 유익함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소수 의견이 혹시 틀린 경우라도 그 오류를 반박함으로써 진리를 더욱 잘 이해하는 계기를 주게 된다고 하였고, 언론의 자유는 재능을 발전시키고 한 인간의 가능성과 창의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필자가 한말글에 관해 거쳐 온 일련의 인식 변천의 과정을 따라 글을 전개함이 의사 전달에 효과적일 것 같다.

우랄 알타이 어족

한국어는 우랄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배웠다. 가까이는 일본과 몽고, 멀리는 터키, 헝가리, 핀란드가 이에 속한다. 이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도 우리는 이 나라들에 친밀감을 가지게 된다. 필자가 만난 터키인 학자는 터키와 한국은 같은 언어권에 속한다는 말을 먼저 꺼내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일본어가 우리말과 매우 유사함이 흥미로웠다. 대다수 국민의 의식이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어 속의 한국어

일본어는 우리의 선조가 한때 한글을 포기하고 창씨개명하면서 강제로 배우고 써야 했던, 그리고 한때 영어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어서 배우고자 했던 언어 정도로 이해되어 있었다. 일본어가 중국말과는 달리 우리말과 매우 유사하다는 생각은 했었다 그런데 필자는 1993년 조선일보 일요 연재 특집으로 소개된 이영희의 "노래하는 역사"를 대단히 흥미롭게 읽으면서 우리말이 일본어휘의 뿌리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8세기 초 일본 고전인 "만엽집(万葉集)"에는 우리 신라 향가와 비슷한 노래 4천5백16수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일본 학자들이 중세 일본어와 현대 일본어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많은 부분이 정체불명의 문장으로 남아 있었다. 이를 고대 한국어 이두로 읽으면 그 당시 신라, 백제, 고구려인들이 왕족이요 고위 관리로서 활동하던 정치사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많은 예제 풀이는 설득력이 있었고 이 주제는 필자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 한편, 일본 고대사 기록인 일본서기(720년 편찬) 30권 중에서 첫 3권에는 신들의 계보, 천손강림신화 등이 있으나 일본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신화시대에 신들이 사용한 언어로만 여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 기록들이 고대 한국어라는 사실을 인명, 지명, 본문에서 명확히 해석한 책(오광길)도 발간되었음을 최근(2011) 알게 되었다.

조일신문(朝日新聞)을 '아사히심분'으로 읽는 데서도 "아침해"를 우리 글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를 빌려 쓴 것을 알 수 있고, 일본 회사 이름 히다치(日立)는 "해돋이"라는 우리말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지명과 단어들이 일본어에 무수히 깔려 있다고 한다. 한일 공통 어원을 밝힌 책들도 이제는 많이 발간되었다(김세택, 남신웅). 일본 안의 백제문화를 백제인 정착지 현장 조사와 비문 금석학으로 연구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는 출판물(임동권)도 나왔다. 일본 천황도 자기 조상이 한국 유래임을 공식 발표한 바 있고, 미국 뉴스위크지에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한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그 동안 느끼고 알아 온 관념들을 극복하고 한일 관계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입체적으로 재해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언어

필자는 2003년 국제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여행하면서 뜻밖

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훨씬 장대한 “이과수” 폭포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의 접경을 이루며 흘러내린다. 원주민이 부르는 “이과수(Iguaçu)”는 “큰 물 big water”을 뜻한다는 설명을 듣는 순간 필자는 귀가 번쩍 뜨였다. “수”가 우리말로 물인데 혹시 “이과”가 “크다”라는 우리말, 혹은 몽고말이라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몽고말을 아는 주채혁 강원대 사학과 교수를 만나는 인연이 있어 물어보고 맞음을 확인했다. 서울대 김호동 교수의 대몽고제국(원 나라)과 고려의 외교에 관한 강연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갔는데, 대(大)에 해당하는 몽고어 발음이 “ek”였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몽고인 물리학자 한 분에게서 ‘물’은 ‘오수’(“osu, usu”), “ik, ek”는 ‘많다, 크다’임을 확인하였다. 북아메리카 인디언은 약 15,000년 전에 아시아인들이 얼어붙은 베링해협을 건너 이주한 것이 정설로 되어 있지만 남아메리카 원주민은 해양에서 진출한 남방계 인종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북부뿐 아니라 남부 아메리카 대륙의 사라져가는 원주민 언어를 보존하고 연구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이루 헤아리기도 힘들 것이다. 우리말을 모르는 서양인들은 위키페디아에서 설명하는 대로, “iguazu”는 Guarani 또는 Tupi족 말로 “y” [ɨ], “물”, 그리고 “ûasú”[wa'su], “크다”임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 “맨해튼”의 유래를 여행책(홍수연-홍지윤)에는 인디언들이 “많다”라는 뜻의 “manha”와 “언덕”을 의미하는 “hatta”를 조합하여 “만나하타(언덕이 많은 섬)”라고 부르던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말을 적용한다면 “많아 땅”이 적절할 것이다.

2006년 미국 위스컨신주 매디슨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두 가지 부수입을 올렸다. 브라질 학자의 발표 내용 중, 브라질 남부의 “두루수”라는 지방에 사는 주민들은 붉은 고추를 독특하게도 바닥에 펼쳐서 태양에 말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 습속도 우리나라와 공통되지만 “두루수(turuçu)”의 뜻이 궁금하여 물어보니 “큰 물, big water”라고 하였다. 큰 비가 오면 홍수가 난다고 했다. 두루두루 물이 넘치는 강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었다. 한강을 “아리수”라 부르는 명명법과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매디슨 지역 아메리칸 인디언을 직접 만나들은 바로는 그들의 조상은 먼 옛날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서 왔는데, 집 위에 집이 층층이 있고 지붕은 금으로 장식된 곳이라도 했다. 2011년 미국 뉴욕시 맨해튼 남단에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에서 만난 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수천 개의 원주민 부족이 존재했으므로 단순한 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기원은 한국보다는 티베트에 더 큰 가능성을 둔다고 한 말과 일맥상통한다.

2011년 비엔나의 학회장에서 만난 한 브라질 학자는 성이 Correa였다. 조상의 기원은 알지 못했으나 그 뜻은 정미소 기계의 “두 바퀴를 연결하는 벨트(고리)”라고 배웠다고 했다. 고구려, 고려로 이어져 온 고리족의 고리는 문고리에서처럼 쓰이는 “고리”이며 같은 어원임을 얘기해 주었다. 그는 매우 흥미롭게 듣고 앞으로 조상 기원을 추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우리 한국인을 코리안이라 하지 않고 “고올리”라고 부른다는 말을 그곳 택시기사에게서 들었다. 모두가 연결되는 얘기다.

아직도 고유 문자는 없으되 말을 전수하고 있다는 미국 뉴멕시코주 “푸에블로” 인디언의 설명을 2001년경에 들으면서 인디언 족들의 말을 우리 한글로 채보할 수 있다면 우리말의 어원을 넓히면서 인디언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크고 작은 호수가 1만 개가 넘는다는 미네소타 주의 이름은 “미네(물)”와 “소타(많아)”에서 유래했다는 등 여러 예를 들으면서 이곳에 무궁무진한 우리말의 보고가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 시드니 브렌너(Sydney Brenner) 박사가 만찬석상에서 들려 준 바로는 미국 미시간주 소재 칼라마주(Kalamazoo)는 일본어로 “순수한 물”이란 뜻이라고 들었단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영국에서 대학교육 이후 평생을 분자생물학과 유전체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언어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그의 아버지는 핀란드에 인접한 라트비아에서 이주했다고 했다.

이과수 폭포의 몽고어 관련 문의로 인연을 맺은 주채혁 교수가 멕시코에 깔려 있는 우리말에 관한 글을 전해 주었다. 손성태 박사는 배재대 스페인어 전공교수이다. 그는 2006년 영어와 스페인어 알파벳으로 기록한 멕시코인의 언어와 풍습에서 우리말을 발견하였다. 단순한 단어의 일치뿐 아니라 형태소의 일치까지도 확인하고 민족 이동, 민속, 고어 비교 등으로 매우 신빙성 높은 학문적 성과를 올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 연구가 크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소개하는 바이다. 손성태 식 발음으로 ‘멕이코’의 아즈텍 문명과 그 이전의 테오티와칸 문명, 그리고 잉카 문명도, 우리 선조들 특히 요동의 아스땅(아사달)을 출발한 맥이족과 부여의 고리족이 일으킨 문명이었음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제시한다. 그들은 최소한 기원전 50여 년 전부터 약 일천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단다. 한 멕시코 여행 영상물에서는 멕시코인 관광안내원이 몽고인들은 약 3천 년 전에 멕시코에 옮겨왔다고 말하였다. 미국 뉴멕시코주, 아리조나주, 그리고 멕시코 등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들에서 찾은 우리말 몇 가지를 전해 보자. 옥수수 corn은 우리말 콩이고, 옥수수 maize는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맛있어”라고 한다. 영어의 hurricane(허리케인)은 스페인어 발음으로는 우리의 천둥소리 “우루쾅”에 가깝다고 한다. na(우리말 일인칭 주어 나), ashkii(아쉬키=아새끼, 소년), tepec(태백=산), 피라미드의 원어민 언어 tlachihualtepec(다지왈태백=다 지은 산), condor(콘도르=큰 새) 등 언어와 윷놀이, 비녀, 상투 등등 무수한 예들이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은 조선 건국(1392) 100년 후, 임진왜란(1592) 100년 전인 조선조 성종 23년에 해당한다. “1491”이라는 저술에서 저자 Charles C. Mann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491년에 아메리카 대륙에는 유럽보다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다. 아즈텍(Aztec)의 수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 같은 도시는 오늘날 유럽의 어느 도시보다도 인구가 월등히 많았다. 더욱이, 테노치티틀란은 그 당시 유럽의 어느 수도와는 달리 흐르는 물, 아름다운 식물원, 그리고 아주 깨끗한 거리를 유지했다. 이 서반구의 초기 도시들은 이집트가 큰 피라미드를 짓기 이전에 번성하고 있었다. 콜럼버스 이전에 멕시코 원주민들은 고도로 발달한, Science지가 지적한 대로 아마도 인류 최초이고 위대한 유전공학인, 옥수수 육종

법을 구사했다. 아마존 원주민들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지 않는 영농법을 알고 있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파인만이 그의 말년에 멕시코와 잉카의 문명과 천문학을 추적하고자 그 당시 소련정부를 통하여 몽고 여행을 추진했던 열정은 그에게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짐작하게 하지만 이는 한말글과 그 속에 축적되어 있는 동양 철학과 사상을 아는 한국인이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유럽의 언어

국제학회로 여행할 때면 이제는 습관처럼 그 곳 문물, 언어, 문자에서 무엇 하나라도 건질 것이 있는가, 살펴본다. 2009년 6월 필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가해 나의 foldback intercoil(FBI) DNA에 관해 발표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세 가지 사항을 건졌고, 그것은 또 다른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연결되었다. 첫째, 건널목 신호등에서 "가시오"가 "GA"이었다. 둘째, 가로 곳곳에서 눈에 띄는 "IKKE"는 "NO"라는 금지 명령이었다. 감탄사로 시작된 "이크, 예크"는 크다, 많다, 예끼로 연결될 수 있고, 우리나라 태껸도에서 쓰이는 구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셋째, 민속박물관에서 죽은 사람 장사에 관한 설명문을 읽다가, 영어 "dead"가 덴마크어로는 "døde"로 되어 있음을 보는 순간, 우리말의 "뒈져"와 연결됨을 깨달았다. 영어의 death와 우리말의 죽음은 아무 연관이 없었는데 이는 뜻밖의 선물이었다. 아무리 미약한 경우이지만, 핀란드뿐 아니라 분명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도 우리말의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즐거운 믿음을 갖고 돌아왔다.

영어와 우리말

등산 중에 나의 언어 편력을 얘기하다가 이런 비슷한 쪽으로 쓴 책이 있음을 소개 받았다. 오광길(2002)은 영어와 한국어에는 어원이 같은 어휘가 적어도 200여 개 있음을 찾아냈다. 그는 그 있을법하지도 않은 연결의 시원을 추적해 들어가 아랄 해에 연결된 아리아인과 수메르인 언어, 그리고 결국 그리스 알파벳의 그림 문자에까지 도달하였다. 그의 200여 개 어휘 목록에 "dead"와 "뒈지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어와 한국어에서 공통 어원을 가졌다는 몇 가지 보기를 들어 보자. 영어를 독일어 식으로 읽으면 더욱 명확해진다. agitate – 아귀다툼, arm – 아름, bath – 벗다, battle – 빼틀다, bottom – 바탕, butcher – 푸줏간, gag – 개구쟁이, gaul – 고을, many – 많이, saint – 상투, seed – 씨, sexy – 색시. 여러 가지 중요하고 흥미 있는 얘기들이 전개되지만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다. 언어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저자가 제시하듯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어, 한국어, 인도의 드라비다어, 영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결국 한말글은 좁은 한반도에 갇혀 있는 소수민족의 문화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시원의 중심에 뿌리내리고 있고, 동서양 문명의 원형에 알게 모르게 아주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글은 표음문자로서의 과학성과 보편성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한자와 한말글의 관계가 궁금해진다.

중국어와 한말글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에서 원래 물리학자인 대만인 저자는 헝가리 수상의 이름에서 퉁구스계 언어의 흔적을 발견한 이후 중국 북방 민족의 명칭과 성씨를 비교 연구하였다. "오래 전부터 진(秦)나라가 융적 출신이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어왔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최초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이 중국인이 아닌 이민족이었다고 한다면 모르기는 몰라도 중국인들은 금세 흥분을 해서 난리가 날 것이다…"고 저자는 말한다. 진나라 부락의 언어는 몽골어였다고 한다. 진나라, 금나라, 청나라가 각각 qin진, jin진, qing칭으로 발음되는 것도 공통점을 시사한다. "몽골비사에는 이런 말이 나와 있다. 징기스 하안은 텡기스 하안과 달라이 하안의 두 단어와 같은 뜻으로, 모두 다 '큰 바다 같은 하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 인민일보에는 "한자/한문은 동이족이 시작했다"는 1998년 11월 1일자 기사가 있다(안수길 2011). 많은 사람이 '한자'를 중국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 대중이 썼던 말은 '백화(白話')였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중국인들은 인민의 언어인 백화로 글을 쓰자면서 한문을 배척했다고 한다. 결국 문맹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간자체를 도입하면서 한문 사용을 벗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간자 발음도 오랜 구어체 문화의 결과로 받침이 많이 뭉그러져 있다(안수길 2010).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에서도 받침(종성)이 뭉그러지고 알파벳의 음가가 혼란스럽다. 한자의 본래 발음을 보전하며 한글로 일대일로 대입할 수 있는 능력과 풍부한 우리말 어휘를 보더라도 한자는 우리말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았고, 특히 한자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말 발음 기록의 수단으로도 쓰였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구촌 시대에 맞는 식견을 가져야 한다.

맺음말

우리는 훈민정음의 과학성과 편리성에 취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대부분을 저장하는 한

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오히려 한문을 발전시킨 동이족의 후예로서 한문 한자를 한말글로 함께 계승 발전시키는 소명의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 언어에서 우리말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어 속에서도 우리말과 공통되는 뿌리가 있음을 간과하지 말고 동서양 문명을 아우르며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 나라가 경제, 과학, 문화 선진국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전인미답의 경지에 도전하는 개척정신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어야 한다. 모든 대륙에 직항로를 운영하며 휴대전화로 정보통신의 흐름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이다. 고대 문명은 차치하고 근세에도 독일어 창달에 마틴 루터와 피히테가 있었고, 영어 전파에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과학, 컴퓨터, 자유 민주주의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지구촌 언어를 꿰뚫을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있다. 한말글에 뿌리내린 한류로 온누리에 한문화의 기상을 떨치는 세종의 꿈, "세종 대업(Sejong Project)"을 펼치자.

참고문헌

김세택. 2010. 일본으로 건너 간 한국말. 기파랑.

남신웅. 2004. 일본말은 한국말이다. 함무라비.

손성태. 2009. 아즈텍 문명을 건설한 주체는 한민족. 월간개벽(162-169).

안수길. 2011. '사람' 가려 '이름' 주기.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7: 46-61.

안수길. 2010. 구어(口語)로 허물어진 오늘날의 언어. 서울대학교명예교수회보 6: 35-57.

오광길. 2002. 역사의 키워드 아리랑과 알파벳. 씨와알.

이영희. 1994. 노래하는 역사. 조선일보사.

임동권. 2005. 일본 안의 백제문화. 민속원.

주학연(문성재 역) 2009. 진시황은 몽골어를 하는 여진족이었다. 우리역사연구재단.

홍수연, 홍지윤. 2009. 뉴욕 100배 즐기기. 랜덤하우스코리아.

Charles C. Mann. 2005. "1491, New Revelation of the Americas Before Columbus". KNOFF.

대북 유화(宥和)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역작용 한다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 호 징

1. 김일성 세습정권의 반민족성

나는 일제하에서 태어나 만 15년 살아서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 동안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겪었다. 해방의 감격에 잠기고 미래의 꿈에 젖은 지 얼마 안되어 김일성이 일으킨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4년10개월의 군대 생활을 하였다. 제대 후 복교하여 학석사가 된 다음, 도합 6년 반을 미국에서 공부하며 살았다. 일제(日帝) 식민지 때 자유(liberty, freedom)와 평등(equality)의 소중함을 배웠고, 한국전쟁 때 자유와 형제애(fraternity)의 중요성을 음미하였으며, 미국 체재(滯在) 때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새겨 보았다.

그리고 "인권(human rights)"을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정도로 여겨왔는데, 어떤 기회에 UN총회에서 1948/12/10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접하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실은 자유 · 평등 · 형제애로 요약되는, 인간의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그 후 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인권의 대헌장(大憲章)으로서 인권을 세계인 공유의 가치로 확인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강제성을 지니도록 이 인권선언을 remodelling한 것이,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Political and Civil Rights)"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이라는 두 개의 국제인권협약이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이 들 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주권재민(主權在民) · 인권보장(人權保障) · 법치(法治) · 권력분립(權力分立)를 국시(國是)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상술의 인권선언과 두 개의 국제인권협약에 기재된 양식을 따른다. 즉 생명 · 사상 ·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한마디로 인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정기적(periodic)으로 실시되며, 자유롭게 입후보한 복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비밀투표로 실시되는 보통 · 평등 · 직접선거이다. 이를 앞으로 공정자유선거라고 부르기로 한다.

1948/05/10에 김일성의 거부로, 한반도의 전인구의 2/3 이상이 거주하는 38도선 이남에 한해서, UN 감시 하에 실시되었던 선거는 바로 이 공정자유선거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도, 이런 선거로 하자는 것이다. 즉 통일

국가 제헌(制憲)국회 대의원 선출을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로 시작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제정을 거쳐서, 통일국가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의 전적인 책임은, 소련군의 주선으로 얻은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중립국 UN 감시위원단이 입회하는 한반도 전역에서의 공정자유선거를 거부한, 소련군 초급장교 출신의 김일성에 있다.

"김일성의 헌법"이라고 명명(命名)된 북한의 헌법의 서문(序文)에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領導) 밑에 모든 활동을 한다"고 되어있으며, "김일성의 당"이라고 불리는 조선노동당의 10계명(誡命)격인 "유일사상체계확립의10대원칙"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충성으로 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하며, 그의 교시(敎示)를 신조(信條)화 하여야 하며, 그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한다"라고 쓰여 있다. 즉 헌법 위에 노동당의 영도가 있고, 노동당 위에 영원한 주석 김일성의 교시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는 "전국민을 무장화하고, 전국을 요새화한다"고 명시함으로서 선군정책을 천명하고 있다. 즉 북한은 절대군주가 3대째 세습하여온 군국(軍國)주의 제국(帝國)이라고 볼 수 있다. 태양절(太陽節, 김일성 생일)을 국경일(國慶日)로 하는 북한에서는, "자유"를 누릴 권리는 천장절(天長節, 日皇의 생일)을 즐기던 일제(日帝)하의 신민(臣民)보다도 없다. 핵심(核心) · 동요(動搖) · 적대(敵對)계급의 신분제도 하에서 "평등"을 기대할 수는 없다. 20만의 백성을 수용하는 가혹한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흉년이 오면 대량 아사(餓死)가 일어나는 곳에서 "형제애(兄弟愛, 博愛)"는 찾아볼 수 없다. 즉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주민은 김일성 일족에게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사칭(詐稱)일 뿐이다.

북한에서는 노동당에서 지명한 한사람의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99%가 투표장에 나가서, 비밀경찰의 입회하에, 100%가 찬표(贊票)를 던지는 것을 선거라고 한다. 이는 수령(首領, 김일성과 그의 자손)이 지명한 입후보자를 강제로 승인하게 하는 선거양식의 연극(演劇)에 인민이 동원되는 것 뿐이다. 좋게 말해서 부정선거(不正選擧)이다. 다음 표는 김일성왕조 3세가 지배하는 북한의 오늘의 모습이다.

나라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조사대상 나라총수
인권상태 순위	F	F	F	NF	NF	NF(194위)	195
경제적자유 순위	10	24	34	139	136	177	177
언론자유 순위	32	53	50	148	173	178	179
민주주의성숙도 순위	19	21	22	117	141	167	167
인간개발지표 순위	3	10	12	55	101	자료없음	185
현역군대수 순위	2	20	6	5	1	4	

나라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중국	북한	조사대상 나라총수
일인당GDP(ppp) 순위	9	27	29	57	96	165	196
금액(US$)	49,000	36,200	32,400	17,700	9,100	1,800	

F는 Free(1~90위), PF는 Partly Free 그리고 NF는 Not Free(149~195위)를 뜻함

인권상태 순위	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13 (Subcatagory의 점수까지 고려한 순위이다.)
경제적자유 순위	Heritage Foundation et al, 2013 index of economic freedom
언론자유 순위	Reporters Without Borders, Press freedom index 2013
민주주의성숙도 순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11
인간개발지표 순위	UN Human Development Report, Human development index 2013
현역군대수 순위	Global Security Organization, Active duty uniformed troop strength
일인당GDP(ppp)	USA CIA, World Factbook (2009~2012)

김일성일족(一族)은 상습적인 부정선거와 인민의 인권탄압을 수단으로 65년간 3대에 걸쳐 권력을 유지하여왔다. 권력확장(擴張)을 위한 전쟁(戰爭) ·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살인(democide) · 아사(餓死)로서 동포 수백만 명을 숨지게 하였다. 실제로 한반도 유사 이래 어떤 지배자나 침략자보다도 더 많은 동포를 숨지게 하였다. 즉 김일성 일족은 한반도 유사 이래 최악의 살인자이며 민족반역자들이다. 미국의 Parade지(誌)는 2011년에 The World's 10 Worst Dictators를 선정(選定)하면서 김정일을 그중 세계 제1의 독재자로 등극시켰다. UN총회는 극단적으로 열악한 북한의 인권상태에 우려를 표명하는 대북(對北)인권결의안을 2011/12/19에 통과시켰다. 위의 표는, 65년 이어온 김일성왕조가, 백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악(evil)의 집단이며, 국제사법제판소에 고발되어 단죄되어야할 반인륜적 조직임을 알려준다. Geneva에 있는 UN의 인권협의회는, 2013/03/21에 북한의 인권상태를 조사 보고할 청문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의 설립을 위한 결의안을, 47명의 위원 전원의 합의로 통과시켰다.

김일성세습독재정권의 당면 목표는, 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 1950년 초의 남북의 군사력의 비대칭 상태를 재현(再現)하여, 6 · 25 때 김일성이 시도(試圖)하였듯이, 기습전격(奇襲電擊)작전으로 남한을 유린하겠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김일성왕조의 정략(政略)은, 김대중 ·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방문으로 이루어진 2000/6/15 선언 및 2007/10/4 선언과 최근의 핵무기실험 및 탄도미사일실험 강행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결론지울 수 있다.

(1) 남한의 친김반미(親金反美, 이른바 從北)인사와 결탁하여, 김일성세습정권과 대한민국을 묶어서 소위 남북 연방국가를 형성함으로서, 한반도 주둔(駐屯) 명분(名分)이 사라진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이를 관철한다.

(2) 미국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무장하여 미국 본토를 겨누며 위협하여, 핵무장 해제(解除)를 평화조약체결 · 주한미군철수와 연계

하여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왕조의 혈맹(血盟)인(6자회담의 주최국인) 중국의 국익(國益)과도 일치한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김일성왕조는 남한의 친김반미(親金反美, 이른바 從北) 정치인들을 선동하여 남한의 방위전력을 약화시킨다. 즉 한국전쟁 휴전 직후부터 휴전선에서 인계철선(trip wire)의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 지상군을 수도권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수도권 방위의 전략적 수역(水域)인 NLL 이남을 평상시 북한의 어선(위장 선박)에 개방하여, 유사시 북한군의 인천상륙-수도권장악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헌정(憲政)질서 교란(攪亂)을 선동하는 한편, 징병기간 단축, 국방예산 삭감, 해군기지 조성 반대 등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쟁억지력을 사실상 약화(弱化)시킨다. 심지어는 휴전 중의 김일성왕조의 군대를 국군의 주적(主敵)이 아니라고 선전하게 한다. 한편으로는 (한시적) 평화 유지의 대가로, 남한 사람의 세금으로 구매한 쌀과 질소비료 등의 전략물자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원조를 받아 김일성왕조의 체제 안정과 남정(南征) 전력(戰力)의 강화에 쓴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격성은, 김일성일족의 권력욕에 원초적 동기가 있는 것이고, 북한과 남한 사이의 오해에 기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김일성세습독재정권을 대상으로 대화로 생산적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妄想)이다.

2. 헌법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책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 제69조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暢達)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한다. 대통령의 책무(責務) 관련 헌법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使命)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6조(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 제66조(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 영토의 보전(保全) ·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 제66조(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은 UN이 1948/12/12에 총회 결의 195(III)에 의하여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唯一)합법정부라고 선언한 나라이다. 그리고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의 사전 동의를 얻고, 소련이 제공한 T-34탱크, YAK전투기와 따발총을 가지고 38선을 넘어 1950/06/25에 남침하자, 16개 나라의 군대로 이루어진 UN군을 보내서 지켜준 나라이다.

UN총회 결의 195(III) 1948/12/12

... Declare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and in which the great majority of the people of all Korea reside; that this Government is based on elections which were a valid expression of the free will of the electorate of that part of Korea and which were observed by the Temporary Commission; and that this is 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 ...

이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후 DJ로 약칭)은 2000년 6월 수억 불(弗)을 싸들고 평양으로, 김일성왕조의 제2세 폭군인 김정일을 찾아갔다. 그리고 말미(末尾)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이라고 서명된 소위 "6 · 15남북공동선언"에 서명 발표하였다.

(가)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UN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신이,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정부가 또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3조는 한반도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데,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한반도 북반부의 땅은 김일성왕조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나) 6 · 25의 전범(戰犯)이며 동족대량살해범의 아들이며, 1990년대 후반에 동족을 대량으로 굶어죽게 한 당사자이며, 공정자유선거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국가를 수립하기 전에 먼저 사라져야할 자이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목적달성을 하면 약속 폐기(廢棄)를 다반사로 하는 독재자들의 공통 특징을 지닌 자인 김정일을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다) 휴전상태의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이 충분할 때까지) 필수적이었던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명분이 되는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을 만들자"고 약속하였다. 남북이 비대칭적 군사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반도를 1950년의 6 · 25 직전의 상태로 회귀(回歸)시키자는데 동의하였다. DJ는 헌법 제66조 (2)항, (3)항의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라) 수억 불의 미화와, 군량미로 전용될 수 있는 쌀과, 화학적 처리로 쉽게 폭약이나 로켓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질소비료를 무상으로 퍼주어서, 김일성왕조의 핵무기 미사일 등의 대남 전력(戰力) 강화를 사실상 도와서, 남북전력의 비대칭성을 심화(深化)시켰다. 즉 대한민국의 국익을 명백하게 해쳤다.

DJ는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휴전상태에 있는 적(敵)의 수장(首長)이며, 북한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민족반역의 세습독재자와, 우리의 헌법 제4조에 부합되지 않은 야합(野合)을 해놓고, "역사적 화해"를 했다고 선전하였다. Norway의 노벨위원회는 (1973년 Kissinger에 주었던 것과 같이) 2000년 12월 DJ에게 노벨평화상을 수여하였다. DJ는 2000/12/09의 외신기자와의 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늘 같이 노벨상을 받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약 20년 전인 1981/01/20의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등 위반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DJ를 석방하라"는 김일성정권의 부주석인 김일(金一)의 1981/01/19의 평양방송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일은 (1) DJ가 (햇볕정책의 명목으로) 준 돈을 보태서 원자탄을 만들어 대남전력을 강화하여, 대남(對南)군사력의 비교우위(優位)를 더 확보하였으며, (2) 남남갈등을 조장하며, 남한의 친김반미(종북) 세력의 제도권(制度圈) 정치무대 진출을 도왔으며, (3)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의 국제적 위상의 격상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였다. 반면 DJ 자신은 경의선 연변(沿邊)의 지뢰를 제거하고, 간선(幹線)도로에 있던 대전차장애물을 제거하고, 해안선의 대간첩용 철조망을 철거시켰다. 평화 무드를 조성하여 심리전 측면에서도 대북 방위전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판사 전력(前歷)의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후 MH로 약기)은 "그 놈의 헌법 …"의 발언에서 추정(推定)되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헌법준수 의무를 무시하고, 우리 북한동포의 인권 문제에는 전연 관심이 없었다. 실제로 MH정부의 UN대사는 UN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棄權)하였다.

MH는 임기를 수십일 남기고 2007년 말 평양으로 김정일을 찾아갔다. 그리고는 김정일과 더불어 소위 "2007남북정상선언"에 서명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MH는 세습독재자와의 야합(野合)으로 이루어진 반헌법(反憲法)적인 DJ-김정일의 6 · 15공동선언을 고수(固守)하기로 약속하였다.

1972년 4월 평양을 방문한 이후락에게 "민족적 대단결을 하자"는 남북공동성명에 동의해 놓고, 김일성은 그 직후 휴전선 밑에 남침용 땅굴을 팠다. 1992/02/19에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타결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해놓고, 핵폭탄 개발에 착수하였다. 김일성 세습독재정권은 휴전협정 위반을 다반사(茶飯事)로 하였다. 북한 동포의 "인권을 존중 하겠다"고 세계인에 약속한 (상술의) 국제인권협약에 가입 비준하여놓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 상습적 거짓말쟁이이며 반인륜(反人倫)적 범죄자인 김정일을, 인권변호사이었으며 (역시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MH가, 존중하고 신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2007남북정상선언 제3항에는 "… 전쟁을 반대하며, …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라고 되어있다. 선군정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총인구의 약 5%나 되는 현역(現役)병력을 유지하

면서, 휴정협정을 수 없이 위반하였으며, (1999년에) NLL을 고의로 월경 남침하여 연평해전을 유발한 당사자가 "전쟁을 반대한다"는 것은 기만(欺瞞)일 뿐이다. 실제로 그 후에도 김정일의 해군은 2010/03/26에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의 천안함을 폭침시켰으며, 2010/11/23에는 시민거주 연평도를 해안포로 포격하여 사상자를 내게 하였다.

특히 NLL이남의 수역은 역시 헌법 제3조에 의하여 우리의 영토인 한반도의 인접(隣接)수역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해(領海)이다. 이 영해수역은 수도권 방위의 요충(要衝)수역이다. 6 · 25사변 때 UN군이 상륙작전으로 수도권을 단시간 내에 제압하여 전황(戰況)을 역전시키는데 기여한 곳이다. 김정일의 군대가 기습 남침으로 속전속결하는데 전략적으로 유용한 수역이다. 대통령이었던 MH의 이 제3항에의 동의는 헌법 제5조 (2)항의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선임(先任) 대통령이었던 DJ는, 1999년 NLL을 남침(南侵)한 북한 해군을 상대로 싸워서 승리한 연평해전 유공(有功) 해군제독을 좌천(左遷)시켰다.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재를 구축해 나가야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회담, …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2007남북정상선언 제4항 역시 독소(毒素)조항이다. 정전(휴전)협정을 수 없이 위반한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평화협정을 준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전체제의 종식을 바라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을 찾기 위함이다. 김일성의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限)은 평화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6 · 25전쟁과 그 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경험하고, 이미 확인한 바 있다. 1949년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김일성왕조의 시조(始祖)는 1950년 외세의 후원을 얻어 기습 남침하여, 우리민족 200만을 희생시켰다.

북한 땅에서 원자탄의 폐기 여부를 서방국가가 검증(verify)할 수 있다는 것은, 같은 검증수단으로 ("혈맹"이며, 지리적으로 접경한) 중국이 김정일의 원자탄 개발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과 에너지를 김일성왕조에 공급하는 중국은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녔다. 중국이 주최하는 6자회담에서 북중(北中)의 공통적 관심사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철수시켜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6 · 25 직전의 상태로 회귀(回歸)시키는 것이다.

3. 대북유화정책은 한반도 평화에 해(害)가 된다.

한반도는 초강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 일본의 틈바귀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북반부는 일제 35년간의 강점(强占)에 이어 민족반역의 세습독재정권인 김일성왕조가 65년간 강점하고 있다. 극단(極端)적인 폐쇄(閉鎖)성, 배타(排他)성, 공격(攻擊)성을 지닌 김일성왕조는 한반도 인구의 2/3 이상의 남한 동포와의 평화공존조차도 거부하며, 대남 무력공격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7400만의 주민에게는 앞으로 두 가지의 선택이 있을

뿐이다.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이거나 김일성왕조에 의한 무력통일 뿐이다. 즉 한반도 전체가 현재의 남한과 같이 되거나, 현재의 북한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 외의 선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해방 후의 역사에서 배웠다.

DJ와 MH는 남정(南征)의지를 지닌 김일성왕조와 야합(野合)을 하였다. 평화공존의 뜻이 전연 없는 김일성세습정권을 상대로, 적대행위종식-평화공존-연방제통일 지향(志向)을 위하여 "신뢰 · 존중 · 협력 · 원조"를 하겠다고 약속 하였다. 동포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자유선거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하였다. DJ와 MH의 "퍼주기"식 원조는 김일성왕조의 핵폭탄과 장사정미사일 개발에 기여했으며, 그 결과로 얻어진 (남정(南征)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표출되었다.

2013년의 대한민국 새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해서 대북 투자나 원조를 하겠다"는 발상은 또 하나의 지극히 위험한 대북유화정책이다. "햇볕정책"을 "신뢰process"로 바꾸어 신장개업(新裝開業)하는 듯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 김일성왕조는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핵무기를 일시적으로 폐기하더라도, 제조기술의 knowhow와 원료광물자원을 가진 북한은, 원하면 언제든 다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압도적 다수의 병력과 재래식 무기만을 사용하여서도 전격기습 선제(先制)공격으로 김정은의 인민군대는 남한의 수도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추고 있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을 때 김일성의 군대는 남침하였다. 더욱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남북 군사력의 심한 비대칭 상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김일성의 세습정권에 대한 투자나 원조는, 우리에게는 납세자의 세금 낭비(浪費)와 방위력 약화를 유발(誘發)하면서, 김정은에게는 독재체제의 안정과 남정전력(南征戰力)의 강화에 기여할 뿐이다. 독재자에 대한 유화 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작용(逆作用)을 할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의 소멸에 있다. 외교적 수단을 써서, 북한의 인권상태의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적 여론 조성으로 김일성왕조를 압박하여 붕괴(崩壞)를 유발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Geneva에 있는 UN의 인권협의회(Human Rights Council)는 2013/03/21에 북한의 인권상태를 면밀하게 조사 보고할 책임을 지울 청문위원회의 설치를 47인의 회원 전원 합의로 결의하였다.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가 UN의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김정은을 "인륜에 대한 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고발을 해서 유죄판결을 얻어 낸다면, 북한 땅에서 주민인권회복의 가능성이 생긴다. 우리의 정부는 이 방향으로 외교력을 발휘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방위력의 구축으로 김일성 세습정권의 오판을 예방하는 것이다. 우리의 효율적 지휘체제 구축·재래식무력 증강 · 신무기(개발) 실전배치 · 군사동맹 강화는 김일성세습정권의 남정(南征)의지를 꺾어서 전쟁을 억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평화와 자유는 무상(無償)으로 누릴 수 없으며, 평화와 자유 없이 번영은 불가능하다.

2부 칼럼

지조와 관용의 길(道):
석당(石棠)의 당시(唐詩) 새긴 피장(蔽杖)의 교훈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부 이 흥 재

스스로 지조와 신의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포용할 수 있을까? 지조를 제대로 지키는 길은 지난하다. 관용을 참으로 베푸는 생활은 더욱 힘들다. 지조와 관용 어느 하나의 덕목도 진실로 실천하기 힘든 인간이요 세상이다. 하물며 지조와 관용의 길을 함께 실천함에 있어서랴.

석당(石棠)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독일어를 가르쳐 주신 송영각(宋榮珏) 선생님의 아호이다. 당시 선배들로부터 전해 온 선생님의 별명이 '똘배'였다. 그 별명을 모르면 모교의 동창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닉네임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암울한 그 시절,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던 소박하면서도 옹골찬 야성적인 선생님의 풍모를 여실히 상징한 별명처럼 느껴진다. 훗날 선생님은 별명 그대로 돌 석(石), 배나무 당(棠)으로 석당(石棠)이란 호를 스스로 지어 애용하신다. 이런 면에서 선생님의 낙천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성품의 일단을 엿 볼 수 있다. 어디 그 뿐이랴? 석당의 의미는 석우(石牛) 등의 선어(禪語)처럼, 언어로 접근할 수 없는 오묘한 진리를 은유한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뜻이 감추어진 것이 아닐까.

백이(伯夷) · 숙제(叔齊)를 흠모하며 기르는 고사리

석당은 1960년대 중후반 무렵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이어 안국동의 한옥에서 40여 년 줄곧 살고 계신다. 집에 들어서면 오른 쪽 처마 밑에 '백세청풍(百世淸風)'이란 현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백세청풍'은 백이 · 숙제의 지조와 인덕을 기리는 비석에 새겨진 글이다. 이 비석은 석당의 고향인 황해도 해주 수양산(首陽山) 아래 청풍교(淸風橋)의 오른 쪽에 자리한 백이 · 숙제의 사당(祠堂)인 청성묘(淸聖廟) 입구에 세워진 것이다. 백세청풍의 뜻은 "폭력은 폭력으로써가 아니라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백이 · 숙제의 맑은 기상은 영원히 빛나리라"고 석당은 풀이한다. 백이 · 숙제의 사당까지 창건하여 이들의 지조와 인덕을 흠모하던 해주의 석당 모교인 해주고보(高普) · 해주동중(東中)의 교지(校誌) 이름 역시 '백세청풍'이다. 이 '백세청풍'의 교지(원로동문의 글을 모은 근래 특별 제작된 단행본)에 석당(21회)은 "백이 · 숙제, 수양산, 채미가(采薇歌)"와 "춘망사(春望詞), Mignon"의 2편 글을 기고하였다.

형제 간인 백이와 숙제는 아버지 후계자로서의 임금(君) 자리를 서로 양보하며 인덕을 숭상하였다. 이들 형제는 은(殷)의 군주를 무력으로 치려는 주(周) 무왕(武王)의 공격이 인의에 반한다고 한사코 말렸으나, 무왕은 끝내 이들의 충언을 듣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여 중국 북부를 통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 처한 백이 · 숙제의 지조와 신의에 대한 석당의 글을 직접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이리하여 역사는 크게 전환되어 갔다. 각지의 제후들도 모두 다 주(周)를 종주로 추대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백이와 숙제는 그러한 세태를 거역(拒逆)했던 것이다. 백이와 숙제는 폭(暴)에 대하여 폭으로써 해결해야 하는 무인들의 방법에서는 그 어떤 인정도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주 왕실에 복종한다는 것을 치욕이라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信義)를 지켜 주나라의 곡식은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수양산 산서성 영제현(永濟縣) 남쪽에 있는 산에 은거하면서 그 곳의 고사리를 캐 먹다가 아사(餓死)하며 아래와 같은 노래를 지었다고 한다.

백이와 숙제가 굶어 죽으면서까지 지조를 지켰던 마음을 읊은 것이 고사리를 캐는 노래, 즉 채미가이다. 석당은 백이 · 숙제의 지조를 흠모하여 한옥의 소담한 정원에서 직접 고사리를 기르며, 당호(堂號)까지도 채미당(采薇堂)으로 정하였다. 채미가의 4련의 가사 중 2련, 3련에 대한 석당의 해석을 직접 옮겨 보기로 한다.

> 이폭역폭혜(以暴易暴兮) 부지기비의(不知其非矣)
> 무왕은 폭력으로써 폭정을 바꾸고서도 그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노라.
> 신농우하(神農虞夏) 홀언몰혜(忽焉沒兮)
> 신농, 우, 하 등의 옛 성군(聖君)들이 홀연히 모두 다 떠나버린 이 세상이 아니더냐.

‘님’ 그리움으로 상징화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고독

또한 석당은 ‘백세청풍’의 교지에 설도(薛濤)의 춘망사 4수와 괴테(Goethe)의 미뇽(Mignon) 등 2편의 시를 모두 역주하여 실으면서, 이를 소개하는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우리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대가로 38선, 그리고 6 · 25 사변의 발발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휴전선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같은 민족끼리 남북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게 되었다. 적어도 만물의 영장이라 호칭되는 인간이 같은 피를 나눈 동포끼리 정서와 애정 등 모든 정신적 인간감정을 교류시킬 수 없다니 일찍이 세계역사상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에 상술한 우리 민족의 마르고 애절한 정서의 일부나마 두 외국시인의 서정시에 역주를 붙여 소개한다.

설도의 춘망사 4수 중 제 3수는 우리들에게 '동심초(김안서 역)'로 잘 알려져 있으나, 석당은 이 애절한 심정을 어떻게 소화하여 번역하였는지 감상해 보기로 한다.

풍화일장로(風花日將老) 바람에 시달리는 꽃잎은 날로 시들어가고
가기유묘묘(佳期猶渺渺) 우리의 만날 날은 기약 없이 멀고 멀어라.
불결동심인(不結同心仁)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은 맺지 못하고
공결동심초(空結同心草) 사모하는 심정을 풀잎에 맺어 보다니 헛되기도 하여라.

석당은 왜 하필이면 춘망사와 함께 미뇽을 소개하였을까. 이 곳에 석당의 은밀한 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열쇠가 비장되어 있다. 석당의 번역을 음미하기로 한다.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오로지 님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자만이
Weiss, was ich leide!	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
Allein und abgetrennt	나 홀로 그리고 고독하게 유리되어
Von aller Freude,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Seh' ich ans Firmament	나는 저 창공을 바라다 보네
Nach jener Seite.	저 쪽 너머로.
Ach! der mich liebt und kennt,	오오! 나를 진정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바로 그 사람
Ist in der Weite.	저 머나 먼 곳에 있구나.
Es schwindelt mir, es brennt	어지러워라, 불타고 있네
Mein Eingeweide.	나의 가슴은.
Nur wer die Sehnsucht kennt,	오로지 님을 그리워 할 줄 아는 자 만이
Weiss, was ich leide!	내가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 줄 수 있으리!

춘망사와 미뇽에 나타난 '님 그리움'은 석당의 경우 이중의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닐까? 지조와 신의에 대한 원초적인 지향과 분단된 우리민족의 통일에 관한 염원이 오버랩되어 석당은 이 시를 소개한 것이리라. 이는 '지조'와 '통일'의 님을 그리워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으로부터 유리되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석당의 외로운 심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레싱(Lessing)의 '반지 비유 설화'와 관용의 강조

관용과 박애 실천의 전범으로 석당은 독일 계몽주의시대의 작가, 사상가인 고트홀트 레싱(Gotthold E. Lessing)의 희곡(시극)인 '현인 나탄(Nathan der Weise)'을 꼽는다. 석당은 그 중에서도 특히 '반지 비유의 설화(제3막 제7장)'를 번역하여 후학들에게 역설함으로써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게 한다. 이 희곡은 중세 중동지역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 현인 나탄의 관용과 박애의 실천을 본받아 이 갈등을 해소, 조화함으로써 이상적인 하나의 인류공동체를 지향하려는 데에 그 사상의 핵심이 있다.

이 희곡의 주요 등장인물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부호 나탄(Nathan), 나탄의 양녀 레하(Recha), 지배자인 술탄 살라딘(Saladin), 기독교의 신전기사(Tempelherr) 등이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대략 다음과 같다. 살라딘은 포로가 된 신전기사를 사형에 처하기 직전, 자신의 죽은 동생과 닮은 모습인 그 신전기사를 무슨 힘에 끌려서인지 해방시켜 준다. 나탄이 멀리 동방무역으로 집을 비운 사이 그 집에 불이 나서 생명이 위독한 레하를 마침 그 곳을 순례하던 신전기사가 극적으로 구해 주고 표표히 사라진다. 나탄이 동방여로에서 무사히 귀가한 뒤 서로 흠모하던 레하와 신전기사는 만나게 되지만, 신전기사는 레하가 기독교인 부모의 고아로서 유대인 나탄의 양녀로 된 사실을 알고 고뇌에 빠진다. 한편 술탄 살라딘은 재정 궁핍의 타개책으로 나탄의 자금을 탐낸 나머지 그를 궁정으로 불러 속셈과는 달리 짐짓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중에서 어떤 것이 참 종교인지를 묻는다. 이 난처한 절대 절명의 질문에 나탄은 동방의 '반지 비유 설화'로 답하면서 공평하고 편견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종교임을 제시하자 이에 감동한 살라딘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용의 회심을 한다. 이를 극적 클라이맥스로 하여 나탄은 그동안 양녀 레하에 얽힌 숨겨 두었던 비밀을 털어 놓음으로써 레하와 신전기사는 친남매이고 바로 살라딘의 친조카(즉 죽은 동생의 자식들)란 기적 같은 사실이 밝혀진다. 이슬람교도인 살라딘, 기독교도인 신전기사, 유대교도인 레하가 외관상 각자 신앙하는 종교와는 관계없이 사실은 하나의 같은 핏줄인 가족공동체라는 진실을 천명함으로써 희곡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현인이자 부자인 유대인 나탄이 권력자 술탄인 모슬렘 살라딘에게 들려준 '반지 비유의 설화'는 어떤 내용인가? 옛날 동방의 어느 나라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보석이 온갖 영롱한 광채를 내는 반지 하나가 집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 반지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믿어 반지를 늘 끼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신과 인간의 사랑을 향유하게 되었다. 이렇듯 신통한 반지를 가보로 전해 받은 후손인 어느 아버지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 아들 모두가 하나같이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러워 하나뿐인 반지를 세 아들 각자 모두에게 물려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말았다. 세 아들 중, 하나뿐인 반지를 전해 받지 못할 두 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 아버지는 비밀리에 반지세공사를 불러 자신의 반지와 똑 같은 완벽

한 반지 두 개를 더 만들 것을 부탁하였다. 자신의 진짜 반지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제작된 두 개의 반지를 세공사로 건너 받은 아버지는 아들 셋을 각각 따로 불러 반지 하나씩을 은밀히 물려주며 은총을 내렸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들 셋은 아버지가 돌아가자 각자 반지를 끼고서 자신의 반지가 진짜이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비난하면서 가장행세를 하려고 서로 다투게 되어 그 사랑스러운 성품은 없어지고 말았다. 심지어 아버지는 자신들을 속일 리 없으니 자신을 속인 형제 중 배신자를 찾아 복수하겠다고까지 다짐을 하게 되어 결국 재판에 호소하게 되었다. 재판관은 대대로 물려받은 반지는 신과 인간의 사랑을 받는 은총의 신통력이 있다는 핵심을 지적하여 판결을 하지 않고, 결국 반지의 진짜 여부는 반지 자체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충고를 세 아들에게 말한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 없는 공평한 아들 사랑을 믿고 본받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반지의 신통력이 실제생활에 나타나도록 서로 경쟁하라고 당부한다. 진정한 화목과 온유함 그리고 바른 행동을 통하여 사랑의 신통력이 먼 후손에게까지 현현하도록 노력할 것을 재판관은 세 아들에게 타이른다.

석당은 레싱의 이 '반지 비유 설화'를 통하여 이데올로기, 종교, 신조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날 것을 당부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자기본위의 명분적인 맹목성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관용과 박애의 실천을 생활화함으로써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는 데에 우리 각자가 조화롭게 헌신하자는 것으로 그 뜻을 새길 수 있다.

당시(唐詩) 새긴 아주까리 지팡이(피장)의 멋

석당의 안국동 한옥 대문 밖 골목길의 담벼락 밑에는 몇 그루의 아주까리가 늘 자라고 있다. 1년생인 아주까리의 큰 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하면 버팀목을 대어 곧게 크도록 북돋는다. 다 자란 아주까리 큰 줄기를 어림잡아 지팡이 길이로 몇 개 잘라 대문 칸 안쪽에서 자연스럽게 말린다. 잘 마른 지팡이 감을 다듬고 윤이 날 정도로 손질하면 '아주까리 지팡이'가 탄생한다. 이 모든 과정의 노역을 석당 스스로 직접 하신다. 아주까리가 피마(蓖麻)이니, 아주까리 지팡이가 곧 피장(蓖杖)이다. 피장은 아주 가볍고 단단하여 예부터 장수 지팡이로 애용되었다.

석당의 독창적인 멋과 풍류는 이 아주까리 지팡이의 둘레에 애송하는 당시 몇 수를 펜글씨로 새긴 데서 드러난다. 어른 엄지손가락 두세 개 정도의 굵기인 고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휘어지기도 한 지팡이의 둥그런 둘레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펜으로 글씨를 새기는 일은 정밀한 공예작업이다. 7, 8수의 당시를 좌우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하 줄을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 끝까지 맞추어 동그란 지팡이에 특수한 펜으로 한자 한자 쓰는 일은 곧 몰아(沒我)의 고절(孤節)한 수행이다. 내면의 지조와 신의를 다지는 석당의 자기수련이다.

오랜 인고의 정치한 작업이 끝나면 지팡이에 새긴 당시가 물이나 습기로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니스 칠로 정교하게 마무리 한 뒤, 지팡이 맨 끝에 고무 밸브를 끼워 지면과의 접촉이 부드러워지도록 한 후에라야 드디어 석당 특유의 '당시 새긴 피장'이 완성되는 것이다. 석당은 이 지팡이로 한가로이 세상을 거닐면서 깊은 시심(詩心)에 젖어 물아일체의 포용정신으로 지극한 관용의 현묘지도(玄妙之道)인 풍류를 즐긴다. 혼자서만 이 피장의 멋을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석당은 그동안 많은 피장을 지인들에게 사심 없이 선사하면서 지조와 관용의 인품을 전파하였다.

석당은 작년 연말 평소 애용하시던 '당시 새긴 피장'을 이 부족하기 그지없는 필자에게 선사하였다. 필자의 정년 이후의 생활을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석당의 말없는 가르침이리라. 이제 필자는 석당 앞에서 다시 고등학생이 되어 지조와 관용을 아우르는 풍류의 멋을 배우게 된 행운을 갖게 된 것이다. 석당이 선사한 당시(唐詩)를 새긴 지팡이의 제목은 '주옥당시(珠玉唐詩) 칠언율시(七言律詩) 칠인걸작선(七人傑作選) 장수피장(長壽藦杖)'이라고 하여 지팡이에 세로로 쓰고 있다. 지팡이의 위에서 아래로 차례로 새긴 일곱 명의 시인과 그 시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두보(杜甫)의 촉상(蜀相), 이백(李白)의 금릉성서루월하음(金陵城西樓月下吟), 왕발(王勃)의 등왕각(騰王閣), 최호(崔顥)의 황학루(黃鶴樓), 백거이(白居易)의 방언(放言), 이상은(李商隱)의 금슬(錦瑟), 한유(韓愈)의 좌천지남관시질손상(左遷至藍關示姪孫湘)이다. 그 중 석당의 인생관에 가장 가깝다고 하여 애송하는 백거이의 '방언'을 석당 자신의 번역을 통해 감상해 보기로 한다.

방언(放言)

함부로 말해 본다.

태산불요기호말(泰山不要欺毫末)

중국의 오악중의 하나인 태산은 털끝 같은 아주 사소한 존재에 대해서는 속이지 않고 또한 속일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것이로다.

안자무심선로팽(顔子無心羨老彭)

32세로 생애를 마친 안자 또한 800살까지 살았다는 팽조(彭祖)를 선망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다.

송수천년종시후(松樹千年終是朽)

천년간을 살고 버티어 온 소나무도 마침내는 죽고 썩어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근화일일자위영(槿花一日自爲榮)

그 반면에 하루 동안만 꽃을 피우고 만다는 무궁화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영화를 누리는 법이로다.

하수연세상우사(何須戀世常憂死)

그런데 인간은 어째서 현세의 삶에만 연연히 집착하며 항상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역막혐신만염세(亦莫嫌身漫厭世)

그리고 또 인생은 자기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싫어해서도 안 되는 것이로다.

생사거래도시환(生死去來都是幻)

인간이 살고 죽는 것 즉 왔다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인생에 있어서 환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환인애락계하정(幻人哀樂繫何情)

이런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인간이 어째서 희로애락이라는 자기감정에 얽매어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요?

앉은뱅이책상과 평화통일의 비원(悲願)

석당의 사랑방을 겸한 서재에는 주석 손잡이의 서랍이 양옆으로 두개 나란히 달린 앉은뱅이책상이 있다. 이 책상에서 석당은 레싱의 '반지 비유 설화' 등 독일작품과 많은 당시를 번역하고 주해하여 친지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특히 친히 주해한 당시와 독일시를 새해가 되면 제자들에게 일일이 연하장으로 부치면서 가리지 않는 사랑의 훈도를 베풀었다. 바로 이 책상은 석당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80년간 사용한 것으로서 석당의 정신적 분신이자 한국의 격동적 현대사를 묵묵히 지켜본 현장증인이다. 일제시대에 해주고보를 다니고 해방 후 1946년 경성대학(1948년 국립대학교로 설립된 서울대의 전신) 예과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하다가 1950년 부산으로 피난한 뒤 1960년대 중반 서울로 온 석당과 운명을 줄곧 같이 한 앉은뱅이책상이기도 하다. 올해(계사년) 미수(米壽)를 맞은 석당은 세속의 명리에 초연한 채 오로지 고등학교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침으로 일관된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책상과 고락을 함께 나누었다. "어느 사학도(史學徒)의 젊은 시절"의 고뇌와 통한(痛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앉은뱅이책상은, 석당이 '백이 · 숙제의 지조'와 '레싱의 관용'을 '당시 새긴 피장'으로 형상화하는 데 밑받침 노릇을 한 인고(忍苦)와 침묵의 동반자이다.

백세청풍의 현판을 걸어놓고 고사리를 몸소 기르는 석당은 백이 · 숙제처럼 자신 내면의 지조와 신의를 줄곧 함양하면서 이를 옹골차게 다지는 생활을 하였다. 어떤 명분에 의하든 일체의 폭력사용을 거부하고 신의를 지키는 인덕으로써 세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일 터이다. 석당은 우리나라가 영구중립의 평화통일국가로 거듭 태어

나길 간절히 소망하는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는 비원을 언젠가 힘주어 밝힌 적이 있다. 나아가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관용과 사랑의 실천을 하는 인류공동체로 지구가 나아가길 석당은 절실히 염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미뇽과 춘망사 시의 소개를 통해 이를 상징화하고 피장의 당시 첫 수를 두보의 촉상(蜀相)으로 하여 천하통일의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하며, 특히 레싱의 반지 비유 설화를 역설함으로써 진리는 하나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레싱이 제시하는 관용의 기초인 세계일화(世界一花)의 사상은 일찍이 인도 유마(維摩)의 불이법문(不二法門)과, 유교 · 불교 · 도교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중국 호계삼소(虎溪三笑)의 고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의 생명공동체로서의 평화적 삶'이 제대로 꽃피우려면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양심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석당의 지조와 관용의 생활이 상징하는 전체적 메시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렇듯 석당의 '당시 새긴 피장'의 풍류와 멋으로 인해 '현인 나탄의 반지'는 동방의 대한민국에서 '현자 석당의 지팡이'로 전화된 것이 아닐까! 당시 새긴 아주까리 지팡이를 벗 삼아 유유히 걸어가는 지조와 관용의 길(道)이야말로 석당화(石棠花) 향기 온 누리 가득한 백세청풍(百世淸風)이 되어 천고(千古)를 맑히리라.

과학과 시 – 그 3. 호수(湖水)와 못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이 상 만

1. 머리말

호수와 못을 합쳐 호택(湖澤)이나 지택(池澤)이라고도 한다. 호수는 못보다 훨씬 크고 연안식물이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심이 깊은 것을 말한다.

호수는 지방 명이나 유래 또는 지리적 특징에 따라 이름이 여러 가지로 지어진다. 생성성인(生成成因)으로 본 분류에도 그 종류가 매우 많다. 침식(侵蝕)과 퇴적작용(堆積作用)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는 하류(河流)의 침식으로 만들어진 하식호(河蝕湖), 빙하의 침식에 의해 생긴 빙식호(氷蝕湖), 빙하의 퇴석물(堆石物)로 인해 형성된 빙하호(氷河湖), 사태나 화산분출물로 인해 강이나 만(灣) 따위를 폐쇄한 언색호(堰塞湖) 또는 폐색호(閉塞湖), 해변의 사주(沙洲)나 사취(沙嘴)가 연결된 석호(潟湖) 등이 있고, 화산활동(火山活動)에 의한 화산호(火山湖), 화구에 생긴 화구호(火口湖), 일명 칼데라호(caldera lake)와 그 밖에 지각변동(地殼變動)에 의해 생긴 구조호(構造湖)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가 자연호(自然湖))에 속하며 인공호(人工湖)와 구별된다.

지구촌의 유명한 호수와 못에 관한 필자의 시(詩) 중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가하고자 한다.

2. 바이칼호(Lake Baikal)

바이칼호는 러시아 동시베리아 남부에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일 큰 담수호이며 수량으로도 세계 제일이다. 최고 수심 1,642m, 길이 636Km, 최대 폭 79Km이며 호수의 표면적은 31,722 평방Km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억년 전 소위 시생대(始生代)의 고기(古期) 기반암(基盤岩) 지대가 지각변동으로 두 개의 거대한 단층(斷層)으로 갈라진 지구대(地構帶)에 생겨난 대규모의 구조호이다.

이 초승달 형의 호수는 풍부한 동식물의 서식지로 1,085종의 식물과 1,550종의 동물이 살고 있다. 이곳은 부랴트(Buryat) 씨족의 고장으로 대부분 바이칼호의 동부지역에 몰려 있으며, 주로 낙타나 양을 치고 산다. 1996년 UNESCO에 의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기에는 평균기온 섭씨 -19도, 하기에는 14도에 이른다. 혹독한 겨울에는 결빙의 두께가 3m나 되어 차로 호수를 통과한다고 한다. 바이칼호 주위에는 표고 1,500m에서 2,000m(최고 2,588m)나 되는 준엄한 바이칼산맥이 둘러싸고 있다.

내가 바이칼호를 찾아 갔을 때는 구소련과 별로 지질학적 교류가 없었던 1990년 무렵이었다. 교통수단도 불편하여 기차로 근 50시간에 걸쳐 하바롭스크에서 우란우대까지 대륙을 횡단했다. 호수주변에는 방갈로나 휴게소 같은 인조물 하나 보이지 않는 청정한 지역이었다.

바이칼호의 잔잔히 파도치는 호수가엔, 약 2,000여 년 세월에 걸쳐 만들어진 닳고 닳은 조약돌들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서서히 스며드는 바이칼호반에서 떠올린 시상을 여기에 소개한다.

바이칼호

바이칼호의 저녁노을
30억년의 시생대에 견주면
닳고 닳은 조약돌들
수집은 듯 사각거린다

호수 가의 수많은 조약돌
다 헤아릴 수 없어도
내일을 가늠할 수 있다

오늘도 해가 지리라
새로운 물결 자국,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 새겨 지리다

인생의 저녁노을
호수에 반짝이는 한 주름의
은빛 물결로 지워진다

영원 무궁한 바이칼아
그대 품을 찾는 길손의
그림자도 함께 새겨 주려무나

3. 구채구(九寨沟)와 오채지(五彩池)

구채구와 오채지는 중국 중앙부에 위치하나 중원의 서남쪽으로 치우친 변방에 있다. 중국 사천성의 성도에서 북쪽으로 약 460Km 지점에 구채구가 있고, 그곳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황룡(黃龍), 그 북쪽에 오채지가 있다. 이들 지역은 산수 수미한 경관으로 1992년 세계자유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멀리 민산산맥의 만년설 설산이 바라보이는 3~4000m 고지의 구채구와 황룡 일대는 남북으로 약 3.6Km의 빙하계곡이 연속되고 있다. 원래 해저에 퇴적되어 있던 석회암층이 융기하여 이룬 산맥이 빙하에 의해 침식되어 소위 카르스트지형을 이루게 되었다. 강 바닥이 누렇게 노출되어 마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꿈틀거리고 올라가고 있는 듯하여 황룡계곡이라 일컬어지게 되었다.

계곡에는 빙하가 몰고 온 눅진한 퇴석물로 만든 다랭이 같은 계단식의 크고 적은 못이 다채로운 물색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약 3,500m 고지에는 500m 거리에 600개의 다랭이 못들이 밀집하여 제각기 비취색, 초록, 진초록, 남과 옥빛 등 다섯 가지의 물빛을 이루고 있는 오채지가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다랭이 못을 이루게 된 까닭은 빙하 말기에 세력이 약해져 서서히 하강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다랭이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오채지를 돌아보고 나오면서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채의 비경을 현출할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무심코 길 목의 황룡 석회암 동굴에 들렀다. 석회암은 순백 중의 순백, 그리고 세립질(細粒質)이며 균질(均質)한 입자로 이루고 있었다. 특이한 암질(岩質)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흔히 석회암은 탄질물(炭質物)이 포함되어 담회색을 이루거나 아니면 마그네슘이나 철분같은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혼탁한 색채를 띠는 것이 보통이다. 오채지의 미의 진수가 바로 근본 석회암의 순수성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채지를 이룬 물질이 세립질이고 균질하고 순백해서 물에 녹아서 가라앉거나 부유되어도 입자가 골고루 확산되어 순수한 색채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혹 이색의 색소가 혼합되어도 이에 동화 흡수되어 맑고 투명한 물색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본다. 바탕의 순수성에서 미의 진수를 낳는 결과가 되었으리라.

동굴을 나오자 푸르디 푸른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채지의 순수한 물색을 이룬 것과 일맥상통한 이치가 아닐까. 미술창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순수한 마음과 물질로 그린 작품은 걸작을 낳지만, 욕심을 낸 작품은 오히려 망치게 마련이다. 마음을 비우고 아무런 욕심 없이 그린 작품이 최고가 되었던 과거를 떠올려 본다. 순수의 바탕에서 절미한 작품을 낳는다고 나는 믿는다.

구채구

알기나 하랴
칠흙 같은 바다 속
고이 잠자던 석회암층을
중국의 변방 4,000미터 고지까지
홀연히 떠받쳐 올려 놓은
까닭을

몇 차례나 빙하가
수려한 계곡을 조각하고
북국에서 몰고 온 눅진한 퇴석을
쌓아 올린 다랭이 호수

태양빛 은은히 스며들어
에메랄드 물감 푼,
더할 나위없는 비경
하늘이 빚어 낸 절미의 작품
예지 불가의 구채구.

오채지

지구상 그리도 수미한
황룡고지 오채지엔
비취색, 연두빛과 진초록, 남과 옥빛 등
티 없이 맑은 색의 향연,
이룩한 오채지

이를 수가 있으랴
한없이 꺄우뚱거리다
돌아서는 길 목,
황룡석회암 동굴에서
그 답을 찾았네

미증유의 순백 석회암,
그 근본의 순수성에서
미의 진수를 낳는 비방을
천애 변방 오채지에서 찾았네

내가 걸어온 역사학의 길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 영 우

1. 양해를 구하며

나는 한국식 나이 75세로 아직 과거를 회고할 나이도 아니고, 금년에도 「율곡 이이평전」과 200자 원고지 약 1만 2천 매 분량의 「과거, 출세의 사다리 – 족보를 통해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전 4권)의 집필을 완료한 상태이다.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연구시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 자리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간보고도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2. 나의 주요 저서

나는 주전공이 조선시대이고, 분야로 볼 때에는 사상사, 사학사, 신분사, 문화사 분야이다. 다만, 부수적으로 근현대 사상사와 사학사도 다루어 왔다. 각 분야의 주요 저서를 먼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상사 분야: (1)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지식산업사, 1999), (2) 조선전기 사회사상연구(지식산업사, 1983), (3)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경세원, 2007), (4)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지식산업사, 2007), (5) 조선 수성기 제갈량 양성지(지식산업사, 2008), (6) 한국선비지성사(지식산업사, 2010), (7) 율곡 이이평전 – 조선중기 최고의 경세가이자 위대한 스승(민음사, 2013년 1월 출간), (8) 행촌 이암의 생애와 사상(공저: 일지사, 2002), (9)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공저: 푸른역사, 2007)

2) 사학사 분야: (1) 조선전기 사학사연구(서울대 출판부, 1981), (2) 조선후기 사학사연구(일지사, 1989), (3) 한국민족주의 역사학(일조각, 1994), (4) 역사학의 역사(지식산업사, 2002)

3) 신분사 분야: (1) 조선전기 사회경제연구(을유문화사, 1983), (2) 조선시대 신분사연구

(집문당, 1997), (3) 과거, 출세의 사다리 – 족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지식산업사, 전4권, 제1권 2013년 1월 출간)

4) 문화사 분야: (1)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효형출판, 1998), (2) 조선왕조 의궤(일지사, 2005) * 중국어번역본(2012. 10) * 일어(일본 明石書店) * 영어 * 독일어 근간, (3) 조선의 집 동궐에 들다(효형출판, 2006), (4) 명성황후, 제국을 일으키다(효형출판, 2006), (5) 반차도로 따라가는 정조의 화성행차(효형출판, 2007), (6) 문화정치의 산실 규장각(지식산업사, 2008), (7)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공저, 효형출판, 1999) * 영어본: The Artistry of Early Korean Cartography(2008).

5) 통사 분야: (1)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1997년 초판, 2013년 50쇄) * 일어번역본; 한국사회의 역사(일본 明石書店, 2003) * 영어번역본; A Review of Korean History. vol.1-3 (translated by Hahm Jai-Bong, Seoul, 2010) * 노어번역본; Korean History (translated by Mikhail Park, Moscow, 2010), (2) 간추린 한국사(일지사, 2011)

6) 근현대사 분야: (1)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공저: 푸른역사, 2006), (2) 대한민국 60년 – 성찰과 전망(공저: 굿 소사이어티 편, 지식산업사, 2008), (3) 21세기 한국학, 어떻게 할 것인가(공저, 푸른역사, 2005)

7) 에세이류: (1) 한국의 문화전통(을유문화사, 1988), (2) 우리 역사와의 대화(을유문화사, 1991), (3) 미래를 위한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97), (4) 역사를 아는 힘(경세원, 2005)

3. 나의 연구 편력

1) 가정환경과 청소년기의 자조적 역사의식: 돌이켜보면, 나의 학문편력은 내가 태어난 가정환경에서 원초적인 체질이 형성되고, 한국 현대사의 격동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가문은 인조반정(1623) 이후 몰락하여 300년간 충청도 시골의 향반으로 살아온 전형적인 몰락양반이었다. 청주한씨는 조선왕조시대 5명의 왕비를 배출하고, 263명의 문과급제자를 배출한 대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 가문의 영광은 300년 전에 끝났다. 광해군 때 좌의정을 지낸 13대조의 정치경력이 우리 가문을 몰락시킨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면서 충청남도 서산(瑞山)으로 낙향하게 된 것이다. 그 후손들이 동족마을을 형성하고 살던 해미면 바닷가의 농촌에서 자란 나는 서당훈장이셨던 백조부 밑에서 한학을 배우고, 조

부 밑에서 농사일과 양반의 엄격한 법도를 배우면서 성장했다. 그 시대는 일제강점기 말기이지만, 나의 생활과 사고는 근대문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조선시대 소년으로 머물러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에 6 · 25전쟁(1950)을 경험하고, 1957년에 서울대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한 나는 한국사에 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서양사에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모두 비참한 나라로서 한국인의 역사는 지워버리고 싶은 수치와 환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순신과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을지문덕 등 현군이나 민족영웅에 대한 존경심은 가슴 속에 품고 살았을 뿐이다.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조선총독부가 홍보한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 전쟁과 폐허의 암울한 시대에 자조적으로 왜곡된 역사지식이 쉽게 파고든 것이다.

2) 4 · 19 이후의 민족주의적 역사의식: 나의 패배주의적이고 자조적인 역사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4 · 19혁명(1960)이었다.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나는 4 · 19를 전후하여 거세게 불어닥친 민족주의 열풍에 흠뻑 빠졌다. 그 바람은 소위 제3세계가 발원지였지만 직접적으로는 일본을 통로로 해서 들어온 것이었다. 특히 4 · 19 직후의 민주당정권 시절은 사상통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북한이나 중국 등 적대국의 소식도 봇물이 터진 듯 밀려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연배의 4 · 19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 정서에 물들어 있었는데, 이 시기가 지금 돌이켜 보면 한국 현대지성사에 큰 획을 긋는 전환기였다고 생각된다. 마치 근대 독일의 질풍노도운동(Strum und Drang)과 비슷한 경험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학의 은사이신 두계 이병도(斗溪 李丙燾) 선생의 문헌실증적 역사학의 방법론을 배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채호, 박은식 등 민족주의 역사가들의 저서에서 큰 자극과 감동을 받았다.

민족주의 열풍이 계기가 되어 대학원에서는 한국사를 택하게 되었고, 1967년에 문리대 조교를 거쳐 1970년에 문리대 교수가 되면서 조선시대사 전공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내가 조선시대를 택하게 된 것은 지도교수이신 서우 한우근(西牛 韓沽劤) 선생의 권고도 있었지만, 어려서부터 조선시대의 유교적 정서 속에서 자란 나의 체질과도 관련이 있었다.

내가 처음에 찾고 싶은 조선시대사는 주로 봉건사회를 극복하여 근대로 나가려고 노력한 실학(實學)이나 자본주의적 맹아의 성장에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체적(停滯的)이고 비자주적인 식민주의적 한국사관을 극복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 이러한 정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역사학계가 지니고 있던 공통된 분위기이기도 했다.

3) 이데올로기 역사학에 대한 반성: 1970년대 이후로 나의 민족주의적 역사의식은 두 가지 요인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첫째는 조선시대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선 = 봉건사회〉의 신화가 깨지기 시작했고, 혈연적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고전적 민족주의 신화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좌우의 이데올로기적 역사의식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한국사

상(韓國史像)을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정립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조선시대를 봉건사회로 보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단일민족을 강조하거나 위대한 고대사를 강조하는 민족주의 역사학도 조선시대의 사회발전이나 정신적 진보를 무시하는 퇴보적인 역사해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시각을 바꾸게 한 또 한 가지 요인은 군부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근대화정책이 가져온 빛과 그늘에 대한 자신감과 반성이었다. 1970년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북한 및 공산권의 경제적 침체와 정치적 독재는 유물사관적 역사해석방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했으며, 군부정권의 인권탄압과 권위주의적인 통치는 도덕성과 민주성을 상실한 근대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동시에 각성시켜 주었다.

위와 같은 변화된 의식 속에서 내가 탐구한 것은 〈봉건적〉이라고 매도된 조선사회와 그 사회를 지탱한 성리학(性理學)에 대한 재평가였다. 다시 말해 조선사회는 처음부터 서양 봉건사회와 비교할 때 그보다 한층 진화된 사회였으며, 이를 지탱시켜 준 성리학도 결코 봉건적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시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 연구업적이 바로 앞에 소개한 사상사와 신분사, 그리고 사학사에 관한 저서들이다.

나의 저서에는 〈봉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일이 없으며, 조선후기 사회를 근대지향으로 바라보기는 했어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사회를 지향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사유재산제도나 시장경제적 요소는 이미 조선초기부터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토지나 모든 산업에 대한 공개념(公槪念)이 발달하여 서구식 자본주의로 나가지는 않았다고 보았다. 바로 이 점이 서구사회와 다르고, 또 유물사관에서 말하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다는 도식(圖式)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장경제적 요소와 반(反)시장적 공개념이 복합된 경제구조가 바로 조선경제의 특징으로 이해되었다.

이밖에도 조선사회가 봉건사회일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더 있었다. 첫째, 법률로 정해진 세습적 특권층이 없다는 것이고, 노비를 제외한 양인층(良人層)에서 시험에 의해서 엘리트 관원이 충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제도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마치 양반특권층이 따로 있어서 이들이 세습적으로 관원이 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실증적인 통계수치에 의해서 증명된 일이 없다. 기왕의 잘못된 통설에 대해 필자는 「조선왕조실록」과 「문집」의 기록 등을 통해 반박해 왔는데, 나의 주장을 구체적 통계수치로 탐구한 것이 바로 위에 소개한 필자의 「족보를 통해 본 조선시대 문과급제자의 신분이동」이다. 여기서 그 요지를 간단히 소개하면, 15세기는 급제자의 40~50%가 양반이 아닌 하급신분층이고, 16세기는 그 수치가 20~30%대로 떨어지고,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는 다시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18~19세기에 40~50%대로 회복되고, 19세기 중엽의 고종대에는 거의 60%대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토지는 개인 사유지이며, 다만 그 수조권(收租權)이 국가로 가면 공전(公田)이고, 국가기관으로 가면 공해전(公廨田, 屯田) 등으로 불렸으며, 관원에게 가면 과전(科田) 또는 사전(私田), 또는 공신전(功臣田) 등

으로 불렸을 뿐이다. 다만 과전=사전은 16세기 중엽에 없어져서 관원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녹봉으로 일원화되었다. 봉건영지(封建領地)라는 것은 조선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다.

셋째, 권력구조와 정치운영이다. 조선왕조는 권력집중과 권력분산을 교묘하게 배합하여 국왕세습을 인정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사다리형 권력구조를 구성하여 군신공치(君臣共治)의 이상을 추구하되, 국왕이나 관원이나 누구도 전제(專制)할 수 없고 누구도 특권화할 수 없도록 치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결정과정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삼사[三司; 홍문관(弘文館),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의 언론활동이 최대로 보장되고, 공론(公論)과 여론이 존중되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민투표에 붙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市民)의 의견을 직접 듣기도 했다. 세종이 전세제도를 개정하면서 17만명의 찬부를 물은 것은 국민투표의 선구라고 볼 수 있으며, 영조와 정조는 수시로 서울시민을 궁궐 밖에서 만나 의견을 청취한 일이 비일비재했다. 일반백성의 상소나 격쟁상언(擊錚上言)이 보장되고, 국왕의 평생교육체제인 경연제도(經筵制度)를 실시하여 국왕을 성인(聖人)의 경지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상피제도(相避制度)라 하여 출신지역으로 수령을 임명하지 않고, 친족이 응시할 때 고시관(考試官)을 피하고, 친족과 같은 관청에 임명하지 않았다.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이 관리의 임명을 심사하여 국왕의 인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서경제도(署經制度), 국왕의 8촌 이내 왕족의 관원 임명을 금지하는 것 등은 관료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정치의 거울을 만들어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높이려는 기록문화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왕조의 종합적 통치행위를 일기체로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국왕 비서기관인 승정원의 일기인 「승정원일기」, 국가의 주요 의례(儀禮)인 오례(五禮; 吉, 嘉, 喪, 賓, 軍)에 관한 행사보고서인 「의궤(儀軌)」, 국왕의 일기인 「일성록(日省錄)」 등 통치자료들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이런 류의 기록문화는 중앙집권적 관료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중세기의 서양이나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의식의 장면과 도구들을 천연색으로 그려 넣고, 행사의 진행과정과 비용,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노동자의 이름과 품값, 거주지, 그리고 행사참여자가 먹은 음식 메뉴와 레시피까지 세밀하게 적어놓은 「의궤」는 문자기록과 영상자료를 합쳐 놓은 것으로 정밀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다음에 조선사회를 정신적으로 지탱해준 성리학은 봉건적 사유와는 거리가 멀다. 성리학은 형이상(形而上)의 세계와 형이하(形而下)의 세계를 이(理)와 기(氣)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이 둘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형이상의 세계와 형이하의 세계는 둘인 듯하면서 하나이고, 하나인 듯하면서 둘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만물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천지인(天地人)에 내재되어 있는 공통적 원리를 찾아서 이성적 선(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神)과 인간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는 서양 중세기의 기독교적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왕을 신(神)으로 바라본 것은 상고시대의 신화적 세계관에서 그치고 있다.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초월적 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으며, 왕권도 신수설(神授說)로 설명한 일이 없다. 유교적 이상군주인 성인(聖人)은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도덕적 인격자일 뿐이지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래서 왕을 통치자인 동시에 스승으로 보는 군사(君師)의 군주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왕은 도덕성을 상실할 때 얼마든지 백성에 의해서 폐위될 수 있는 선택적 권력자일 뿐이었다. 조선시대 두 차례에 걸친 반정(反正)이 그래서 가능한 일이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지인을 하나의 통일체로 바라보는 철학은 이미 상고시대의 무교(巫敎)에서 시작하여 불교문화와 유교문화를 거치면서 그대로 계승되고 진화되었다. 여기서 한국의 건축, 음악, 회화, 무용, 정원 등 모든 예술은 천지인이 하나라는 것을 표현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산수화에는 천지인을 모두 담고 있으며, 춤은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몸짓이며, 범종(梵鐘)은 하늘의 소리를 담는 음관(音管)과 땅의 소리를 담는 음통(音筒)을 구비하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 종과 다르다.

천지인을 도형(圖形)으로 이해할 때에는 원방각(圓方角; ○ㅁ△)으로 표현했다. 훈민정음의 자음(子音)이나 모음(母音)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방각도형을 응용한 것이며, 한국의 미술이 곡선을 사랑하고 있는 이유도 둥근 하늘에서 차용한 것이다. 바로 이런 비슷한 생각을 서양건축에 도입한 사람이 스페인의 Antonio Gaudi라고 할 수 있다.

또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셋[三]이라는 숫자를 유달리 선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인들은 몇 개는 〈三〉이라고 말하고, 많은 것은 〈三千〉이라고 말하고, 매우 많은 것은 〈三萬〉이라고 말하는 버릇이 있다. 한국의 건국신화인 단군신화(檀君神話)는 三을 기본으로 설정한 이야기다. 삼신(三神; 桓因, 桓雄, 檀君), 삼신(三臣; 風伯, 雨師, 雲師), 천부인(天符印) 세 개, 솔도삼천(率徒三千), 삼위태백(三危太白), 삼칠일(三七日; 21日)의 등장이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천지인이 하나가 될 때, 즉 三이 하나로 합쳐질 때 가장 위대한 힘이 발생한다. 그래서 〈一〉을 〈하나〉 즉 〈크다〉고 말한다. 〈한국〉도 〈큰 나라〉의 뜻이다.

〈三이 합치면 一이 된다〉는 철학은 공동체 정신을 의미한다. 단군신화에서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동체윤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윤리가 국가운영의 정치철학으로 승화되면서 공익정치(公益政治)로 구현된 것이다.

필자는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삼국, 고려, 조선으로 이어져온 국가운영 철학을 공익정치의 진화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주체세력을 고유어인 선비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들의 정신을 선비정신, 선비문화로 부르고 있다. 필자가 집필한 「한국선비지성사」는 바로 선비정신의 진화과정을 고조선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선비정신은 현재 한국인의 핏속에 유전인자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했다.

필자가 1997년에 초판하여 지금까지 50쇄를 발간한 「다시 찾는 우리역사」는 앞에 언급한 필자의 선비정신과 선비정치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진화과정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고조선

과 삼국시대를 귀족사회, 고려시대를 반(半)귀족-반(半)관료제사회, 조선시대를 관료제사회, 대한제국을 전통적 정치질서와 서구식 근대기술문화를 조화시킨 근대국가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구성한 한국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노예제-봉건제-자본제의 도식적 패러다임과는 다르며, 기왕의 통사류가 조선시대를 양반귀족사회로 이해하고, 대한제국을 수구반동국가로 이해한 것과도 판이하게 다르다.

4. 21세기와 동서문명의 접목

과거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설계하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역사학은 아무런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있는 사실(事實)을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레오폴트 폰 랑케(Leopold von Ranke)의 실증적 태도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주장한 에드워드 핸릿 카(E.H. Carr)의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나간 시대의 사관(史觀)인 민족주의나 계급주의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인류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런 류의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인류의 공동선(共同善)과 국제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까지도 버린다면 역사학은 공허한 금고 속의 보석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21세기는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문명의 대전환기에 서 있다고 본다. 산업혁명 이후 2~3백년간 지속되어 왔던 서구중심의 세계질서도 급속하게 무너지고, 중국, 일본, 한국의 위상이 중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서구적 가치를 유일한 절대선(絕對善)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서 문명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명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서구 이외 국가들의 비약적 성장은 서구적 가치와 과학기술의 수용으로 촉진된 측면, 즉 서구화의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개체를 존중하고, 개체간의 경쟁을 통한 변증법적 발전을 추구하는 서구적 윤리는 개인의 인권을 성장시키고, 생존경쟁 능력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다. 또, 우주자연의 이치를 독립된 실체로 해석해 온 서양의 과학과 기술문명은 산업혁명을 유발하고, 나아가 오늘날 무섭게 발달한 디지털문명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서구문명은 과학기술의 무한진보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역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 변증법은 그 안에 대립과 갈등을 전제로 한 지양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독교정신이 상대와 약자를 따뜻하게 감싸는 측면도 있지만, 그 속에는 선악의 대립이 전제되고, 투쟁을 통한 해결방법이 내재되어 있다. 이런 사고가 절대선으로 인정되면 대립, 갈등, 투쟁, 약육강식, 정복 등은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

을 것이다.

동양문명, 특히 무교, 불교, 유교를 공유해 온 동아시아문명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천지인을 하나의 상생적 통일체로 바라보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이 개체의 성장이나 기술문명의 진보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갈등, 투쟁, 전쟁, 정복 등 평화를 해치는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천지인 합일사상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애정을 자극한다. 인류를 하나의 상생공동체로 생각하는 홍익인간 이념도 오늘날의 이념갈등이나 국제적 분쟁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필자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체를 존중하는 서구문명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동양문명을 양자택일적 시각에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 두 문명을 대승적으로 합쳐서 새로운 21세기형 신문명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발전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희망을 여기서 찾아보자는 것이다.

5. 법고창신의 한국사

앞에서 제기한 필자의 문제의식은 한국사 해석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다. 인류문명은 교류하면서 합쳐지고 합쳐지면서 진화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법고창신이다. 각 민족이 살아온 특수한 자연환경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원초적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진화된 외래문명을 접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사의 전개과정을 앞에서 선비정신과 선비사회의 진화과정으로 설명했지만, 그 진화의 방법이 바로 법고창신이었다고 나는 본다. 무교가 우리가 살아온 자연환경에서 배태된 토착문화라면 불교나 유교는 무교보다 한 단계 진화된 외래문화로서 수용된 것이다. 물론, 산동지방에서 성립된 유교(儒敎)는 그곳 토착주민인 동이족(東夷族)의 아름다운 풍습과 중국인이 세운 주(周)나라 문명에 감동을 받은 공자(孔子), 맹자(孟子)에 의해 이론화되었기 때문에 동이족의 후예인 한국인들이 유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외래문화의 수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어쨌든 불교와 유교를 수용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체질화된 무교를 바탕으로 삼아 수용된 것이었으므로, 한국인의 핏속에는 무불유(巫佛儒)가 중층적으로 합쳐진 문화적 DNA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본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체질이자 국민성이며, 그 체질의 차이가 중국문화나 일본문화와 비슷하면서도 독자적 특색을 지닌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한국의 근대화도 마찬가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 대한제국이 구본신참(舊本新參)을 내걸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양의 과학기술문명을 절충하여 근대국가로 탄생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일본의 명치유신도 화혼양재(和魂洋才)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국은 유교적 국왕중심체제를 구본(舊本)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천

황(天皇)과 막번체제(幕藩體制)의 이중적 권력구조의 전통이 한국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무교적 성격이 강한 신도(神道)를 국가종교로 설정한 것도 한국과 다르다. 다시 말해 한국이 유교전통 속에서 법고를 추구했다면, 일본은 불교와 신도 전통 속에서 화혼을 추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법고창신의 논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 고려는 고구려의 전통과 영광을 법고(法古)하면서 선진적인 송나라 문화를 수용하여 창신(創新)했으며, 조선왕조는 고조선의 영광과 삼국, 고려의 전통문화를 법고하면서 명나라 문화를 수용하여 창신했고, 조선후기에는 청나라 문화를 수용하려는 실학(實學) 운동을 통해 또 한번 창신하여 18세기의 왕조중흥을 가져왔다. 대한제국도 삼국(三國)의 광대한 영토를 아우르는 대제국의 재건과 앞에서 말한 유교전통을 법고로 삼으면서 서양문명을 접목시켜 최초의 근대국가를 성립시킨 것이다.

여기서 법고창신으로 이어져온 한국의 정치문화를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원전 5세기에 공자(孔子)는 고조선을 군자국(君子國)으로 부르고 고조선으로 이민오고 싶어했다는 말이 논어(論語)에 보이며, 당송 이후로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으로 불렀다. 근대에 와서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면서도 조선의 교육열을 배우자고 말했다. 1866년에 강화도를 점령한 프랑스 군인도 조선인의 교육열과 농촌가옥에 책이 많은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보고한 일도 있었다. 개화기의 어느 서양인은 〈중국을 상인의 나라〉, 일본을 〈무사의 나라〉로 부르면서 조선을 〈학자의 나라〉로 불러 동양 삼국의 특징을 비교하기도 했다. 물론, 위에 언급한 말들은 모두 한국을 좋게 본 것만을 예로 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쁘게 말한 것만 가지고 한국의 이미지를 규정하려는 태도도 합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6. 한국근대사의 불행과 미래의 전망

그러면, 근대 한국의 불행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나는 그 이유를 서양과의 접촉이 늦어진 데서 찾고 싶다. 즉, 중국이나 일본과 비교하여 근대 서양문명을 받아들여 창신할 기회를 가장 늦게 가졌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왕조의 쇄국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15세기말 이후로 서양이 이른바 지리상의 발견으로 아시아에 진출하면서 한국만을 교류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이 서양을 피한 것이 아니라 서양이 조선을 피한 것이다. 조선의 지식인들은 북경사행을 통해 서양문명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 직접 서양인을 만난 것은 17세기 초에 표류해온 네덜란드인 벨테브레(Weltevree)와 하멜(Hamel) 일행 뿐이었다. 조선왕조는 이들을 통해 신무기 개발에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우대했다. 다만, 하멜 일행을 탈출하도록 만든 것은 신무기개발을 눈치챈 청나라의 외교적 압력 때문이었다.

서양이 직접교류를 목표로 한국에 들어온 것은 1866년과 1872년이 처음인데 이 때 들어온

프랑스와 미국은 이미 군함과 대포를 끌고 온 제국주의 국가였다. 이 때는 이미 평화적인 서세동점시대가 아니었다. 대원군이 전쟁으로 이들을 물리치고 10년간 쇄국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들 고종이 집권하면서 일본과는 물론이고, 1880년대에는 서양 열강과 모두 교류를 텄던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창신(創新)은 이미 300년이나 앞서 서양과 교류하여 힘을 비축한 일본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것이 결국 한국 강점이라는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일(韓日) 두 나라의 역사를 거시적으로 비교하면, 기술문명과 산업화는 일본이 조선을 크게 앞선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문화는 조선왕조가 앞서 왔다. 일본의 유교는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여, 조선왕조와 같은 중앙집권적 관료정치와 과거제도를 통한 신분이동을 촉진시키고, 세련된 문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치(文治)와 무치(武治)의 기본적인 전통의 차이 때문에 일본의 평민들은 인생의 꿈을 정치적 출세에 두지 않고 자신의 생업에 쏟아 천하제일의 물품을 만드는 장인정신을 키워왔고, 정치지도층인 무사집단에 대한 복종을 통해 겸손하고 순종적인 예의를 키워왔다고 보인다.

과거제도와 관료정치, 그리고 문치전통이 고도로 발달한 조선왕조는 일본과 반대로 보통사람의 꿈을 정승과 판서로 출세하는데 집중시키고, 그것을 얻기 위한 치열한 교육열과 성취욕을 부추겼다. 그래서 자기 생업에 올인하는 장인정신은 소수의 장인(匠人)에게만 이어져 오고, 그런 전통이 산업화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치열한 교육열과 성취욕 그 자체는 산업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유교가 지닌 통합적 교양정신, 예컨대 문학, 역사, 철학, 정치, 경제, 사회 및 자연과학과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문적 교양은 비록 그 내용이 현대 학문과는 다를지라도 학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드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전통이 현대적으로 되살아난다면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21세기에는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대 한국이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세계의 선진대열에 올라 있는 이유도 이러한 전통의 유산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계에서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분과학문의 벽을 허물고, 학문간 협동 또는 통섭적 학문으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통합학문의 선구를 유교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런 점에서 유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켜 온 나라들이 미래의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이 글은 2012년 10월 26일(금) 오후에 일본 동경 호텔아시아회관에서 개최된 제12회 한일역사가회의에서 〈역사가의 탄생〉이라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을 대표하여 발표한 글을 요약한 것이다. 일본측에서는 荒井新一 명예교수가 〈역사가의 탄생〉에 대한 기조강연을 하였다. 한일역사가회의는 두 나라의 외교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 26일에 시작하여 10월 28일에 끝났다.

대한민국이 과연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공학부 한 인 규

1.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36년을 지나오는 동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수백 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비록 나라는 양분되어 오늘까지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1948년에 독립정부를 출범시킨 우리 대한민국은 승승장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국가 발전의 기운은 북한이 유발한 그 처참한 6 · 25전쟁도 가로막지를 못 했다. 그런 나머지 우리는 해묵은 식량난과 가난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

국토를 뒤덮은 고속도로망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가운데 드디어 우리나라 구석구석은 1일 생활권을 이루게 되었다. 산업이 발전하고 교역량이 늘어나서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7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의 건아들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8회 연속 금메달을 10개 이상을 획득하여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진입한 선진국이 되었다. 말하자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인구가 5천만 명에 이르는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UN 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UN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으로도 활약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실로 대견스러운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우글거리는 도적과 살인범과 사기꾼과 성범죄자들로 나라가 멍들고 있다. 2012년 4월 11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의 일이다. 어느 집에서 30대 청년이 투표도 안 하고 빈둥거리고 있어서 그의 아버지가 “너 투표하러 안 가냐?”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도둑놈을 찍을까요? 빨갱이를 찍을까요?” 하더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만치 부정 비리가 많고 종북 좌파세력이 많아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잘 살고 행복한 나라, 국력이 부강한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그리하여 못사는 이웃나라를 도우며 사는 일등 국민이 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있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나라가 되려면 다음에서 열거하는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우리의 결함을 수정 · 보완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일은 결코 돈이

드는 일은 아니고 도덕적 각성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해 두고 싶다.

2. 초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분발과 각성을 요하는 과제들

1)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해야 한다

일찍이 요즈음처럼 도하 언론매체에 공직자들과, 정치인들 특히 최고 권력층 친인척들의 부정과 비리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때가 없었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 인사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어 줄줄이 묶여 들어가는가 하면 최근에는 공천 비리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터졌다.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이 이러한 권력형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결코 초일류 선진국에 이를 수 없다. 항간에는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도 들린다. 공무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올곧게 추진하지 않고 자기 주머니를 먼저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여기다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쏟아내는 지키기 어려운 공약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한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표"가 되는 일이면 일단 공약을 하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경영을 흐트려 놓게 된다. 최근에는 승패를 조작하는 운동선수가 더러 있다고 한다. 페어플레이를 중시하는 스포츠 사회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그러면 국가가 법으로 이런 부정과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까? 그 보다는 우리가 도덕성과 정직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한다는 평범한 삶의 철학이 우리의 생활현장에 속히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애국심 결핍증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먼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야 행복한 나라도 만들고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 모든 국민이 책임감이 강하고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은 정확하고 완벽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수출하는 공산품이 외국에서 클레임에 걸리는 비중은 지난 날 10%대에서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5%대로 감소했다고 한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제품생산자가 책임감이 강하여 좀 더 정확하게 마무리를 했더라면 클레임률은 0%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은 이렇듯 아직은 마무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못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결함은 예컨대 저서를 출판할 때는 많은 오자와 탈자를 남겨 책의 품위를 떨어뜨리게 된다. 최근에 KTX라는 고속철 기차가 평지나 터널 속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서나 고장을 일으켜 섬으로써 승객을 불안에 떨

게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매체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KTX 직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비를 하고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놓임을 받았다고 하면 이런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무책임한 일은 우리 국가의 더 이상의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서 최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자세가 바로 되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기본질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운전하는 자가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한 줄서기"를 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길거리 아무데서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일 같은 것도 즉시 버려야 할 나쁜 버릇이다. 언젠가 삼성동 COEX로 가는 길에 택시를 탄 일이 있다. 나이가 많은 그 택시 기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약하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었다. 그가 운전하고 있는 그 길 중앙에 있는 분리대 풀밭에는 지나가는 운전기사나 승객들이 버린 꽁초로 풀밭이 아니라 꽁초밭이라는 것이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민도가 이 지경이고 보면 지방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초질서 준수 수준은 원시인의 그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고 기초질서를 준수 실천하는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삶을 꾸려 갈 수 있을 터인데….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꼴찌라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 헤아릴 길이 없다.

3) 대학이 발전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

해방 후 우리나라 대학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교양서적도 그리 많이 읽는 것 같지 않다. 지난날 관계 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학습량은 조사한 OECD 32개국 중 꼴찌라고 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이나 마시고 놀면서 공부는 하지 않는다. 게다가 학비조달의 방편으로 과외 공부 지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니 도무지 전공과목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 각국의 대학생들의 학습량 경주를 시키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금메달은커녕 분명히 꼴찌를 할 것인 즉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은 어떻게 향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일류 선진국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

교수들은 과연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가? 대학을 아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모두 고개를 좌우로 저어댈 것이 분명하다. 강의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은 차치하고 적지 않은 일부 정치교수들은 대학을 정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수들 가운데는 항상 정치판을 기웃거리고, 교수직은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본다. 외국 유명 명문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망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열심히 가르치지 않는 교수와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만들어 내는 이런 불 꺼진 캠퍼스를 보고 있는 한 우리는 초일류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대학은 상아탑이며, 진리탐구의 전당이다. 모두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공부함으로써 우리 대학생들의 수준과 실력이 외국학생 들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미 여러 나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하는 백성이 되고 말 것이다.

4)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잘 살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더욱이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훌륭한 나라를 건설하려면 우리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은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한다. 공산품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더 열심히 일하여 더 우수한 품질의 공산품을 더 값싸게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살 길이요,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고지에 이를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하나라도 더 딸 것이요, 그동안 타 본 일이 없는 노벨상도 가까운 시간 안에 타게 될 것이다. 학생도, 교수도, 노동자도, 공무원도, 정치인들도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한다면 우리는 10년 내에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삶의 질이 풍요로운 세계 초일류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일부 노동자들은 일은 덜하고 돈은 더 받겠다고 단체행동을 불사한다. 사회도 국가도 주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은행이 먼저 시작하더니 정부를 비롯하여 각급 학교나 모든 직장도 닷새만 일하고 이틀은 놀아야 되겠다고 야단들이다. 이런 주장을 조금만 미루어서 하게 되었으면 좋으련만. 우리나라에는 또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다. 성경에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굶어 죽지 않도록 갖가지 복지 혜택을 준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욕도 먹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니 이것은 정녕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남보다 일을 더 부지런히 해서 일구어 놓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데 말이다. 이런 현상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초일류 선진국에 진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5)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

그렇잖아도 요즈음 초 · 중 · 고등학교 교육현실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다. 도하 모든 언론매체에서는 "교권이 위태롭다"느니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사로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하며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기도 한다. 이때 선생님이 야단을 치든지, 지금

은 금지된 체벌을 가하든지 하면 정말 난리가 난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얼마 전에도 학교 복도에서 담배와 라이터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은 어느 교감선생이 그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어느 여자 담임선생님의 경우, 기가 막힐 성희롱도 당하기가 일쑤라고 한다. 학내 왕따 현상과 학원폭력 사태는 급기야 경찰 병력을 학교에 끌어들이는 사태에 이르게 했다. 우리나라 초 · 중 · 고교의 교육환경이 이렇고 보면 학교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장래가 없는데 울지도 웃지도 못할 이런 교육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교육종사자들은 이렇게 땅에 떨어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선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무너져 내리는 성도덕 문제도 해결하며,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행위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뿐이겠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젊은 남녀가 결혼을 존중하며 이혼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자녀의 출산율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교묘하게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공권력이나 법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 사람이 달라져야 비로소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 조국 분단의 아픔을 씻어내고 철통같은 안보의식의 고취가 필요하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나라를 걱정해 보았는가?"라고 꾸짖으셨다.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67개 성상을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금껏 나라가 두 동강으로 쪼개진 유례를 세계 205개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거기다가 북한 동포들은 아직까지도 폐쇄된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집단이다. 해마다 굶어 죽은 사람이 몇 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북한은 김씨 왕조 3대 세습이라는 부끄러운 체제 하에서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을 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다. 하물며 북한 땅에서 어떻게 자유와 인권이란 말을 꺼낼 수가 있겠는가?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사건을 자행하여 우리의 귀한 생명을 살상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집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우리 남한 땅에 이런 북한을 좋아하고 김정일과 김정은 일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른바 '종북 좌파세력'이 있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사파가 신성한 국회에까지 진출하였으니 도대체 우리의 안보개념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우리나라의 애국가도 부정하는 속칭 빨갱이들은 북한으로 가서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우리나라가 초일류 선진국으로 가려면 이러한 종북 좌파도 사라져야 하고 북한과의 국방비 대결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나라가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

7)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지난 날 가난한 가운데 굶주림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남을 높이고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는 삶의 여유를 누리지 못했다. 거기다가 남이 잘되면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남이 잘되는 것을 도무지 마음 편하게 대할 줄 모르는 옹졸한 품성을 지닌 백성인지 모른다. 선진국 백성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민족성이 아닌가 싶다. 네거티브를 전문으로 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부터 대오각성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주변에서 잘 되는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지 말고 거꾸로 칭찬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맛볼 것이라고 믿는다. 대학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주야로 노력하여 훌륭한 학문적 업적을 세운 동료교수가 있는 경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딴 학과 건물을 짓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인 학술상도 제정해 주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의 성격이 이상하다느니 독재성이 강하다느니 하면서 평가절하를 일삼는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초일류 선진국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대학도 있고, 국제공항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의 동상 하나 없는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정말 잘난 백성들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도 하고 불우한 이웃을 따뜻하게 보살필 줄 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도무지 남을 돕는 일을 할 줄 모른다. 미국 같은 나라가 땅이 넓고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강건하여 선진국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80%는 자원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원봉사율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기부문화는 어떠한가? 그들은 모든 국민이 살아가면서 조금씩 남을 돕기 위하여 자선냄비에 돈을 넣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부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조그만 기부를 해도 신문에 소개되는 형편이 아닌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적은 액수의 베풂이라도 베푸는 자는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면서 끌어내리지 말고 밀어 올리게 되는 날, 나보다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배려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 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세계 일등 국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3. 마무리하면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국민들이 피땀을 흘리며 노력한 끝에 이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들어서게 되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식자들 사이에는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서 초일류 선진국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는 걱정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같이 인구는 많으나 땅덩어리가 좁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제2의 도약을 하려면 두말할 것 없이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국방, 과학, 체육 등 모든 분야가 지난날 일구어 낸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성장과 발전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를 악물고 노력한다면 머지 않은 장래에 50-50클럽에도 들어서서 진정 세계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백성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기초질서를 존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국가사회의 발전 동력이 되는 각급 교육기관이 변하고 발전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노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적어도 10년 동안에는 하루에 한 시간씩 더 일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을 나무라고 부지런한 사람을 추켜세우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고 했으니 이 나라 각급 학교의 교육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국 분단의 비극을 마감함으로써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들이 놓임을 받아야 한다. 군비경쟁도 중단함으로써 더 많은 재정이 국가발전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우리 국민이 일등 국민이 되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는 일에도 앞장을 설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원로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정신적 자산을 꾸준히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해야하며, 모든 이웃나라들과 더불어 사는 통로를 조성할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세계 초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이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면 우리는 비록 그 과정이 험난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세계 초일류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열강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설움과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꼭 그러한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 부강하여 어려운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의 제언

교수 정년 65세 이후의 연구참여에 관한 견해

공과대학 전기 · 컴퓨터공학부 권 욱 현

우리나라에서는 교수 정년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서 65세로 되어 있다. 65세에 정년을 하고 자동적으로 연금지급 대상이 된다.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교수 정년이 70세이거나 정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요즘 평균수명이 늘어 65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이 많으며 한창 교육연구에 능력이 있을 때 정년에 막혀 좋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이 아주 많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된다. 젊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안 된다면 늦게 일할 수록 국부가 창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봉사가 있다 여기서는 이공분야의 연구와 연구를 통한 대학원 교육 중심으로 다룬다.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35세에 채용된 후 10년 동안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치면서 대학원 교육과 연구업적을 이루는 데 열정적으로 일한다. 정교수가 되는 45세에서 60세까지 15년간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교나 학과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60세가 되면서 박사과정 학생을 받지 못한다. 석사과정 학생은 63세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박사과정 학생이 줄어들면 공동연구하기 힘들어 석사과정 학생들도 60세부터 교수연구실에 잘 들어오지 않는 실정이다. 만약 교수가 70세까지 일 할 수 있다면 65세까지 박사 및 석사 과정 학생을 받을 수 있다. 정교수로 대학원 학생을 받아 지도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약 30%가 늘어나게 된다. 전 교수 경력으로 봐도 20%가 늘어나게 된다. 대학의 업적이 우수연구인력을 배출하는 것과 우수연구결과를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70세까지 대학원 교육 연구를 연장하는 제도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가능케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는 연구는 혼자서는 힘들고 대학원생과 같이 공동으로 이루어 진다. 따라서 연구하는 데는 지도 할 수 있는 대학원생이 있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대학원생을 받기 위해서는 소속 대학에서 정년후의 연구연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모든 교수에게 자동적으로 65세에서 70세까지 대학원생을 지도하면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일찍 은퇴하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능력이 다소 감퇴한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금은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 수령을 65세 이후로 연기할 수가 없다. 따라서 6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 수령자가 되며 연금 수령 자는 정규교수가 될 수가 없는 것 같다. 연금제도도 65세 이후 연구에 참여하는데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넷째, 누구도 긍정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 없이 일부 교수는 65세에 정년을 하고 일부 교수는 그 이후까지 교육연구가 연장되는 경우, 65세에 정년하는 교수의 박탈감은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교육 연구 봉사를 하여 왔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의 재정이 넉넉지 않아 많은 교수에게 65세 이후의 교육연구에 종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

여섯째 대학의 공간이 넉넉지 않아 많은 교수에게 65세 이후의 교육연구에 종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힘들다.

일곱째, 65세 이후에 정부 연구과제에도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재원을 확보하여 연구경비와 대학원생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부터 비정규직이더라도 전일제 교원이면 장기대형과제가 아닌 경우에 책임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게 정부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65세 이후의 대학원교육 연구 연장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정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한다.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KAIST와 사립대학인 POSTECH은 연구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이다. 카이스트에는 특훈교수, 포스텍에는 대학펠로교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60세 이전에 선정하며 70세까지 교육 연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65세까지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교수의 극소수(3~10%)로 제한하거나 또한 40~50대에 이미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을 정년 훨씬 이전에 선정하기 때문에 넷째 문제가 해결되었다. 65세 이후는 봉급지급을 대폭 낮춰 다섯 번째 문제를 해결하였다. 소수이기 때문에 여섯번째 문제는 중요하기 않게 된다. 이 제도가 70세까지 교육연구를 연장하는 대표적 제도이다. 그러나 숫자가 제한적이다.

현재 한 대학에서 정년을 하고 다른 대학에서 석좌교수로 5년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의 첫째 문제에서 지적한 바와 타 대학에 가서 새로 대학원생을 받을 수가 없어 연구에는 기여할 수가 없다. 거의 일반 교육이나 학교발전에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65세 이후의 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다.

어떤 다른 제도가 또 있을까?

연구교수제도를 생각해 본다. 65세까지 박사과정 학생을 받을 수 있고 모든 대학원 학생 지원비를 부담해야 하며 65세 이후의 본인 봉급은 연구비에서 충당하거나 혹은 받지 않는 제도이다. 연구비가 있어 공간사용료 등도 충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경우다. 60세 이전에 65세에서 70세까지의 연구계획서를 학과에 제출하여 타당성을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큰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과거 경력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교수가 대상이 될 것이다. 연구교수제도는 모든 교수에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 넷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큰 짐이 되어 쉽게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재정문제는 본인 연구비로 해결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계획대로 연구비가 확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동연구와 이제까지 쌓아온 경험 등으

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65세 이후의 연구참여에 필요한 여섯째의 공간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수연구실을 10% 정도만 추가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되리라는 계산이 나온다. 요즘 대학 건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여유가 있는 대학이 많다.

본인이 여기서 언급한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라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 언급한 내용은 이공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나 아마 인문사회분야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수명이 늘어 연금 수령 연령이 늘어나면 위에 언급한 문제가 쉽게 해결 될 것 같다. 만약 연금수령연령이 70세라면 대학 정년이 70세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도리어 65세에 조기 정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이는 실제로 외국대학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다. 본인이 올해 70세가 되어 연구 연장 문제에 자유롭기 때문에 후학(後學)을 위하여 생각을 정리하여 보았다.

선행학습 자체에는 죄가 없지요

인문대학 언어학과 이 정 민

새 정부가 새로 법을 만들어 선행학습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얼마 전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2013년 1월 14일자)의 반론에 제시된 대안으로서의 '수준별 학습'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에 '수준별 평가'가 따라야 한다는 보완책을 제시한 다음과 같은 필자의 이메일 내용을 소개한다.

[태평로] 잘 읽고 공감했습니다. 대안 제시도 잘 됐다고 보나, 대안이 더 강조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대로 된 수준별 학습'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문제는 서서이라도 해결된다고 봅니다. 일부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수준별 학습'만이 아니라 '수준별 학습'에 따른 '수준별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가는 그렇지 못하다고 들어, '제대로 된' 것이 못 되고 있다고 봅니다. '수준별 평가'로 인해 앞서 가는 학생이 성적에 유리한 점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야 앞서 가기 경쟁이 수그러든다고 봅니다.

'수준별 학습 및 평가'에 이어 일정 수준 이상은 월반이 허용돼야 합니다. 지금도 원칙적으로 월반이 허용되나 그 폭이 너무 작아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월반 허용 폭을 넓혀 실질적 관리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조기 졸업도 허용돼야 한다고 봅니다. 가까운 한국 사람 중에 미국에 가서 고교에서 AP course 여러 과목 듣고 월반 졸업하고, AP 학점을 대학에 가 인정받아 대학도 조기 졸업한 뒤 대학원 박사과정 중 귀국해 육군 사병으로 자원 입대해 2년 가까이 일선 근무하고 돌아가 박사 마치고 선진국 대학에서 30세 전에 post-doc fellow로 일하는 경우도 봅니다.

정운찬 총리 시절에 선행 학습의 사교육 근절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분과 담당자에게 '수준별 학습 및 평가' 방법의 취지를 이메일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와서 설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 뒤에 선 버스로 달려간 사람들만 태우고 떠나 버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허탕을 치게 하는 것에 비유했었습니다. 그 이전에, 평소에 알만한 분도 많을 텐데도 실행이 안 되고 있어 문제인 듯합니다. 무슨 맹렬한 운동을 펼쳐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자녀 둔 모든 학부모가 선행 사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다만 나만 뒤처지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따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법 제정과 시행 대신 예산 뒷받침을 해서라도 수준별 학습 및 평가를 철저히 시행해서 재미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이 된다면, 대부분 사교육을 그만두게 되고, 학교에서 잠자는 학생도 자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수상

칠십 세의 경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김 안 제

70세는 오래 산 나이이다. 해로 70년이고 달로 840개월이고 날로 25,568일이며 시로 613,632시간이니 무척 긴 기간이다. 억겁의 세월로 보면 찰나요 순간이며 수유(須臾)에 지나지 않지만 하루살이가 보면 상상도 못할 장구한 세월이요 한 사람의 생애로 봐도 짧다고는 할 수 없는 기간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70살까지 사는 사람은 흔치 않다고 하여 고래희(古來稀)라 하였고 일흔 살을 고희(古稀)의 나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공자(孔子)는 70세에 이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경지를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는 말로 표현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 해도 결코 일정한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인인 공자는 일흔 살에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는 몰라도 일반 범인들로서는 언감생심 엄두도 낼 수 없는 높은 경지이다. 70에 이른 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아마 열에 아홉이 아니라 열에 열은 '주책이다, 노망이다, 노욕이다, 치매다, 꼴불견이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자기 나이가 70세라고 해서 공자님 말씀만 믿고 그대로 따라 했다가는 큰 실수가 따르고 많은 사람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이 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80세에 가까웠고 2040년이 되면 90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언젠가는 125세라는 천수(天壽)의 나이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0세 나이를 도달하기 어려운 고희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적절치 못하며, 80세나 90세로 옮겨서 써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70세를 칭하는 고희의 의미를 순수한 연륜이 아니라 공자께서 일컬은 마음 내키는 대로 처신해도 좋다는 경지로 해석함이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일흔 살의 나이에 이르러도 마음 내키는 쪽으로 행동하여도 규범적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로부터 드물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나의 경우는 일흔 살을 넘고 보니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말하기가 더 어렵고 행동하기가 더 조심스러워진다. 나이를 헛먹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무척 신경이 쓰인다.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심도 아직 남아 있으며, 걸핏하면 마음이 비뚤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섭섭함을 느낀다. 늙으면 아이가 된다는데, 순수하고 천진난만해지는 것은 좋지만 철없고 유치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늙은이 아이가 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훌훌 털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한가히 지내기에는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칩거하기에는 인간사와 맺어진 인연이 너무 깊고 질기다. 하늘이 준 수명이 한정되어 있으니 시간을 늘려 무리한 계획을 세워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과거를 회상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고 삶을 정리하여 어디로 떠날 수도 없으며 앞을 향해 무

작정 뛰어갈 수도 없는 엉거주춤한 70대의 연륜에 머물고 있다.

70대에 걸맞은 인간의 참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고 있다. 신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적절하고도 바람직한 모형의 인간상을 가졌으면 한다.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경지에 이를 때까지 오래 오래 살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신불에게 기원 드린다.

옛날 길과 지금 길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고 영 근

독문학자이자 수필가였던 김진섭 선생은 '창(窓)'이라는 수필에서 창은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다주는 태양이라고 하였다. 창을 통하여 광명을 찾듯이 우리는 길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다. 어릴 때 사립문을 나서면 아래 동네와 위 동네를 가는 길이 우리 집 앞에 나 있었다. 주말이면 고성 방면의 진주 마산 유학생들이 쌀자루를 짊어지고 기차를 타러 반성역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고성에는 기차가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개를 넘어 수십 리를 걸어와서 기차를 이용하였다. 앞에는 들판으로 벋어 나간 논길이 있었고 소를 몰고 잔데이(작당산성)로 올라가면 성안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 새터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 큰 저수지가 있고 한골 재 너머 산길을 올라가면 고성 땅으로 접어든다. 자동차 다니는 한길[신작로]을 따라 가수개를 거쳐 논길을 지나 고개를 넘어 한참 걸으면 나의 모교인 이반성초등학교가 나온다.

어렸을 때 내가 걷던 길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한 여름철 논길을 따라가면 논두렁에 콩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다. 논길 옆 도랑에는 밤이면 통발을 대고 미꾸라지를 잡는 풍경도 예사로 볼 수 있었다. 아버지는 해마다 나락이 한창 자랄 때면 한 밤중에 간조기 한 손과 밥을 지어 나를 데리고 논두렁에서 농신제를 지내곤 하셨다. 그해 농사가 잘 되라는 뜻으로 농신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는 것이다. 논길을 따라 구석진 곳으로 가면 웅덩이를 만난다. 가물 때에는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었다. 나도 형들을 따라 물을 푼 기억이 있다. 그러던 웅덩이도 저수지가 생기면서 논으로 변하였다. 농촌의 낭만이 서려 있던 논길도 지금은 농로로 바뀌어 트럭터가 오고간다.

산길을 따라가면 특히 가을철이면 빨갛게 물든 망개며 굴밤[도토리]이며 뽈똥이며 온갖 산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뽈똥[보리수나무]은 내가 예닐곱살 때 시사를 지내러 발치산 선산으로 오를 때, 익을 대로 익은 뽈똥을 따 먹은 기억이 생생하다. 다년생 나무에 열리는 붉게 익은 뽈똥 열매를 입에 넣으면 시금털털한 액이 온 입안을 상큼하게 적셨다. 고려가요의 〈동동〉에 나오는 'ᄇᆞᄅᆞ'이 이 뽈똥을 가리키는지, 표준말은 '보리수나무'이다. 성안에는 돌배가 주렁주렁 열려 있어 따 먹으면 어찌 그리 떫었던지. 작년 시제 때 올라가보니 옛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이름 모를 무덤 한 쌍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알려 준 그 많은 길들은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외갓집으로 갈 때 걷던 발산재 너머 그 길은 수풀로 뒤덮여 있으며 그 대신 진주-마산간 사차선 산업도로가 선산 중허리를 뚫고 지나가고 있다. 옛날 걸어 다니던 길들은 모

두 묻혀 버리고 논길은 농로로, 한길은 산업도로 아니면 고속도로, 고속화도로가 그 자리를 메꾸고 있다. 산길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고 있으며 예전에 없던 '임도(林道)'가 새로 생겨 산불 퍼지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자동차로 목재를 운반하기도 하는 세상으로 변모하였다. '임도'에 해당하는 고유어는 없다. 이에 대응됨직한 '숲길'은 있어도 지칭개념이 다르다. '숲길'은 숲속에 난 길을 가리키는데 모두 산책로로 바뀌고 있으니 이 또한 조만간 폐어가 되지 않을까. 내 어렸을 적의 산은 삶의 터전이었다. 나무꾼들은 지게를 지고 산길을 따라 나무를 한 짐 해 와서 땔나무를 마련하거나 5일 장에 지고 가서 팔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봄철이면 아낙네들은 깊은 산중에 가서 현입(홋닢, 화살나무)을 훑거나 산나물을 뜯어 춘궁기를 넘겼다. 험한 산중을 헤매면서 채취하던 산먹을거리를 지금은 양식장에서 조달한다.

옛날의 산길은 등산로로 모습이 바뀌어 가고 있다. 작년 준봉[고경명 선조의 장남] 묘소에 가서 어렸을 때 다니던 산길을 찾으니 역시 자취도 없어지고 그 대신 등산로가 나 있었다. 길은 길이로되 내 어렸을 적의 산길은 등산로라는 용도가 다른 길로 변하여 있었다. 옛날 길은 삶의 터전이었지만 지금 길은 건강의 터전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산길이든 등산로든 길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산길을 통하여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지금은 등산로를 통하여 건강을 누리고 있으니.

공릉동 캠퍼스 1호관 301호실의 회상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김 효 철

학과장이셨던 임상전 교수님의 권유가 있었기에 1968년 늦은 봄 근무하던 산업체에서 사직하고 공릉동 캠퍼스로 돌아와 1호관 2층의 광탄성실험실에서 석사과정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다시 정리하고 자리잡았다. 당시 대학에서 독일정부 장학생으로 출국 예정인 조교들의 후임으로 조교 발령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학교 귀환을 권유하신 것이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나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구체적 사항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귀환한 것이었다.

학교에는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으며 조선소에서 설계업무를 맞고 있던 선배들께서 실험실에 자리잡고 미국조선학회에서 출간한 기본조선학을 번역하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또 복합재료를 사용하는 상륙용 주정을 설계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학생실험실습지원과 실험실 관리업무가 주어졌으며 선박제도시간에 학생들과 교실에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학기가 끝나도록 조교 발령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막연하게 학과에 새로운 조교자리가 마련되는 데 시간이 걸려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을 지나며 함께 작업하시던 선배들이 학교를 떠나셨는데 한 분은 전문대학에 자리 잡는 기회를 가지셨으며 다른 한 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시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여름방학이 지난 후에는 나는 홀로 남아 학과의 실질적인 조교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새 학기가 되었을 때에는 제도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었고 광탄성학 실험 그리고 고체역학 강의실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학생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학교에 출근하여야 하였다. 학기 중간시험 기간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기다리던 조교 발령 수속을 하라는 명을 받았으며 1968년 11월 1일에 비로소 유급조교로 발령받았다.

학교에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나 발령수속을 하며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독일정부 장학생의 조교직을 유학기간 중에도 유지시키라는 독일정부의 외교적 협조요청으로 새로운 조교자리 확보 없이 조교 발령이 어려웠던 것이다. 많은 지망자가 있었는데 일부는 여름방학 중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었고 남은 지망자들로도 경쟁이 심하여 학교에서는 조교 지망자들의 출근성적 순으로 최종 발령자를 선정하였는데 첫 번째 순위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

공릉동 캠퍼스 1호관 현관 앞에 통근 버스가 정차하곤 하였는데 1호관 시계탑 아래 자리하였던 302호실에는 당시 교무행정을 총괄하던 최계근 교수의 연구실이 있었으며 최 교수는 통근차가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출근하시어 통근차에서 내리는 조교 지망 후보자들의 출근

사항을 아무도 모르게 수 개월간 점검하신 후 발령 후보자의 순위를 결정하시었기에 지망자 중에서는 젊은 축에 들었던 나를 선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1월 초 발령을 받은 후에는 광탄성 실험을 통하여 단이진 선체구조물이 인장하중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응력집중 현상을 조사하였으며 한 쪽 변에 부분적인 전단응력이 주어지는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상태를 Fourier 해석으로 조사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1970년 1월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으며 공과대학 조선공학과의 교수로서 길을 걷게 되었다. 전임강사로 발령을 받았을 때 최초로 배정받은 연구실이 1호관 301A호실이었다.

당시 큰 교실을 301A, 301B, 301C로 칸막이하여 연구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웃하여 이해경 교수, 이정한 교수, 최계근 교수 등의 연구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특히 이해경 교수 연구실과는 쪽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세면기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구조이었다. 이 방에 자리 잡은 이후 용접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에 발을 들여 놓고 강의 준비와 구제 박사제도에 따라 학위 청구논문을 준비하느라 주말에도 방을 지키곤 하였다.

1973년 여름이었다고 기억하는데 학교 건물내부를 도장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교수실에는 가구와 도서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전지크기의 포장지가 배정되었다. 얼마 되지 않는 책을 보호하려 정성스레 덮어 놓고 도장공이 들어와 천정과 벽을 도장하기를 기다렸는데 옆방까지는 도장을 하였으나 내 방은 도장공이 들어오지 않고 공사가 끝이 났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교수실을 도장하는 계획에 전임강사는 법정교수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어서 도장계획이 있다 하여 기다렸으나 다음 번 도장 계획은 교실이었기에 또다시 도장공은 전임강사인 내 방을 찾아올 까닭이 없었다. 혹시나 하여 전지로 가려놓은 서가를 불편하게 이용하며 도장공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으나 도장공은 내 방을 찾지 않았고 다시금 도장 공사는 종료되었다. 1호관에 2사람의 전임강사가 있었는데 한 연구실은 착오로 도장이 되었고 유독 내 연구실을 도장할 때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음도 알게 되었다.

얼마 후 3차 공사로 복도와 계단 그리고 화장실 등의 도장이 이루어졌다. 학기 중에 도장이 이루어졌기에 많은 부분이 일과 후에 이루어졌는데 일과 후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있다 퇴근하곤 하였기에 도장공들이 도장작업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물을 받아 페인트에 섞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 항의하였으나 학교의 도장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물을 적정량 넣어야만 작업성이 얻어진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도장 공사가 끝나 가고 있었기에 도장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지로 덮어 놓은 서가를 개방하고 정리하였다. 대학이라는 곳이 물 몇 바가지만 더 넣으면 한 사람의 전임강사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철저하게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마음을 다스리려 노력하였다. 화장실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전임강사 실을 벗어나려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조교수로 빨리 승진하여야 한다 생각하고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로 하였다.

다시금 한 주쯤 지났을 때 방을 두드리는 방문객이 있었는데 도장 공사를 확인하는 감독관과 도장 책임자의 방문이었다. 규정에 따른 지시와 충실한 시공이었음에도 건물전체에서

유독 내 연구실만을 도장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종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도장공이 찾아 왔으나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강력히 거부하였다. 하지만 추석을 앞두고 도장공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도장 책임자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 도장에 응하였다.

그 해 겨울 조교수로 승진이 확정되었으며 1호관 2층에 학과 교수들과 가까이 방을 얻어 연구실을 이전하고 봄을 맞게 되었다. 공과대학 공릉동 캠퍼스에서 전임강사로 발령받았던 젊은 시절을 회상할 때면 비록 원칙에 벗어난 일일 수 있으나 관리자가 수성페인트에 물 한 바가지를 더 타도록 하였더라면 1호관 3층의 301A호실에서의 26개월의 생활이 40년이 지난 지금과 같은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렵니까?

치과대학 치의학과 임 창 윤

지난 주 나는 모처럼 내가 재직했던 대학에 갔다가 친근하게 지내던 후배교수 방에 들렀었다. 오랜만에 만나서 환담을 나누었다. 그런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 후배교수가 나에게 "선생님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아닌가.

나는 갑자기 질문을 받고서 잠시 당황하였다. 무슨 말로 어떻게 대답을 하여야 할 지 얼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망설였다. 그러다 "언젠가는 그만 두어야지" 하면서 대답을 대신하였다.

나는 대학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을 집에서 쉬다가 지금 서울 시내 변두리에서 조그마한 치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다.

어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후배 치과의사가 운영하던 것을 나보고 자기가 운영하던 치과를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하기에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맡아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다.

매일 아침마다 정시에 대학에 출근을 하다가 퇴임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지루한 나날이 계속되었다.

정년퇴임한 다음 날 나는 정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있으려니 갈 곳이 없어졌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조간신문을 다 보고, 또 느긋하게 앉아서 아침 텔레비젼도 다 보았다.

아침 10시 30분이 지나고 있었다. 무료하다.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나?" 하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니 마땅한 소일거리가 없다.

집사람은 분주히 무엇을 하고 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내다 버리고, 집사람은 하는 일이 많았다. 나는 그냥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서 눈만 굴리며 아내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무슨 잔소리나 안 나올까 하고 은근히 마음 한 구석이 쪼이기도 한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 보아도 내가 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다. 집안의 일이라고는 아내가 이제까지 다 처리하여 왔고 사실상 나는 밖에 나가서 내 할 일이나 했지 집안에서 나는 아무 것도 내게 소임이 되는 일이 없었다. 조금 있다가 아내는 동회에 가야 한다고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집안에 앉아서 하는 일 없이 무료하고 손에 잡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어딘가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친구 저 친구 찾아다니기도 해 보고 또 나보다 먼저 정년퇴임을 하고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도 가서 점심도 같이 먹

고 해 보았으나, 그 사람도 환자를 보아야 겠기 때문에 그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곳에서 나오면 특별히 갈 데도 없다. 그래서 겨우 생각나는 것이 지하철이었다. 지하철은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이기 때문에 지하철 탈 생각이 문득 난 것이다. 지하철을 타고 오늘은 1호선 종점 인천공항도 가보고, 다음 날은 4호선 종점 시화공단도 가보고 하면서 소일을 하다가 마침 후배 치과의사가 치과운영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와서 용기를 내어 지금 운영하는 치과를 맡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래도 대학에 있다가 개인병원을 맡아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처음에는 여간 어색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2~3년을 지내니 이제는 일도 재미있고, 우선 내가 할 일이 생겼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집에서 아무 것도 안 할 때보다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그래도 마음에 위안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대학에 일이 있어 일을 보고, 아끼는 후배 교수실에 들렸다가 후배 교수로부터 "언제 일을(치과를) 그만 두겠느냐?"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나라에서 65세가 정년이면 사회에서도 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 당황하고 불쾌하였다. 뭐라고 싫은 소리를 해 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마치 "언제 죽으시렵니까?" 하는 말 같이 느껴졌다. 내가 과잉반응인가? 하여튼 내 마음이 몹시 언짢았다.

요즘 65세나 70세 난 사람들 어디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볼 수 있느냐? 지금 60세, 70세는 과거에 50세 정도밖에 안 된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0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평균 연령이 100세에 이를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나라는 노령사회로 들어가고 있다.

65세에 정년을 하고 나서 80세까지 15년 동안을 죽음을 기다리기도 지루하고 그 기간을 그럼 무엇을 하고 지내야 하는가? 돈이 많으면 가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하고 하면 좋으련만, 골프도 못 치고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 해외여행도 즐기지 못하고,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여유 있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가 없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도 자기 전공을 살려 사회 각 부분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러나 내가 전공한 분야는 대학에서나 필요하지, 대학을 떠나면 나의 전공은 사회에 나와서는 별로 부르는 곳이 없는 분야이다. 그렇다고 죽치고 집안에서 책만 들여다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오피스텔을 얻어 문학작품이나 쓰는 그런 소질도 없다. 하여튼 뭐 소일거리가 없다.

천만 다행으로 치과의사 면허가 있어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치과를 변두리 남한산성 밑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현실에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다.

당신도 몇 년 더 지나면 65세 정년이 돌아온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참 빠르게 다가온다.

노인들에게는 가급적이면 "언제 일을 마감하겠느냐?" "일을 그만두시라", "이제는 그만 쉬

시라" "이제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고 집에서 쉬시라" 하는 등의 말은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은 나만 불쾌하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얼마 전에 교회의 신도 중에 선교분과 위원회를 맡고 있는 60대의 지인이 50대 초반의 후배 교인이 "형님은 회장직을 언제까지 맡고 계시겠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것이다. 이 분도 나처럼 그 말을 듣고 몹시 불쾌하여 그 후배 교인을 나무랐다는 말을 들었다. 이 분은 성질이 몹시 급하고 괄괄하여 그 말을 듣자마자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남의 일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이 실례이기도 하다. "춘부장은 무얼 하시느냐?" "아드님은 어느 직장에 다니시느냐?" "자제분은 몇이시냐?" "자제분들은 결혼을 하였느냐?" 하여튼 관심이 많다.

물론 어른들한테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는 예의이지만 사실상 "아침밥(진지)은 드셨습니까?" 하는 인사도 있으나 그럼 "아침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밥을 사 줄 것인가? 아침밥도 못 먹고 다니는 그런 초라한 인생으로 보이는가? 어떻게 보면 참 실례되는 인사말이다.

어떤 사회활동이 활발하였던 노인 한 분이 아들과 말다툼을 한 사례도 있다. 이 노인 어른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아침마다 열심히 밖으로 나다니며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로 성사되는 일은 없어 보였다. 이런 노인 어른의 모습을 보던 40세가 넘은 아드님되는 분이 연로하신 부친께 "아버님 이제는 집에서 쉬세요. 뭐 하신다고 하시면서도 성사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하면서 아버지되시는 분께 충고랍시고 말씀을 드렸다. 이 어르신께서는 아드님 앞에서는 "그래" 하시고는 돌아서서는 실망이 많으셨단다. 이 아드님의 말을 듣고 아주 섭섭함을 금할 수가 없었단다.

노인들에게는 마음은 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기 자신의 몸이 늙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러한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사실상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용기를 더 북돋아 주는 말, 그러니까 "젊어 보이신다"든지 "건강하게 보이신다"든지 "근력이 좋으시다" 하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권장할만한 일인 것 같다.

"이젠 쉬시지요" "언제까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그만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르신을 많이 생각해서 해 주는 말 같지만 이런 말을 듣는 노인 당사자는 불쾌하게 들리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듣는 당사자가 나이가 젊고 앞이 창창한 젊은이라면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생황혼기에 접어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피해야 할 말의 표현인 것 같다.

결혼식 주례에 얽힌 이야기들

공과대학 에너지자원공학과 전 효 택

교수생활을 하다 보면 재직한 학과 학부의 학사과정 졸업생이나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또는 졸업생들로부터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게 된다. 특히 필자 연구실 출신의 석박사 졸업생들의 주례 청탁은 거절하기가 몹시 어려운데 필자 나름으로는 나이 50이 넘으면 주례를 서야 하겠다고 작정하여 나이 50이 안 되었다는 핑계로 잘도 사양하여 왔다. 그러나 필자 연구실에 재학 중이던 남녀 학생이 연애결혼을 하게 되어 주례를 부탁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처음 주례를 선 나이가 만 47세였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례를 섰다는 소문 때문인지 계속 주례를 서게 되었고 어느 해인가는 3개월간 매달 한 번씩 주례를 한 적이 있어 내가 주례교수인가 하는 농담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있다.

신랑 신부에게는 물론 양가의 가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결혼 행사이니만큼 주례를 서는 인사도 당연히 준비와 조심에 긴장을 하게 되며 적어도 결혼식 30분 전에 미리 식장에 가서 준비를 한다. 필자의 주례사 내용은 먼저 양가에 축하드리며 주례를 서게 된 인연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신랑 신부를 간단히 소개한다. 다음에는 신랑 신부에게 당부의 말씀으로 첫째 양가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받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을 권면한다. 둘째로는 서로 믿음과 책임을 지도록 권유하고 셋째로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며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양가의 가족들에게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니만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랑의 열매인 아들 딸 소식을 기대한다는 말로 약 7, 8분여의 주례사를 마친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주례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나 비교적 주례 말씀을 잘 해 주신다는 인사 치례를 받으며 이 주례와 얽힌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려 한다.

가장 먼저 기억나는 주례는 탈북하여 재외국인으로 우리 학부에 신입생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제자의 주례였다. 이 제자는 재학 중에는 탈북학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주례를 맡게 되어 알게 된 경우이다. 졸업 후 국내 기업체에 취업하고 중국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사내에서 신부를 만나 연애결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 결혼은 서울 근교에서 하게 되었고 일주일간 단수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결혼식을 하게 된 축복의 자리였다. 문제는 결혼 사회자가 회사에서 알게 된 개그맨이었는데 결혼식장에도 수십 분 늦게 나타나 결혼식이 늦추어지고 예식을 자기 스타일의 쇼 형태로 진행하려는 태도가 불량하여 주례 후 완전히 기분을 상한 기억이 있다. 필자는 결혼식 시작 전 사회자에게 결혼식은 엄숙한 축하행사이므로 심한 이벤트성 스타일의 진행을 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는데 사회자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주의를

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결혼식장에서는 꾸중하지 않고 조용히 마치고 식후에 신랑 친구를 통해 신랑과 사회자에게 언짢은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결혼식 주례는 하고 나서도 후회하는 경우이다. 다행히 신랑이 예의 바른 제자인지라 신혼여행을 가서도 단수비자로 입국이 불가하여 감사하다는 인사를 국제전화로 해 주어서 조금은 위안이 된 경험이 있다.

그동안의 많은 주례 중 감동받은 작은 결혼식이 기억난다. 신랑 신부 가족과 하객이 약 100명 정도로 기억되는데 한 홀의 각 원형 테이블에 하객들이 앉아 행복한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나누는 작은 결혼식인지라 주례 단상 앞에 마련된 주례자의 식사 자리에서 식사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던 결혼식이었다. 필자는 주례 후 신랑 신부와 단체사진을 찍어 주고는 곧바로 예식장을 빠져나가 가족들에게 가능한 한 신경 쓰지 않도록 또한 대접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날만은 작은 결혼식 식사에 동참할 수밖에 없던 기억이다.

주례를 서는 장소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산이나 동해 등 지방이다 보면 하루가 완전히 결혼식 참가로 지나가게 된다. 대학에서는 50대 교수라도 여전히 교육과 연구생활이 바쁘고 특히 학기말에는 많은 업무로 하루하루가 귀중하기 마련인데 사실 교수생활하며 날짜보다는 요일에 따라 생활함이 보통이다. 제자들이 누구에게 주례를 부탁할 수 있겠나 싶어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주례 승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동안 주례를 하면서 필자 나름의 철학은 주례는 제자들 결혼식에만 국한하며 필자의 고교 동기나 대학 동창 친구들 또는 대학의 후배들 자녀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주례가 많아지면 우선 부담이 되고 더욱이 친구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의 은사나 직장 상사에게 주례를 부탁함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이 세상에 절대라는 경우는 없는 것인지 어느 토요일 오전에 고교 동기이자 우리 대학의 같은 학과 동기 동창인 친구가 부부동반으로 연구실을 갑자기 방문하여 처음에는 부부가 관악산 등산에 왔다가 방문하였나 하였다. 친구 부인의 말씀인즉슨 이번에 외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남편과 고교 및 대학의 같은 과동기이고 우리 형편을 잘 아는 전교수님이 주례를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 친구 자녀들의 경우 그동안 주례를 해오지 않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이 원칙을 깨면 그동안에 거절당한 친구들에게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았다는 어려움을 말씀드려도 통하지 않았다. 만 47세에 주례를 시작하여 61세 되기까지 친구들 자녀는 주례를 하지 않았다는 절대 원칙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이 이후로는 친구들 자녀 주례를 거절할 수가 없어 이 또한 주례가 많아진 원인이 되었다.

주례를 하며 섭섭한 경우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랑신부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그동안 인성 교육을 잘못하였구나 하는 후회와 무심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기도 하였다. 이 경우 전화로 연락하거나 제자를 시켜 왜 인사하러 오지 않느냐고 잔소리를 한다면 마치 답례를 기다리는 모양으로 오해를 살 수 있어 결코 연락하지 않았다. 필자는 주례를 맡게 되면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를 연구실이나 학과 사무실로 불러

신랑 신부를 소개받고 주례사에 언급할 간단한 약력을 들은 후 예식 중의 성혼서약이나 가족인사 등에 대한 순서를 상의한 후 결혼생활에 필요한 당부를 하며 주례자에게 승용차를 보낸다든지 등의 신경을 쓰지 않도록 권유한다. 결혼식 당일에는 결혼 축의금을 내고 주례를 마친 후 신랑 신부와 기념사진을 찍고 나면 곧장 사라지는 일이 필자의 원칙이다.

간혹 신랑 신부 측에서 감사하다며 거마비를 주려 하거나 과도한 선물은 모두 거절해 왔으며 부모님이나 신랑 신부가 섭섭하지 않도록 "감사하다는 의미로 주시는 거마비 현금을 받으면 저는 대학에서 짤립니다"라는 말씀으로 사양하여 왔으며 이 부분에서는 지금도 잘 해 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결혼식 후 먼저 결혼한 친구나 선배에게 "주례 선생님 사례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고 그 때 대답이 "거마비를 드렸더니 받으시던데" 하는 말이 오간다면 결국 주례자는 거마비를 받는 인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주례 부탁을 일주일 전이나 수일 전 갑자기 부탁해 오는 경우는 거의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 필자도 거절하여 왔으며 주례자 입장에서 얼마나 준비와 마음가짐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지를 신랑 신부와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장소도 그동안 매우 검소한 장소로부터 호텔까지 다양하여 꼭 이렇게 호화로운 결혼식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필자는 다행히 금년 조선일보의 작은 결혼식 캠페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한지라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마음이 편해지리라 보이며 친지들께도 양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는 2012년 8월 말로 대학 정년도 하였으니 주례 부탁도 사양하며 앞으로는 후배 교수들에게 또는 이미 나이 50이 다 된 제자교수들에게 주례 부탁을 넘겨야 하겠고, 2013년 새해부터는 주례 부담에서 벗어나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부 | 명예교수 학술 및 봉사활동

인문대학

고영근 (국어국문학과)

〈논문〉

1.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운동. 새국어생활 22(3), 131-152, 2012. 9.
2. 민족어 대명사의 복수 표지와 그 유형적 특징. 형태론 14(2), 171-183. 2012. 10.
3. 민족어 격 어미 및 후치사, 첨사 범주와 그 유형론적 함의. 국어학 65, 73-108, 2012. 12.
4. 언어 유형론 노트 (2). 형태론 14(1), 91-105. 2012. 5.

〈학술회의〉

1. 조선어학회 수난과 민족어 수호운동. 국립국어원 주최/한글학회 주관, 조선어학회 수난 70돌 기념 강연, 고궁박물관, 2012. 10. 13.

〈특강〉

1. 한국어의 시상법(TAM)과 그 유형론.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and writing system. Korean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2012. 2. 7.
2. Korean tense, aspect and mood and their typological approaches.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s, University of Hawaii, 2012. 2. 8.
3. A proposal for North-East Asian language-culture union. Department of Linguistics, University of Urbana, Campaign, 2012. 11. 2.

〈기고문〉

1. 대양주와 미주 여행기. 형태론 14(2), 2012. 10.

김용직 (국어국문학과)

〈저서〉

1. 「나의 시대 나의 이야기」. 자서전, 유년기 소년기 편, 총 383쪽, 푸른사상사, 2012. 8. 12.
2. 「採情集」. 창작한 시 120수 수록, 총 270쪽, 푸른사상사, 2012. 12. 20.

〈특강〉

1. 문화유산으로서의 국토산하와 명소고적 수용 문제. 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 지도자 양성과정 특강,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2012. 8. 2.
2. 한국현대시와 동북아시아의 문화전통. KAIST 인문사회계 대학원 특강, KAIST SUPEX 경영관 최종형 홀, 2012. 9. 11.
3. 시조의 기능적인 이해를 위한 몇 가지 생각. 한국시조시인협회 경남지부 초청 특강, 경남 진해문화원 대강당, 2012. 9. 30.

〈기고문〉

1. 다시 읽는 춘원(春圓)의 도산 안창호(島山 安昌浩) 비문, 춘원연구학회 뉴스레터 8호, 2012. 4. 30.
2. 식민지 체제하 한국식의 민족적 저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7호, 33-45쪽, 2012. 5. 18.
3. 오늘 우리 시조의 자리매김 문제. 서정과 현실, 19호, 12-22쪽, 2012. 9. 30.

김학주 (중어중문학과)

〈특강〉

1. 세계민족무용연구소 콜로퀴엄 주제강연: 『시경』을 중심으로 본 중국 고대의 예 · 악 · 무. 한국예술종합학교, 2012. 4. 21.
2. 중국어문논역학회(中國語文論譯學會)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고전 번역의 의미와 가치 – 나의 『시경』·『서경』 번역을 중심으로 하여. 숭실대학교 벤처 중소기업센터 311호실, 2012. 5. 25.
3. '實証與演變' 中國文學史 國際學術研討會: 再論中國文學史上 '古代'與'近代'的問題. 中國 上海 復旦大學古籍整理研究所 復旦大學中華文明國際研中心, 2012. 6. 7-8.
4. 章培恒教授紀念講座: 三經與周公. 中國 上海 復旦大學古籍整理研究所 復旦大學中華文明國際研究中心, 2012. 6. 9.
5.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제1기 Phillian 최고지도자 인문학과정: 중국의 전통연예와 대중예술.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전남대학교 이을호 기념관 대회의실, 2012. 9. 5.
6. 2012년도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학회연합국제학술대회: 나의 중문학 공부를 통해본 '상호 연구와 인식의 전환'. 한국중어중문학회 유관 21학회 연합 주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기조강연; 2012. 10. 13.
7. 2012년도 영남중국어문학회 · 中國 武漢大學 공동주최 국제학술대회: 『詩經』 연구와 번역

을 되돌아보면서. 영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108호실, 2012. 10. 27.
8.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공자학원 주최 한중문화교류 축제: 한중문화교류에 대한 반성.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대형강의실, 2012. 11. 13.
9. KAIST 경영자를 위한 인문학 강연: 장안과 북경 – 중국역사와 학술 문화의 특징을 찾아서. 카이스트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관 4층 강의실. 2012. 12. 4.

박환덕 (독어독문학과)

〈역서〉

1.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우사, 2012. 10. 5.
   [내용] 제1장은 제 국가간의 영구평화에 관한 6개 예비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2장은 국가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3개 확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부록에서는 도덕과 정치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칸트의 이 저서는 그 부제('평화 조약의 철학적 초안')에 걸맞게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 연맹"(UN의 전신)의 성립과정에서 철학적 이론의 기초가 되었다. 칸트는 "영구평화는 절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하면서 지속적으로 목표에 접근해갈 하나의 과제"라고 결론짓고 있다.
2. 박환덕 역: 헤르만 헤세 저, 세계문학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Eine Bibliothek der Weltliteratur), 총 117쪽, 범우사, 2012. 10. 5.
   [내용] 이 저서는 헤세에 의해서 쓰여진 일종의 세계문학 안내서이다. 그러나 단순히 문학사적 지식을 토대로 작품의 명성만을 좇아 쓴 단순한 안내서가 아니고, 저자는 자신의 독서체험에서 확인하고 터득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는 세계문학의 독서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랑이 없는 독서는 정신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의 독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유럽 중심에서 훨씬 벗어나 있다.

안삼환 (독어독문학과)

〈기고문〉

1. '모순의 나라'에서 '동방의 밝은 빛의 나라'로. 계간 본질과 현상 제30호 겨울호, 18-34쪽, 2012. 12. 1.

안휘준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1. 『한국 그림의 전통』. 총 588쪽, 사회평론, 2012. 2. 29.
2. 『한국 미술사 연구』. 총 800쪽, 사회평론, 2012. 11. 23.

〈논문〉

1. 「김재원, 박물관의 아버지, 고고학 · 미술사학의 선각자」. 『한국사 시민강좌』 제50집, 249-262, 2012. 2.
2. 「솔거(率居): 그의 신분, 활동연대, 화풍」. 『美術史學研究』 제274호, 5-29, 2012. 6.
3. 「겸재(謙齋) 정선(鄭敾, 1676-1759)과 그의 진경산수화, 어떻게 볼 것인가」. 『歷史學報』 제214호, 1-29, 2012. 6.
4. 「朝鮮時代的畵員」, 『故宮博物院刊』 總 124期, 6-27, 2012. 11. 30.

〈기고문〉

1. 「인문학, 시야를 넓히자」. 『교수신문』 제640호(창간 20주년 기념), A27면, 2012. 4. 16.
2. 「본태박물관의 개관을 반기며」. 『본태박물관 개관기념전』, 본태박물관, 9, 2012. 6. 11.
3. 「기조강연 1: 타국 소재 유출문화재, 어떻게 볼(할) 것인가」.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141-144, 2012. 10. 16-17.
4. 「청기와쟁이」. 『박물관 News』 Vol. 496, 12-14, 2012. 12. 1.
5. 「외국으로 유출된 문환재, 어떻게 볼(할) 것인가」. 『광개토대왕 서거 1600주년 기념 제27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한국박물관학회, 9-11, 2012. 12. 18.
6. 「기금 有感」. SNU Noblesse Oblige, Vol. 22, 2-3, 2012. 12. 5.
7. 「문화재청 창립 50주년에 부쳐」. 『문화재청 50년사』 자료편, 문화재청, 833-838, 2011. 12.
8. 「한국대학박물관협회의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며」. 『한국대학박물관협회 50주년사(1961-201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995-998, 2011. 12.
9. 「사립박물관을 생각한다」. 『강좌 미술사』 제37호, 13-21 및 『박물관학보』 제21호, 203-211, 2011.

〈학술회의〉

1. 「주제발표 1: 한국미술의 특징」.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술세미나』, 공주교육대학교 입지관 시청각실, 2012. 1. 17.
2. 「기조강연 1: 타국 소재 유출문화재, 어떻게 볼(할) 것인가」.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회

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 2012. 10. 16.
3. 「총평: 교류관계로 본 고구려 고분벽화의 종합적 연구」. 『고구려 광개토대왕 서거 1600주년 기념 제25회 학술대회』, 한국미술사연구소 ·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2강의실, 2012. 10. 20.
4. 「기조발표: 외국으로 유출된 문화재, 어떻게 볼(할) 것인가」. 『광개토대왕 서거 1600주년 기념 제27회 박물관학 학술대회』, 한국박물관학회,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 2012. 12. 18.

〈특강〉

1. 「한국미술과 과학기술」. 카이스트 경영대학 인문학 특강. 카이스트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관, 2012. 3. 6.
2. 「조선왕조시대의 미술」. 장서각 아카데미 왕실문화 강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4. 3.
3. 「한국 회화의 흐름과 호암 화단의 형성」. 박물관대학, 전북대학교 박물관, 2012. 5. 23.
4. 「청출어람의 한국미술」. 서울상대 17회 포럼, 한신 인터밸리 4층, 2012. 6. 5.
5. 「조선시대 회화」. 한류 아카데미 심화과정,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강의실 및 전시실, 2012. 10. 9.
6. 「삼국시대의 미술」. 가나 문화포럼 15기 강연, 서울 가나 화랑, 2012. 11. 15.
7. 「인문학으로서의 한국미술사」. 서울대 인문대 AFP 20기 강연, 논현동 조일빌딩 2층 나인킷친, 2012. 11. 20.
8. 「한국의 현대미술 무엇이 문제인가」. 홍익대 미술대학원 현대미술 최고위과정 강연, 홍익대학교 홍문관 512호실, 2012. 12. 7.
9. 「고구려의 미술」. 가회민화아카데미, 가회박물관, 2012. 12. 7.

〈봉사활동〉

1. 우현(又玄) 고유섭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인천문화재단, 2010. 1. 26-현재.
2. 문화체육관광부 영정 · 동상 심의 위원회 위원장, 2002-현재.
3. 월간미술대상 운영위원회 위원.
4. 호림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
5. 한성 · 백제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제 1대 위원, 2012. 9. 14-현재.
6. 안견 선생 기념사업회 고문.
7. 여당(藜堂) 김재원 선생 기념사업회 위원.
8. 국립중앙박물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편집위원.
9.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초대이사장, 2012. 9. 25-현재.

오병남 (미학과)

〈특강〉

1. “인문학으로서의 미술론”.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기, 한국연구재단,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 2012. 10. 27.
2. “이성과 규칙으로서의 예술”.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기, 한국연구재단,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 2012. 11. 3.
3. “낭만주의: 상상과 감정으로서의 예술”.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기, 한국연구재단,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 2012. 11. 10.
4. “현대미술의 현대성 개념과 인상주의”.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5기, 한국연구재단, 서울 역사박물관 강당, 2012. 11. 17.

〈논문〉

1. “예술과 창의성의 개념 – I. 칸트의『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학술원 논문집』인문 · 사회과학편 제51집 1호, 1-35, 2012.

이정민 (언어학과)

〈논문〉

1. Chungmin Lee: Evidentials and modals: What makes them unique. International Journal for Language Data Processing (SDV) Vol. 35.2/2011 and 36.1/2012, 71-98, 2012.
2. Dongsik Lim, Chungmin Lee: Perspective shifts of Korean evidential and the effect of contexts. Proceedings of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2, 26-42, 2012.
3. Chungmin Lee: Gap in “Gapless” relative clauses in Korean and other Asian languages. In Thomas Graf, Denis Paperno, Anna Szabolcsi, and Jos Tellings (eds.), Theories of Everything: In Honor of Ed Keenan. UCL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7, 204-214, 2012.
4. Chungmin Lee: Inquisitive semantics: Alternative questions and contrastive focus in English” [in Korean].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1), 209-232, 2012.
5. Hyesun Cho, Chungmin Lee: Phonetic prominence of contrastive focus in English across multiple types and its semantic implication.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8(3), 1-29, 2012.

6. Chungmin Lee: Compositonality reconsidered: With special reference to cognition (in English), 언어와 정보, 16(2), 17-42, 2012.
7. 문수현, 김송희, 이정민. 기록 동사의 사건구조와 의미표상: 'CD를 굽다'의 경우. 담화와 인지 19(3), 87-102, 2012.

〈학술회의〉

1. Dongsik Lim, Chungmin Lee: Perspective shifts of Korean evidential and the effect of contexts,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2, University of Chicago, 2012. 5. 18-20.
2. Chungmin Lee: Information structure, alternatives and scalar implicatures. The 34th Annual Meeting of the Cognitive Science Societ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gnitive Science (poster), Sapporo, Japan, 2012. 8. 1-4.
3. Chungmin Lee: Psych-Predicates: How they are different. The First Workshop on Generative Lexicon Theory for Asian Languages, Bali, Indonesia, 2012. 11. 7.
4. Chungmin Lee: Psych-Predicates, the First-Person, and evidentiality. Logic and Engineering of Natural Langauge Semantics 9, Miyazaki, Japan, 2012. 11. 30-12. 2.
5. Chungmin Lee: Evidentiality, Psych-Predicates and the First-Person. Invited Talk Paris 7, 2012. 12. 14.
6. 이정민. "부정과 대조 초점." 한국영어학학회 및 한국현대언어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동덕여대, 2012. 6. 2.
7. 조혜선, 이정민. "Phonetic prominence of contrastive focus in English across multiple types and its semantic implications (in English)," 한국영어학학회, 2012. 10. 4.
8. 문수현, 김송희, 이정민. "기록 동사의 사건구조와 의미표상: 'CD를 굽다'의 경우", 한국언어학회, 서울대, 2012. 10. 27.

〈연구〉

1. 의미론과 인지과학.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계 우수학자 과제 계속(2009년 10월부터 5년간 과제).

〈봉사활동〉

1. 국제지 Journal of Pragmatics, Board of Advisory Editors, Editor, Elsevier.
2. 국제 총서 Current Research in the Semantics/Pragmatics Interface (CRiSPI), Advisory Editorial Board, Board member, Brill.
3. 국내 국제지 Journal of Cognitive Science, Official Journal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ognitive Science,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 발간, Editor-in-Chief.
4. 국제 온라인 학술지 Scientific Journals International, Advisory Editorial Board, Board member.
5. 국제 온라인 학술지 International Review of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Editor.
6. 국제지 Languag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Lingua, Journal of Pragmatics, Studies in Language 및 국내지 [담화와 인지] 논문 심사, Semantics and Linguistic Theory 23차 대회 논문 abstracts 심사, 미국언어학회 2013년도 연차대회 abstracts 심사, Japanese/Korean Linguistics Conference(JK22, 2012, Tokyo NINJAL) abstracts 심사, 홍콩 Research Grant Council 기금 신청 연구계획서 수건 심사, ㄱㅇ학술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ngress of Linguists 19차 대회(2013년, 제네바 개최 예정) 여러 Workshop 논문 요지 심사.
7. 고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미술/사진 저작권 보호 실태 참관차 일본 협회들 방문, 2012. 10.

이현복 (언어학과)

〈논문〉

1. Japanese speakers' perception of syllable-final plosives and inter-vocalic consonant clusters.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동아문화 50집, 185-194, 2012. 12.
2. 국제한글음성문자 – 원리와 활용. 한일비교언어문화연구 3집, 1-22, 2012. 6.
3. 강은지, 모리 카나, 수난타, 이해용, 황효성, 이숙향, 이호영, 이현복. 국제한글음성문자를 이용한 세계 언어 표기 연구 –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한일비교언어문화연구 3집, 23-38, 2012. 6.
4. "Por la Esperanto de la 21-a Jarcento -pri la reformo de la ortografio kaj gramatiko de Esperanto(21세기의 에스페란토어를 위하여 – 에스페란토어의 표기법과 문법의 개혁)". 한-영 말소리연구원, 2012. 12. 27.

〈학술회의〉

1. Korea-Japan Joint Seminar on English Phonetics(한-일 영어음성학 합동 세미나) 개회사 및 주관. 서울대학교 인문학 신양관, 2012. 3. 18-19.
2. International PEN 주최 국제펜 한국본부 주관 제78차 국제펜대회 경주대회에 자문위원으로 참가, 개회식에서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 및 세계 문학에의 기여"란 주제로 영상 강연, 2012. 9. 10-15.

3. 일본 오사카 외국어대학 주최 영어음성학 학술 세미나 “A Phonetic Survey of Japanese Mispronunciations of English -Vowels and Rhythm-”이란 주제로 기조강연. 2012. 5. 18-19
4. 일본 북해도에서 개최된 일본영어음성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Common Japanese Mispronunciations of English”라는 주제로 기조강연. 2012. 6. 2-3.
5. 제6회 한-일 비교언어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International Korean Phonetic Alphabet”이란 주제로 기조 강연, 일본 후쿠오카 세이난 대학, 2012. 10. 19-21.

〈봉사활동〉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명예교수의 사회봉사 활동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회 차원의 활발한 논의를 함. 특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분야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강연, 강의를 희망하는 명예교수님들의 명단과 강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기관, 전국 시, 도청, 지자체, 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초청강연의 가능성을 타진함.
2. 국제한글음성문자(IKPA)의 이론과 활용에 관한 세미나를 정례화하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개최하고 교수와 대학원생 등이 참여함. 국제한글음성문자를 이용한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의 표기 방법에 관한 토론과 분석 및 훈련에 집중함.

임효재 (고고미술사학과)

〈논문〉

1. An Ancient Ritual Site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Proceedings of the 5th World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East Asian Archaeology. 2012. 6.

〈학술회의〉

1. “An Ancient Ritual Site of Korea and its Implications”. The 5th World Conference of the Society of East Asian Archaeology: Kyushu University Nishijin Plaza and Seinan Gakuin University, Fukuoka, Japan, 2012. 6. 6-10.
2. UNESCO World Heritage Thematic Program Human Origin Sites in Asia and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Jeongok, Korea, 2012. 10.

〈특강〉

1. 한국의 선사시대. 전남대학교박물관 강당, 2012. 3. 28.
2. 동Asia 신석기문화.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2012. 4. 24.
3. 한(韓) 문화의 뿌리. 경주 명륜대학, 2012. 10. 20.
4. 한국과 일본 규슈(九州)와의 문화교류. 日本 別府大學 同窓會 結成 記念講演, 漢陽女子大學館 會議室, 2012. 11. 18.
5. 세계문화유산 후보로서의 암사동유적. 강동구청 회의실, 2012. 11. 20.

〈기타 근황〉

1. 한국 초기 신석기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일본 후쿠이(福井) 동굴 발굴 현장 답사. 2012. 6. 8-10.
2. 한국 죽막동 제사유적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본 오키노시마(沖ノ島) 답사. 2012. 6. 10-12.

최몽룡 (고고미술사학과)

〈저서〉

1. 최몽룡: 21세기의 한국고고학 V. 총 900쪽, 주류성, 2012. 2. 11.
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엮음(공저): 동아시아 청동기문화의 교류와 국가형성(제4장 청동기 · 철기시대와 단국문화). 총 327쪽, 학연문화사, 2012. 10. 31.

〈학술회의〉

1. 스키타이, 흉노와 한국고대문화 – 한국문화기원의 다양성. 국립중앙박물관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흉노와 그 동쪽의 이웃들.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2012. 3. 30.
2. 한국고고학 · 고대사에서 종교 · 제사유적의 의의 – 환호와 암각화. 제40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한국 동남해안의 선사와 고대문화,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2012. 10. 26.
3. 중원문화와 철 – 철 생산과 삼국의 각축.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개소 5주년 기념 중원의 제철문화 학술대회, 국립한국교통대학, 2012. 11. 9.

〈특강〉

1. 고고학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대학. 국립중앙박물관 강당, 2012. 4. 12.
2. 인류문명발달사.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2012. 4. 13.
3. 문명의 기원과 전개. 창원문화원, 창원, 2012. 10. 11.
4. 인류문명발달사 – 고고학으로 본 세계문화사. 이애주의 인문풍류마당, 동방문화진흥회,

서울 흥사단, 2012. 11. 26.
5. 한국고고학 · 고대사에서 종교 · 제사유적의 의의. 하남시문화원, 2012. 12. 20.

사회과학대학

김경동 (사회학과)

〈저서〉

1. 『자발적 복지사회: 미래지향적 자원봉사와 나눔의 사회학』. 총 382쪽, 아르케. 2012. 3. 20.

〈특강〉

1. 세 차례에 걸쳐 KBS II TV TV 특강, "성숙한 선진문화사회의 비전": 1강. '선진국 vs 강대국? 진정한 선진사회를 묻다'; 2강. '성숙한 선진한국, 그 길을 묻다'; 3강. '선진문화사회 대한민국, 비전을 묻다.' 2012. 1. 2-4.
2.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리더십아카데미 특강, "자원봉사의 이해." 2012. 3. 20.
3.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 「2012 여수엑스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특별포럼」 "해양환경의 재생과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와 국가공동체 복원의 사회적 과제"를 주제로 기조강연. 2012. 5. 4.
4. 한국국학진흥원 주최, 2012 '지구촌 시대의 안동문화'를 주제로 한 안동학국제학술대회에서 "Globalization of Andong Studies"를 주제로 기조강연. 2012. 6. 25.
5. 노사정위원회 내부 워크숍에서 "자발적 복지사회" 특강. 2012. 7. 3.
6.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리더십아카데미 특강, "자원봉사의 이해." 2012. 8. 16.
7. 중국 북경, 2012 Tripartite International Forum of Civil Society and Volunteerism에서 "Modernization,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The Role of NPOs"를 주제로 기조강연. 2012. 8. 22.
8. 홈플러스 임직원 조찬 명사초청강연회 강연: "기업사회 공헌의 철학과 가치." 2012. 8. 28.
9. 한국자원봉사포럼, 서울시자원봉사센터, KAIST 경영대학 공동 주최 자원봉사특별포럼, "근대화와 자발적 복지사회" 기조강연. 2012. 9. 14.
10.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서울대-구로구 시민지도자아카데미 특강: "나눔과 자원봉사의 가치와 의미: 왜 이 시대에 나눔과 봉사인가?" 2012. 9. 19.
11.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 재능나눔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컨퍼런스에서 "재능나눔운동을 계기로 진화하는 한국의 자원봉사"를 주제로 기조강연. 2012. 10. 9.
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의회 사람중심서울포럼, 서울시자원봉사센

터,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공동주관, 〈2012 마을박람회 컨퍼런스〉 '마을을 말하다'에서 "마을공동체의 사회학"을 주제로 기조강연. 2012. 10. 16.

13. 미국 하와이 East-West Center에서 Visiting Scholar로 초청 받아 Research Seminar에서 "Alternative Discourses on Modernization and Development: An East Asian Perspective" 논문 발표. 2012. 1. 20.

〈봉사활동〉

1.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 '한국자원봉사운동의 현안에 관한 자원봉사 전문가 초청 집담회' 개최. 2012. 3. 23.
2.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 「제19회 자원봉사대축제 특별포럼」, 자원봉사 국가기본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 현장이 바라는 국가기본계획, 무엇을 담을 것인가, 현장관리자 대토론회 개최. 2012. 4. 13.
3. 「중앙선데이」 12면 인터뷰 기사 게재. 2012. 5. 6.
4. 한국자원봉사포럼 주최, 「IAVE(세계자원봉사협회) 이강현 회장 초청 자원봉사전문가 초청포럼」, "세계자원봉사의 뉴트렌드와 시사점" 개최. 2012. 5. 30.
5. 시민사회포럼, 한국자원봉사포럼 공동주최, 시민사회 소통과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18대 대선과 시민사회 · 자원봉사 활성화 공약 제안" 개최. 2012. 10. 31.
6.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공동주최, 한국자원봉사포럼 주관, '사회갈등 치유를 위한 나눔과 봉사: 정책문화현황 현황 및 나눔 · 봉사 실천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자원봉사 문화" 발표. 2012. 11. 21.

〈기고문〉

1. 왜 이 시대에 마을공동체 운동인가? 월간 자치행정 12월호(통권 297호), 26-29면, 2012. 12. 10.

〈보고서〉

1. 농어촌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민 · 관 · 산 · 학 협력모형 개발연구. 총 182쪽. 한국마사회 후원. (사)한국자원봉사포럼 주관. 2012. 12.

김수행 (경제학부)

〈저서〉

1. 김수행: 젊은 지성을 위한 자본론. 총 286쪽, 두리미디어, 2012. 6. 11.

2. 김수행: 젊은 지성을 위한 국부론. 총 239쪽, 두리미디어, 2012. 4. 10.
3.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 총 218쪽, 한울, 2012. 8. 31.
4. 김수행: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 별책 – 마르크스의 저작 인용 영한대역본. 총 118쪽, 한울, 2012. 8. 31.

〈논문〉

1. 김수행, 장시복: 정치경제학의 대답: 세계대공황과 자본주의의 미래. 385-403쪽(제12장 공황의 체제유지적 성격과 체제변혁적 역할: 현재의 세계공황을 중심으로), 사회평론, 2012. 10. 26.

박삼옥 (지리학과)

〈보고서〉

1.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이경진.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 (GSTEP 정책연구 2012-01).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총 117쪽, 2012. 12. 3.

〈논문〉

1. Yangmi Koo, Sam Ock Park: Structural and spati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actor networks: The case of industries for the elderly in Korea. Papers in Regional Science, 91(1), 43-64, 2012. 3.
2. Sam Ock Park, Do Chai Jung: Evolution of industrial cluster and policy: the case of Gumi city, Korea. 대한지리학회지 47(2), 226-244, 2012. 4.
3. 박삼옥: 지역+기업,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DBR (Dong-A Business Review), No. 108, 101-108, 2012. 7.

〈학술회의〉

1. Sam Ock Park: University governanc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The case of incorporated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Forum on University Governance: Key to Competitiveness, Macao University, Macao, 2012. 2. 21-22.
2. Sam Ock Park: Interaction of corporate and urban systems: Accumulation of intangible assets. 2012 Annual Meeting of AAG, New York, 2012. 2. 23-27.

3. Sam Ock Park: A tough step: Governance with structural change in the reshaping global economy (Keynote speech). International Forum for Higher Education on Governance: Strategy and Practice, University System of Taiwan, Civil Service Development Institute, Taipei, Taiwan, 2012. 12. 10-13.
4. 박삼옥: 지역정책과 클러스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조논문). 호남권 광역클러스터 형성의 현황과 발전방향의 호남발전포럼,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및 전남발전연구원 주최, 산업클러스터 학회 주관, 2012. 6. 19.
5. 박삼옥: 세계에너지체제 변화와 전북발전의 비전 (특별강연). 전북도청의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전북도청, 전주시, 2012. 8. 24.
6. 박삼옥: 세계메가트랜드의 변화와 지리학 및 지리학자의 역할 (기조논문). 대한지리학회 2012년 지리학대회, 대한지리학회, 경북대학교 글로벌 플라자, 2012. 12. 14.
7. 박삼옥: 경기도 혁신클러스터의 미래상과 정책과제 (특별강연).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한 판교 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기관 미래창조한마당 송년행사, 판교글로벌 R&D 센터, 2012. 12. 20.

신용하 (사회학과)

〈저서〉

1. 신용하: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총 403쪽, 2012. 2. 10.
   [내용] 제1부에서는 최근 일본외무성이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고문헌 등 실증자료에 의거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을 논증하였음. 제2부는 독도영유권 문제와 쟁점의 전부라고 생각되는 것을 150문과 150답으로 나누어 알기 쉽게 해설했음.
2. 신용하: 『사회학의 성립과 역사사회학 – 오귀스트 꽁트의 사회학 창설』. 지식산업사, 총 323쪽, 2012. 2. 25.
   [내용] 사회학의 최초의 창시자 오귀스트 꽁트(Auguste Comte)의 생애와 지적 사회적 배경, 그가 설명한 사회학의 필요와 당시의 사회상태, 사회학의 연구방법, 사회학과 다른 실증과학의 관계, 사회정학, 사회동학과 역사사회학, 사회발전의 3단계 법칙, 신학적 단계의 역사사회학, 형이상학적 단계의 역사사회학, 프랑스혁명의 역사사회학, 실증적 단계의 역사사회학을 각 장으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연구한 연구서임.
3. 신용하: 『世界の人々の獨島Dokdoの真実を理解するための16ポイント』. 독립기념관, 총 105쪽, 2012. 7. 30.
   [내용] 『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제1부를 독립기념관에서 일본어로 번역하여 발행한 소책자.

일본외무성의 10포인트를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비판하면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는 일본어 소책자임으로 일본에도 보내고 국내 방문 일본인에게도 배포하고 있음.

〈논문〉

1. 신용하: 고조선의 기마문화와 농경 · 유목의 복합구성. 고조선단군학회, 『고조선단군학』 제26호, 159-247, 2012. 5.

〈학술회의〉

1. "한국민족과 한국민족문화의 기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현대한국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기조발표논문, 2012. 6. 8.
2. "탐라왕국의 건국과 해양문화의 형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국제학술회의 기조발표논문, 2012. 9. 14.
3. "고조선의 BC8세기경 서변 국경과 潮白河 · 만리장성 계선". 고조선단군학회 제55회 학술발표회, 2012. 10. 13.
4. "한국의 남북분단과 백범 김구의 통일론". 백범기념관 개관 10주년기념 국제학술회의(백범학술원 주최) 기조발표논문, 2012. 10. 19.
5.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주장 비판과 한국의 독도수호정책 방향". 한국영토학회 2012학술회의 기조발표논문, 2012. 12. 20.

〈특강〉

1. "최근 독도문제와 우리의 대응". 경상남도 교육청 주최 '독도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2012 학교관리자 독도교육 워크숍' 특강, 2012. 2. 8.
2. "독도영유권의 진실과 한 · 일관계의 미래". 충남대학교 산업대학원 특강, 2012. 3. 21.
3. "역사의식강화 특강, 독도의 진실". 현대오일 간부특강, 2012. 4. 13.
4. "누가 독도를 침탈하려고 하는가?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의 오류". 울산 테크노파크 특강, 2012. 4. 19.
5. "독도영유권 문제의 진실". 대한적십자사 특강, 2012. 5. 2.
6.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고찰". 계명대학교 목요철학원 인문포럼 특강, 2012. 5. 12.
7. "독도, 왜 지켜야 하는가". 민족종교협의회 특강, 2012. 5. 16.
8. "독도 갈등과 한 · 일관계의 미래". 제1회 흥사단 대전포럼 특강, 대전흥사단 주최, 2012. 10. 12.

〈기고문〉

1. "독도의 해양마을 추진해야". 문화일보, 2012. 3. 29, 시론.

2. “독도에 대한 주권행사 더 강화해야”. 문화일보, 2012. 8. 13, 시론.
3. “일본총리와 정부는 독도의 진실을 직시하라”. 조선일보, 2012. 9. 3, 시론.
4. “미국 의회는 ‘고구려, 古중국 지방정권론’ 폐기해야”. 조선일보, 2012. 11. 5, 시론.

〈기타 근황〉

1. “3 · 1절 특집 대담”. 불교라디오방송, 2012. 3. 1.
2. “3 · 1절에 국민이 알아야 할 독도의 진실” 대담. KBS1라디오방송, 2012. 3. 1.
3. “3 · 1절과 독도문제” 대담. MBC라디오방송, 2012. 3. 1.
4. “Japan’s failed lobby for Dokdo in Peace Treaty” 대담. The Korea Times, 2012. 3. 20.
5. “한국민족의 바른 역사를 찾으며, 우리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서도록” 대담. 『도산아카데미』 제260호, 2012. 8.
6. “일본의 엉터리 주장에 한국 어린이도 반박할 줄 알아야” 대담. 『소년조선일보』, 2012. 9. 5.
7. 개천절기념 “독도문제, 특별대담방송”. TV조선, 2012. 10. 3.

안청시 (정치외교학부)

〈저서〉

1. Glenn D. Paige, Chung-Si Ahn: Nonkilling Korea: Six Culture Exploration, 총 220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 23.
   [내용] 이 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현실주의 권력이론 및 정치군사적 문제해결방안에 편중된 시각을 바로잡고, 비폭력 정치사상과 비살생 운동 및 이론계보들을 ‘등대담론’으로 도입, 적용할 것에 대한 제의를 담고 있다. 아울러 (미국 포함)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 6개국(남북한, 중, 러, 일)의 역사, 문화, 운동사적인 측면과 전통 속에서 발현된 비폭력, 비살생 문화자원들을 추적, 발굴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의 적용 가능성과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하였다.

〈보고서〉

1. 안청시(연구책임자), 김종길, 백창재, 양승윤, 이희옥, 장준영, 이재준: 『동남아지역에서의 미중관계 현황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응전략』, 총 224쪽, 외교통상부 용역연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1. 3.

〈논문〉

1. 안청시: “동아시아 정치공동체의 미래구상: 비살생지구정치학의 관점에서”.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동아시아지역연구소, 『동아시아브리프』 제7권 1호(통권 23호), 8-16, 2012. 2. 1.

〈봉사활동〉

1. 2010년 3월 1일-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정기 학술지 『아시아리뷰』 편집위원장.
2. 2003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김천시 김천고등학교(자율형사립고) 송설당교육재단 이사.

〈기고문〉

1. “『아시아리뷰』 창간호에 부쳐”. 『아시아리뷰』 1권 1호(창간호), 1-6쪽, 2011. 6. 30.
2. “편집인의 말”. 『아시아리뷰』 1권 2호, 1-4쪽, 2011. 12. 30.
3. “편집자의 말”. 『아시아리뷰』 2권 1호, 1-3쪽, 2012. 6. 30.
4. “편집자의 말 - 아시아 다시보기”. 『아시아리뷰』 2권 2호, 1-11쪽, 2012. 12. 30.

이광규 (인류학과)

〈저서〉

1. 이광규: 『동북아 문화 공동체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총 268쪽, 2012. 12. 28.
   [내용] 제1장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정치, 안보 공동체의 전개 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논의와 활동,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형성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이 책에서는 동북아시아를 유교 문화권으로 규정하고 여기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였다.

자연과학대학

박상대 (생명과학부)

〈학술회의〉

1. “IVI as an unique model of technology transfer platform”. ICSU Side Event at the Technology Transfer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tentifical Catholic University, Rio de Janeiro, Brazil, 2012. 6. 13.

2. ICSU Foru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참가,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 2012. 6. 11-15.
3. 201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연차대회 주관 및 개회사, 서울 코엑스, 2012. 7. 2-5.
4. 재유럽 · 한국과총 공동학술회의(EKC-2012) 주관, 독일 Berlin Esteral C&C Hotel, 2012. 7. 27-29.
5. 재미과협 · 한국과총 공동학술회의(UKC-2012) 주관, 미국 켈리포니아 Hyatt Regency Orange County, 2012. 8. 9-13.

〈특강〉

1. "재외과협지원을 위한 한국과총의 역할과 임무". 재스위스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창립기념식, 스위스 베른, 2012. 2. 25.
2. "국가과학기술발전과 한국과총". 여성과학기술인 연차대회, 프라자호텔, 2012. 4. 6.
3. "학술활동지원목적과 성과". 대한전자공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제주 그랜드호텔, 2012. 6. 28.
4. "방사선생물학 연구현황".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창립 30주년기념 학술대회, 임페리얼호텔, 2012. 10. 12.
5. "한국생명공학의 연구현황과 전망". 한국통합생물과학회, 용평리조트, 2012. 12. 26.

〈기고문〉

1. "2012 임진년 새해 행운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과학기술 2.0, 2012. 1. 1.
2. "과학기술 '소통의 장' 확대되어야 한다". 전자신문 오피니언, 2012. 1. 4.
3.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핵심, 여성과학기술인". 여과총, 2012. 1. 10.
4. "한국과학기술인의 나눔, 소통의 시작입니다". 과학창의재단 오프닝칼럼, 2012. 1. 26.
5. "인류를 위한 백신개발에 기부를". 매일경제 분석과 전망, 2012. 1. 28.
6.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주는 과학향기". KISTI 과학향기, 2012. 2. 3.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1년의 성과와 향후과제". 국가과학위원회, 2012. 2. 14.
8. "Korea Looks to Ways of Bracing for Arrival of Bio-Economy" – 대담. News World Vol.20, No.230: 22-24, 2012. 4. 3.
9. "대한민국 과학을 이끄는 힘, 과학리더를 만나다" – 면담. YTN 사이언스, 리더스카페, 2012. 4. 5.
10. "과학강국 코리아". YTN, 2012. 4. 12.
11. "연구의욕 고취, 학계의 나침반 역할 기대". 교수신문 창간 20주년 기념호, 2012. 4. 16.
12. "과학의 날에 생각한다". 과학기술출판 통권 37호, 2012. 4. 30.
13. "한국과총의 임무와 역할,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견인차적 역할 수임". 대한민국학술

원통신 제226호, 2012. 5. 1.

14. “연구자체를 즐길 때 창의적 성과 나올 수 있어” – 대담. 동아사이언스 파워인터뷰, 2012. 5. 26.
15. “국가과학기술발전의 견인차, 한국과총”. 국회전문지 동행 통권 34호, 2012. 8. 25.
16.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공계전문가 기술지원사업 우수사례집, 한국과총, 2012. 9. 3.
17. “세대는 이렇게 이어져간다”. 문화일보, 2012. 9. 28.
18.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 과학기술 빅데이터”. 한국과총 이슈페이퍼, 2012. 10. 13.
19. “한정된 연구비 따내기 위해 단기성과 연구집중 악순환” – 대담. 세계일보, 2012. 10. 24.
20. “창조적인 혼을 가진 연구자들이 필요한 때” – 대담. 한국바이오협회 30년사, 2012. 10. 28.
21. “한국환경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환경과학회, 2012. 10.
22.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위원회 회보 창간호”. 2012. 11. 14.
23. “ICSU 주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포럼 참가기”. 대한민국학술원 통신 233호, 2012. 12. 1.
24. “국가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과총의 역할” – 면담. YTN 사이언스 초대석, 2012. 12. 12.

〈기타 근황〉

1. Novartis 다국적제약회사 방문, 공동연구개발 협력회의. 스위스 베른, 2012. 2. 24.
2. 2012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Welcome Remarks. Lotte Hotel, 2012. 5. 4.
3. Bilateral Cooperation between Chinese Associ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CAST President Han Qui Duch) and KOFST (Lotte Hotel). 2012. 5. 16.
4. International Cooperation Meeting with ICSU President at ICSU Forum on STI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razil Rio Potentifical Univ. 2012. 6. 14.
5. Brain Research Center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Congratulatory Remarks. Jeju Shinevill Resort, 2012. 6. 27.
6. “2012 KOFST Young Generation Forum”. Opening Address, 삼정호텔, 2012. 7. 2.
7. 2012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공동협의회 총회 주관 및 개회사. 과총회관, 2012. 7. 4.
8. KIST-Europe Round Table Discussion on R&D. Saarbrucken, Germany, 2012. 7. 25.
9. 재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화란) 과협 회장단 접견. 발전방안 논의, 독일 Berlin Estrel C&C Hotel, 2012. 7. 27.
10. “The 2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Entomology”. Congratulation Remarks, 대구 컨벤션센터, 2012. 8. 19.
11. The 13th World Knowledge Forum 참가. Walker Hill Hotel. 2012. 10. 9.

12. POSCO의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전달식 주관. 국제백신연구소, 2012. 11. 20.
13. 2012 국제백신연구소(IVI) 후원금 전달식 주관. 국제백신연구소, 2012. 12. 11.

〈봉사활동〉

1. 대한민국 우수도서선정 심사위원, 대한민국학술원, 2012. 4. 3.
2.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인물선정위원회 위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2. 6. 8.
3. "VIP 초청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주관 및 개회사. 서울과학기술대학, 2012. 1. 6.
4. "제47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 주관 및 개회사. 과총국제회의장, 2012. 2. 28.
5. 제45회 '과학의 날' 주관 및 기념사. 과천 국립중앙과학관, 2012. 4. 20.
6.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총 교육기부 MOU체결" 주관. 르네상스호텔, 2012. 5. 16.
7. "제1차 STEPI 연구자문위원회" 주관. 메리엇호텔, 2012. 5. 30.
8.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참여단체장 회의" 주관. 리츠칼튼호텔, 2012. 6. 25.
9. "제24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축사". 코엑스, 2012. 10. 10.
10. "2012 과학기술 나눔마라톤 축제" 주관 및 개회사.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012. 10. 13.
11. "제2차 STEPI 연구자문위원회" 주관.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2012. 10. 21.
12. "한국과총 지역연합회 워크숍" 주관 및 개회사. 한양대 안산캠퍼스, 2012. 11. 22.
13. "한국과총 제3차 이사회" 주관. 과총 아나시스홀, 2012. 11. 28.
14. "VIP 주재 과학기술 성과계승 · 발전 토론회" 참석. BH, 2012. 12. 6.
15. "영부인 초청 IVI 및 IVI 후원회 주요인사 오찬회" 참가. BH, 2012. 12. 10.
16. "과학기술나눔공동체 주최 '2012 SCOST Donor's Night'" 주관. 과총 국제회의장, 2012. 12. 10.
17. "IVI 한국후원회 총회 및 이사회" 주관. IVI, 2012. 12. 11.

박성현 (통계학과)

〈저서〉

1. 박성현, 박영현, 이재영: "통계적 품질관리와 6 시그마의 이해". 총 466쪽, 민영사, 2012. 9.
2. 박성현: "통계의 매력". 자유아카데미출판사, 총 276쪽, 2012. 1.

〈보고서〉

1. 박성현(연구책임자), 고광호, 최항순, 김혜경: "지속가능과학의 본질연구 및 과학분류체계

작성과 중장기 발전로드맵 작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75, 총 135쪽, 2012. 1.

2. 박성현(책임연구원), 김학수, 나도선, 최항순, 정선양, 유장렬, 백융기, 신영균: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발전 로드맵".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82, 총 154쪽, 2012. 9.

〈논문〉

1. 변재현, 김현수, 박성현, 정선양, 정성석: "지속가능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지속가능연구, 3(2), 21-36, 2012.
2. Zhen He, Peng-Fei Zhu and Sung Hyun Park: "A robust desirability function method for multi-response surface optimization considering model uncertainty".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221(1), 241-247, 2012.

〈학술회의〉

1. "융합과학으로서의 지속가능과학". 2012년도 지속가능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9-34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 2012. 5. 11.
2. "차기정부의 과학기술 미래비전".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2012년도 추계 학술포럼 발표문집, 33-62쪽, 대한민국국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공동주최, 2012. 11. 8.
3. "A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for Asia; Organization of one Asia and cooperation plan". Proceedings of the 11th China-Korea Quality Symposium, Quality Civilization and Quality Development, pp. 10-23, Zhengzhou, P.R. China, 2012. 7. 30.
4.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science". UKC2012 (U.S.A. and Korea Conference, 2012), Sponsored by KSEA(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U.S.A.), LosAngeles, U.S.A., 2012. 8. 11.

〈특강〉

1. "글로벌 인증과 신뢰성 향상". 미래인증과 사회품격 선진화 국민운동포럼/한국인정원 주최 심포지엄 발표(초청강연), APEC 역내 신뢰성 향상 공동기반 결과보고회 자료집, 7-25쪽, President Hotel, 2012. 8. 28.
2. "국방품질기술을 위한 실험계획법 및 통계적 방법". 국방품질기술원 강연, 2012. 10. 16.

〈봉사활동〉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담당 부원장: 2010. 3-현재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2010. 3-현재

3.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2010. 1-2012. 1.
4. 지속가능과학회 회장: 2010. 9-2012. 9.
5. 한국품질재단 이사: 2008. 11-현재
6. 신품질포럼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 2007. 10-현재
7. International Editorial Board Member,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SSCI Journal): 2002-현재
8. Editoral Board Member,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Engineering - Applications and Practice: 1994-현재
9. 미래한국 Weekly 편집위원: 2005-현재
10. 은혜의교회 시무장로: 2004-현재
11.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석좌교수: 2012-현재

〈기고문〉

1.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은 기초연구 투자로부터". 한국연구재단 웹진, 2012년 1월호.
2. "'빅데이터 시대' 강건너 불 아니다". 한국경제신문 시론, A35면, 2012년 2월 3일.
3. "지속가능과학 도입 서둘러야". 전자신문 ET 단상, 26면 오피니언, 2012년 3월 6일.
4. "통일의 기초될 북한 통계, 신뢰할 수 있나". 미래한국 - 미래길, 416호, 42-43쪽, 2012. 3. 12.
5. "다수결은 허점투성이". 과학쟁이, No. 137, 68-71쪽, 웅진출판사, 2012년 4월.
6. "정부 R&D 이젠 선진국형으로". 서울경제신문, 15면, 2012년 8월 20일.
7. "R&D 투자가 '지속가능 성장' 만든다". 미래한국 - 미래길, 430호, 52-53쪽, 2012년 9월 24일.
8. "과학기술 한류의 출현을 고대하며". 조선일보 기고, 2012년 10월 19일.
9. "새로 선출될 서울시교육감에게 바란다". 미래한국 - 미래길, 434호, 2012년 11월 19일.

박세희 (수리과학부)

〈논문〉

1. S. Park: Remarks on simplicial spaces and L*-spaces of Kulpa and Szymanski. Comm. Appl. Nonlinear Anal., 19(1), 59-69, 2012.
2. S. Park: Comments on Ding's examples of FC-spaces and related matters. Comm. Korean Math. Soc., 27(1), 137-148, 2012.
3. S. Park: Abstract convex spaces, KKM spaces and phi_A-spaces. Nonlinear Analysis

Forum, 17, 1-10, 2012.

4. S. Park: Remarks on marginally closed-valued KKM maps and related matters. Nonlinear Analysis Forum, 17, 23-30, 2012.
5. S. Park: Remarks on the paper "Variational relation problem without the KKM property with applications" by Y. J. Pu and Z. Yang. Nonlinear Analysis Forum, 17, 43-51, 2012.
6. S. Park: Remarks on a generalized KKM theorem without convex hull. Comm. Appl. Nonlinear Anal., 19(4), 57-65, 2012.
7. S. Park: Evolution of the 1984 KKM theorem of Ky Fan. Fixed Point Theory Applications, 2012(146), doi: 10.1186/1687-1812-2012-146, 2012.
8. S. Park, H. Kim: Fixed points and alternative principles. Honam Math. J. 34(3), 439-449, 2012.
9. S. Park: On some new Ky Fan type minimax inequalities in abstract convex spaces. Nonlinear Analysis and Convex Analysis (Proc. NACA 2011, Busan), Yokohama Publ., Yokohama, 2012.
10. S. Park: Various forms of the Ky Fan minimax inequality in convex spaces. RIMS Kokyuroku, Kyoto Univ., 2012.
11. S. Park: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the KKM theory. Nonlinear Analysis Forum, 17(4), 459-470, 2012.
12. S. Park: Applications of multimap classes in abstract convex spaces. J. Nat. Acad. Sci., ROK Nat. Sci. Ser. 51(2), 1-27, 2012.

〈학술회의〉

1. 비선형해석학과 최적화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ISNAO 2012(부산 부경대학교 주관) 개회인사, 좌장, 초청강연: Remarks on marginally closed-valued KKM maps and related matters. 2012. 2. 8-10.
2. 호남수학회의 2012년도 국제학술대회(제주대학교 주관)에서 연제 Some general fixed point theorems in topological vector spaces 로 전체강연. 2012. 6. 15-17.
3. 수학부등식과 비선형해석학의 응용에 관한 2012 국제회의(경상대학교 주관) 국제자문위원, 좌장, 첫째 전체강연 A review of recent studies on the KKM theory, 일반강연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KKM theory. 2012. 7. 25-29.
4. 일본 교또대학 수리해석연구소(RIMS) 비선형해석학과 볼록해석학에 관한 국제 워크숍에서 초청강연: Recent applications of the Fan-KKM theorem. 2012. 8. 29-31.
5. 일본 마쓰에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비선형해석학과 최적화이론 회의(NAO-Asia2012)

에서 첫 번째 기조강연자(Keynote Speaker)로 Recent applications of the generalized KKM theorems 라는 연제의 강연 및 학술위원과 한 분과의 좌장,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각각 인사말. 2012. 9. 2-6.

6. Member, Scientific Committ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ory, Methods and Applications of Nonlinear Equations. Texas A&M University-Kingsville, Kingsville, TX 78363, USA. 2012. 12. 17-21.

〈기고문〉

1. "80대의 수학의 추억을 위하여".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30호, 3-10. 2012. 9. 1.

〈봉사활동〉

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분야별 심사위원, 2012. 4. 3-30.
2. Hindawi 출판사가 새로 발행하는 학술지 Conference Papers in Mathematics 편집위원, 2012. 6. 25.
3. Hindawi 출판사의 SCI 학술지 Abstract Analysis and Applications 편집위원, 2012. 8. 1.
4. 국내외(한국, 미국, 일본, 인도, 타이완, 태국) 10개 학술지의 편집위원. 국내외 다수의 학술지 논문 심사.

〈기타 근황〉

1. 이집트 문화탐방. 2012. 3. 14-22.
2. Springer Open Journal 학술지 Fixed Point Theory and Applications (SCI)에,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 35편이 The series of papers on S. Park'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Fixed Point Theory and KKM Theory로 2011. 12. 20에 간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 S. Park, Applications of some basic theorems in the KKM theory가 6개월만에 527회 조회되었다고 편집팀이 알려 옴. 2012. 5. 8.
3. 일본 히로시마와 미야자마 탐방. 2012. 8. 31-9. 1.
4. According to the MathSciNet of the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Sehie Park has 275 publications and is cited 1100 times by 274 authors. 2012. 12. 5.
5. 미국수학회 Mathematical Reviews(수학비평) 2012년판에 8편의 논문 비평 발표(1981년부터 총계 271편). 또 본인의 논문 11편(1970년부터 총계 276편)에 대한 비평이 수록되었고, 대응되는 것들이 독일의 Zentralblatt MATH에도 게재됨.

박용안 (지구환경과학부)

〈봉사활동〉

1.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제29차 정규회의(뉴욕 유엔본부).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및 부의장, 2012. 3. 26-4. 20.
2.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의 제4대 임기(2012. 6. 15-2017. 6. 15) 위원 및 부속기구인 Confidentiality Committee 위원장. 뉴욕 유엔본부, 2012. 6. 6.
3.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UN) 제30차 정규회의(뉴욕 유엔본부).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및 부의장, 2012. 7. 30-8. 30.
4. "제3차 대륙붕 76조와 심해저기구의 법률적 논제와 토의". 심포지엄, 제3 session의 좌장, 중국 북경 Fragrant Hill Hotel, 2012. 11. 21-24.

〈학술회의〉

1. 한국 제4기학회(KOQUA) 2012년도 추계학술총회, 주제발표 - 법적 대륙붕과 과학적 대륙붕의 올바른 이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회의실, 2012. 12. 20.

소광섭 (물리천문학부)

〈저서〉

1. 시간의 순례자. 총 120쪽, 월간 원광사, 2013. 3. 31.
   [내용] 시간에 관한 과학적, 종교적, 철학적 사상을 고찰하였다. 과학적으로는 아이쉬타인의 상대론적 시간을 살펴보았고, 종교적으로는 불교, 유교,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기독교의 시간관을 차례로 둘러보았고, 끝으로 칸트의 시간철학을 고찰하였다. 일상적으로 익숙한 시간에서 객관적 시간의 과학과 주관적 시간의 여러 사상을 두루 순례함으로써 시간의 깊이를 느끼도록 하였다.

이광웅 (생명과학부)

〈봉사활동〉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6호(2011년), 339면 및 동 회보 제7호(2012년), 349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4. 30. 및 2012. 5. 18.

2. 미래포럼조직위원장. '하거서면의 발전 방향'. 한일장, 2012. 3. 24.

〈기타 근황〉

1. '구름 위의 관조(觀照)' 및 '울산바위의 겨울 연가'. 대유문화재단 20주년 기념특별전. '영은미술관, 경기55기와 함께 가다'展, 영은미술관. 2012. 7. 7-15.

이동규 (지구환경과학부)

〈보고서〉

1. 이동규(연구책임자): 동아시아 악기상의 관측 및 모델링 연구 [6차년]. 2011. 9-2012. 8, 한국연구재단, 2012. 8.
2. 이동규(연구원): RCP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산출 [1차년]. 2011. 3-2012. 3 기상청, 2012. 3.

〈논문〉

1. Jin, Chun-Sil, Chang-Hoi Ho, Joo-Hong Kim, Dong-Kyou Lee, Dong-Hyun Cha, and Sang-Wook Yeh: Critical role of northern off-equatorial sea surface temperature forcing associated with central Pacific El Nino in more frequent tropical cyclone movements toward East Asia. Journal of Climate, eView, doi: 10.1175/JCLI-D-12-00287.1.
2. Wee, Tae-Kwon, Ying-Hwa Kuo, Dong-Kyou Lee, Zhiquaqn Liu, Wei Wang and Shu-Ya Chen: Two overlooked biases of Advanced Research WRF (ARW) Model in geopotential height and temperature. Mon. Wea. Rev., 140(12), 3907-3918, 2012.
3. Suh, Myung-Suk, Seok-Geun Oh, Dong-Kyou Lee, Dong-Hyun Cha, Suk-Jin Choi, Chun-Sil Jin, and Song-You Hong: Development of new ensemble methods based on the performance skills of regional climate models over South Korea. Journal of Climate, 25(20), 7067-7082, 2012.
4. Choi, Yong-Han, Joowan Kim, and Dong-Kyou Lee: Characteristics and nonlinear growth of the singular vector related to a heavy rainfall case over the Korean Peninsula.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29(1), 10-28, 2012.
5. Ha, Ji-Hyun and Dong-Kyou Lee: Effect of length scale tuning of background Error in WRF-3DVAR system on assimilation of high-resolution surface data for heavy rainfall simulation.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29(6), 1142-1158, 2012.

〈학술회의〉

1. Suh, Myoung-Suk, Dong-Kyou Lee, Song-You Hong, Chan-Soo Kim: Production and uncertainty analysis of long term climate change data over the Korean Peninsula using regional climate models and RCP Scenarios, The Fall Meeting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Daegu, Korea, 2012. 11. 1-2.
2. Oh, Seok-Geun, Myoung-Suk Suh, Dong-Kyou Lee, Suk-Jin Choi, Song-You Hong, Ji-Woo Lee, Hyun-Suk Kang: Projection of future temperature over the Korean Peninsula with RCP scenarios using multi-RCM in the CORDEX East Asia domain, The Fall Meeting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Daegu, Korea, 2012. 11. 1-2.
3. Oh, Sung-Nam, Jong-Gap Jhun, Dong-Kyou Lee, et al.: Investigation and development of atmospheric standard glossary, The Spring Meeting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Seoul, Korea, 2012. 5. 10-11.
4. Jin, Chun-Sil, Chang-Hoi Ho, Dong-Kyou Lee: Impact of ENSO on tropical cyclone activity over the western North Pacific using a WRF-based global and regional climate model, The Fall Meeting of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Busan, Korea, 2011. 10. 25-26.
5. Ha, Ji-Hyun, Gyu-Ho Lim and Dong-Kyou Lee: Numerical simulation with radar data assimi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Radar Workshop, Daegu, Korea, 2012. 11. 1-2.
6. Choi, Yonghan, Gyu-Ho Lim, and Dong-Kyou Lee: Radar data assimilation using WRF 4DVAR and QSVA methods.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Radar Workshop, Daegu, Korea, 2012. 11. 1-2.
7. Choi, Yonghan, Gyu-Ho Lim, and Dong-Kyou Lee: Radar data assimilation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Four Dimensional Variational and Quasi Static Variational Assimilation methods.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nd American Geophysical Union Joint Assembly, Singapore, Singapore, 2012. 8. 13-17.
8. Choi, Yonghan, Gyu-Ho Lim, and Dong-Kyou Lee: Radar data assimilation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Four Dimensional Variational and Quasi Static Variational Assimilation methods. Data Assimilation of Radar Observations for the Precision Forecast of Precipitation in Time and Place, Seoul, Korea, 2012. 7. 18-19.
9. Ha, Ji-Hyun, Dong-Kyou Lee and Gyu-Ho Lim: Numerical simulation with radar data assimil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Data Assimilation of Radar Observations for the Precision Forecast of Precipitation in Time and Place, Seoul, Korea, 2012. 7. 18-20.
10. Choi, Yonghan, Gyu-Ho Lim, and Dong-Kyou Lee: Radar data assimilation using the

Weather Research and Forecasting Four Dimensional Variational and Quasi Static Variational Assimilation methods. The 6th East Asia WRF Workshop, Seoul, Korea, 2012. 4. 16-17.

〈특강〉

1. 한국기상학회 기상정책포럼: 기상과학 현재와 미래, 주제발표: 기상과학의 의미와 학계 역할, 2012. 11. 1-2.
2. 울산테크노파크, 초청강연, 대기과학: 과거, 현재, 미래, 부제: 날씨와 기후의 정확한 예측은 가능한가? 2012. 10. 27.

〈봉사활동〉

1.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2012. 4-현재
2.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Research Center for Typhoon and Society, Advisory Committee 위원: 2011. 6-현재
3.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Weather Research Programme, Joint Science Committee 위원: 2010. 6-현재
4. 기상기술사업 기후변화과제평가위원회 위원장: 2012. 2. 14.
5. Korea-Sweden Joint Symposium, Climate and Ecology Session, 좌장: 2012. 5. 29-31.

이인규 (생명과학부)

〈저서〉

1. 김형섭, 이인규: 한국의 조류(algae) 제4권 5호 해산 홍조류 – 홍조식물문: 진정홍조강, 비단풀목, 비단풀과 I (무피층성). 총 158쪽,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2012. 3. 23.

〈보고서〉

1. 서울대학교 학부 신입생의 멘토. 총 53쪽. 명예교수협의회, 2012. 2. 28.

〈학술회의〉

1. 문화유산방재 국제심포지엄 - 문화유산과 기후변화. 종합토론 좌장.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주관. 2012. 2. 9.
2. 문화재위원회 50주년 기념 워크숍 - 회고와 전망. 축사 및 종합토론 좌장.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 주관. 2012. 5. 23.

3. 한국문화재정책학회 세미나 - 문화재행정의 성찰과 과제. 종합토론 좌장. 2012. 8. 21.
4. 문화재청 주관 워크숍 - 역사문화환경. 천연기념물센터. 2012. 8. 30.
5.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 제주학회 세미나. 종합토론 좌장. 2012. 9. 8.
6. 한국조류학회 정기총회. 강원대 원주분교. 2012. 10. 25-26.
7. 천연기념물과 심포지엄 - 자연유산 발전방안. 기조연설 및 종합토론 좌장. (사)자연유산보존협회 주관. 2012. 12. 6.

〈특강〉

1. '신입생의 대학생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인문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2. 1. 5, 자연계신입생 오리엔테이션, 1. 10.
2. '대학생활을 위한 명예교수회 멘토'. 서울대 교수학습센터, 신입생과의 만남, 2012. 2. 9.
3. '한국의 자연유산'. 한국전통문화학교 연수원 문화재관리자 과정, 2012. 2. 20.
4. '문화재와 유산,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 대구시청 주관, 2012. 4. 10.
5. '유네스코 세계유산 – 자연유산을 중심으로'.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주관, 2012. 9. 12.
6. '명사 특강: 자연유산, 그 보존을 위한 국가 정책'. 국방부 군 문화재 관리 교육, 2012. 11. 8.
7. '자연유산, 그 보존을 위한 국가 정책'. 한국유네스코협회연맹 주관 지방공개강좌. 포항필로스호텔. 2012. 11. 12, 대구교직원공제회관, 11. 29.
8.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심포지엄'. 종합토론 좌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2012. 11. 30.
9. '자연유산의 가치 제고와 행정체계의 발전방안'. 기조강연. 자연유산 발전방안 심포지엄, (사)자연유산보존협회, 2012. 12. 6.

〈봉사활동〉

1. 문화재청 50년사 출판기념회, 축사. 2012. 1. 12.
2. 명예교수협의회 회장단 협의회. 2012. 1. 13, 이사회 7. 11, 10. 31.
3.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협의회(좌장). 2012. 2. 3, 4. 19, 6. 27, 7. 25, 8. 27, 12. 14.
4.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총회(명예총재). 2012. 1. 30.
5.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위원장). 2012. 1. 31, 2. 22, 3. 28, 4. 18, 5. 23, 6. 27, 7. 25, 8. 22, 9. 19, 10. 24, 11. 28, 12. 21.
6. 생물다양성센터 '명승자원 활용 정책기반조성 연구' 심의 평가(좌장). 2012. 2. 10.
7. 경상북도 세계유산위원회 - 안동, 하회마을 세계유산관리 협의회. 2012. 2. 21.
8. 숭례문 복원 상량식 참석(문화재위원장). 2012. 3. 8.
9. 명예교수협의회 임원회. 2012. 3. 14, 5. 2, 5. 21, 6. 12, 9. 11, 10. 11, 12. 4.
10. 함안군 용유담 명승 지정 답사. 2012. 3 20. 지정 협의회(문화재청, 건교부, 수자원공사) 4.

27.
11. 강릉 신사임당 고택 명승지정 검토 답사. 2012. 3. 24.
12. 제주도 세계유산위원회(부위원장). 2012. 4. 4.
13. 문화재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주관, 인사말(위원장). 2012. 4. 30.
14. 총장 초청 명예교수협의회 간담회(수석부회장), 인사말. 2012. 5. 16.
15. 명예교수협의회 총회(주관). 2012. 5. 18.
16. 강릉 용연사 계곡 명승 지정조사. 2012. 5. 26.
17. 독도 자연유산: 현상변경 답사 2012. 5. 29-30, 외무부 기자단 동행, 특강: 독도의 문화재적 가치와 보존. 2012. 8. 10-11, 대통령 기념비 건립 검토 답사. 2012. 9. 6-7.
18. 낙동강 철새도래지 문화재 현상변경 답사. 2012. 7. 9.
19. 설악산 명승 지정조사. 2012. 9. 13-14, 10. 11-12.
20. 경기도 양수리 수종사 명승 지정조사. 2012. 9. 19.
2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상 심사(위원장). 2012. 10. 9.
22. 포천 한탄강 명승 지정조사. 2012. 10. 16.
23.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지 현상변경 협의회. 2012. 11. 21.
24. 국가문화유산상 시상식(축사). 2012. 12. 11.
25. 제주도 자연유산 명승지 보존 연구 자문회의. 2012. 12. 20.

전종갑 (지구환경과학부)

〈논문〉

1. Yeo, S.-R., J.-G. Jhun, and W. Kim: Intraseasonal variability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based on the El Nino influ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Asia-Pacific J. Atmos. Sci., 48(1), 43-53, 2012.
2. Ha, K.-J., K.-Y. Ho, S.-S. Lee, K.-S. Yun, and J.-G. Jhun: Variability in the East Asian monsoon: A review. Meteorol. Appl., 19(2), 200-215, 2012.
3. Kim, K.-Y., H. Na, and Jong-Ghap Jhun: Oceanic response to midlatitude Rossby waves aloft and its feedback in the lower atmosphere in winter Northern Hemisphere. J. Geophys. Res., 117, D07110, doi:10.1029/2011JD017238, 2012.
4. Roh, J.-W., K.-Y. Kim, and J.-G. Jhun: Decadal changes in the physical mechanisms of the seasonal cycle of summertime precipitation variability in Korea. J. Geophys. Res., 117, D07115, doi:10.1029/2011JD017268, 2012.
5. Liu, J., B. Wang, S.-Y. Yim, J.-Y. Lee, J.-G. Jhun, and K.-J. Ha: What drives the global

summer monsoon over the past millennium? Clim. Dyn., 39(5), 1063-1072, 2012.

6. Ho, C.-H., S.-J. Park, S.-J. Jeong, J. Kim, J.-G. Jhun: Observational evidences of double cropping impacts on the climate in the northern China plains. J. Climate, 25(13), 4721-4728, 2012.
7. Kim, Y., K.-Y. Kim, and J.-G. Jhun: Seasonal evolution mechanism of the East Asian winter monsoon and its interannual variability. Clim. Dyn., DOI 10.1007/s00382-012-1491-0, 2012.
8. Lee, Y.-K., S.-W. Y도, B. Dewitte, B.-K. Moon, and J.-G. Jhun: The influences of interannual stratification variability and wind stress forcing on ENSO before and after the 1976 climate shift. Theor. Appl. Climatol., 107(3-4), 623-631, 2012.

〈학술회의〉

1. Global Research Laboratory 워크숍 참석 및 논문 발표. 하와이대학교 International Pacific Research Center, 2012. 1. 9-13.
2. 한국기상학회 봄 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2012. 4. 19-20.
3. Asia Oceania Geosciences Society Annual Meeting 참석 및 논문 발표. Singapore, 2012. 8. 13-17.
4. 대한민국 학술원 국제 심포지움 참석 및 초청 강연. 대한민국 학술원, Overview on the Variability of East Asian Summer Monsoon: Intraseasonal to Centennial Variation, 2012. 10. 19.
5.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 참석 및 논문 발표. 대구 EXCO, 2012. 11. 1-2.
6. Asian Monsoon Symposium 참석 및 논문 발표. 인제대 대기환경정보연구센터, 2012. 11. 15-18.

〈봉사활동〉

1. 기상청 자문위원: 2008. 3-현재
2.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2000. 3-현재
3.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위원장: 2005. 3-현재
4. 기상기술개발관리단 이사장: 2012. 9-현재

간호대학

이소우 (간호학과)

〈논문〉

1. So Woo Lee, Noriko Kuwano: "한국의 간호기초교육 – 2016년까지 전국 4년제 대학화" Official Journal of the Japanese Nursing Association, 看護, 64(5), 87-91, 2012.
2. So Woo Lee, So Young Lee, Young Whee Lee, Noriko Kuwano, Michiyo Ando, Mariko Hayashi, Shanti Wardaningsih: Comparison of attitudes toward death among nursing students from South Korea, Japan and Indonesia. Korean Journal of Hospice & Palliative Care, 15(4), 212-221, 2012.
3. So Woo Lee, Makiko Hamaguchi: "Women's life events on nursing career international nursing activities interest in Japan and Korea. Research Magazine of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012.
4. So Woo Lee, Yuki Watanabe: 일본 오이타현내 외국인 노동자의 질병대처행동실태와 일본의료에 대한 의식. Research Magazine of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2012.

〈학술회의〉

1. So Woo Lee, Noriko Kuwano, Reiko Sakurai, Bing Shuang Wang: Survey study on foreign student's stress response in Japa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psychosomatic medicine throughout Asia,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College of Psychosomatic Medicine, Ulaanbaatar, Mongolia, 2012. 8. 24-25.
2. Invited keynote speech. new perspectives on hospice & palliative care. Korean Hospice & Palliative Nurses Association, 10th Anniversary International Conference,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Seoul, 2012. 7. 11.
3. 14th International Nursing Forum of Oita University of Nursing and Health Sciences, Beppu Con Plaza, Beppu city, Oita prefecture, Japan, 2012. 10. 27.
4. Invited congratulatory speech for MOU signing ceremony meeting between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and Faculty of Medicine, Kagoshima University, Japan, and The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of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2012. 11.
5. The 5th International Seminar/Nursing services training program: The role expansion

of nurses in Japan and Korea. Kakuryo Hall, Faculty of Medicine, Kagoshima University, Kagoshima prefecture, Japan, 2012. 11. 29.

6. Moderator for oral session 4; Stress treatment.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College of Psychosomatic Medicine,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psychosomatic medicine throughout Asia, Ulaanbaatar, Mongolia, 2012. 8. 25.
7. Invited guest congratulatory speech by the organization. The 2nd Eulji International Nursing Conference, Fostering artistic nursing potential through communication. Hotel Riviera, Seoul, Korea, 2012. 10. 11-12.

〈특강〉

1.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nursing' for sophomore undergraduate students at Oita University of Nursing & Health Sciences, Oita, Japan, 2012. 10. 1-11. 30.
2. 'Comparison study on international nursing' for junior class at Oita University of Nursing & Health Sciences, Oita, Japan, 2012. 12. 1-2013. 2. 28.
3. 'Advanced international nursing seminar' for graduate students at Oita University of Nursing & Health Sciences, Oita, Japan, 2012. 12. 1-2013. 2. 28.
4. 'Nursing theory' for graduate students at Oita University of Nursing & Health Sciences, Oita, Japan, 2012. 12. 1-2013. 2. 28.
5. 'Advanced community nursing seminar' for graduate students at Oita University of Nursing & Health Sciences, Oita, Japan, 2012. 12. 1-2013. 2. 28.

〈기타 근황〉

1. 일본 오이타현립간호대학원생 한국건강기관 방문 및 지도. Early exposure health care agencies of nursing practice trip to Korea for the NP students of Oita Univ. of NHS, 한국 보건진료원 활동과 전문간호사 활동 소개.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보건진료소, 김포시 학운리보건진료소, 서울 삼성의료원, 2012. 9. 16-18.
2. 일본 오이타현립간호대생—서울대 간호대생 교환 프로그램 진행 및 지도. 1) 오이타현립 간호대생(8명): 서울대 및 병원 등 한국건강 시설 견학, 2012. 8. 19-26, 서울대 간호대생(8명): 오이타현립간호대 및 일본 병원등 건강기관 방문, 2012. 7. 22-29.
3.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대학교 간호대생 건강기관방문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 한국 보건진료원 활동 과 전문간호사 활동 소개; 경기도 광주 검천보건진료소, 남양주시 청학보건진료소, 중앙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2012. 9. 12-16.
4. 일본 가고시마현 가고시마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의 공동연구(낙도 · 벽지 진료소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연구) 및 대학원생 연구 자료 수집.

경영대학

최종태 (경영학과)

〈논문〉

1. 최종태, 운곡 정인영 창업회장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임경영, 한국경영사학회, 논문집 경영사학, 제28집 1호, 2012. 3.

〈학술회의〉

1.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Growth: The Experience of Korea, 태국 국가경제사회자문위원회 국제컨퍼런스, 2012. 3.
2. Better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inancial Stability, 2012 KAS-International Symposium Tokyo. 2012. 10.

〈기고문〉

1. 신년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갈 때. 노사정위원회, 월간 노사정 1월호, 2012. 1.
2. 시론, 국가경쟁력과 직업능력개발성의 중요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RD Review, 15권 5호, 2-6쪽, 2012. 11.
3. 백서, 사회통합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공노총 백서, 2012. 10.

〈기타 근황〉

1. 2012년 노사정신년인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2012. 1. 6.
2. (사)노사공포럼 신년 대토론회. 프레스센터, 2012. 1.17.
3. 한국경영자총협회 제43회 정기총회. 조선호텔, 2012. 2. 23.
4. 한국노총 창립 66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한국노총회관, 2012. 3. 9.
5. 노동관련 3개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은행회관, 2012. 4. 4.
6. 한국노동연구원 현안이슈 토론회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 2012. 5. 3.
7.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엘타워, 2012. 8. 7.
8. 한국경영사학회 2012년 창업대상 시상식 및 학술대회. 서울힐튼호텔, 2012. 9. 21.
9. 한독경상학회 한-독 경제민주화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회의원회관, 2012. 10. 5.
10. 서울특별시공무원노조 제5기 출범식. 서울시청, 2012. 10. 24.

11. 한국경제TV 인터뷰(2012년 7월 4일 11:00) 및 KBS 9시 뉴스 인터뷰(2013년 1월 11일 21:00)
12. 주간 주니어조선 인터뷰(2012년 2월 22일 6-9면), 연합뉴스 인터뷰(2013년 1월 14일) 및 헤럴드경제 인터뷰(2013년 2월 6일).

〈특강〉

1.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경영노동대학 프로그램 특강. 구미, 2012. 1. 31.
2. 동국대 경주캠퍼스 경영대학원 AMP과정 특강. 동국대경주캠퍼스, 2012. 3. 21
3.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특강. 고려대 국제관, 2012. 4. 4.
4. 윤리경영지도사 과정 특강. 한국기술센터, 2012. 4. 19.
5. 산업안전관리공단 안전보건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중앙대, 2012. 5.15.
6. 한국생산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강연.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2012. 5. 23.
7. 윤리경영지도사 과정 특강. 한국기술센터, 2012. 5. 23.
8.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특강. 대구 호텔인터불고, 2012. 7. 18.
9. 경남경총 제3기 노사대학 CEO과정 특강.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2012. 9. 25.
10.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특강. 안성시청, 2012. 10. 23.
11.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강의. 광주무등파크호텔, 2012. 10. 26.
12.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서울시노사정 워크숍 특강. 영종도, 2012. 11. 20.
13. 국민대 북악정치포럼 특강. 국민대, 2012. 11. 27.
14. 경북동부경영자협회 특강. 포항 포스코국제관, 2012. 12. 14.

〈봉사활동〉

1.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 함께일하는재단 이사 및 정책연구원장
3. 고용노동부 정책자문위원
4. 신라장학재단 이사
5. 동원장학재단 이사
6. 한국인사전문가협회 회장
7. 한국인사관리학회 고문
8. 한국노사관계학회 고문
9. 한국경영학회 고문
10. 한국경영사학회 고문

공과대학

권욱현 (전기 · 컴퓨터공학부)

〈강의〉

1. DGIST 정보통신 세미나 과목 2012년 1학기 및 2학기

〈보고서〉

1. 권욱현(연구책임자), 국양, 윤경병, 이영우, 이훈택, 최수영, 신영균: “연구개발 단계별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 기초연구에서 개발연구까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73, 총 68쪽, 2012. 3.

〈학술회의〉

1. Asian Control Association (ACA) Board Meeting. 말레지아 자호바루, 자문위원으로 참석, 2012 3. 24-27.
2. 2012 IFAC Informal Meeting. 오스트리아 비엔나, 전임회장으로 참석, 2012 4. 11-14.
3. 2012 American control conference (ACC). 카나다 몬트리얼, 최신동향 습득 및 교수채용 정보 수집, 2012. 6. 26-30.
4. 2012 IFAC Council Meeting. 일본 지후, 전임회장 및 IFAC 재단 이사로 참석, 2012. 9. 10-13.
5. 2012 TWAS General Meeting and General Conference. 중국 텐진, Fellow 회원 및 한국 지부책임자로 참석, 2012. 9. 19-23.
6. ACA Executive Board Meeting. 대만 타이페이, 자문위원으로 참석, 2012. 12. 8.

〈봉사활동〉

1. 석좌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2010. 4-현재
2. 개방이사, 포항공대 재단, 2007-현재
3. 사외이사, LS, 2011-현재
4. 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심사위원회, 2010. 3-현재
5. Coordinator, TWAS(세계과학한림원) Korea Chapter 2008-현재
6. 위원, IFAC 석학회원(Fellow) 선정위원회, 2011-현재
7. 이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2-현재
8. 위원, 서울대학교 발전위원회, 2011-현재

9. 자문위원장, 제어로봇시스템 학회, 2010-현재
10. DGIST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노벨상수상자등 6회) 추진위원장

김효철 (조선해양공학과)

〈저 서〉

1. 김효철(도서편찬 위원회 위원장): 조선기술: 배 만들기의 모든 것. 총 653쪽, 지성사, 2012. 9. 10 초판 2쇄.
   [내용] 선박을 설계건조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단계로부터 발주와 수주, 설계와 선형, 저항과 추진, 운동과 조종, 기관과 의장, 구조와 진동, 건조와 생산, 검사와 관리, 군함과 레저용 선박, 해양구조물, 선박의 수명과 미래선박 등에 이르는 선박의 핵심적 기술사항을 16개의 장으로 나누어 비전공자라도 기본적 공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정리한 도서로서 2011년 12월 31일 초판 발간하였으며 문화관광부 2012년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논문〉

1. 오정근, 김효철: 회전자를 부착한 2차원 날개에 관한 실험적 연구. 2012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02-1207쪽, 2012. 5. 31-6. 1.
2. 구성필, 함연재, 김효철. 초고속선 실험을 위한 신형식 예인전차 개발. 대한조선학회 선형시험수조연구회 KTTC 2012 춘계 워크숍, 2012. 6. 28.

〈기고문〉

1. “송암 황종흘 선생님의 떠나심을 아쉬워하며”. 대한민국 학술원 통신, 제226호, 2012. 5. 1.
2. “조선학의 큰 어른 홀연히 떠나셨습니다”. 서울공대, No. 86, 59-63쪽,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동창회, 2012.
3. “대한민국 조선 산업 발전사의 산 증인: 신동식 회장의 특강을 듣고”. 대한조선학회지 제49권 제2호, 91-97쪽, 대한조선학회, 2012. 6.
4. “원로조선인들의 조선소 순방을 마치고”. 대한조선학회지 제49권 제4호, 대한조선학회, 2012. 12.

〈기타 근황〉

1. 2012년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동현씨스텍의 Techno-Doctor로 선임되어 정례적 기술지원 활동
2. "고속가속이 가능한 모형선 예인전차용 현가장치", 특허출원준비 중
3. "초고속선 실험을 위한 신형식 예인전차의 현가장치 설계시안", 학회지 투고 중
4. "서보파고계", 실용신안등록, 등록제20-0460359호, 출원번호2009-0008205호, 출원일, 2009년06월25일, 등록일 2012년 05월 09일, 김인호, 김효철
5. "중량평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용 태양 추적 장치". 출원번호 10-2010-0085288(접수번호 1-1-2010 -0567020-38), 출원일자 2010.09.01. 등록번호 제10-1201716, 등록일자 2012년 11월 09일, 김효철, 유재문
6. 선형시험수조용 계측기기의 용량추정. (주)동현시스텍 기술자문
7. 고속예인 전차시스템의 제어논리 설계. (주)동현시스텍 기술자문
8. 고속예인 전차 비상제동 시스템 설계. (주)동현시스텍 기술자문
9. 서보식 파고계의 민감도 개선 방안 수립. (주)PROCOMM 기술자문
10. 소형 지향형 장력계의 설계와 제작. 서울대 저항추진연구실 기술자문
11. 계류형 파력발전기의 성능판정. 인하대 저항추진연구실 기술자문
12. 고속정 선형개발 및 마력계산법 연구. 국방부 기술자문
13. 선형시험수조의 건설기본계획.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문
14. 중량화물 운반선의 저항성능 추정. ㈜코맥 디자인테크 기술자문
15. FPSO의 예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대우조선해양 기술자문
16. 태양광 발전용 태양추적 장비의 모형제작. 충남대학교 기술자문
17. 조류 발전 장비의 성능시험 시스템 구축. 해양연구원 기술자문

이동녕 (재료공학부)

〈저서〉

1. Su-Hyeon Kim, Dong Nyung Lee: Recrystallization. Krzysztof Sztwiertnia (Ed.), Chapter 2. Recrystallization of dispersion-strengthened copper alloys, InTech - Open Access Publisher, pp. 24-42, http://www.intechopen.com/articles/show/title/recrystallization-of-dispersion-strengthened-copper-alloys, 2012. 3.

〈논문〉

1.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Orientation relationships between directionally

grown precipitates and their parent phases in steels.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06-709, pp. 61-68, doi:10.4028/www.scientific.net/MSF.706-709.61, 2012.

2.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Hyun-Sik Choi: Recrystallization textures of cross-rolled 3.3% Si electrical steel and 99.99% copper sheets.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02-703, pp. 722-725,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702-703.722, 2012.
3. Yang Mo Koo, Kyu Hwan Oh, Dong Nyung Lee: Thermomechanical treatment for enhancing deep drawability of copper-bearing bake hardening steel.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06-709, pp. 2634-2639, doi: 10.4028/ www.scientific.net/ MSF.706-709.2634, 2012.
4. Jin Kyung Sung, Dong Nyung Lee: Evolution of crystallographic texture in pure iron and commercial steels by γ to α transformation.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06-709, pp. 2657-2662,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706-709.2657, 2012.
5. Dong Nyung Lee: Corrigendum to "Elastic properties of thin films of cubic system" [Thin Solid Films 434(2003)183-189], Thin Solid Films, Vol. 520, p. 3708, 2012.
6.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Directed growth of ferrite in austenite and Kurdjumov-Sachs orientation relationship.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15-716, pp. 128-133,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715-716.128, 2012.
7. Kyu Hwan Oh, Yang Mo Koo, Dong Nyung Lee: Evolution of textures and microstructures in low-reduction rolled and annealed low-carbon Steels,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15-716, pp. 173-178, doi: 10.4028/www.scientific.net/MSF.715-716.173, 2012.
8.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Orientation relationships between precipitates and their parent phases in steels at low transformation temperatures. Journal of Solid Mechanics and Materials Engineering, Vol. 6, No. 5, pp. 323-338, doi:10.1299/jmmp.6.323, 2012.
9. Jaewon Chang, Sun-Kyoung Seo, Moon Gi Cho, Dong Nyung Lee, Kyoo-Sik Kang, Hyuck Mo Lee: Effects of Be and Co addition on the growth of Sn whiskers and the properties of Sn-based Pb-free solders.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Vol. 27, No. 14, pp. 1877-1886, doi: 10.1557/jmr.2012.182, 2012.

〈학술회의〉

1. Annealing textures of thin films on thick substrates. 대한금속 · 재료학회 춘계 학술대회 (집합조직 분과). (초록집 145쪽, 집합조직(국실A-1-3), 횡성, 성우리조트, 2012. 4. 27.
2. Strain-energy-release-maximization theory for evolution of recrystallization textures, 제

1회 집합조직전문가 워크숍: 재료의 재결정 현상. 대한금속 · 재료학회 집합조직 분과, 순천대학교 공과대학 대회의실, 2012. 8. 17-18.

3. 김재겸, 이동녕, 한규석, 한찬희, 구양모: A study on Goss texture evolution in silicon steel. 2012년도 대한금속 · 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집합조직심포지엄 초록집, 87쪽(603A-6), 창원컨벤션센터(CECO), 2012. 10. 25.
4.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 · 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집합조직심포지엄 초록집, 87쪽(603B-2), 창원컨벤션센터(CECO), 2012. 10. 25.
5.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Hyun-Sik Choi: Recrystallization textures of cross-rolled 3.3% Si electrical steel and 99.99% copper sheets. 1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extures of materials (ICOTOM16), Mumbai, India; Textures of Materials of Materials, edited by Asim Tewari, Satyam Suwas, Dinesh Srivastava, Indradev Samajdar, Arunansu Haldar, Trans Tech Publications (Published in Materials Science Forum, Vol. 702-703, pp. 722-725, 2012), 2011. 12. 12-17.
6. Dong Nyung Lee, Heung Nam Han, Hyun-Sik Choi: Deformation and recrystallization textures of surface layers of aluminum and copper sheets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11th Asia-Pacific Conference on Engineering Plasticity and Its Applications (AEPA2012), Singapore; Advances in Engineering Plasticity XI, edited by Guoxing Lu and Qingming Zhang, Trans Tech Publications (Published in Key Engineering Materials, Vol. 535-536, pp. 211-214, doi: 10.4028/www.scientific.net/KEM.535-536.211), 2013.

이정인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저서〉

1. 사단법인 한국광업협회 발간: "한국광업 백년사". 총 840쪽, 집필위원(건국이전 광업활동, 채광/운반 기술), 2012. 12. 10.

〈논문〉

1. Jung-Gyu Kim, Jae-Joon Song, Song Soo Han, and Chung-In Lee: Slotting of concrete and rock using an abrasive suspension waterjet system,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ing, 16(5), 571-578, 2012.
2. 워터젯 기술의 산업응용에 관한 연구동향 및 전망.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49(2), 226-

238, 2012.

〈학술회의〉

1. Energy scene and underground oil storage in Korea. Keynote lecture in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Development in Rock Mechanics & Engineering, Shenyang, China, 2012. 9. 15-17.
2. Shuhong Wang, Tianyu Song, Xijiang Mu, ChungIn Lee: Characterization of rock mass structure and stability analysis of tunnel using GeoSMA-3D modeling, The 7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 Seoul, Korea, 2012. 10. 15-19.

〈특강〉

1. Prediction of fault zone ahead of tunnel faces using 3-D displacement monitoring, College of Resources and Civil Engineering,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2012. 7. 23.
2. Development process of science & technology and Engineering education in South Korea, Northeastern University, Shenyang, China, 2012. 10. 12.

〈봉사활동〉

1. A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and a chair of keynote session,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w Development in Rock Mechanics & Engineering, Shenyang, China, September, 2012.
2. A member of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The 7th Asian Rock Mechanics Symposium, Seoul, Korea, 2012. 10. 15-19.

이희근 (자원공학과)

〈기타 근황〉

1. 이희근, 제7회 대한민국 서예문인화 원로 총연합회전(木蓮), 서예문인화 원로 총연, 서울시립미술관, 2012. 7. 12-17.
2. 이희근, 2012 초대작가 회원전(목단), (사)한국 서예,미술진흥협회, 인사동 한국미술관, 2012. 8. 4-7.
3. 이희근, 2012 초대작가 회원전(墨蘭), (사)국제서법 예술연합 한국본부, 인사동 한국미술관, 2012. 12. 19-25.

장창두 (산업조선공학부)

〈논문〉

1. Yong Tai Kim, Tae Jun Kim, Tae Yoon Park, Chang Doo Jang: Welding distortion analysis of hull blocks using equivalent load method based on inherent strain". Journal of Ship Research, 56(2), 63-70, 2012.

〈봉사활동〉

1. 위원장. 한국선급기술위원회, 한국선급, 부산시, 2012. 12. 20.

전효택 (에너지자원공학과)

〈논문〉

1. Lee, H.Y., Chon, H.T., Sager, M., Marton, L.: Platinum pollution in road dusts, roadside soils, and tree barks in Seoul, Korea.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34(supple 1), 5-12, 2012.
2. Choi, K.Y., Kim, S.H., Hong, G.H, Chon, H.T.: Distributions of heavy metals in the sediments of South Korean Habors.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34(supple 1), 71-82, 2012.
3. Choi, K.Y., Kim, S.H., Chon, H.T.: Relationship between total concentration and dilute HCl extraction of heavy metals in sediments of harbors and coastal areas in Korea.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34(2), 243-250, 2012.
4. Jeon, S.H., Park, J.Y., Kim, J.N., Chon, H.T.: Application of orientation biogeochemical exploration method in the vicinity of Ildong Fe-Pb-Zn skarn deposits in Korea. Geosystem Engineering, 15(2), 102-117, 2012.

〈학술회의〉

1. 전효택, 박지영, 김종남: Biogeochemical orientaion survey for tin-bearing pegmatite veins in the Ulchin Area, Korea.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98회 학술발표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2. 5. 3.
2. 박지영, 김종남, 전효택: A biogeochemical orientation study in Mo skarn deposits, Jecheon District in Korea.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98회 학술발표회,제주국제컨벤션센

터, 2012. 5. 3.

3. 정성필, 이석훈, 전효택: 막증류 공정을 이용한 광산배수에서의 비소 제거.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98회 학술발표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12. 5. 3.
4. 전효택, M. Sager, L. Marton, 이혜연: The emission level and pollution characteristics of platinum(Pt), palladium(Pd), and related elements in urban dusts: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 제99회 학술발표회, Intercontinental 서울 COEX, 2012. 11. 8.
5. Chon, H.T.: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study in Asia-Pacific region. 2012 PBC & SEGH Conference, Gwangju, Korea, 2012. 4. 11.
6. Chon, H.T.: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platinum(Pt), palladium(Pd) and related elements in dusts from Seoul metropolitan city, Korea. 2012 PBC & SEGH Conference, Gwangju, Korea, 2012. 4. 10.
7. Je, H.K., Chon, H.T.: Regional and detailed survey for radon activities in soil-gas and groundwater in the Okchon zone, Korea. 2012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2. 4. 23-27.

〈특강〉

1. 지구화학탐사특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강의, 2012. 8. 30-12. 13.
2. 한국에서의 지난 20년간의 환경지구화학의 발달, 강원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특강, 2012. 10. 15.
3. 한국에서의 지난 20년간의 환경지구화학의 발달, 동아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특강, 2012. 11. 13.
4. 교수생활 중의 교육연구 성취와 제언. 정년퇴임 강연,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2. 9. 5.
5. Biogeochemical orientation studies in Korea: 일본 도쿄대학(Urabe 교수 2012. 2. 24) 및 게이오대학(Shikazono 교수 2012. 2. 22) 초청강연.

〈기고문〉

1. 학내의 심각한 교통환경, 조속히 개선해야('법인 서울대의 미래를 그리다' 칼럼),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2012. 11. 12.
2. 스페인 안달루시아 여행기. 서울공대 가을호, No.87, 47-50쪽, 2012. 9.
3. 나의 대학원 시절. 서울대 대학원 동창회 문집, 53-57쪽, 2012. 9. 18.

〈기타 근황〉

1. 정년 기념으로 SCI국제학술지(Springer 발행)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Volume 34 특별호(Jan. 2012) 헌정 받음. 특별호 주제 "Emerging issues of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in the Asia-Pacific region"이며 전효택 교수와 제자들의 논문 7편과 친분 있는 외국인 논문 7편 등 총 14편의 논문이 159쪽에 게재됨. 관련 website: http://link.springer.com/journal/10653/34/1/suppl/page/1.

최창균 (화학생물공학부)

〈논문〉

1. M.C. Kim, T.J. Chung, Chang Kyun Choi: The onset of buoyancy-driven convection in a horizontal fluid layer heated suddenly from below. Chemical Engineering Science, 80(1), 148–159, 2012.
2. M.C. Kim and C.K. Choi: Linear stability analysis on the onset of buoyancy-driven convection in liquid-saturated porous medium. Phys. Fluids, 24(4), 044102, doi: 10.1063/1.370330, 2012.
3. C.K. Choi, J.H. Moon, T.J. Chung, M.C. Kim, K.H. Ahn, S.-T. Hwang, E.J. Davis: The onset of natural convection in a horizontal fluid layer heated isothermally from below. International Journal of Heat and Mass Transfer, 55(4), 1030–1035, 2012.

한송엽 (전기공학부)

〈논문〉

1. 한송엽, 유상임, 최경달: 한국 초전도전력기기의 개발현황과 과제. 대한민국 학술원논문집 자연과학편 제51집 2호, 1-42, 2012.

〈학술회의〉

1. Kyung-Pyo Yi, Jong-Suk Ro, Seyeon Lee, Ji-Kwang Lee, Ki-Chul Seong, Kyeongdal Choi, Hyun-Kyo Jung, and Song-yop Hahn: A design methodology for toroid-type SMES using analytical and finite element method. Applied Superconductivity Conference. Portland, Oregon, U.S.A., 2012. 10. 7-12.
2. Ji-Kwang Lee, Sang Ho Park, Yungil Kim, Seyeon Lee, Woo-Seok Kim, Hyeong-Gil Joo, Chan Park, Kyeongdal Choi, and Song-yop Hahn: Manufacture and characteristic test results of a 5kW fully superconducting homopolar motor. Applied Superconductivity Conference, Portland, Oregon, U.S.A., 2012. 10. 7-12.

〈기고문〉

1. 공학교육, 기술을 넘어 예술로, 제품이 아닌 작품을 창조하는 인재양성에 도전. 공학교육, 제19권 제4호, 1-3쪽, 한국공학교육학회, 2012. 8.
2.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제234호, 8-13쪽, 2012. 12. 10.

〈특강〉

1. "공학교육과정에서 전문교양의 역할", 한국공학교육학회 대구지회 동계워크숍, 2012. 1. 30.
2.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와 응용", 기초전력연구원, 제20기 차세대 전력산업 리더과정, 2012. 11. 26.

〈봉사활동〉

1. 이천변전소 방문, 초전도 케이블 및 한류기 운전현황 조사, 2012. 2. 1.
2. Internet Data Center 연구회 고문, 2012. 8. 24.
3. 전국 대학생 솔라카 경진대회 심사위원,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주관, 한화케미칼 후원, 2012. 10. 6.

〈연구〉

1. 주택용 태양발전시스템의 누전차단기 및 누전경보장치 개발, 한국제품안전협회 지원.
2. 온라인 전기자동차 급전선의 지락보호회로 개발, KAIST 지원.
3. 직류 누설전류센서 개발, (주)대연씨앤아이 지원.
4. 절전 누전차단기 개발, (주)진흥전기 지원.

〈기타 근황〉

1. 한송엽, 이용구, "Measuring Instrument for a Resistive Electric Leakage Current", 국제특허(중국), ZL200880011145.4, 2012. 7. 25.
2. 한송엽, "직류전류 측정용 자기센서", 특허등록 제10-1203485호, 2012. 12. 15.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연구논문〉

1. Young Soo Keum, Hee Won Park, Hyuk-Hwan Song, Byung-Dong Kim, Byoung-Cheorl Kang, Jeong-Han Kim: Metabolite analysis of long chain branched fatty acids and capsaicin biosynthesis in Capsicum annuum placenta. J. Kor. Soc. Appl. Biol. Chem, 5(2), 189-195, 2012.
2. The Tomato Genome Consortium: The tomato genome sequence provides insights into fleshy fruit evolution. Nature 485(7400), 635-641, 2012.

〈학술회의〉

1. Foldback intercoil DNA explains the roles of repeat sequences in the genome.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심포지움, 충북대학교, 2012. 6. 9.
2. Foldback intercoil DNA. 1st international workshop on convergence in nanoscience. SKKU/SAINT, Suwon, Korea, 2012. 11. 5-7.

〈강의 및 특강〉

1. Foldback intercoil DNA가 여는 새로운 생명과학. 분당중앙고등학교, 2012. 3. 12.
2. Foldback intercoil DNA가 여는 새로운 생명과학 시대. 지리산고등학교, 2012. 5. 1.
3. Foldback intercoil DNA가 여는 새로운 생명과학 시대. 서울대 신입생 멘토링, 2012. 5. 24.
4. Molecular archeology in search of foldback intercoil DNA mechanism. 경희대학교 안진흥교수연구실 세미나, 2012. 9. 28.
5. 생명과학 한류를 준비하자! (영재반 학부모와의 대화의 시간) 성남교육지원청, 2012. 11. 21.
6. 고추 분자유전학과 신약개발의 연결고리.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2012. 9. 18.
7. 생명과학 한류를 준비하자! 서울고등학교, 2012. 12. 24.
8. 한 알의 씨앗이 세상을 바꾼다! 낙생고등학교, 2012. 12. 28.

〈기타 근황〉

1. 한국과총 부설 과학기술나눔공동체,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및

이화여자대학교 후원으로 노벨수상자(Dr. Robert H. Grubbs)의 분당 중앙고등학교 특강 “화학이 지구를 푸르게” 주관. 2012. 5. 30.
2.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등학교에서 운영.

나용준 (농생명공학부)

〈보고서〉

1. 나용준[공동연구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조경수 병해충조사. 총 111쪽.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연구보고서, 2012. 2.

〈강의 및 특강〉

1. 수목병 관리, 수목외과수술, 수목상처치료 및 올바른 가지치기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주최, 제23회 조경수 관리교육과정, 2012. 1. 30-2. 3.
2. 조경수목의 올바른 가지치기.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한국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 2012. 6. 20.
3. 수목병 관리, 수목외과수술, 수목상처치료 및 올바른 가지치기 등 4개 과목 강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병원 주최 제24회 조경수 관리교육과정, 2012. 6. 25-29.
4. 조경수 병해관리.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수목진단센터 주최, 서울시 산하 수목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목관리기술 교육, 2012. 11. 7(1차), 11. 14(2차), 11. 21(3차).
5. 수목병해 진단워크숍. 서울대학교 식물병원 수목진단센터 주최, 서울시 산하 수목관리 담당 공무원 교육, 2012. 11. 8(1차), 11. 15(2차), 11. 22(3차).
6. 나무의 외과수술. 인천국제공항공사, 2012. 7. 20.
7. 수목병의 진단과 관리. 유원에코사이언스 주식회사, 천안 휴러클리조트, 2012. 12. 7.

〈봉사활동〉

1. 한국 나무병원협회고문, 2005-현재.

신동소 (산림과학부)

〈기고문〉

1. 신학문의 길을 열어주신 향산 선생님. 향산 현신규 박사 탄신 백주년 기념 문집, 126-130,

2012. 1. 20.

〈기타 근황〉

1. (사)한국포장학회 초대회장 신동소.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창립 1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학과 창립에 공헌함에 감사패를 증정. 연세대학 과학기술대학 패키징학과 일동. 2012. 5. 24.

우건석 (농생명공학부)

〈기고문〉

1. 꿀벌과 인간에 미치는 꽃꿀의 기능(2). 한국양봉협회보 375호, 45-48쪽, 2012. 1.
2. 꿀벌과 인간에 미치는 꽃꿀의 기능(3). 한국양봉협회보 376호, 40-43쪽, 2012. 2.
3. 꿀벌과 인간에 미치는 꽃꿀의 기능(4). 한국양봉협회보 377호, 46-49쪽, 2012. 3.
4. 꿀벌과 인간에 미치는 꽃꿀의 기능(5). 한국양봉협회보 378호, 43-45쪽, 2012. 4.
5. 꿀벌과 인간에 미치는 꽃꿀의 기능(6). 한국양봉협회보 379호, 40-43쪽, 2012. 5.
6. Romanian beekeeping industry(1). 한국양봉협회보 380호, 41-45쪽, 2012. 6.
7. Romanian beekeeping industry(2). 한국양봉협회보 381호, 40-42쪽, 2012. 7.
8. Romanian beekeeping industry(3). 한국양봉협회보 383호, 42-44쪽, 2012. 9.

〈학술회의〉

1. Romania 뷰카레스트에서 개최한 세계양봉연맹 집행위원회의에 참석. 2012. 5. 2-13.
2. 미국 워싱턴주 서북부 지역의 약용밀원자원의 자생지 답사. 2012. 6. 14-8. 16.
3. 미국 워싱턴주 북부 캐스캐이드산맥 Skykomish의 식물상 조사. 2012. 6. 24-24; 7. 5-7.
4. 미국 애리조나주 튜산에 있는 USDA-ARS Carl Hayden Bee Research Center를 방문하여 꿀벌사료 개발연구에 관한 공동협의. 2012. 7. 18-21.
5. 말레이시아 테렌가누에서 개최한 제11차 아시아양봉대회에 참가. 2012. 9. 26-10. 4.
6. 중국 젠지앙에서 열린 제4차 Apimedica & Apiguality Forum에 초청받음. Mingdu Hotel, 2012. 10. 21-26.
7. 타이완양봉학회 초청으로 제9차 해협양안 밀봉과 봉산품 포럼 및 국제 밀봉보호론단에 참가. 국립 Ilan 대학. 생물자원학원 강연청. 2012. 11. 15-25.
8. 중국 푸주의 Fujian Agriculture Forestry Univ. Apitherapy 연구소의 초청받아 "봉료자원의 이용과 중국의 역할"을 발표. 2012. 12. 21-26.

〈특강〉

1. 제23회 조경수 관리교육에서 “조경수 해충의 예찰 · 발생생태”를 강의. 서울대 관악캠퍼스 43-1동 101호실. 2012. 1. 31.
2. 2012 양봉산업 전략심포지엄에서 “세계양봉대회의 주인”을 강의함. 예천군 문화회관. 2012. 8. 16.
3. 아시아 양봉연구협회 웡시리교수를 초청 “아시아국가의 양봉발전 모델”을 협의함. 한국양봉협회. 2012. 8. 21.
4. 제48차 한국양봉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약용밀원자원의 탐색과 이용”을 발표. 속초시 국제관광정보센터. 2012. 10. 11.
5. 2012년 양봉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아시아 국가의 발빠른 양봉산업 발전모델”을 강의. 경기도청북부청사 대강당. 2012. 11. 28.
6.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주관 2012년 품목 기술교육에서 “기능성 양봉산물과 소비자”에 관해 강의. 동서울 농협강당. 2012. 11. 30.
7. 전남대학교 농업최고경영자 과정에서 “기능성 밀원자원의 탐색”을 강의. 동물자원 강의동. 2012. 12. 4.

〈보고서〉

1. 공저: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2년도 사업보고서. 총 297쪽, 2012. 12.
2. 공저: 서울특별시 동북권(8개구)의 수목병해충 조사 및 건강관리. 2012년도 실연과제 보고서. 총 133쪽,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2012.

이무근 (농산업교육과)

〈저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제4판).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내용] 직업 기술 교육에서는 이론 못지않게 실기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이 책은 실기 교육을 중요시하는 농업교육, 공업교육, 기술교육, 상업교육, 가정교육, 보건 간호 교육 등에서 실기 교육을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방법을 제4판에서 종합적으로 개편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이무근, 이찬: 대학생 진로 멘토링. 총 342쪽, 교육과학사. 2012. 7. 10.
   [내용] 이 책은 대학생이 최소한 2020~2030년대의 미래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하며, 자기의 가장 우수한 재능을 찾아 하고 싶은 일을 구상하여 그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등, 자신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

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2부 12장(제1부 미래 변화 7개 장, 제2부 진로계획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술회의〉

1. 차기정부의 지역인재육성방안 세미나 종합토론 좌장. 한국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 한구HRD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한국인재개발형회, (재) 부산인적자원개발원, 국회도서관 대강당 421호, 2012. 9. 17.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제1주제 좌장. 청년층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역량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컨벤션센터 두베홀, 2012. 10. 9.

〈기고문〉

1. 권두언. 직업과 자격 연구. 창간호, 1쪽, 2012. 7.
2. 권두언. 노동법률. 256호, 2쪽, 2012. 9. 1.

〈특강〉

1. 미래 변화와 HRD 방향. HRD Korea 2012. The 10th HRD 컨퍼런스 & 인적자원개발 엑스포, 한국 HRD 협회/한국산업인공단,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2012. 3. 14.
2. 미래 변화가 요구하는 인재상(기조 강연). 한국 직업 · 자격학회, 서울대학교 203동 101호, 2012. 6. 15.
3. 창의적 학습을 위한 미래 변화의 이해(기조 강연). 대한사고개발학회.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제1사범관, 2012. 11. 17.
4. 미래 변화가 요구하는 인재상. 21사단 169 포병대대, 2012. 8. 8.
5. 한국의 고교 및 전문대학의 직업 교육 현황과 개혁 동향. 인도네시아 관광공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2012. 10. 31.
6. 미래변화와 대학생의 진로. 꽃동네대학교, 도서관 강당, 2012. 11. 26.

이병일 (식물생산과학부)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재한 동경대학동문회 참석. 2012. 1. 10.
2. 일본 쯔쿠바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블루베리의 기능성 등에 관한 국제세미나에 참석. 2012. 1. 28-29.

3. 월드비전북한농업연구소 자문위원에 위촉됨. 2012. 2. 10.
4.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해운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백거장학회 장학금을 수여함. 2012. 2. 14.
5. 화농연학재단 이사회에 참석하여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함. 2012. 2. 23.
6.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한국블루베리협회 정기총회 및 세미나 개최함. 세미나 주제는 블루베리의 유기재배였음. 아울러 협회 각 도지부장을 선출함. 2012. 2. 24-25.
7.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 자문단 회의에 참석. 2012. 3. 6.
8. 고양 KINTEX에서 개최된 (사)한국수확후관리협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공로패를 수여받음. 2012. 5. 8.
9.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개최된 (사)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에 참석하여 원로회의를 주재함. 2012. 5. 17-18.
10.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거행된 우장춘박사 53주기 추모식에 참석. 2012. 5. 21.
11. Netherlands Maastricht시 MECC(Maastricht Exhibition & Congress Center)에서 개최된 제10회 International Vaccinium and other Superfruits Symposium에 참석함. 이 심포지엄을 통하여 각국의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네덜란드의 블루베리 산업현장을 돌아보았음. 2012. 6. 17-22.
12. 사단법인 한국유기농업협회 창립 34주년 기념식에서 협회 부회장 및 고문으로 활약한 공로를 치하하는 공로패(1368호)를 수여받음. 2012. 7. 27.
13.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한국블루베리협회 하기세미나 개최. 주제: 블루베리원의 토양관리, 시비관리 등. 본인은 “제10차 Vaccinium Symposium에 다녀와서”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 내용을 소개하는 강연을 함. 2012. 10. 5.
14. 화농연학재단 제20회 화농상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2012년도 수상자를 선정함. 2012. 12. 4.
15. (사)한국블루베리협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정기총회 개최와 pal나 주제 결정함. 2012. 12. 14.

〈특강〉

1.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블루베리 재배기술 강의: 화순(1/6), 곡성(1/17), 순창(2/2), 용인(7/24), 광양(10/24), 임실(11/29).
2. 대학에서의 강의: 한국농수산대(3/21), 농협대(5/30), 목포대(11/15).

정하우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학술활동〉

1. 한국농촌계획학회 이사회 참석. 서울대학교 두레미담, 2012. 9. 21.
2. 한국농촌계획학회 이사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참석.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 2012. 11. 23.

〈저서〉

1. 정하우 외 6명: 「농공장학재단 20」. 총 248쪽, (재)서울대학교 농공장학재단, 2012. 9.
   [내용] 농생대 농공학과의 농공동창회가 (재)농공장학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까지 44년간 장학기금을 약 91억 원을 축적했고, 총 657명(학부과정 417명, 석사과정 197명, 박사과정 43명)에게 지급한 장학금 내역, 그리고 윤대섭 동문(1949년 입학)이 특별출연한 총 89억여 원의 내역 등을 수록하고 있다. 윤 동문은 그후 22억 8천만 원을(2012년) 추가로 출연해 현재 개인적으로 농공장학재단에 총 112억 원을 희사했다.

한인규 (농생명공학부)

〈논문〉

1. S. B. Cho, In K. Han et al.: Effect of lysine to digestible energy ratio on growth performance, carcass characteristics and hormone profiles in finishing pigs. Asian-Aust. J. Anim. Sci. 25(11), 1582-1587, 2012.

〈보고서〉

1. 이형주, 최양도, 하종규, 박승우, 한인규: 미래 농학교육 · 연구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방향.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총 310쪽, 2012. 11. 13.

〈저서〉

1. 한인규, 백인기, 하종규, 채병조: 최신동물영양학. 총 633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 25.
2. 한인규 등: 목운문화재단 소식지. 제12호, 40쪽, 목운문화재단, 2012. 4. 1.
3. 한인규: 목운 한인규 교수 80인생 회고록『열정의 풍경과 나눔의 시간들』목운문화재단 총서 제25호, 총 653쪽, 목운문화재단, 2012. 10. 12.
4. 한인규: 목운 한인규 교수 80인생 회고록『사진으로 본 나의 삶의 흔적』. 목운문화재단 총

서 제26호, 총 308쪽, 목운문화재단, 2012. 10. 12.

〈특강〉

1. 2012년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전달행사에서 축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회의실, 2012. 2. 27.
2. “한국 사료산업의 진로와 우리의 나아갈 길” 특강.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2012. 3. 15.
3. 경기도 교육청에서 “창의지성 교육과 노벨상” 특강. 수원중소기업자원센터 강당, 2012. 3. 23.
4. 성주중학교에서 “동문석학과의 대화” 특강. 성주중학교 강당, 2012. 4. 18.
5. 제14회 사료기공단기과정에서『제4판 사료자원핸드북』해설에 관한 특강. 안성 농협연수원, 2012. 4. 27.
6.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제6회(2012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축사. 2012. 9. 5.
7. 진주동방호텔에서 개최된 청하 곽종형 교수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 2012. 9. 22.
8. 성주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2년 성주중 · 고등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축사. 2012. 11. 10.
9. 제20회 서울대학교 농생대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시상식에서 축사. 2012. 11. 13.
1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축사. 2012. 11. 22.

〈봉사활동〉

1. 성주중학교에 발전기금 전달. 2012. 2. 27.
2. 2012년도 서울대학교 학생을 위한 목운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2012. 2. 27.
3.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을 통한 “한인규장학금(4명)” 수여행사에 참석. 2012. 3. 8.
4. 서울대학교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제3차 상기금 1억 원 출연협정서 체결(농생대 소회의실). 2012. 4. 27.
5. 러시아 연해주 사료곡물 생산 실태조사. 2012. 8. 16-8. 19.
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 최우수 목운장학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목운문화재단이 시상기금 1억 원을 출연한다는 내용의 협정서 체결(농생대 학장실). 2012. 9. 3.
7. 서울대학교 농생대교육연구재단에 ①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제3차 상기금 1억 원과 ② 농업생명과학대학 “졸업 최우수 목운장학사업” 시상기금 1억 원 등 총 2억 원을 출연. 2012. 10. 8.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상록문화재단 제8회 이사회 참석(서울대학교). 2012. 2. 14.
2. 홍콩과 마카오 관광 여행. 2012. 2. 17-2. 20.
3. 목운문화재단 제21회 이사회 개최(재단 사무실). 2012. 2. 21.
4. 제11회 한국 · 스웨덴 공동심포지엄 참석 및 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16세 면담(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2012. 6. 30.
5. 목운문화재단 제22회 이사회 개최(재단 사무실). 2012. 8. 6.
6. 대려도에서 개최된 서울대학교 축산학과 88학번 졸업 20주년 기념 사은회 참석. 2012. 10. 20.
7.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농생대 제20회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기념 Round Table 참석. 2012. 10. 30.
8.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된 한림원 제2회 및 제3회 목운생명과학상 시상식 참석. 2012. 11. 23.
9.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개최된 2012 Inter-Academy Seoul Science Forum에 참석. 2012. 11. 1-2.
10.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제일사료 창사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 수여받음. 2012. 4. 17.
11. 서울대학교 농생대 이학래 학장으로부터 감사패 수여받음. 2012. 4. 27.

미술대학

한운성 (서양화과)

〈작품〉

1. 한운성: 2+3+4. Korean Painting Now(한국당대회화), 국립대만미술관-서울시립미술관, 국립대만미술관, 2012. 1. 14-4. 15.
2. 한운성: Pimento. 판화공방,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2012. 9. 19-12. 26.
3. 한운성: Pomegrante. 서미모, 서울고등학교동창회, 백악미술관, 2012. 9. 20-26.

법과대학

김철수 (법학부)

〈저서〉

1. 헌법개설(12판). 총 500쪽, 박영사, 2012. 2. 25.
   [내용] 헌법학교과서로써 새로운 법률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헌재 결정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판임.
2. 법과 정의 · 복지. 총 600쪽, 진원사, 2012. 8. 31.
   [내용] 법과 그 이념 및 목적 등을 중심으로 일반 독자용으로 쓸 수 있게 한 법철학 입문서.
3. 헌법과 정치. 총 1124쪽, 진원사, 2012. 9. 30.
   [내용] 한국헌법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대학원생용 이론서 수준의 헌법일반이론교과서, 유신헌법에서 현행헌법으로 비교까지 다룸.
4. 헌법정치의 이상과 현실. 총 1124쪽, 소명출판사, 2012. 10. 30.
   [내용] 그 동안에 써왔던 일반인들을 위한 헌법정치의 계몽서.

이흥재 (법학대학원)

〈논문〉

1. 현장헌신(現場獻身)의 생명교향악(生命交響樂): 서곡(序曲)-소태산(少太山) · 우촌(牛村) · 백봉(白峯)의 '인간다운 생활'의 향기(香氣), 사회보장법연구, 창간호(2012 상반기 제1호), 1-41쪽, 신조사, 2012. 6.

황적인 (법학부)

〈기타 근황〉

1.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방법」. 공덕동성당, 2012. 4. 15.
2. 농림식품부 연구비신청서 제출. 2012. 7. 16.
3. 성암육여회에서 대학생 7명에게 학비보조금, 2012. 8. 17.
4. 「나의 대학원시절」. 서울대학교대학원동창회 11-15쪽, 2012. 9. 18.

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일본 미술가협회 및 사진저작권협회에 출장. 2012. 10. 16-18.
6. 일본 이시야 시에 있는 세이도(精道)에 참여. 2012. 11. 1-4.

사범대학

김신일 (교육학과)

〈강의 및 특강〉

1. 성인학습이론. 백석대학교 대학원, 2012. 1학기.
2. 평생교육세미나. 백석대학교 대학원, 2012. 2학기.
3. 지역사회발전과 학습운동. 충남평생교육진흥원개원기념, 공주대학교, 2012. 4. 12.
4. Toward a Harmony between Humanity and Nature. Keynote Speech at the 12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ng Cities, Changwon, Korea. 2012. 4. 26.
5. 학습시대 성공적 대학생활. 대원대학교, 2012. 9. 26.
6.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경북평생학습 네트워크, 대구그랜드호텔, 2012. 11. 29.
7.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교육체계 구축. 부산평생교육진흥원, 부산 벡스코, 2012. 12. 6.
8. Regional Cooperation for the East Asian Learning Society. Keynote Speech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East Asia Forum for Adult Education, Yeosoo city, Korea, 2012. 12. 7.

〈봉사활동〉

1. UNESCO 국제문해교육상 심사위원. 파리 유네스코본부, 2012. 6. 26-29.

박성익 (교육학과)

〈저서〉

1. 교육공학의 원리와 적용(공저). 총 464쪽, 교육과학사, 2012. 8. 30.
2. 한국사회의 정신건강(공저). 총 308쪽, 교육과학사, 2012. 1. 30.

〈학술회의〉

1. Kim Yun-Jung & Park Seong Ik: Research on the Smart Learning Usability on the Service design. ED Media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ers in Education. Grand Hyatt Denver, Denver, Colorado, U.S.A., 2012. 6. 26-29.

〈봉사활동〉

1. 미국 SSCI Journa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Editorial Board, member and reviewer, Elsevier. 1996. 3-현재.
2. 사단법인 한국융합학회 부회장, 2010. 9-현재.
3. 사단법인 천원 오천석 기념회 감사, 2011. 11-현재.
4. 사단법인 세계화교육재단 이사, 2009. 1-현재.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2011. 3. 4-2012. 3. 3.
6.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자문교수 겸 학생선발심의위원회 위원장. 2009. 5. 2-현재.
7.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교육과학기술부. 2011. 10. 1-2013. 9. 30.
8.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심의회 위원장. 2011. 7. 26-2013. 7. 25.
9.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2012년도 교육훈련경연대회 심사위원장.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2012. 4. 26.
10. 한국교육개발원 2012년도 연구보고서 심사위원. 2012. 9. 20-10. 2.
11.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연구결과보고서 심사위원. 2012. 10. 18-12. 10.
12. 중앙공무원교육원 제30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심사위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2012. 7. 18-19.
13.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육연계 활성화지원사업선정 평가위원장. 한국연구재단, 2012. 12. 18-28.

〈특강〉

1. 강의역량 향상전략. 중앙공무원교육원 제30회 중앙교육훈련경연대회 참가교수 워크숍 (참가 인원 140명), 2012. 1. 18.
2. 미래의 꿈을 웅대하게 디자인하자. 전남 순천시 순천여자고등학교, 백제고등학교 학생 특강, 참가학생 120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2동 401호 대강당, 2012. 2. 2.
3.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한 교육학적 자기성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신입생 120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정보관 대강당, 2012. 2. 17.
4. 성공적 대학생활을 위한 교육학적 자기성찰. 경기대학교 학부생 600명,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 텔레컨벤션센터, 2012. 3. 22.
5. 성공 ·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학적 자기성찰. 경남 마산 합포문화동인회 특강, 합포문화동인회 회원 60명 참가, 마산 사보이호텔 대연회장, 2012. 9. 21.
6. 영재학생의 특성과 학습지도. 서울시교육청, 서울대교육연수원 주최 영재학생 관찰. 추천 학부모 특강. 학부모참가인원 500명,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012. 10. 5.

〈기타 근황〉

1. OBS 경인TV. 뉴스M, 폭력만화 웹툰과 청소년 폭력행동의 심각성! TV 방송 출연, 2012. 1. 9.
2. MBC TV 스페셜. 천재를 거부한 사람 - 김웅용, TV 방송 출연, 2012. 2. 10.

임번장 (체육교육과)

〈특강〉

1. '노년기 건강과 운동'. 국제로타리 3650지구 한양로타리클럽, 서울 프라자호텔, 2012. 4. 30.
2. '지도자론(강의기법)'.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강사교육,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2012. 7. 29.

〈봉사활동〉

1. 일본 고베대학교 야마구치야스오 교수 회갑연 "하사". 일본 고베 오리엔탈호텔, 2012. 7. 1.
2. 여수 엑스포 한국의 날 기념 - 제1회 동아시아 마리나 포럼 준비위원장. 국토해양부, 2012. 8. 1.
3. 국민생활체육회 지도위원 위촉. 국민생활체육회, 2012. 11. 14.
4. 아시아태권도연맹 자문위원 위촉. 아시아태권도연맹, 국기원, 2012. 11. 17.
5. 스포츠 · 건강 산업 융 · 복합 클러스터 구축 기본계획 심사위원.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 도청, 2012. 12. 14.
6. 아시아태권도연맹 기술위원회 연구위원 위촉. 아시아태권도연맹, 국기원, 2012. 12. 15.

진교훈 (윤리교육과)

〈저서〉

1. 진교훈 외 19명: 『양심』. 총 312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9. 10.

〈학술회의〉

1. 인격주의 생명윤리와 생명문화. 가톨릭대학교 생명윤리연구소 10주년 학술발표대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학연구원, 2012. 3. 10.
2. 범부의 통합론- 서양철학의 2분법적 사고의 한계극복과 전일의학. 영남대학교 범부연구회 제3회 학술세미나, 영남대학교 신라애 세미나실, 2012. 4. 14.
3. 약학도를 위한 생명윤리. 약학과 생명윤리,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주최, 2012. 6. 15.
4. 가톨릭교회의 인격주의 생명윤리와 생명문화. 『인격주의 생명윤리』, 2012년 제2권 2호, 1-29쪽,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강연 및 특강〉

1. 사고와 글쓰기(1) - 소통의 의미. 서울교육대학교, 2012. 1. 13.
2. 사고와 글쓰기(2) - '주거의 의미'에서 본 글 쓰는 방식. 서울교육대학교, 2012. 2. 3.
3. 고통의 의미. 용산구 치매센터, 2012. 2. 17.
4. Well-being과 Well-dying, 천주교 서울대교구 시니어아카데미. 2012. 3. 8-6. 28.
5. 죽음 앞에선 인간 - 말기환자의 윤리. 서울 자양동 성당 사순절 특강, 2012. 3. 29.
6. 죽음 앞에선 인간 - 사망의 판정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조건. 서울 수색 성당 사순절 특강, 2012. 3. 30.
7. 생명윤리에서 본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각당 사회복지관, 2012. 6. 9.
8. 죽음의 판정과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천주교 서울 대교구 노인사목부 시니어 아카데미, 2012. 4. 12.
9. 정보의 발달과 소통의 문제. 서울 대교구 노인사목부 시니어 아카데미, 가톨릭회관, 2012. 5. 2.
10. 음식과 사람됨. 양업문화교육원, 서울 공덕동 성당, 2012. 6. 24.
11. 생명존중과 문화윤리. 한양대학교 특강, 2012. 10. 9.
12.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대구 교육연수원, 2012. 10. 18.
13. 범부 김정설의 풍류정신에 나타난 통합론과 공공윤리. 한국윤리교육학회 주최, 국제학술대회, 동서양의 공공해복과 윤리교육에서 기조강연, 2012. 11. 15.

14. 왜 우리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 분당 중앙고등학교 명사 특강, 2012. 11. 26.
15. 한국생명윤리학 교육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제언. 한국생명윤리학회 학술대회 기조강연, 2012. 12. 1.
16. 그리스도의 강림과 육화의 신비. 양업문화교육원 피정 강의, 2012. 12. 8.

〈기고문〉

1. 우리 선조들의 생명존중. 평화신문, 1) 구비전승에 나타난 생명존중(2012. 1. 8), 2) 한국 전통문화생활에 나타나는 생명존중 ① 조경과 고미술과 자연의 조화(2012. 1. 15), ② 민화와 민예품에 나타난 자연관; 목공예, 도자기, 자수공예, 초고공예(2012. 1. 22), 3) 풍류정신에 나타난 생명존중 ① 요산요수(樂山樂水)와 신선취미; 시가무(詩歌舞)에 나타난 생명사상(2012. 1. 29), ② 풍수사상에 나타난 자연보호(2012. 2. 5)
2. 연명치료중단은 가족 등 대리인에 의하여 함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 2012. 10. 13.

〈기타 근황〉

1. MBC 박철현 기자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 대담. 9시뉴스, 2012. 10. 15.
2. KBS 심수련 기자와 연명치료중단에 관하여 대담. 2012. 11. 18.

〈봉사활동〉

1.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대전 토요코 인에서, 2012. 1. 27-28.
2.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마산교구 교육관에서, 2012. 2. 13-14.
3.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 예산결산 및 사업보고. 2012. 2. 29.
4.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참석 토론. 응급피임약의 문제점, 2012. 3. 16.
5. 양업문화교육원 원장으로 피정의 집 준공식 거행. 강원도 홍천군 설악면 묘곡리, 2012. 4. 8.
6.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세미나. 사말의 교리, 2012. 4. 27-28.
7. 서울대 150동 명예교수 춘계 거제도 일원 산업시찰. 마사회, 옥포대우조선소, 수자원공사 방문 인솔, 2012. 5. 29-30.
8.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노인자살의 현황과 대책, 2012. 6. 28.
9.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심판, 죽음, 연옥, 천국에 교리에 관한 토의, 2012. 7. 2-3.
10. 양업문화교육원원장으로 양업문화교육원 피정의 집 준공식 참석, 2012. 8. 19.
11.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학교폭력문제 토론, 2012. 9. 21.
12.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생명윤리법 토론 참석, 2012. 10. 19.
13. 의료전문지『청년의사』의 김지환 기자 와의 대담.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

단과 대한병원협회와의 수가협상에 관하여, 2012. 10. 24.
14. 청송장학회 학술상 시상식 참석, 2012. 11. 3.
15.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세미나.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제도화에 관한 토의 참석, 2012. 11. 9.
16.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천주교 서울 대교구 생명위원회 학술대회. 학교폭력과 자살 문제,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참석, 2012. 11. 22-23.
17.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 사말교리 독회 참석, 2012. 11. 30.
18. 한국생명윤리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생명윤리교육의 현황과 후속세대양성을 위한 제언, 2012. 12. 1.

차경수 (사회교육과)

〈저서〉

1. 차경수, 조대훈: 사회과교육의 도전과 전망. 총 258쪽, 동문사, 2012. 2. 1.
   [내용]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교육은 최근에 통합교육과정, 다문화교육, 소셜미디어교육, 소수자에 대한 교육 등 새로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책에서는 이들 문제의 본질과 특수성. 해결의 방향과 과제를 교실수업과 연결하면서 제시하고자 했다.

허승일 (역사교육과)

〈역서〉

1. "플루타르코스의 모랄리아: 교육 · 윤리 편". 총 420쪽, 서울대출판문화원, 2012. 9. 25.

〈특강〉

1. "로마인의 윤리사상". 제주인재개발원, 2012. 3. 29.
2. "로마제국은 왜 흥기했나?". 정보교육원, 2012. 10. 30.

생활과학대학

이연숙 (식품영양학과)

〈저 · 역서〉

1. 이연숙 외 4인: “식사요법 원리와 실습”. 교문사, 총 517쪽, 2012. 9. 5.
2. 이연숙, 강신성, 안태인 외 공역: “Vander’s 인체생리학”. Vander’s Human Physiology, 12th ed., 교보문고, 총 867쪽, 2012. 2. 28.

〈연구논문〉

1. 박미나, 조수정, 김희경, 이연숙: 성장기 흰쥐에서 유기태칼슘의 체내이용성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1): 87-94, 2012.
2. 이준호, 황석연, 임병우, 이연숙: 다이옥신계 TCDD(2,3,7,8- Tetrachlorobenzo-p-dioxin)에 노출된 흰쥐의 지질대사 및 면역관련 인자에 대한 키토산 올리고머의 분자량별 섭취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4): 471-479, 2012.

〈강의 및 특강〉

1. “영양생리학”.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과장, 2012. 1학기.
2. “단백질대사”.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원과정, 2012. 2학기.
3. 영양, 식품, 그리고 건강의 이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골드쿡과정, 특강(2회), 2012. 1. 9, 6. 19.
4. 녹색생활과 소비. 서울대학교 그린리더쉽과정, 특강(2회), 2012. 3. 15, 3. 22.
5. 노화에 따른 생리기능 변화 및 노년기의 영양과 건강. 서울대학교 은퇴설계 전문가과정, 강의(4회) 2012. 3. 27, 3. 30, 9. 25, 10. 27.
6.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품영양산업.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특강, 2012. 4. 5.
7. 생애주기별 맞춤영양과 식품산업. 동원주식회사 종합식품연구소 특강, 2012. 4. 6.
8. 갱년기여성의 건강과 식생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심포지엄 강연, 2012. 4. 15.
9. 현대인의 식생활과 건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SOC과정, 특강(3회)
   1) 올바른영양과 식생활의 기초, 2012. 5. 15.
   2) 중년 이후의 방어영양과 식생활, 2012. 5. 22.
   3) 노년기 만성질환의 예방과 식생활관리, 2012. 5. 29.
10. Water and Mineral.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환경기술연구소 특강, 2012. 6. 15.
11. 생애주기별 영양결핍 문제와 맞춤형 지도 방안. 농촌진흥청, (사)농촌생활발전중앙회 심

포지엄 강연, 2012. 10. 4.

12. 제3기 인생의 식생활과 건강.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순창센터, 노후설계교육 - 제3기 인생대학과정 특강(2회) 2012. 10. 9, 11. 8.
13. 영유아를 위한 성공적인 수유영양 및 이유식 실천방안. 금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강, 2012. 10. 15.
14. 먹는 물의 영양, 생리학적 의미. 2012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강연, 2012, 11. 22-23, 제주도 라마다호텔.
15. 성인기영양.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학부 특강, 2012. 11. 29.
16. 중년이후의 맞춤영양과 식생활. 서울대학교 제3기 인생대학 특강, 2012. 12. 5.

수의과학대학

신광순 (수의학과)

〈저서〉

1. 잉크가 바랠수록 추억은 빛이 난다, 총 423쪽, 지상사, 2012. 3. 5.
   [내용] 1) 출생에서 성장기까지, 2) 6 · 25 전쟁과 혼란기의 대학생활, 3) 사회 초년기, 4) 운명을 바꾼 장년기, 5) 수의과대학 시절의 발자취, 6) 제도 개선 관련 연구, 7) 국제회의 참석 일지, 8) 정년퇴임 후 활동 등.

〈봉사활동〉

1. 한국수의사학연구회 창립 및 회장, 2012. 4. 18.

이문한 (수의학과)

〈논문〉

1. Jae-Hoon Choi, Jong-Gil Park, Hyung Jun Jeon, Mi-Sun Kim, Mi-Ran Lee, Mi-Ni Lee, SeongKeun Sonn, Jae-Hong Kim, Mun Han Lee, Myung-Suk Choi, Yong Bok Park, Oh-Seung Kwon, Tae-Suk Jeong, Woo Song Lee, Hyun Bo Shim, Dong Hae Shin, Goo Taeg Oh: 5-(4-hydroxy-2,3,5-trimethylbenzylidene) thiazolidine-2,4-dione attenuates atherosclerosis possibly by reducing monocyte recruitment to the lesion. Exp. Mol. Med., 43(8), 471-478, 2011.

〈봉사활동〉

1. 서울대학교 대학원동창회 회장, 명예회장
2.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동창회 회장
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상임이사
4. (사)한국법과학회 감사
5. (사)대한수의학회 평의원
6.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자문위원, 기금운영위원
7. 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이사
8. (사)한국농약과학회 원로이사
9. (사)대한수의사회 국가수의자문위원회 위원
10. (사)한국동물약품협회 자문위원회 위원장
1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위원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농약전문가협의회 위원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문위원
14. (사)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15. 서둔야학회 회장
16.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 감사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임광수 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2013. 1. 9.

이영순 (수의학과)

〈기타 근황〉

1. 2012 다산컨퍼런스 개최.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for the control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제주 서귀포 칼호텔, 2012. 8. 26-28.
2. 소외계층 난치 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베데스다 생명재단 후원의 밤 행사 개최. 남산 제이그랜 하우스, 2012. 10. 30.

이흥식 (수의학과)

〈학술회의〉

1. 수의학교육과 인증. 서울 강남 팔레스호텔, 2012년도 추계국제학술대회, 대한수의학회, 2012. 11. 1.
2. 자연유산발전방안. 서울 고궁박물관, 문화재청-자연유산보존협회 주관, 2012. 12. 6.

〈연구〉

1. 연구책임자: 수의학교육인증평가편람개발. 교육과학기술부, 2012. 4-12.

〈강의 및 특강〉

1. 1차 수의학교육인증평가편람개발 실행위원 워크숍.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2. 7. 6-7.
2. 2차 수의학교육인증평가편람개발 실행위원 워크숍.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2012. 8. 7-8.
3. 2012년도 수의학교육인증 전문인력 양성교육 워크숍.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2012. 9. 20.
4. 2012년도 수의학교육인증 전문인력 심화교육 워크숍.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주최, 대한수의사회 수의과학회관, 2012. 12. 12.
5. 농식품부-수의사회 공동주최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순회 강연. 수의학교육인증과 한 · 미 FTA와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협정, 2012. 4. 13-6. 4.

〈봉사활동〉

1. Editor-in-Chief: J Vet Sci(SCIE 및 SCOPUS 등재학술지)
2. 회장: 자연유산보존협회
3. 원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기고문〉

1. 수의학교육 인증과 수의사의 역량. 대한수의학회지 52권 1호 부록, 75쪽, 대한수의학회, 2012. 4.
2. 나는 과연 JVS와 KJVR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JVS 14차 보고). 대한수의학회지 52권 1호 부록, 1-12쪽, 대한수의학회, 2012. 4.
3. 수의학교육과 인증. 대한수의학회지 52권 3호 부록, 17-26쪽, 대한수의학회, 2012. 11.

4. 한-미 FTA 수의사면허상호인정(MRA)과 수의학교육인증. 대한수의사회지 48권6호 347-352쪽, 대한수의사회, 2012. 6.

〈기타 근황〉

1. 터키 이스탄불대학 초청방문, 2012. 10. 13-19.

약학대학

고광호 (약학과)

〈논문〉

1. Go HS, Kim KC, Choi CS, Jeon SJ, Kwon KJ, Han SH, Lee J, Cheong JH, Ryu JH, Kim CH, Ko KH, Shin CY: Prenatal exposure to valproic acid increases the neural progenitor cell pool and induces macrocephaly in rat brain via a mechanism involving the GSK-3β/β-catenin pathway. Neuropharmacology, 63(6), 1028-41, 2012. 11.
2. Jeon SJ, Han SH, Yang SI, Choi JW, Kwon KJ, Park SH, Kim HY, Cheong JH, Ryu JH, Ko KH, Wells DG, Shin CY: Positive feedback regulation of Akt-FMRP pathway protects neurons from cell death. J. Neurochem, 123(2), 226-238, 2012.

〈봉사활동〉

1. 차의과학대학교 약학대학장, 2011. 3-현재.

〈기타 근황〉

1. 고광호 교수 - 정년퇴임기념회고록 발간식, 약학동원(藥苑同學: 고광호 교수 문하생 70여 명의 모임) 주최, 서울대학교 호암관, 2012. 10. 20.

김영중 (약학과)

〈연구〉

1. 김영중(연구책임자): “애기석위의 뇌신경세포 보호활성 물질 및 성분 프로파일”, 2012년도 학술연구과제, 대한민국학술원, 2012. 3. 1-2013. 2. 28.

〈논문〉

1. Jeong EJ, Kim TB, Yang H, Kang SY, Kim SY, Sung SH, Kim YC: Neuroprotective iridoid glycosides from Cornus officinalis fruits against glutamate-induced toxicity in HT22 hippocampal cells. Phytomedicine, 19(3-4), 317-332, 2012.
2. Yang H, Cho HJ, Sim SH, Chung YK, Kim DD, Sung SH, Kim J, Kim YC: Cytotoxic terpenoids from Juglans sinensis leaves and twigs. Bioorg Med Chem Lett, 22(5), 2079-2083, 2012.
3. Yang H, Lee PJ, Jeong EJ, Kim HP, Kim YC: Selective apoptosis in hepatic stellate cells mediates the antifibrotic effect of phenanthrenes from Dendrobium nobile. Phytother Res 26(7), 974-980, 2012.
4. Jeong EJ, Seo H, Yang H, Kim J, Sung SH, Kim YC: Anti-inflammatory phenolics isolated from Juniperus rigida leaves and twigs in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264.7 macrophage cells, J Enzyme Inhib Med Chem, 27(6), 875-879, 2012.
5. Cho N, Huh J, Yang H, Jeong EJ, Kim YC, Kim J, Sung SH: Chemical constituents of Polygala tenuifolia roots and their inhibitory activity on lipopolysaccharide-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BV2 microglia. J Enzyme Inhib Med Chem, 27(1), 1-4, 2012.
6. Song JI, Kang YJ, Yong HY, Kim YC, Moon A: Denbinobin, a phenanthrene from Dendrobium nobile, inhibits invasion and induces apoptosis in SNU-484 human gastric cancer cells. Oncol Rep, 27(3), 813-818, 2012.
7. Yang H, Liu Q, Ahn JH, Kim SB, Kim YC, Sung SH, Hwang BY, Lee MK: Luteolin downregulates IL-1β-induced MMP-9 and -13 expressions in osteoblasts via inhibition of ERK signalling pathway. J Enzyme Inhib Med Chem, 27(2), 261-266, 2012.
8. Cho N, Choi JH, Yang H, Jeong EJ, Lee KY, Kim YC, Sung SH: Neuroprotec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flavonoids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in neuronal HT22 and microglial BV2 cell lines. Food Chem Toxicol, 50(6), 1940-1945, 2012.
9. Park HS, Kim B, Oh JH, Kim YC, Lee YJ: First-pass metabolism of decursin, a bioactive compound of Angelica gigas, in rats. Planta Med, 78(9), 909-913, 2012.
10. Yoon JS, Jeong EJ, Yang H, Kim YC, Sung SH, Kim: Inhibitory alkaloids from Dictamnus dasycarpus root barks on lipopolysaccharide-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BV2 cells. J Enzyme Inhib Med Chem., 27(4), 490-494, 2012.
7. Lee M, Park JH, Min DS, Yoo H, Park JH, Kim YC, Sung SH: Antifibrotic activity of diarylheptanoids from Betula platyphylla toward HSC-T6 Cells. Biosci Biotechnol Biochem, 76(9), 1616-1620, 2012.

〈학술회의〉

1. 대한약학회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s of 20(R/S)-ginsenosides on HSC-T6 cell proliferation”를 포스터로 발표.
2. 대한약학회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Separation of isoquinoline alkaloids from Coptis japonica by high-speed counter-current chromatography”를 포스터로 발표.
3. 대한약학회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Cognition-enhancing activity of the standardized extract of Betula platyphylla bark by HPLC-DAD-ESI-MS, and its major diarylheptanoids in scopolamine-induced amnesic mice through CREB phosphorylation”를 포스터로 발표.
4. 대한약학회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The effects of lignan-enriched extract of Shisandra chinensis (ESP-806) on amyloid-β-induced behavioral dysfunction and neurotoxicity in the cortex and hippocampus of mouse”를 포스터로 발표.
5. 대한약학회 2012 춘계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Neuroprotective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flavonoids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in neuronal HT22 and microglial BV2 cell lines”를 포스터로 발표.
6. 한국생약학회 제43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논문 “The cytotoxicity of naturally occurred oleanane-, ursane-, and lupane-type triterpenes on HepG2 and AGS cells”를 포스터로 발표.

〈특강〉

1. “식물에서 의약품까지”. 이공계 진로탐구 프로그램, 과천과학관 의과학캠프, 국립과천과학관, 2012. 1. 13, 2. 19, 5. 20, 8. 26, 9. 16, 12. 22.

음악대학

백병동 (작곡과)

〈연주활동〉

1. Passacaglia for Solo Violin(vn. 이태정). 이태정 바이올린 독주회,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 2012. 02.
2.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vn. 김민, vc. 나덕성, pf. 장혜원). 제1회 대한민국예술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3.

3. Woodwind Quintet No. 2(The winds). 2012 ACL-Korea 국제음악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12. 3.
4. 백병동의 가야금작품 전곡(가야금 솔로이스츠 JUL). 가야금 솔로이스츠 JUL 작곡가 시리즈 2, 국립국악원 우면당, 2012. 4.
5. 가곡-빠알간 석류 / 남으로 창을 내겠소(vo. 윤현주 pf. 이지현). 제6회 예울음악무대 한국가곡의 향기,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6.
6. 트롬본과 현악합주를 위한 '운(韻) V'(Trb. 김운성, 화음쳄버오케스트라). 예술의전당 IBK 쳄버홀, 2012. 10.

의과대학

강순범 (의학과)

〈기타 근황〉

1. 2012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제14차 국제부인암학회(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에서 부회장에 취임했다. 강 교수는 75개국 1,500여 명의 동 학회 회원이 참여한 지난 8월 15일의 선거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국제학회 부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김정룡 (의학과)

〈논문〉

1. Kwak MS, Lee DH, Cho Y, Cho EJ, Lee JH, Yu SJ, Yoon JH, Lee HS, Kim CY, Cheong JY, Cho SW, Shin HD, Kim YJ: Association of polymorphism in pri-microRNAs-371-372-373 with the occurrence of hepatocellular carcinoma in hepatitis B virus infected patients. PLoS One, 7(7):e41983, 2012.
2. Yu SJ, Yoon JH, Yang JI, Cho EJ, Kwak MS, Jang ES, Lee JH, Kim YJ, Lee HS, Kim CY: Enhancement of hexokinase II inhibitor-induced apoptosis i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s via augmenting ER stress and anti-angiogenesis by protein disulfide isomerase inhibition. J Bioenerg Biomembr, 44(1), 101-115, 2012.
3. Lee JH, Yoon JH, Cho EJ, Yang HJ, Jang ES, Kwak MS, Hwang SY, Yu SJ, Lee CH, Kim YJ, Kim CY, Lee HS: Simple scoring system predicting genotypic resistance during

rescue therapy for Lamivudine-resistant chronic hepatitis B. J Clin Gastroenterol. 46(3), 243-250, 2012.

〈학술회의〉

1. 대한간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2012. 6. 14-16.
2.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2012. 11. 22.
3. SIDDS 2012 및 대한소화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쉐라톤그랜드워커힐 호텔, 2012. 11. 22-23.

〈봉사활동〉

1. 1985. 1. 1-현재: 한국간연구재단 이사장 및 서울대학교 간연구소 특별연구원
2. 2009. 4-현재: 경주 김씨 종친회 부총재 역할 수행
3. 2008. 9-현재: 대한소화기학회 명예회장 역할 수행

〈기타 근황〉

1. 2012년 한국간연구재단 이사장으로서 서울대학교 간연구소 연구비(2억 9천만원) 지원 및 연구 참여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우수 연구지원 연구비(1천 5백만원) 기탁, 2012. 5. 14.
3. 호암상(1995년) 의학 분야 수상자로서 대학간학회 호암상 수상 기념특강 선정 및 경비 지원, 2012. 11. 22.

김주현 (의학과)

〈학술회의〉

1. 김재현, 이애란, 윤유상, 김주현: Analysis of automated early warning score system in Dong Nam Cancer Hospital.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44차 학술대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부산롯데호텔, 2012. 11. 1-3.
2. 전재현, 김혜선, 성용원, 박인규, 강창현, 김영태, 김주현: Long-term clinical outcomes of 184 cases of thymoma: Analysis for prognostic factors and lymph node dissection.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44차 학술대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부산롯데호텔, 2012. 11. 1-3.
3. 김혜선, 강창현, 전재현, 성용원, 박인규, 김영태, 김주현: Port-switching four-arm robotic esophageal dissection on high mediastinal lymph node dissection. 대한흉부심장혈관외

과학회 제44차 학술대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부산 롯데호텔, 2012. 11. 1-3.
4. 윤유상, 김재현, 김주현: 폐암 환자의 폐엽절제술에서 Da vinci Robot 를 환자의 등 뒤에 위치시켜 시행한 수술의 유용성.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제44차 학술대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부산 롯데호텔, 2012. 11. 1-3.

윤재일 (의학과)

〈논문〉

1. B Choe, YJ Hwang, HJ Hahn, JW Jung, YW Lee, KJ Ahn, JI Youn: A comparison of serum inflammatory cytokine according to phenotype in patients with psoriasis. Brit J Dermatol, 167(10), 762-767, 2012.
2. HH Kwon, IH Kwon, JI Youn: Clinical study of psoriasis occurring over the age 60. Is elderly onset psoriasis a distinct subtype? Int J Dermatol, 51(1), 53-58, 2012.
3. HH Kwon, SJ Na, SJ Jo, JI Youn: Epidemiology and clinical features of pediatric psoriasis in tertiary referral psoriasis clinic. J Dermatol, 39(3), 260-264, 2012. 12.
4. 윤재일: 나와 건선 그리고 대한건선학회. 대한건선학회지 9(1), 1-10, 2012. 12.
5. 박선용, 나선재, 조성진, 송영욱, 윤재일: 대한건선학회지 9(1), 30-33, 2012. 12
6. 황은정, 나선재, 조성진, 윤재일: 대한건선학회지 9(1), 37-41, 2012. 12

〈강의 및 특강〉

1. Facial Psoriasis. Johns Hopkins University, 2012. 5. 4.
2. Facial Psoriasis. 16차 함춘심포지엄, 서울대학교병원, 2012. 8. 25.
3. 건선. 대한피부과학회 경기지부회, 평촌 한림대학교병원, 2012. 9. 11.
4. 나와 건선 그리고 대한건선학회. 제16회 대한건선학회, 인터콘티넨탈호텔, 2012. 9. 15.
5. Facial Psoriasis Second Psorsummit. 인터콘티넨탈호텔, 2012. 9. 16.
6. 건선의 치료. 중앙대학교병원 피부과, 2012. 10. 5.
7. 건선. 고신대학교대학원 부산고신대병원, 2012. 11. 9.
8. 건선. 세계건선의날 기념 시민건강강좌, 삼성의료원, 2012. 10. 24.
9. 건선의 관리. 세계건선의날 기념 시민건강강좌, 국립의료원, 2012. 10. 25.

이부영 (의학과)

〈저서〉

1. “한국의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 고통과 치유의 상징을 찾아서. 총 785쪽, 한길사, 2012. 1. 20.
2. “노자와 융 - 도덕경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총 356쪽, 한길사, 2012. 8. 30.

〈기타 근황〉

1. 한국융연구원 예비과정 수료시험 시험위원. 2012. 2. 12.
2. 제13회 동아시아문화정신의학회 심포지엄. 〈주제: 동아시아의 유교문화와 정신건강〉, 한국융연구원에서 개최(좌장), 2012. 3. 8-10.
3.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강당에서 매주 목요일에 ‘이부영의 분석심리학’ 강의, 총 7회(21시간). 2012. 4. 26-5. 10.
4.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기증자 명패제막식 초청. 2012. 4. 23.
5. 한국분석심리학회 주관 C.G. 융 서거 5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장소: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C.G. 융의 대극관과 그 합일의 상징〉 발표. 〈한국의 샤마니즘과 분석심리학(이부영), 한길사〉, 〈한국융연구원 연구총서 제 1권: 분석심리학과 기독교신비주의(김성민), 학지사〉 출판기념회, 2012. 5. 12.
6. 서울의대 정신과 2년차 전공의 정신치료 교육. 2012. 5. 17.
7. 한국융연구원에서 개최한 한국인물전기학회 학술집담회에서 〈C.G. 융의 생애와 사상〉 발표. 2012. 5. 25.
8.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교양강좌, ‘예술과 의술: 치유의 기능을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B 강당에서 강의, 2012. 7. 16.
9. 한국융연구원 예비과정, 분석심리학 기초개념 세미나. 2012. 9. 4.
10. 한국자살예방협회 종합학술대회 주제강연, 제목: 자살 - 분석심리학적 측면에서. 서울교육문화회관, 2012. 9. 10.
11. 한국융연구원 강의. ‘그림 해석’, 2012. 9. 18.
12. 한국융연구원 전문과정 지도분석사례 집단지도. 2012. 11. 23 및 11. 30.

이순형 (의학과)

〈학술회의〉

1. 한국건강관리협회 제12회 학술대회. 2012. 4. 18.
2. 기초의학 제20차 학술대회. 2012. 4. 20.
3. 서울의대 통일의학 심포지엄. 2012. 6. 11.
4. 대한민국 해외의료원조포럼. 2012. 7. 4.
5. 제53회 한림심포지엄: 한반도 말라리아현황과 향후전망. 2012. 10. 10.
6. 대한기생충학회 및 열대의학 제54회 학술대회. 2012. 10. 25.
7. 제3회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관리심포지엄. 2012. 11. 7.
8. The 10th Asian Pacific Congress for parasitic zoonoses. Kobe, Japan, 2012. 10. 6-7.
9. Special Lecture of Taima Hospital. The outlines of public health and it's control in Korea. Nara, Japan. 2012. 10. 8.

〈강의 및 특강〉

1. 의용절지동물학. 서울의대 2학년. 서울의대 제2강의실, 2012. 4. 4.
2. 장흡충증. 대학원의학과.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회의실, 2012. 6. 1.

〈봉사활동〉

1. 학술원: ① 임원회. 2012. 2. 8, 3. 2, 4. 6, 5. 4, 6. 8, 9. 7, 10. 5, 11. 2, 12. 7. ② 우수도서 선정위원회. 2012. 4. 3/4. 10. ③ 국제교류협력위원회. 2012. 5. 9, 8. 1, 10. 5, 12. 7. ④ 자연4분과회장 연임. 2012. 9. 22. ⑤ 독감예방접종시행. 2012. 10. 19.
2. 서울의대: ① 기초의학명예교수 및 주임교수 간담회. 2012. 1. 13. ② 전임학장세미나. 2012. 2. 20. ③ 서울의대 동창회 동기회장회의. 2012. 8. 25. ④ 서울의대 제16회 동기동창회. 졸업50주년기념행사. 2012. 10. 17-20.
3. 유전체의학재단 이사회. 2012. 2. 29.
4. 신풍호월상(국제봉사상)심사위원회. 2012. 8. 24, 9. 20.

장윤석 (의학과)

〈봉사활동〉

1. 대만의 Taipei에서 개최된 제51회 대만산부인과학회에 동학회 명예회원 자격으로 참석하

고 국제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았음. 또한 Banquet에서 축사를 하였음. 2012. 3. 2-5.
2. 휘지에서 개최된 아세아 · 오세아니아 산부인과연맹 (AOFOG)의 Council Meeting(2012)에 동연맹 전회장자격으로 참석하였음. 2012. 6. 21-25.
3. 일본의 가고시마에서 개최된 제36회 일본산부인과 영양대사학회 및 동 이사회에 동학회 고문자격으로 참석하였음. 2012. 8. 21-24.
4. 일본의 오사까에서 개최된 제4회 아세아 · 태평양 생식의학회 (ASPIRE) 및 제30회 일본수정착상학회에 동학회 명예회원자격으로 참석하였음. 2012. 8. 30-9. 3.
5. 일본의 삿뽀로에서 개최된 혹가이도대학 명예교수이며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명예회원이신 Fugimoto Seiichiro교수의 교실장례식(2012년 11월 24일 별세)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였음. 2012. 12. 19-20.

〈기타 근황〉

1. 대한의학회가 주관하는 "명예의 전당"에 봉헌됨. 2012. 3. 29.
2. 일본의 고베에서 개최된 제64회 일본산부인과학회 및 동이사회에 동학회 명예회원자격으로 참석하고 총회석상에서 22년간 한일산부인과학회에 끼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받았음. 2012. 4. 12-16.

정명희 (의학과)

〈논문〉

1. Lee MJ, Lee JK, Choi JW, Lee CS, Sim JH, Cho CH, Lee KH, Cho IH, Chung MH, Kim HR, Ye SK: Interleukin-6 induces S100A9 expression in colonic epithelial cells through STAT3 activation in experimental ulcerative colitis. PLoS One, 7(9), e38801, 2012.
2. Lee CS, Yi EH, Lee JK, Won C, Lee YJ, Shin MK, Yang YM, Chung MH, Lee JW, Sung SH, Ye SK: Simvastatin suppresses RANTES-mediated neutrophilia in poly I:C-induced pneumonia. Eur Respir J, doi: 10.1183/09031936.00050612, 2012.

〈강의 및 특강〉

1. 제1회 삼성메디슨 전문인력을 위한 단기 의학교육. 삼성메디슨 강당, 2012. 2. 18-22.

지제근 (의학과)

〈저서〉

1. 박진서, 신동선, 유임주, 이경민, 정민석, 지제근, 황세진: 핵심신경해부학. 총 201쪽, 한미의학, 2012. 7.

〈논문〉

1. Kwon DH, Kim JM, Oh SH, Jeong HJ, Park SY, Oh ES, Chi JG, Kim YB, Jeon BS, Cho ZH: Seven-Tesla magnetic resonance images of the substantia nigra in Parkinson disease. Ann Neurol, 71(2), 267-277, 2012.
2. Son YD, Cho ZH, Kim HK, Choi EJ, Lee SY, Chi JG, Park CW, Kim YB: Glucose metabolism of the midline nuclei raphe in the brainstem observed by PET-MRI fusion imaging. Neuroimage, 59(2), 1094-1097, 2012.
3. Calamante F, Oh SH, Tournier JD, Park SY, Son YD, Chung JY, Chi JG, Jackson GD, Park CW, Kim YB, Connelly A, Cho ZH: Super-resolution track-density imaging of thalamic substructures: Comparison with high-resolution anatomic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at 7.0T. Hum Brain Mapp, doi: 10.1002/hbm.22083.
4. Cho ZH, Kang CK, Son YD, Choi SH, Lee YB, Paek SH, Park CW, Chi JG, Calamante F, Law M, Kim YB: Pictorial review of in vivo human brain: From anatomy to molecular imaging. World Neurosurgery, doi: 10.1016/j.wneu.2012.10.020.

〈기고문〉

1. 의학논문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뉴스레터 통권 6호, 1-2, 2012. 9.

〈강의 및 특강〉

1. 서울대학교 핵심교양과정: 사람뇌의 구조와 기능. 신경해부학 12시간, 2012. 9. 14, 9. 21, 9. 28일.
2.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기초과정 2회, 고급과정 1회 주관 및 강의
3.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통역사 양성과정. 의학용어(I 및 II). 총 27시간, 2012. 4. 24-9. 4.
4.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랍어 의료통역사 예비과정: 의학용어 총 21시간.
5. 강릉대학교 치과대학 2학년 병리학 강의 '순환장애'. 2012. 5. 13.
6. 신경해부학 통합강좌. 대한의학회, 기초과정, 신경해부학개관, 단면 및 실습 2일 과정 총

10시간, 연세대학교의과대학, 2012. 7. 17-18, 12. 14-15.
7.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해부학, 2012. 11. 15.
8. 국립암센터 특강. 우리말 의학용어 바로쓰기, 2012. 10. 10.
9.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발생학. 한양대 계단강의실, 2012. 9. 25.
10. 건국의학전문대학원 신경생물학. 2012. 8. 6.
11. 경북의학전문대학원 특강(신경해부학). 2012. 4. 8.
12. 서울의대 신임교수 워크숍 특강(의학용어 바로알고 사용하기). 2012. 5. 20.
13. 대한신경영상의학회 특강: Central Intercommissural Line. 서울성모병원 임상강의실, 2012. 7. 11.

〈학술회의〉

1. NRI-UPENN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가천대뇌과학연구소 강당, 2012. 6. 15.
2. NRI-Mayo Clinic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가천대뇌과학연구소 강당, 2012. 7. 18.
3. NRI-USC International Joint Symposium on Neuroimaging. Experience on Brain Atlas on 7.0T MRI and Tractography, 가천대뇌과학연구소 강당, 2012. 8. 29.
4. 2nd Fetal Treatment Center Workshop. Embryology and Anatomy of Central Nervous System, 서울아산병원 강당, 2012. 7. 8.

〈봉사활동〉

1. 대한의학회 고문, JKMS 자문위원
2. 분쉬의학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3. 통계청 질병분류회의, 2012. 5. 31.
4. 한국의과대학장형의회 Deanship Academy 자문위원
5. 제석재단 이사, 장학생선발 및 연구비 심사, 2012. 1.
6.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부회장 및 이사.
7. 화이자의학상운영위원회 위원장, 2012. 9. 8.
8.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 월 1회.
9. 의인성 CJD 자문위원회, 2012. 1. 17, 5. 8, 9. 12.
10.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Editorial Consultant.

치의학대학원

고재승 (치의학과)

〈학술회의〉

1. 대한골대사학회 2012년 연구위원회 동계 워크숍 참석,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 2012. 2. 24.
2. 대한치의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참석, 백범김구기념관, 2012. 2. 26.
3. UCLA치과대학 한국동문회 학술강연회 참석,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2. 3. 24.
4. 제20회 기초의학 학술대회 참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2012. 4. 26.
5. 학술원 학술세미나 참석, 대한민국학술원, 2012. 5. 10.
6. 대한골대사학회 2012년 연구위원회 춘계 워크숍 참석, 서울아산병원, 2012. 5. 25.
7. 대한골대사학회 제24차 춘계학술대회 참석, 서울아산병원, 2012. 5. 26.
8. 학술원 제39회 국제학술대회 참석, 대한민국학술원, 2012. 10. 19.
9. 학술원 정책토론회 참석, 대한민국학술원, 2012. 11. 9.
10. 대한골대사학회 2012년 연구위원회 추계 워크숍 참석, 서울아산병원, 2012. 11. 16.
11. 대한골대사학회 제24차 추계학술대회 참석, 서울아산병원, 2012. 11. 17.
12. 대한기초치의학협의회 제11회 학술대회 참석 및 해외연자 좌장,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2. 11. 23.
13. 대한구강해부학회 제35차 학술대회 참석,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2012. 11. 24.
14. 국제치과연구학회 한국지부회(IADR/KADR) 학술대회 참석,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2011. 11. 30-12. 1.
15. Choung H, Lee J, Oh HJ, Lee H, Ko J, and Park J: The effect of preameloblast-conditioned medium on dental pulp regeneration. 90th General Sess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Research (IADR), Brazil, Iguacu Falls, 2012. 6. 21.

〈강의 및 특강〉

1. "타액선의 조직학".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학년 강의, 2012. 5. 14.
2. "생리적 치아이동-맹출과 탈락 및 악골".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학년 강의, 2012. 9. 28.
3. "Overview of Bone Biology". 한국치주과의사회 강의,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0. 22.
4. "Bone Regeneration by Graft Strategies". 한국치주과의사회 강의,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1. 26.

5. 대한구강해부학회 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 특강. “Bone Philosophy-골에서 읽는 삶의 방식”, 그랜드앰버서더 서울호텔, 2012. 11. 1.

〈봉사활동〉

1.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선정 분야별 심사위원, 2012. 4. 3-17.
2. 대한민국학술원 간행물편집위원회, 2012. 6. 13, 11. 16.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2012. 5. 16.
4.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2012. 10. 8.

김명국 (치의학과)

〈저서〉

1. 김명국 외 21인: 구강해부학(제7판). 총 557쪽, 고문사, 2012. 2. 25.

〈학술회의〉

1. 제55회 대한체질인류학회. 경북 문경 STX 리조트, 2012. 5. 17-18.
2. 격려사. 한국현미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2012. 5. 24-25.
3. 제62회 대한해부학회학술대회. 부여 롯데리조트, 2012. 10. 17-18.
4. 대한구강해부학회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호텔, 2012. 11. 1.
5. 격려사. 제43차 한국현미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류광사홀, 2012. 11. 22-23.
6. 제35차 대한구강해부학회 학술대회 및 총회. 경희대학교 치의학대학원, 2012. 11. 24.
7. 제117회 일본해부학회 학술대회. 야마시나현 고후시 야마나시대학, 2012. 3. 26-28.
8. 제124회 미국해부학회 학술대회. 미국 San Diego 컨벤션센터, 2012. 4. 21-25.
9. 제54회 일본치과기초의학회 학술대회.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시오우대학 치학부, 2012. 9. 14-16.

〈특강〉

1. 대한구강해부학회 창립50주년기념 학술대회. 대한구강해부학회 -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 2012. 11. 1.

〈기타 근황〉

1.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후보자 심사. 서울 그랜드앰버서더호텔, 2012. 3. 16.
2. 대한구강해부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공로패 수상. 2012. 11. 1.

김영수 (치의학과)

〈기타 근황〉

1. Zircon Prettau 특별강연회 참석, Zirco Zahn,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2. 1. 8.
2. David Kim Dynablast 강연회 참석,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2. 1. 28.
3. 대한치과의사협회 노인틀니 보험 급여 공청회 참석, KDA, 2012. 2. 29.
4.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상 심사, Ambassador Hotel, 2012, 3. 16.
5. 제115기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과정 참석, 울릉도 및 독도, 2012. 4. 18-20.
6.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회 및 대의원총회 참석, 세종대 광개토관, 2012. 4. 20-21.
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주한 일대사 무토마사히토 초청 제4회 국정포럼 참석, Acada, 2012. 5. 17.
8. 총의치보철급여대비 교합학회 특별강연. “무치악이란 난제”, 대한치과교합학회, 가톨릭대, 2012. 6. 6.
9. 대한치과보철학회 교육지도의 workshop참석, 평창 휘닉스파크, 2012. 8. 28.
10. 대마도 역사탐방, 독도연구원 Acada 49기 공동, 2012. 9. 5-7.
11. 제5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인 대상 시상식 참석, 롯데호텔, 2012. 11. 30.
12. 발명자: 김영수, 구옥경, Screw hole inclined fixture, 출원번호(2011-010315) 2011년 누락분.

〈논문〉

1.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of immediately loaded dental implant placed in the anterior maxilla. Int J Maxillofacial Implants, 27(2), 295-302, 2012.

〈봉사활동〉

1. 독도 연구원 자문위원.
2. 행정대 국가정책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3. 서울대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
4. Ophir Fromovich NobelActive 강연회 좌장, 주식회사신흥,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2012.

1. 15.
5. 신흥 Implant Dentistry, 강연session 좌장, 2012. 9. 23.
6. 대한치과교합학회 연례 학술대회 좌장, 서울 아산병원, 2012. 10. 28.

양재호 (치의학과)

〈학술회의〉

1.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 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특강연자 좌장, 세종대 광개토관 2012. 3. 17-18.
2. 대한치과보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및 특강연자 좌장, 세종대 광개토관, 2012. 4. 21-22.
3. 대한치과보철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심사위원. 세종대 광개토관, 2012. 11. 24-25.
4. 오스템 임플란트 심포지엄 참석. 서울코엑스, 2012. 6. 10.
5. 서울시 치과의사회의사회 종합학술대회 참석. 2012. 6. 23-24.
6. 네오바이오텍강연회 참석. 세종대 광개토관, 2012. 10. 7.
7. 서울대학교치과보철학교실 특강 참석

〈봉사활동〉

1. Sensors 잡지(SCIE) 논문심사위원(Peer Reviewer).

〈기타 근황〉

1.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과보철학교실 신년하례식 참석, 2012. 1. 2.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간담회 참석, 교수회관, 2012. 5. 16.
3. 서울대학교 치과보철학교실 야유회 참석, 옛골토성, 2012. 6. 2.
4. 미국 U.S.C. 치과대학방문, 2012. 8. 5-13.
5.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창립90주년 참석. 2012. 10. 7.
6.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특수법인화 8주년 기념식 참석, 2012. 10. 12.
7.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첨단교육연구복합단지 및 치과병원 첨단의료센터 신축기공식 참석, 2012. 12. 3.
8.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67회 졸업생 사은회 참석, 2012. 12. 21.

행정대학원

노화준 (행정학과)

〈봉사활동〉

1.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위원장: 국무총리), 2009. 4. 17-2012. 12. 31.
2. 한국행정연구원 자문위원장, 2010. 4-2012. 10.

〈학술회의〉

1. 「복잡적응시스템에 있어서 창발현상과 생성적 리더십」. Asia Triple Helix 학회 특강, 2012. 6. 28.
2.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창발형상에 대한 이해 - 정책과정에서의 복잡성 개념의 활용」.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하계학술대회 워크숍, 2012. 7. 6.
3. 「정책의 새로운 생각」. 한국정책포럼 특강, 2012. 11. 23.
4. 정책정보공유의 과제와 전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논문발표, 2012. 10. 16.
5. 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Confernece 참석, 미국 Minnesota 주 Minneapolis 시, 2012. 10. 23-27.

〈보고서〉

1. 「한국의 새마을운동: 결과지향적 관리와 자체조직화 활동 간의 조화」. 공동연구(노화준 · 고길곤), 한국행정연구원, 2012. 4. 20-9. 19.

〈저서〉

1. 「한국의 새마을운동: 생성적 리더십과 사회적 가치의 창발」. 총 205쪽, 법문사, 2013. 1. 25.

   [내용] 이 책은 공동연구인 「한국의 새마을운동: 결과지향적 관리와 자체조직화 활동 간의 조화」의 연구부문을 Triple Helix 이론과 사회적가치를 도입하여 수정 · 보완 · 발전시킨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최고정책결정자, 정부조직의 공무원 및 농촌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등 세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가를 분석하여 이론화하였고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사회 · 테크놀로지 · 환경시스템 통합모형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환경대학원

김안제 (환경계획학과)

〈저서〉

1. 김안제: 상용한자 이천자문(常用漢字 二千字文). 총 231쪽, 보성각, 2012. 3. 1.
   [내용] 상용한자 1,800자와 필자가 추가로 선정한 200자를 합친 2,000자를 가지고 중국의 원래 천자문을 기본 모형으로 삼아 새로운 '이천자문'을 편찬하였음. 글자마다 뜻과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그 글자의 중국어 발음과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자(簡體字)를 명기하였으며, 같은 의미의 영문 단어도 기입하였음. 그리고 8자 2구 1절을 한 단위로 하여 전체가 뜻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해설하고, 이들 총 250절을 같은 유형끼리 모아 '우주창생(宇宙創生)'에서 '생애결산(生涯決算)'까지 25종으로 분류하여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음.

〈논문〉

1. 총선과 지방자치의 상생발전. 자치발전. 8-9쪽, 2012. 4.
2. 창조경제시대의 세종시와 대한민국 발전방안. 자치발전, 8-9쪽, 2012. 10.

〈학술회의〉

1. '세종시 출범에 따른 신수도권 발전방안' 사회. 뉴스 원, 세종시건설청 대강당, 2012. 7. 20.
2. '지방분권과 헌법',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회의 사회. 대전대학교 국제회의장, 2012. 8. 30.
3. '창조경제시대의 세종시와 대한민국 발전방안' 기조연설. 한국경제신문사 · 대전일보사, 대전 컨벤션센터, 2012. 9. 5.
4. '도시재생정책의 새로운 변화 필요성' 기조연설.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부천시청 대회의실, 2012. 10. 9.
5. '글로벌시대에 국가와 지역의 발전전략' 사회. 경북도립대학, 예천군 문화회관, 2012. 11. 16.

〈특강〉

1. 정치와 국민. 새재비즈포럼, 서울앰베서더호텔, 2012. 6. 18.
2. 부덕예찬론. 문경대학교 문경여자대학원, 문경여성회관, 2012. 7. 3.
3. 덕성의 득과 실. 한국서화작가협회, 춘천 강촌서울시립대학교 수련원, 2012. 9. 6.

4. 세종시 출범과 국토균형발전. 대구 · 경북연구원, 대구 · 경북연구원 강당, 2012. 9. 25.
5.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사명과 역할. 울산시, 울산 MBC컨벤션, 2012. 10. 16.
6. 시대정신을 구현할 후보는 누구인가?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양지병원 대강당, 2012. 11. 7.
7. 자녀성장과 부모역할. 광명시, 광명시민회관, 2012. 12. 27.

〈봉사활동〉

1. 총재. 한국서화작가협회, 2012. 1. 1-12. 31.
2. 원장.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12. 1. 1-12. 31.
3. 상임고문. 한국지역발전연구원, 2012. 1. 1-12. 31.
4. 고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12. 1. 1-12. 31.
5. 고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1. 1-12. 31.
6. 고문. 문경문화원, 2012. 1. 1-12. 31.
7. 고문. 미래대전기획위원회, 2012. 1. 1-12. 31.
8. 고문. 밝은사회실천전국연합, 2012. 1. 1-12. 31.
9. 명예도민, 제주특별자치도, 2012. 1. 1-12. 31.
10. 명예시민, 미국 라스베이거스시, 2012. 1. 1-12. 31.
11. 자문위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2012. 1. 1-12. 31.
12. 정책자문위원, 의왕도시공사, 2012. 1. 1-12. 31.
13. 고문. 새재비즈포럼, 2012. 6. 18-12. 31.
14. 위원. 국방부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2012. 7. 12-12. 31.
15. 고문.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2012. 7. 24-12. 31.
16. 고문.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밝은사회실천특별위원회, 2012. 11. 3-12. 31.
17. 명예시민. 세종특별자치시, 2012. 12. 26-31.

〈기고문〉

1. 공직자의 사자성어. 자치발전, 월간지, 2012년 1월호-12월호, 12편.
2. 사자성어 경영. 경영계, 월간지, 2012년 1월호-12월호, 11편.
3. 어린이 사자성어. 통일어린이마당, 월간지, 2012년 1월호-12월호, 12편.
4. 수상문. 주간문경, 주간신문, 2012. 1. 1-12. 31, 36편.
5. 발간사. 한국서화작가협회 제31회 회원 및 초대작가전 도록, 5쪽, 2012. 3. 21.
6. 저서 해제: 하늘의 뜻 인간의 삶. 문경문원 I , 국학연구회 편, 577-582쪽, 2012. 5. 10.
7. 칼럼: 세종과 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123-124쪽, 제7호, 2012. 5. 18.
8. 발간사. 한국서화작가협회 제29회 한국서화예술대전 도록, 5쪽, 2012. 7. 6.

보건대학원

김정근 (보건학과)

〈저서〉

1. 김정근, 김영란: “세계 양치식물”. 총 396쪽, 양동출판사, 2012. 12. 28.
   [내용] 세계에 분포한 약 1만2천 종의 양치식물(고사리류) 중 저자가 수십년간 접하고 가꾸어 온 125속 730종 정도를 실물사진과 함께 간단하고 쉽게 수록. 이 책은 2005년 3월에 나온 “꽃보다 아름다운 고사리의 세계”를 보충 교정한 의미가 있음.

백남원 (환경보건학과)

〈보고서〉

1. 윤충식, 백남원, 유일재, 안강호, 최진희: 배출원 주변 대기환경 중 나노물질의 모니터링 기법연구.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원기관: 국립환경과학원, 2012. 11. 30.

〈특강〉

1. 한국의 산업보건.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2012. 11. 29.

〈기타 근황〉

1. 환경부.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위원. 2012. 6. 1-2015. 5. 31.
2. 삼성전자(주). 보건관리개선 자문단 자문위원. 2012. 3-2013. 2.

4부 | 명예교수 현황

1. 명예교수 동정

명예교수 동정은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보(2012. 4~2013. 3월호), 서울대 소식 등에서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이미 본 회보의 명예교수 학술활동란에 보고된 내용 중 시상, 수상, 인사, 행사에 관한 것은 명예교수 동정에 모아 가급적 중복 게재를 피했습니다. 새로운 '동정란 자료'를 본 협의회 사무실(전화 02-880-9019 또는 이메일 seohee32@snu.ac.kr)로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시상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3. 21, 서울미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서화작가협회 주최 제31회 회원 및 초대작가전에서 대상을 시상함.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7. 6, 서울미술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서화작가협회 주최 제29회 한국서화예술대전에서 대상을 시상함.
- 이희근(자원공학과): 2012. 10. 17,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逸巖) 논문상' 시상.
- 한송엽(전기공학부): 2012. 11. 22-23,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한국공학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송엽공학교육상' 시상.
- 김영수(치의학과): 2012. 12. 6, 인도 첸나이에서 개최된 제8회 아시아 보철학회 초대 회장상 Kim Award 시상.

2) 수상

- 박성익(교육학과): 2012. 1. 3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우수연구상 수상.
- 김명국(치의학과): 2012. 2. 20,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 치의학대학원으로부터 '자랑스런 서울대학교 치과인상' 수상.
- 홍원탁(경제학부): 2012. 5. 2, 제21회 인문사회부문 수당상 수상.
- 오생근(불어불문학과): 2012. 5. 12, 편운 조병화시인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22회 편운문학상(평론부분) 수상. 2012. 6. 20, 비평집 '위기와 희망'으로 제23회 팔봉비평문학상 수상.
- 이정전(환경계획학과): 2012. 7. 12, 제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 최만린(조소과): 2012. 9. 5, 서울 반포4동 예술원에서 제57회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부문) 수상.
- 최길수(의학과): 2012. 9. 8, 한국인 최초로 세계신경외과학회가 수여하는 명예훈장 수상.
- 김윤식(국어국문학과): 2012. 9. 14, 제1회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문학상 시상식에서 황순원문학연구상 수상.
- 유정열(기계항공공학부): 2012. 9. 17, 제57회 대한민국학술원상(자연과학 응용 부문) 수상.
- 김경동(사회학과): 2012. 10. 3, 안동시 '안동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로운 안동인상' 수상.
- 이정인(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12. 10. 12,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선양장미상

(The Rose Prize of Shenyang) 수상.

- 고광호(약학과): 2012. 10. 23, 대한약학회 약학교육상 수상.
- 신광순(수의학과): 2012. 10. 27, 한국서예가협회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예서 부문 입선.
- 정원식(교육학과): 2012. 11. 7, 사단법인 천원(天園) 오천석기념회의 제22회 천원교육상 학술연구부문 수상.
- 장창두(산업조선공학부): 2012. 11. 15, 대한조선학회 STX 학술상 수상.
- 안삼환(독어독문과): 2012. 11. 16, DAAD 독일교류처에서 수여하는 '야콥 및 빌헬름상' 수상.
- 김신복(행정학과): 2012. 11. 21,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전통의 월계관상(Legacy Laureate)' 수상.
- 김영수(치의학과): 2012. 11. 30,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로부터 제5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인대상(보건의료부문)' 수상.
- 한영우(국사학과): 2012. 11. 30, 민세 안세홍(民世 安在鴻) 선생 기념사업회로부터 제3회 민세상(학술연구 부문) 수상.
- 오세영(국어국문학과): 2012. 12. 7, 경주시와 동리목월기념사업회가 공동 수여하는 제5회 목월문학상 수상.
- 이기화(지구환경과학부): 2013. 3. 1, 제54회 3 · 1문화상 학술상 자연과학부문 수상.
- 안휘준(고고미술사학과): 2013. 3. 8, 제19회 연세대 용재학술상 수상.
- 김철수(법학과): 2013. 3. 15, 서울대 총동창회 제15회 관악대상 수상.

3) 인사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6. 18, 새재비즈포럼의 고문으로 추대됨.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7. 12, 국방부의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 권숙일(물리천문학부): 2012. 7. 13, 임기 2년의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에 선출.
- 김상구(생명과학부): 2012. 7. 13, 대한민국학술원(자연과학부 제2분과) 회원에 선임.
- 신용하(사회학과): 2012. 7. 13, 대한민국학술원(인문·사회과학부 제5분과) 회원에 선임.
- 한상복(인류학과): 2012. 7. 13, 대한민국학술원(인문·사회과학부 제3분과) 회원에 선임.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7. 24, 문경시의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됨.
- 조용민(물리천문학부): 2012. 8. 27, 건국대학교 석학교수에 임용.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11. 3,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밝은사회실천특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됨.
- 조한익(의학과): 2012. 11. 22, 서울 가든호텔에서 열린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재선임.
- 문용린(교육학과): 2012. 12. 19, 서울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

• 신동소(산림과학부): 2012. 12. 22, 재단법인 소호문화재단 이사장 추대.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12. 26, 세종시 명예시민으로 선정.
• 김안제(환경계획학과). 2012. 12. 26,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예시민으로 위촉됨.
• 최성재(사회복지학과): 2013. 2. 19,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임용.
• 고광호(약학과): 2013. 3. 1,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 정명희(의학과): 2013. 3. 1,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원장 2년 연임.
• 김광억(인류학과): 2013. 3. 8, 제19회 연세대 용재석좌교수 선임.

4) 행사

• 박병호(법학부): 2012. 4. 17~5. 1, 한전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모교 법대 정종섭(법학부) 학장과 함께 '사제동행(師弟同行)'을 주제로 서예전 개최.
• 윤계섭(경영학과): 2012. 5. 30,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으로서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 김귀곤(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2012. 6. 16~19, 도시환경협약 사무총장으로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유엔 Rio+20 지속가능발전 회의에 참석해 도시 CDM(청정개발메커니즘)과 지속가능 커뮤니티 개발에 관한 주제 발표.
• 서계숙(기악과): 2012. 9. 27,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제자 6명 등과 함께 음악회 개최.
• 김철수(법학부): 2012. 10. 12,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팔순기념 논문집 '헌법과 기본권의 현황과 과제' 봉정식 개최.
• 유 훈(행정학과): 2012. 10. 29,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기천 형법학의 재조명'을 주제로 제8회 월송(月松) 기념 학술심포지엄 개최.
• 박성수(교육학과): 2013. 2. 13~14, 한국상담과학학회장으로서 서울사이버대 차이콥스키홀에서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밀러 뉴멕시코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퀀텀 체인지(Quantum Change)'를 주제로 특별포럼 개최.
• 신수정(기악과): 2012. 12. 29,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홀에서 '겨울나그네'를 주제로 송년음악회 개최.
• 이승훈(경제학부): 2013. 2. 20, 헤럴드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주최 '국민행복시대 경제정책 방향' 주제로 토론 좌장을 맡음.
• 윤계섭(경영학과): 2013. 1. 23,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 임효재(고고미술사학과): 2013. 1. 31~2. 5, 일본 후쿠오카 리갈로호텔 국제회의장에서 개막한 '오키노시마(冲島) 세계문화유산 국제전문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

5) 출판

• 김준호(생명과학부): 2012. 7. 27, '어느 생물학자의 눈에 비친 지구 온난화', 서울대 출판문화

원에서 출간.

- 변형윤(경제학부): 2012. 12. 16,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학현 변형윤 전집' 9권과 대화록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을 앓다' 출간기념회 개최.
- 이광규(인류학과): 2012. 12. 28, 동북아 문화공체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
- 이기석(지리교육과): 2012. 12. 31, 두만강 하구 녹둔도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출간.
- 한영우(국사학과): 2013. 1. 7, 조선시대 양반뿐 아니라 평민과 서얼 등도 과거에 합격했음을 증명하는 연구서 '과거, 출세의 사다리'(지식산업사) 출간.
- 김윤식(국어국문학과): 2013. 1. 22, 소설가 고 박완서 작가의 2주기를 기념해 추모글을 담은 '내가 읽은 박완서'(문학동네) 출간

2. 모교 강의 담당 명예교수 현황

1) 2012학년도 1학기 담당 교과목 및 학점

강의 기간: 2012. 3. 1~2012. 8. 31.

성 명	대 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홍재성	인문대학	협동과정 인지과학전공	인지과학연습 1	3
송영배	인문대학	철학과	도가철학연습	3
김문환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사회학	3
김문환	인문대학	미학과	현대미학연구 2	3
최인수	미술대학	조소과	시간·공간·질서연구 1	4
강사준	음악대학	국악과	국악기악실기	3
김성길	음악대학	성악과	성악실기	6
송문섭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학의 개념 및 실습	3
김선화	음악대학	국악과	국악기악실기	3
김성기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급회계2	3
김성기	경영대학	경영학과	중급회계1	3
임강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정책연구	3
홍영남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전 준	미술대학	조소과	조형연습	4
이정전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토지경제학	3
노승탁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열역학	3
김동건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비용 편익 분석 연구	3
김동건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재정학	3
한기상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독일문학의 이해	3
정재명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이상억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3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정보통신경제학	3

성 명	대 학	학과	담당 교과목	학점
이계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진균	공과대학	건축학과	건축설계스튜디오 4-1	5
유병림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재식설계	3
이정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3
허우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아메리카지리	3
윤계섭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원론	3
이동규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수치모델링및예측 1	3
이승훈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미시경제이론	3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과 사회이론	3
방석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산업정책	3
신광석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건축과 장식연구	4
전종갑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규모대기역학	3
김정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마음의 탐구	3
장정익	음악대학	작곡과	조성음악문헌연구	3
장정익	음악대학	작곡과	한국현대음악연주	2
박삼옥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자원론	3
이정빈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법의학	3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기초생물학 1	1
김정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대기관리모형연구	3
양병이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한국조경론	3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실험계획 및 실습	3
지동표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카오스와 동역학계	3
신국조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화학 1	3
안태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최몽룡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문명의 기원	3
이승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수확물관리학 및 실험	3
이연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생리학	3
임종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관리	3
권병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고체지구물리학및실험 1	3
유정열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비점성유동	3
김기호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주거환경설계	3

학점 계 : 167

2) 2012학년도 2학기 담당 교과목 및 학점

강의 기간: 2012. 9. 1~2013. 2. 28.

성 명	대 학	학 과	담당 교과목	학점
김문환	인문대학	미학과	예술사회학	3
김문환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전공	공연예술미학	3
최인수	미술대학	조소과	시간·공간·질서연구 2	4
강사준	음악대학	국악과	국악기악실기	3
임강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통계획연구	3
홍영남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전준	미술대학	조소과	환경조각연구	4
이정전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공공경제학	3
최병헌	인문대학	국사학과	한국불교사특강	3
김동건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비용편익분석	3
한기상	사범대학	독어교육과	독일청소년문학	3
정재명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선형대수학	3
이상억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한국어와 한국문화	3
이천표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국제금융론	3
이계준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엄융의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우리 몸의 이해	3
유병림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여가공간설계	3
이정복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3
허우긍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인구지리학	3
윤계섭	경영대학	경영학과	경영학특강	3
이승훈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미시경제이론	3
정홍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문화정책	3
정홍익	기초교육원	기초교육원	현대한국사회론	3
방석현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방송통신정책	3
신광석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도예현장사례연구	3
전종갑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대기-해양역학	3
김정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마음의 탐구	3
장정익	음악대학	작곡과	현대음악문헌연구	3
한상진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3
박삼옥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지역혁신체계	3
이정빈	법과대학	법학부	법의학	3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기초생물학 2	1
김상구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김정욱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대기관리	3
양병이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문화와공간행태	3

성 명	대 학	학 과	담당 교과목	학점
박성현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통계적품질관리 및 실습	3
지동표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주제탐구세미나 2	3
안태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생물학	3
최몽룡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근동고고학	3
이승구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수확물생리학	3
이연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단백질대사	3
임종원	경영대학	경영학과	마케팅관리	3
김기호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도시장소와도시건축	2
황경식	인문대학	철학과	윤리학연습	3
최성재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개론	3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인적자원관리연구	3
김신복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기획론	3
강석호	공과대학	산업·조선공학부	산업공학개론	3

학점 계 : 143

3. 신규 명예교수 추대자 명단

1) 2012. 9. 1. 명예교수 추대

대학(원)	학과(부)	직 급	성 명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황경식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이홍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배성동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하영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박재윤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김수행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수	김광억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일섭
대학원(자연대)	통계학과	교수	정한영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박성애
대학원(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오수익
대학원(공대)	산업·조선공학부	교수	강석호
대학원(공대)	산업·조선공학부	교수	최항순
대학원(공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이호인
대학원(공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효택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현정오
미술대학	동양화과	교수	박노수

대학(원)	학과(부)	직 급	성 명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박성익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문용린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박성수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강순범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김상준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민양기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신희철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안효섭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윤재일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김신복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수	김주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수	김중수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교수	김영구
계			30명

2) 2013. 3. 1. 명예교수 추대

대학(원)	학과(부)	직 급	성 명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권두환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조남현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임한순
인문대학	동양사학과	교수	김영식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김남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안상진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김여수
인문대학	종교학과	교수	나학진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상섭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교수	표학길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	박명진
대학원(자연대)	물리 · 천문학부	교수	김정구
대학원(자연대)	물리 · 천문학부	교수	이상각
대학원(자연대)	화학부	교수	김희준
대학원(자연대)	생명과학부	교수	임정빈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박영숙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최명애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	민상기
대학원(공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신효철
대학원(공대)	산업 · 조선공학부	교수	이규열

대학(원)	학과(부)	직 급	성 명
대학원(공대)	산업 · 조선공학부	교수	이기표
대학원(공대)	산업 · 조선공학부	교수	정성진
대학원(공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길성
대학원(공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정태학
대학원(공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이은철
대학원(농생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하종규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임승빈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장수홍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우한용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이경식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이애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교수	이기영
약학대학	제약학과	교수	강삼식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박세원
음악대학	기악과	교수	김형배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김광현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박명희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서유헌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윤용범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우종인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	황기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최종고
계			42명

4. 전체 명예교수 명단(1962년 7월 20일~2013년 3월 1일)

1962년 7월 20일부터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로 추대된 이후 2013년 3월 1일 이전까지 활동하셨던/하시는 명예교수는 총 1,115분이다. 여기에는 대학별로 추대된 순서에 따라 그 명단을 배열, 기재하였고, 이미 작고(1962. 7. 20~2013. 3. 28)하신 298분은 성명 앞에 (*)표로 표지하며 삼가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오기나 누락으로 착오가 있으시면 본 회보편집위원회(02-880-9019 혹은 seohee32@snu.ac.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리과대학

*이병도(1962.07.20)　*이희승(1962.07.20)　*김상기(1962.07.20)　*박충집(1963.04.23)

*박종홍(1968.09.01) *이숭녕(1974.07.08) *권영대(1974.07.08)

인문대학

*차상원(1979.11.01) *김준섭(1979.11.01) *최재희(1980.02.21) *한우근(1981.07.18)
*전제옥(1983.12.01) *허 웅(1984.07.10) *전광용(1984.12.17) *고석구(1984.12.17)
*박홍규(1984.12.17) *장병길(1984.12.17) *김태길(1987.04.18) *차주환(1987.04.18)
*장덕순(1987.05.07) *황찬호(1988.03.01) *김붕구(1988.03.01) *김원룡(1988.03.01)
*오현우(1988.12.10) *김철준(1988.12.10) *양병우(1989.04.15) *신익성(1990.04.16)
*민석홍(1990.10.12) *김방한(1990.10.12) *변태섭(1990.11.07) 지명렬(1991.11.16)
나종일(1992.04.15) 강두식(1992.11.03) *한전숙(1992.11.03) *이민호(1992.11.03)
문우상(1993.11.01) *김광호(1993.11.01) *이병찬(1994.04.11) 장석진(1994.10.25)
*김종운(1995.05.06) 이 환(1995.05.06) 이기문(1996.06.05) 김진세(1996.06.05)
김완진(1996.10.14) 최완식(1996.10.14) 조병태(1996.10.14) 송낙헌(1997.05.26)
김인숙(1997.11.18) 김용직(1998.05.27) *안병희(1998.05.27) 홍승오(1998.05.27)
민두기(1998.05.27) 이병한(1998.11.13) 이병건(1998.11.13) 김철자(1998.11.13)
박환덕(1998.11.13) 차인석(1998.11.13) 김학주(1999.04.20) 소광희(1999.10.12)
조준학(1999.10.12) 송동준(2000.05.02) 박형달(2000.05.02) 김석도(2000.11.17)
이경식(2001.05.09) 신태호(2001.05.09) 석경징(2001.05.09) 김시준(2001.05.09)
원윤수(2001.05.09) 김현창(2001.07.18) 성백인(2001.07.18) 김윤식(2001.10.18)
민병수(2001.10.18) 이상옥(2001.10.18) 고영근(2002.03.01) 박희진(2002.03.01)
정지영(2002.03.01) 최순봉(2002.03.01) 이현복(2002.03.01) 오인석(2002.03.01)
이인호(2002.03.01) 최승희(2002.09.01) 고병익(2002.09.01) 심재기(2003.03.01)
이익섭(2003.03.01) 한계전(2003.03.01) 백낙청(2003.03.01) 정진홍(2003.03.01)
이상택(2003.09.01) 황동규(2003.09.01) 한영우(2003.09.01) 박동규(2004.03.01)
이남영(2004.03.01) 조동일(2004.09.01) 김병국(2005.03.01) 김명렬(2005.03.01)
박남식(2005.03.01) 이정민(2005.03.01) 이병근(2005.09.01) 허창운(2005.09.01)
*윤이흠(2005.09.01) 황윤석(2006.03.01) 문양수(2006.03.01) 오병남(2006.03.01)
안휘준(2006.03.01) 천승걸(2006.09.01) 임효재(2006.09.01) 홍기창(2007.03.01)
신수송(2007.03.01) 오금성(2007.03.01) 오세영(2007.09.01) 유평근(2007.09.01)
정옥자(2007.09.01) 이명현(2007.09.01) 서대석(2008.03.01) *이정호(2008.09.01)
최병헌(2008.09.01) 이태진(2009.03.01) 송영배(2009.03.01) 금장태(2009.03.01)
이상억(2009.09.01) 임홍빈(2009.09.01) 김용덕(2009.09.01) 최명옥(2010.03.01)
이동렬(2010.03.01) 안삼환(2010.03.01) 임종대(2010.03.01) 이태수(2010.03.01)
김문환(2010.03.01) *김효명(2010.09.01) 오생근(2011.09.01) 홍재성(2011.09.01)
박한제(2012.03.01) 이성규(2012.03.01) 최몽룡(2012.03.01) 황경식(2012.09.01)
권두환(2013.03.01) 조남현(2013.03.01) 임한순(2013.03.01) 김영식(2013.03.01)

김남두(2013.03.01) 안상진(2013.03.01) 김여수(2013.03.01) 나학진(2013.03.01)

사회과학대학

*이의철(1979.11.01) *배복석(1980.12.23) *김두희(1983.12.01) *김상호(1984.07.10)
*이만갑(1987.04.18) *임원택(1988.07.01) *정병휴(1988.12.10) *오만식(1988.12.10)
*정양은(1988.12.10) 장인협(1990.10.12) *동덕모(1991.04.15) 최홍기(1991.04.15)
차병권(1991.11.16) 변형윤(1992.04.15) 박봉식(1994.04.11) *이상희(1994.10.25)
*김영국(1995.11.29) *이용희(1995.11.29) 이현재(1995.11.29) *이 찬(1995.11.29)
장병림(1996.06.05) *여정동(1996.10.14) 김종현(1996.10.14) *김채윤(1996.10.14)
조대경(1997.05.26) 임종철(1998.05.27) 이광규(1998.05.27) *강명규(1998.11.13)
*서봉연(1998.11.13) 차재호(1999.10.12) 김일철(1999.10.12) *구영록(1999.10.12)
한상복(2000.11.17) *남세진(2000.11.17) 박우희(2001.05.09) 원호택(2001.07.18)
안병직(2001.10.18) 이장호(2001.10.18) 김경동(2002.03.01) 김용구(2002.09.01)
조 순(2002.09.01) 강현두(2002.09.01) *김진균(2003.03.01) 신용하(2003.03.01)
이관용(2003.03.01) 조명한(2003.03.01) 김세원(2004.09.01) 송병락(2004.09.01)
박영한(2005.03.01) *홍원탁(2005.09.01) 추광영(2005.09.01) 최 명(2006.03.01)
정기준(2006.03.01) 정영일(2006.03.01) 김 인(2006.03.01) 권태환(2006.09.01)
이문웅(2006.09.01) 황수익(2007.03.01) 김홍우(2007.09.01) 차배근(2007.09.01)
김신행(2008.09.01) 안청시(2009.09.01) 이천표(2009.09.01) 이정복(2009.09.01)
한상진(2009.09.01) 이승훈(2010.09.01) 허우긍(2010.09.01) 이성휘(2011.03.01)
정운찬(2011.03.01) 김정오(2011.03.01) 박삼옥(2011.09.01) 김상균(2011.09.01)
최성재(2012.03.01) 노재봉(2012.03.01) 정종욱(2012.03.01) 이홍구(2012.09.01)
배성동(2012.09.01) 하영선(2012.09.01) 박재윤(2012.09.01) 김수행(2012.09.01)
김광억(2012.09.01) 최일섭(2012.09.01) 박상섭(2013.03.01) 표학길(2013.03.01)
박명진(2013.03.01)

자연과학대학

*손치무(1979.11.01) *홍순복(1984.07.10) *이주식(1986.05.12) *지창열(1987.10.18)
정창희(1987.04.18) *김봉균(1987.04.18) *최규원(1987.05.07) *구정회(1988.07.01)
김훈수(1988.12.10) *김성삼(1988.12.10) 장세헌(1989.04.15) *성백능(1989.04.15)
*민호기(1989.04.15) *정영호(1989.10.13) 정창희(1989.10.13) *김정수(1990.04.16)
*박을용(1990.04.16) 이상만(1991.04.15) *박봉열(1991.11.16) 조완규(1992.04.15)
고윤석(1992.04.15) 이수호(1992.04.15) 현정준(1992.04.15) 이일해(1992.11.03)
*장세희(1992.11.03) 윤옥경(1994.10.25) *박홍래(1994.10.25) 김준호(1995.05.06)
*이우영(1995.05.06) 김제필(1995.11.29) 김호징(1995.11.29) *강영선(1995.11.29)
하두봉(1996.10.14) 김제완(1997.11.18) *박희인(1997.11.18) 최병두(1998.11.13)

강만식(1999.04.20) 고영소(1999.10.12) 윤재한(2000.05.02) 박인원(2000.05.02)
권숙일(2000.11.17) 하영칠(2000.11.17) 이정주(2001.05.09) 이구철(2001.05.09)
박세희(2001.05.09) 박형석(2001.10.18) 이윤영(2001.10.18) 이인규(2001.10.18)
김재주(2002.03.01) 이민호(2002.03.01) 장준성(2002.03.01) 권영명(2002.03.01)
박용안(2002.03.01) 박상대(2002.09.01) 노현모(2002.09.01) 김상문(2002.09.01)
송희성(2003.03.01) 심재형(2003.03.01) 윤홍식(2003.03.01) 장회익(2003.09.01)
정종률(2003.09.01) 강현삼(2004.03.01) 김수진(2004.03.01) 이사계(2005.03.01)
이광웅(2005.03.01) 김정환(2005.03.01) 정해문(2005.09.01) 김종찬(2006.03.01)
양철학(2006.03.01) 박순웅(2006.03.01) 이기화(2006.03.01) 김성기(2007.03.01)
김경태(2007.03.01) 송문섭(2007.09.01) 이현구(2008.03.01) 홍영남(2008.03.01)
우종천(2008.03.01) 장호완(2008.09.01) 정재명(2009.03.01) 최명언(2009.03.01)
이계준(2009.09.01) 이시우(2009.09.01) 조용민(2009.09.01) 홍승수(2009.09.01)
박성현(2010.03.01) 김하석(2010.09.01) 이동규(2010.09.01) 이재형(2010.09.01)
방형찬(2011.03.01) 소광섭(2011.03.01) 전종갑(2011.03.01) 김 구(2011.03.01)
한종규(2011.09.01) 김진의(2011.09.01) 이 은(2011.09.01) 김상구(2011.09.01)
박창업(2011.09.01) 지동표(2012.03.01) 민동필(2012.03.01) 신국조(2012.03.01)
안태인(2012.03.01) 정학성(2012.03.01) 고철환(2012.03.01) 조성권(2012.03.01)
정한영(2012.09.01) 김정구(2013.03.01) 이상각(2013.03.01) 김희준(2013.03.01)
임정빈(2013.03.01)

간호대학

홍여신(1998.11.13) 박정호(2005.09.01) 김매자(2006.09.01) 이소우(2006.09.01)
이은옥(2007.03.01) 홍경자(2009.09.01) 한경자(2010.03.01) 박성애(2012.09.01)
박영숙(2013.03.01) 최명애(2013.03.01)

경영대학 · 경영전문대학원

이용준(1987.08.13) 한희영(1993.04.26) *오상락(1993.04.26) 심병구(1994.04.11)
김정년(1997.11.18) *김원수(1999.10.12) 김식현(2000.11.17) 이정호(2002.09.01)
최종태(2005.03.01) 윤석철(2005.09.01) 곽수일(2006.09.01) 신유근(2006.09.01)
김성기(2007.09.01) 남상오(2008.09.01) 방정식(2010.09.01) 윤계섭(2010.09.01)
임종원(2012.03.01) 민상기(2013.03.01)

공과대학

*이균상(1969.12.01) *정봉협(1974.07.08) *박상조(1974.07.08) *김문상(1979.11.01)
*홍준기(1979.11.01) *우형주(1980.12.23) *이 량(1980.12.23) *우범식(1980.12.23)
*김희춘(1981.07.18) *신윤경(1984.07.10) *염영하(1984.12.17) *박평주(1986.05.12)

*김재근(1986.05.12) *정선모(1987.04.18) 임응극(1987.04.18) *신영기(1987.04.18)
*김재극(1987.05.07) *김준용(1988.03.01) *이종각(1988.03.01) 이문득(1988.07.01)
김효경(1988.12.10) 이승원(1988.12.10) *이정한(1988.12.10) 양홍석(1989.04.15)
*이택식(1989.10.13) 이재성(1989.10.13) 윤장섭(1990.04.16) *박민호(1990.04.16)
*최계근(1990.04.16) *최 웅(1990.04.16) *김동훈(1990.10.12) 정인준(1990.10.12)
안수한(1990.10.12) 심정섭(1991.04.15) *이영배(1991.04.15) *이낙주(1991.04.15)
*위상규(1991.04.15) *한봉희(1991.11.16) 김노수(1991.11.16) 안철호(1991.11.16)
김동원(1992.04.15) 지철근(1992.11.03) *임상전(1992.11.03) 박천경(1993.04.26)
조선휘(1993.04.26) 고명삼(1993.04.26) 이광노(1993.11.01) *원종수(1993.11.01)
*황종흘(1993.11.01) 황희융(1993.11.01) *이해경(1994.10.25) 현병구(1995.05.06)
*윤정섭(1995.05.06) 김연식(1995.11.29) *박혜일(1995.11.29) 안수길(1995.11.29)
김상주(1996.06.05) 김문한(1996.06.05) 김극천(1996.06.05) *김봉우(1996.10.14)
*김형걸(1997.05.26) 전용원(1997.05.26) 정일영(1997.11.18) 안태완(1997.11.18)
박영문(1998.05.27) 박순자(1998.05.27) 주종원(1998.05.27) 박중현(1998.11.13)
*김응서(1999.04.20) 이충웅(2000.11.17) 고석원(2000.11.17) 김상용(2000.11.17)
나형용(2000.11.17) 홍성일(2000.11.17) 이희근(2000.11.17) 홍성목(2000.11.17)
김영택(2001.05.09) 강춘식(2002.09.01) 이화영(2002.09.01) 이동녕(2003.03.01)
*김종상(2003.03.01) 정기형(2003.09.01) 이기준(2003.09.01) 이현구(2004.03.01)
정수진(2004.03.01) 박순달(2004.09.01) 한송엽(2004.09.01) 노오현(2005.03.01)
선우중호(2005.03.01) 정창현(2006.03.01) 김효철(2006.03.01) 배광준(2006.03.01)
김창효(2007.03.01) 윤종규(2007.03.01) 이정인(2007.03.01) 이교일(2007.09.01)
권욱현(2008.03.01) 노승탁(2008.09.01) 한동철(2008.09.01) 장승필(2008.09.01)
강창순(2008.09.01) 민홍식(2009.03.01) 이석호(2009.03.01) 이종덕(2009.03.01)
이홍희(2009.03.01) 최차용(2009.03.01) 최창균(2009.09.01) 이후철(2010.03.01)
김원찬(2010.03.01) 이장무(2010.09.01) 강 탁(2010.09.01) 김진균(2010.09.01)
김 환(2011.03.01) 홍상희(2011.03.01) 장창두(2011.03.01) *박창호(2011.09.01)
이장규(2011.09.01) 문상흡(2011.09.01) 심우갑(2011.09.01) 유정열(2012.03.01)
성굉모(2012.03.01) 우치수(2012.03.01) 이창훈(2012.03.01) 오수익(2012.09.01)
강석호(2012.09.01) 최하순(2012.09.01) 이호인(2012.09.01) 전효택(2012.09.01)
신효철(2013.03.01) 이규열(2013.03.01) 이기표(2013.03.01) 정성진(2013.03.01)
이길성(2013.03.01) 정태학(2013.03.01) 이은철(2013.03.01)

농업생명과학대학(농과대학)

*조백현(1962.07.20) *이승규(1979.11.01) *유달영(1979.11.01) *현신규(1979.11.01)
*이용빈(1980.12.23) 김문협(1981.07.18) *백운하(1982.07.01) 이춘영(1983.02.01)
*이창복(1984.12.17) *박성우(1984.12.17) *표현구(1987.04.18) *김문식(1987.04.18)

*임형빈(1987.04.18) 최병희(1988.03.01) 송계원(1988.07.01) *이양후(1989.04.15)
*이은웅(1989.10.13) *박태식(1991.04.15) 현재선(1991.04.15) 오봉국(1991.04.15)
김재욱(1991.11.16) *허문회(1992.04.15) *김갑덕(1992.04.15) 반성환(1994.04.11)
심영근(1994.04.11) *고재군(1994.04.11) *정후섭(1995.11.29) 주봉규(1996.06.05)
신동소(1996.06.05) *심종섭(1996.06.05) *왕인근(1996.10.14) 정창주(1997.11.18)
이홍석(1998.05.27) *임선욱(1998.05.27) 나용준(1999.04.20) 조용섭(1999.04.20)
이계호(1999.04.20) 안건용(1999.04.20) 송해균(1999.04.20) 고광출(1999.10.12)
심재욱(1999.10.12) 류순호(2000.05.02) 한인규(2000.05.02) 김동암(2000.05.02)
*이필우(2000.05.02) *임경빈(2000.07.06) 박명규(2000.07.06) *이질현(2000.11.17)
임경순(2001.07.18) *안원영(2001.10.18) 박영일(2002.03.01) 우건석(2002.03.01)
이병일(2002.09.01) 남중희(2002.09.01) 김호탁(2004.03.01) 우보명(2004.03.01)
문재유(2004.03.01) 정지웅(2005.03.01) 김현욱(2005.03.01) *고학균(2005.03.01)
김문기(2005.03.01) 정하우(2005.03.01) 전재근(2005.09.01) 정희석(2005.09.01)
박효근(2005.09.01) 채영암(2006.03.01) 부경생(2006.03.01) 권용웅(2006.09.01)
조정송(2006.09.01) 이무근(2006.09.01) 정 진(2007.09.01) 권순국(2007.09.01)
김수일(2008.03.01) 김병동(2009.03.01) 류관희(2009.03.01) 박관화(2009.03.01)
이용환(2009.03.01) 이호진(2010.03.01) 김귀곤(2010.03.01) 장병욱(2010.03.01)
이경준(2010.09.01) 김성수(2010.09.01) 이승구(2012.03.01) 이돈구(2012.03.01)
현정오(2012.09.01) 하종규(2013.03.01) 임승빈(2013.03.01)

미술대학

*노수현(1962.10.23) *김종영(1980.12.23) *정창섭(1993.04.26) 서세옥(1994.04.11)
*김교만(1994.04.11) 권순형(1994.10.25) 김정자(1994.10.25) *박세원(1995.11.29)
*유경채(1995.11.29) 문학진(1995.11.29) 김 태(1996.10.14) 최종태(1998.05.27)
민철홍(1998.11.13) 최의순(1999.04.20) 유근준(1999.10.12) 조영제(2000.11.17)
신영상(2001.05.09) 최만린(2001.05.09) 윤명로(2002.03.01) 강찬균(2003.09.01)
이종상(2003.09.01) 부수언(2004.03.01) 엄태정(2004.03.01) 양승춘(2006.03.01)
전 준(2008.03.01) 임영방(2009.09.01) 신광석(2010.09.01) *유리지(2010.09.01)
최인수(2011.09.01) 한운성(2012.03.01) *정탁영(2012.03.01) *박노수(2012.09.01)
장수홍(2013.03.01)

법과대학 · 법학전문대학원

*정광현(1967.09.01) *정희철(1986.05.12) *김기두(1987.04.18) *김증한(1987.04.18)
곽윤직(1991.04.15) *배재식(1994.10.25) 황적인(1995.05.06) *서원우(1996.10.14)
박병호(1996.10.14) 이태로(1997.11.18) 김철수(1998.11.13) 양승규(1999.10.12)
*권영성(1999.10.12) *서돈각(2000.07.06) 심헌섭(2001.05.09) 이호정(2002.03.01)

최기원(2002.03.01) 최대권(2002.09.01) *백충현(2004.09.01) 이수성(2004.09.01)
김동희(2005.03.01) 김유성(2006.03.01) 최송화(2006.09.01) 송상현(2007.03.01)
이홍재(2012.03.01) 최종고(2013.03.01)

사범대학

*김계숙(1970.10.08) *이종수(1972.05.01) *채희순(1974.07.08) *김형규(1979.11.01)
*최기철(1979.11.01) *김준민(1979.11.01) *윤인호(1980.12.23) *라현성(1981.12.16)
*유경로(1983.02.01) *김정진(1984.12.17) *이지호(1984.12.17) 김종서(1988.03.01)
*이응백(1988.12.10) *이영기(1988.12.10) *정연태(1988.12.10) 이태녕(1989.04.15)
*김응태(1989.04.15) 이두현(1989.10.13) *이웅직(1989.10.13) *한기언(1990.04.16)
이영덕(1991.11.16) 이원순(1991.11.16) *이원식(1993.04.26) 박옥줄(1994.04.11)
*이용주(1994.10.25) 구인환(1995.05.06) *이맹성(1995.05.06) 정원식(1995.11.29)
*신희명(1995.11.29) *피천득(1996.06.05) 문 용(1996.06.05) 이동승(1996.06.05)
*김성근(1996.06.05) 김은전(1996.10.14) 이계순(1996.10.14) 박용헌(1997.05.26)
전상범(1997.05.26) 윤용탁(1997.11.18) 강길수(1998.05.27) 정범모(1998.05.27)
김연식(1998.05.27) 박길준(1998.05.27) 이민성(1999.04.20) 노희덕(1999.10.12)
이성진(1999.10.12) 박갑수(1999.10.12) 이상익(2000.05.02) 이범제(2000.05.02)
황재기(2000.05.02) 심명호(2000.11.17) 황적륜(2000.11.17) 윤세철(2001.10.18)
차경수(2001.10.18) *이용필(2001.10.18) 황정규(2001.10.18) 임승권(2002.03.01)
박승재(2002.03.01) 장남기(2002.03.01) 임인재(2002.09.01) 이돈희(2003.03.01)
진교훈(2003.03.01) 손봉호(2003.09.01) 정성태(2003.09.01) 김광수(2004.09.01)
채우기(2004.09.01) 이홍우(2005.03.01) 황만익(2005.03.01) 우규환(2005.03.01)
권윤방(2005.03.01) 장상호(2005.09.01) 정세구(2005.09.01) 허승일(2005.09.01)
김신일(2006.03.01) 조창섭(2006.03.01) 이기석(2006.03.01) 임번장(2006.03.01)
곽광수(2006.09.01) 안희수(2006.09.01) 김의수(2006.09.01) 전인영(2007.03.01)
윤정일(2008.03.01) 우정호(2008.03.01) 김대행(2008.09.01) 강신복(2008.09.01)
이종재(2009.03.01) 한기상(2009.03.01) 김동진(2009.03.01) 정청희(2009.03.01)
정응근(2009.09.01) 이온죽(2010.03.01) 김길중(2010.09.01) 조승제(2010.09.01)
이형식(2011.09.01) 권병두(2012.03.01) 박성익(2012.09.01) 문용린(2012.09.01)
박성수(2012.09.01) 우한용(2013.03.01) 이경식(2013.03.01) 이애주(2013.03.01)

생활과학대학(가정대학)

*장명욱(1981.12.16) 모수미(1992.04.15) 이혜수(1992.11.03) 김성련(1993.04.26)
*임원자(1997.05.26) 안승요(1997.11.18) 현기순(1998.05.27) 이순원(2000.11.17)
김해리(2006.03.01) 최혜미(2007.03.01) 박양자(2007.03.01) 유안진(2007.03.01)
이기춘(2008.03.01) 최정화(2011.09.01) 이연숙(2012.03.01) 이기영(2013.03.01)

수의과대학

*정창국(1988.07.01) *이장낙(1991.04.15) *한수남(1993.04.26) 이창업(1993.11.01)
*장두환(1993.11.01) 권종국(1995.05.06) *임창형(1995.05.06) *이영소(1995.11.29)
*옥종화(1995.11.29) *전윤성(1997.05.26) *최희인(1997.05.26) 서익수(1997.05.26)
성재기(1999.04.20) 이준섭(1999.04.20) 박응복(2001.07.18) 마점술(2001.07.18)
조충호(2001.07.18) 한홍율(2005.09.01) 남치주(2006.03.01) 김선중(2007.03.01)
이흥식(2007.09.01) 이인세(2009.03.01) 이영순(2010.03.01) 이창우(2010.03.01)
양일석(2011.09.01) 이문한(2011.09.01) 신광순(2012.03.01)

약학대학(천연물과학연구소)

*한구동(1974.07.08) *이선주(1979.11.01) 우인근(1979.11.01) *우종학(1981.07.18)
*홍문화(1981.12.16) *채동규(1983.06.30) *심길순(1983.12.01) *김영은(1983.12.01)
*국채호(1988.07.01) 조윤성(1988.12.10) *김제훈(1988.12.10) *한대석(1989.04.15)
우원식(1994.04.11) *나운용(1994.10.25) *김신근(1995.05.06) *정원근(1995.11.29)
이상섭(1996.06.05) *조윤상(1996.10.14) *이왕규(1996.10.14) 김낙두(1999.04.20)
지형준(1999.04.20) 한병훈(1999.04.20) 김병각(2000.05.02) 이민화(2001.05.09)
이은방(2002.03.01) 신국현(2002.09.01) 박만기(2003.09.01) 문창규(2005.03.01)
김양배(2005.03.01) 김박광(2005.09.01) 천문우(2008.03.01) 김종국(2008.09.01)
이승기(2009.03.01) 장일무(2009.03.01) 윤혜숙(2010.03.01) 이명걸(2010.09.01)
한용남(2010.09.01) 김영중(2011.09.01) 주상섭(2011.09.01) 고광호(2012.03.01)
강삼식(2013.03.01)

음악대학

*김원복(1974.07.08) *이혜구(1974.07.08) *이상춘(1979.11.01) *김성태(1979.11.01)
*장사훈(1982.07.01) *전봉초(1984.07.10) *김순열(1987.04.18) 정희갑(1989.04.15)
*이성재(1990.04.16) 안형일(1992.04.15) *이정희(1992.11.03) 정진우(1993.04.26)
이인영(1994.10.25) *백낙호(1994.10.25) *이남수(1995.05.06) *강운경(1995.05.06)
이기원(1995.05.06) *김용진(1995.11.29) 이명학(1996.06.05) 김혜경(1996.10.14)
이경숙(1997.05.26) 유태열(1998.05.27) *이성균(1999.10.21) 박노경(2000.11.17)
백병동(2001.05.09) 김정규(2001.10.18) 서계숙(2002.09.01) 현해은(2003.09.01)
서우석(2005.09.01) 이재숙(2006.09.01) 김성길(2007.03.01) 김 민(2007.09.01)
김정자(2007.09.01) 강사준(2009.09.01) 박인수(2012.03.01) *장정익(2012.03.01)
강석희(2012.03.01) *김정길(2012.03.01) 신수정(2012.03.01) 박세원(2013.03.01)
김형배(2013.03.01)

의과대학 · 의학전문대학원

*김두종(1962.07.20) *윤일선(1962.07.20) *김동익(1962.07.20) *김석환(1962.07.20)
*김성환(1970.10.08) *기용숙(1970.12.01) *오진섭(1974.07.08) *나세진(1974.07.08)
*이국주(1979.11.01) *김경식(1979.11.01) *이제구(1979.11.01) *강승호(1979.11.01)
*한심석(1979.11.01) *이명복(1979.11.01) *이성호(1979.11.01) *박길수(1980.02.21)
*이기영(1980.02.21) *주동운(1980.12.23) *김인달(1980.12.23) *노병호(1980.12.23)
김응진(1981.07.18) *임정순(1981.12.16) *남기용(1983.02.01) *주근원(1983.06.30)
*장신요(1984.07.10) *한문식(1984.07.10) *강석영(1984.12.17) *김홍기(1986.05.12)
*이승훈(1987.04.18) *허인목(1987.04.18) *이영택(1987.05.07) *이영균(1987.05.07)
*이희영(1987.08.13) 백만기(1988.03.01) *이문호(1988.07.01) 홍창의(1988.12.10)
*신면우(1989.04.15) *심보성(1990.04.16) *고광욱(1991.11.16) 김영균(1991.11.16)
이유신(1992.11.03) *김상인(1993.11.01) *문형노(1994.04.11) 민헌기(1994.04.11)
이정균(1994.04.11) 이상국(1994.04.11) *한용철(1994.10.25) 김주완(1995.05.06)
김수태(1995.05.06) *김승원(1995.05.06) 김우겸(1995.05.06) 김진영(1995.11.29)
노관택(1995.11.29) 윤동호(1995.11.29) 김승욱(1995.11.29) 권이혁(1995.11.29)
*곽일용(1996.06.05) 이덕용(1996.06.05) 장윤석(1996.06.05) 김종환(1996.10.14)
*명호진(1996.10.14) *이한구(1996.10.14) 장우현(1996.10.14) 석세일(1997.05.26)
*고창순(1997.11.18) 이부영(1997.11.18) *김진복(1998.11.13) 서경필(1998.11.13)
*성호경(1998.11.13) *윤덕노(1998.11.13) 윤종구(1998.11.13) 함의근(1998.11.13)
이상복(1999.10.12) 한만청(2000.05.02) 김시황(2000.05.02) 김진환(2000.05.02)
백상호(2000.05.02) 김용일(2000.11.17) 김정용(2000.11.17) 김진호(2000.11.17)
박찬웅(2000.11.17) 최길수(2000.11.17) *최성배(2001.05.09) *장가용(2001.05.09)
이영우(2001.10.18) 이재흥(2001.10.18) 이순형(2002.03.01) *이진용(2002.09.01)
조두영(2002.09.01) 김영민(2003.03.01) *김중술(2003.03.01) 지제근(2003.03.01)
최규완(2003.03.01) 장봉린(2004.03.01) 이종욱(2004.09.01) 김노경(2005.09.01)
최국진(2005.09.01) 홍강의(2006.03.01) 김용락(2006.09.01) 노준량(2006.09.01)
김기환(2007.03.01) 김우기(2007.03.01) 이정상(2007.03.01) 정홍근(2007.03.01)
김종선(2007.09.01) 이효표(2007.09.01) 허봉렬(2007.09.01) 민병구(2008.03.01)
박철규(2008.03.01) 한대희(2008.03.01) 김명석(2008.09.01) 조한익(2008.09.01)
차창용(2008.09.01) 박찬일(2009.03.01) 신영수(2009.03.01) 조사선(2009.03.01)
최강원(2009.03.01) 박용현(2009.03.01) 엄융의(2009.09.01) 윤용수(2009.03.01)
이홍규(2009.09.01) 최윤식(2009.09.01) 김유영(2010.03.01) 조병규(2010.03.01)
최 용(2010.03.01) 심영수(2010.09.01) 정문상(2010.09.01) 최 황(2010.09.01)
연경모(2011.03.01) 이건욱(2011.03.01) 이진학(2011.03.01) 정명희(2011.03.01)
김성덕(2011.09.01) 송인성(2011.09.01) 이정빈(2011.09.01) 김병국(2012.03.01)
김용식(2012.03.01) 김주현(2012.03.01) 김현집(2012.03.01) 오승근(2012.03.01)

장기현(2012.03.01) 강순범(2012.09.01) 김상준(2012.09.01) 민양기(2012.09.01)
신희철(2012.09.01) 안효섭(2012.09.01) 윤재일(2012.09.01) 김광현(2013.03.01)
박명희(2013.03.01) 서유헌(2013.03.01) 윤용범(2013.03.01) 우종인(2013.03.01)

보건대학원

이영환(1996.10.14) 허 정(1997.11.18) 김정근(1999.04.20) 정문식(1999.04.20)
김정순(2001.05.09) 임재은(2001.05.09) 정경균(2001.10.18) 이시백(2004.03.01)
이홍근(2005.09.01) 백남원(2006.03.01) 정문호(2007.03.01) 문옥륜(2008.03.01)
이선자(2009.03.01)

행정대학원

*김운태(1987.08.13) *최종기(1994.04.11) *김해동(1994.04.11) *안해균(1994.04.11)
*박동서(1994.10.25) 유 훈(1994.10.25) 조석준(1994.10.25) 강신택(1998.11.13)
오석홍(2001.10.18) 김광웅(2007.03.01) 노화준(2007.03.01) 김동건(2009.03.01)
방석현(2010.09.01) 정홍익(2010.09.01) 정정길(2010.09.01) 김신복(2012.09.01)

환경대학원

노융희(1992.11.03) 권태준(2002.09.01) 김안제(2002.09.01) 최상철(2006.03.01)
김형국(2007.09.01) 임광원(2008.03.01) 이정전(2008.09.01) 유병림(2010.03.01)
김정욱(2011.03.01) 양병이(2011.09.01) 김기호(2012.03.01) 황기원(2013.03.01)

치의학대학원

*이춘근(1983.06.30) *유종덕(1984.12.17) *안형규(1989.04.15) *차문호(1989.10.13)
장완식(1988.07.01) *김영해(1991.04.15) *황성명(1994.10.25) 이명종(1995.11.29)
민병일(1995.11.29) 이영옥(1995.11.29) *김동순(1995.11.29) *김수철(1995.11.29)
*선우양국(1995.11.29) 김진태(1996.06.05) 이정식(1996.06.05) 김규식(1997.05.26)
서정훈(1999.04.20) 유동수(1999.04.20) 김명국(2001.05.09) 손동수(2001.07.18)
양원식(2001.10.18) 윤수한(2001.10.18) 이종흔(2002.03.01) 김철위(2003.09.01)
임창윤(2003.09.01) 최상묵(2003.09.01) *손성희(2003.09.01) 김영수(2004.03.01)
이승우(2004.03.01) 권혁춘(2004.09.01) 김종배(2004.09.01) 박태원(2004.09.01)
이선형(2004.09.01) 장익태(2004.09.01) 임성삼(2005.09.01) 최선진(2006.03.01)
남동석(2006.09.01) 정성창(2006.09.01) 고재승(2007.03.01) 엄정문(2007.09.01)
김창회(2008.09.01) 염광원(2008.09.01) 한수부(2008.09.01) 백기석(2010.09.01)
양재호(2011.03.01) 장영일(2011.03.01) 정종평(2011.03.01) 한세현(2011.09.01)
김주환(2012.09.01) 김중수(2012.09.01) 김영구(2012.09.01)

5. 지난 1년간 작고 명예교수 명단(2012년 3월 1일~2013년 2월 28일)

2012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 사이에 작고하신 명예교수님들은 모두 26분이다. 이들 명예교수님들의 명복을 삼가 기원하는 바입니다.

1. 2012. 03. 10 고재군(농생대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2. 2012. 03. 12 황종흘(공대 조선해양공학과)
3. 2012. 03. 17 김정길(음악대학 작곡과)
4. 2012. 03. 20 김순열(음악대학 기악과)
5. 2012. 04. 21 김성태(음악대학 작곡과)
6. 2012. 05. 09 이맹성(사범대학 영어교육과)
7. 2012. 05. 18 김원수(경영대학 경영학과)
8. 2012. 07. 10 김종상(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9. 2012. 08. 05 주근원(의과대학 의학과)
10. 2012. 08. 06 고창순(의과대학 의학과)
11. 2012. 08. 25 신희명(사범대학 물리교육과)
12. 2012. 09. 15 김용진(음악대학 작곡과)
13. 2012. 09. 27 이성균(음악대학 기악과)
14. 2012. 10. 05 이장낙(수의과대학 수의학과)
15. 2012. 10. 05 홍원탁(사회과대학 경제학부)
16. 2012. 10. 12 안해균(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7. 2012. 10. 31 손성희(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18. 2012. 11. 04 심종섭(농생대 산림과학부)
19. 2012. 11. 14 정탁영(미술대학 동양화과)
20. 2012. 12. 18 장정익(음악대학 작곡과)
21. 2012. 12. 27 신면우(의과대학 의학과)
22. 2013. 01. 06 선우양국(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23. 2013. 01. 19 김중술(의과대학 의학과)
24. 2013. 01. 22 박민호(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
25. 2013. 02. 18 유리지(미술대학 디자인학부)
26. 2013. 02. 25 박노수(미술대학 동양화과)

5부 소식 및 기타

1. 학교 소식

1) 2013년도 대학 운영계획 발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공식 출범한 서울대학교는 이사회, 평의원회, 학사위원회, 재경위원회 등 새로운 법인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였고, 서울대법에 따라 4개년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학년도를 시작하면서 기획처는 지난 2월말 "2013년도 대학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비전을 설정하고, 3대 미션을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 ◆선도적 학문가치의 창출, ◆공생 발전을 위한 사회기여로 잡았고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과제로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세계 수준의 학문후속세대 육성(차세대 학문선도자 육성,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교육의 질 제고), ▷리더 개발을 목표로 기반학문 교육 진흥(리더로서의 자질 교육 강화, 기반학문 교육 진흥, 구성원의 글로벌 다양성 확보), ▷수요기반 학생 지원체제 구축(대상별 맞춤형 학생 지원체제 구축, 학생사회와의 소통 활성화, 학생의 학습지원 강화)을 위한 세부 내용을 제시하였다.

◆선도적 학문가치의 창출을 위해 ▷창의적 선도 연구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 연구의 인적 인프라를 강화(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초빙, 차세대 우수학자 초빙,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유망 신진 연구자 지원), ▷미래 융합선도형 연구체제 정립을 위한 글로벌 과제 대응 중점연구 추진(미래연구 지원 강화, 융합선도형 연구체제 정립, 한국학 육성, 통일학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화), ▷연구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지향 연구지원 서비스 혁신(산학협동 연구 확대와 연구성과 활용 증대, 연구의 질 제고, 학술정보 지원 기반 조성), 그리고 ◆공생 발전을 위한 사회기여를 위해서는 ▷2014년도 대학 입학전형을 개선하여 공교육 안정화 및 정상화에 기여(입학사정관제 전형 신뢰성 확보 및 안정화,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대학 자원의 사회공유체제 조성(지식나눔 강화, 국내 타 학과의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을 제시하였다.

◆인프라과제인 자율과 책임의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으로는 법인체제의 정착 및 발전, 대학 운영시스템 혁신, 구성원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충, 사람중심의 차세대 캠퍼스 기반 구축 등이 있는데, 개방과 융합 지향의 멀티캠퍼스 추진으로 수원, 시흥, 평창에 들어설 캠퍼스의 다각적 활용방안과 기존 캠퍼스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이뤄내겠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2) 서울대학교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 단행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7월12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학칙" 전부개정을 통하여 대학 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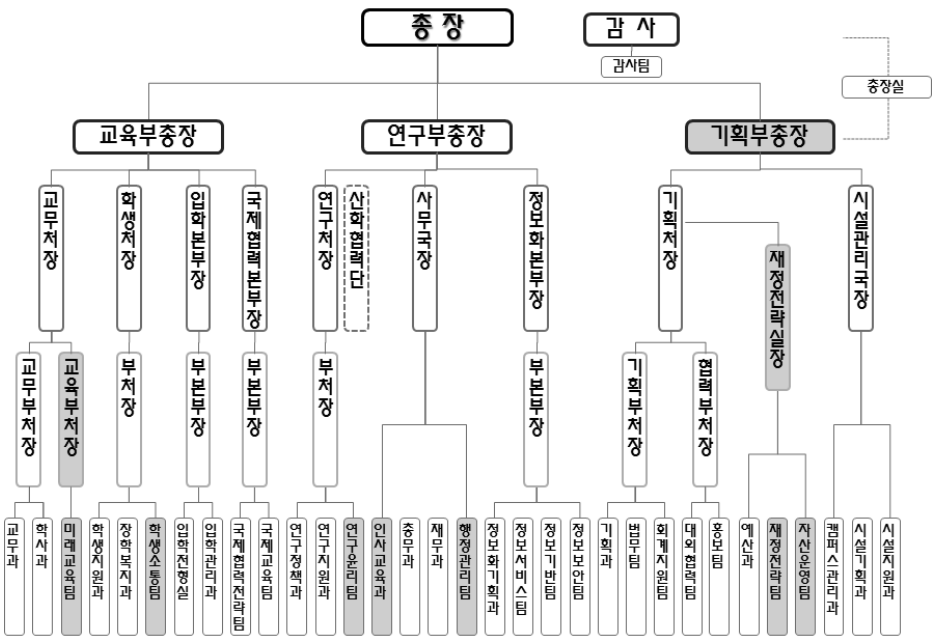
의 역할과 새로운 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대학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 조직개편은 대학의 책임있는 자율성을 기조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첫째: 교육기능의 주시와 미래교육의 설계, 둘째: 교육과정과 진로지도의 체계화와 재학생의 복지향상, 셋째: 재정대응 능력의 개선과 소통 기회 확대, 넷째: 연구윤리의 강화를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교육부총장과 연구부총장의 2부총장제를 교육부총장과 연구부총장, 기획부총장의 3부총장제로 확대 개편한 것을 필두로 교무처에 교무부처장 이외에 교육부처장을 신설하고 대학교육 개선과 교과과정 개편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재정기획실에 재정전략실을 신설하여 재정 확충과 재정 대응능력을 제고하였고 기존의 학내 지원시설이던 입학본부, 국제협력본부, 정보화본부를 행정조직으로 편제하였다. 나아가서 본부 각 처와 국의 하위 실행조직에 미래교육팀(교무처 소속), 학생소통팀(학생처 소속), 연구윤리팀(연구처 소속), 재정전략팀(재정전략실 소속), 자산운영팀(재정전략실 소속), 인사교육과(사무국 소속), 및 행정관리팀(사무국소속)을 신설하여 서울대학교 변화에 발맞추어 학생과 교육 부문 및 재정 부문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일부 부서의 명칭도 조직개편에 걸맞게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학생과: 학생지원과, 복지과 장학복지과, 연구진흥과: 연구정책과, 관리과: 캠퍼스관리과, 시설과: 시설기획과, 기술과: 시설지원과, 국제협력팀: 국제협력전략팀, 국제교류지원팀:국제교육팀, 정보화기획팀: 정보화기획과, 정보서비스지원팀: 정보서비스팀, 정보기반지원팀: 정보기반팀. 이번 개편에서 확립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조직도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음영 표시는 신설조직임.

3) 서울대학교 개학 120년 역사 자료 수집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와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2015년에 맞이하는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서울대학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서울대학교 역사와 관련되는 각종 기록물 수집에 전 · 현직 교직원, 대학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1. 수집대상: 서울대학교 120년 역사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물
   1) 문　서　류: 원고, 강의노트 및 과제물, 출석부, 시험지, 회의록,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 자치단체 회의록 등
   2) 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행사 사진 · CD · 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등
   3) 간 행 물 류: 각종 보고서,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4) 박　물　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5) 기타 서울대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포함)
2. 수집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 의 처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　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　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or.kr
   주　소: (151-919)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416호
   담당자: 임성용 과장　　핸드폰: 010-3945-3925
5. 제공자 혜택: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 표시 등

4)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벨상 수상자 전임교수 임용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선도 연구중심대학 육성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2

년 5월 24일(목) 교원특별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를 열고,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New York University의 Thomas Sargent 교수(경제학,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의과대학 Charles Lee 교수(유전학, 2008 호암상 수상자), 그리고 차세대신진학자로 김필립 교수를 초빙하기로 하고, Thomas Sargent 교수를 2012년 9월 7일 2년 계약의 석좌교수로 임용하였고, Charles Lee 교수를 2013년 3월 5일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하였다. 김필립 교수는 2012년 3월 1일 자연대 물리천문학부의 초빙석좌교수로 임용한 바 있다.

이는 1단계 석학 유치 사업을 통해 노벨수상자급 해외 석학과 글로벌 중견교수 그리고 차세대 신진교수를 전임교수로 임용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게 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교원 인사제도를 수립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처로 이번에 이를 활용하여 큰 성과를 이루게 된 것이다.

Sargent 교수는 해외 석학 유치의 일환으로, 노벨상 수상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대학교에 임용되는 것으로 앞으로 학생들에게 경제학 과목을 강의하고, 서울대 교수진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2013년 1학기에 '거시경제학특강'(3시간)과 '거시경제학특수연구'(3시간)의 강의를 맡았다.

Charles Lee 교수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게놈 분야의 선도적 연구자로서 네이처와 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연간 4개월 동안 서울대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석좌초빙교수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지난해 그래핀 분야의 선도적 연구로 노벨상 물리학분야 후보로 언급되었던 김필립 교수의 경우 서울대 물리학 분야 교수진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연구교수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서울대는 이번 임용을 계기로 교원특별초빙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탁월한 업적을 낸 해외 석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글로벌 선도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대가 지향하는 목표는 기초학문을 진흥하여 창의적 학문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용학문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해외석학 초빙뿐만 아니라 기초학문연구 인프라 구축, 기초학문에 토대를 둔 응용학문의 심화 프로그램, 서울대의 학사·석사·박사 학문후속세대 육성, 미래의 창의적 연구과제 개발 등이다.

서울대는 현재 다른 기초과학분야에 대해서도 해외석학을 모시고자 적극적으로 우수한 교수와 연구자들을 물색하고 관련 인사들과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석학의 유치 이외에도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인 선도적 연구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프로그램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는 세계적 연구업적을 이루는 서울대 교수가 더욱 더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5) 서울대학교, 2012년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7위

서울대학교는 영국의 대학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에서 실시한 2012년 QS 세

계대학평가(QS World University Rankings)에서 37위를 기록했다고 2012년 9월11일 밝혔다. 금번 순위는 지난해 42위보다 5계단 상승한 것으로서, 동 평가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금번 순위는 도쿄대(30위), UCLA(31위), 홍콩과기대(33위) 등 세계 일류 대학과 같은 30위권으로 나타나, 글로벌 선도 대학을 향한 서울대의 지속적인 노력이 점차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QS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4개 분야 6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전 세계 대학의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평가는 대학의 "학계 평판 40%", "연구 영향도 20%", "교수 대 학생 비율 20%", "기업계 졸업생 평판 10%", "외국인 교수 비율 5%", "외국인 학생 비율 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서울대는 전반적인 평가영역에서 전년에 비해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배점이 가장 높은 "학계 평판" 순위와(33위→29위)과 "졸업생 평판" 순위(100위→50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또한 "학계 평판", "기업계 평판", "연구영향도" 항목으로 평가하는 5개 학문분야별 세계 순위에서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연과학 분야가 27위(35위)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 분야 29위(31위), 공학 분야 32위(33위), 생명과학 · 의학 분야 41위(41위), 인문 · 예술 분야 42위(43위)를 기록했다(괄호안은 2011년 순위).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상하이자이퉁 대학의 세계대학평가(ARWU)에서는 졸업자와 교수의 노벨상 및 필즈상 수상자 수, 논문 인용 상위 연구자 수, 대학규모 대비 성과(PCP) 등의 영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데, 서울대는 이 ARWU 순위에서 102-150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연구 규모 및 영향도가 62.5%의 비중을 차지하는 타임지의 고등교육 잡지『THE』의 발표에서는 1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대는 QS 세계대학평가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대학평가 결과를 글로벌 리더 육성과 학문적 가치 창출을 실현하는 창의적 지식공동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추구하는 자극제로 삼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올해부터 글로벌 선도 연구중심대학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노벨수상자급 석학 유치, 차세대 신진교수 초빙, 창의선도 연구자 지원, 글로벌 초우수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일류 대학으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초학문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 장학생을 선정하는 등 세계적 연구성과 산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6) 제2중앙도서관 신축 내년에 완공 예정

먼 일로만 여겨졌던 중앙도서관(제2중앙도서관)의 신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2012년 봄부터 기금 모금으로 시작된 중앙도서관 신축 사업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 600억원을 쾌척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제2중앙도서관은 현재 학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립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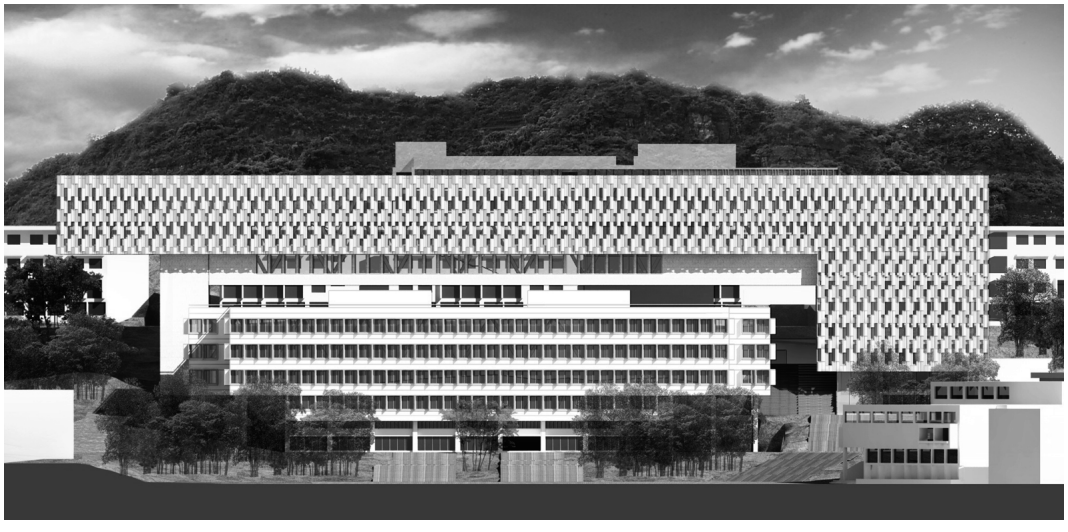
관악캠퍼스의 한 가운데 자리한 지금의 중앙도서관 건물은 1974년 캠퍼스 이전에 맞추어 건립된 이래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지식의 보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가리키듯 그 시설은 상당히 노후한 실정이다. 더구나 1974년 150만책 규모로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은 250만책을 보유하게 되어 포화상태를 이미 넘어섰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

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21세기 선도대학에 걸맞는 도서관 갖기를 갈망해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 대학교는 작년 봄부터 중앙도서관 신축 기금을 모으는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기금 출연으로 세계 수준의 도서관 신축을 앞당기게 된 것이다.

도서관 신축 기부의 주인공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의 설립자인 이종환 전 이사장이다. 이종환 전 이사장은 삼영화학그룹을 설립하여 50여년간 국내 플라스틱 사업 등을 이끌어 왔으며, 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고 인재육성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 재단의 출연재산은 8,000억원에 이르며, 연간 장학사업은 12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대학교는 이번 도서관 신축이 창의적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고 학문을 중흥시키는 데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도서관에서 작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서울대 신축 도서관에 바란다'의 결과를 보면 낙후된 시설의 개선, 자료의 확충, 디지털 정보화, 학술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가장 많이 주문되었다. 이에 맞추어 새 도서관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 삼아, 연구와 교육, 소통과 토론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도서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도서관에는 공동학습실, 정보검색실, 세미나실, 서고 내 독서대 등 학습·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만남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건물을 덮는 형태로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정도서관건립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후보지를 물색한 끝에 현재의 도서관 옆으로 그 자리를 정하였으며, 학내외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도서관 신축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2012년 5월에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는 연구부총장, 중앙도서관장,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사무처장, 관악구청장 등 학내외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건물 설계는 학내의 건축, 디자인, 환경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관건립설계위원회가 맡고 있다.



7) 부설학교 다시 서울대학교의 품으로

지난 3년간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미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법제상 분리되어 있었던 4개의 부설학교(사대부속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시 사범대학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부설학교 관련 법 개정안이 2013년 새해 첫 날 극적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난 1월 23일 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제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다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온전한 식구가 될 것이다.

개정 이전의 법에 따르면 종전의 부설학교는 국립학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어 서울대학교 총장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설학교의 실질적 운영주체와 재산권의 귀속주체가 달라 부설학교의 자율적 책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제 개정된 법에 의하여 부설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설된 학교로 전환되며, 부설학교가 지니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도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된다.

이 모든 것이 원상 복귀에 불과한 단순한 사안으로 사료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서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과 동문, 부설학교의 교직원, 부설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모두가 합심하여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설학교 소재 지역 국회의원인 신계륜(민주통합당. 대표 발의)과 정세균(민주통합당) 의원의 노력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와 사범대학, 그리고 부설학교는 1년 뒤에 출범할 새로운 부설학교를 명실공히 국가 대표급의 선도적인 학교로 만들기 위하여 종합적인 발전 방안과 실행안을 준비하고 있다.

8) 동아시아 연구 중심대학 협의회 제18차 총회 개최

지난 2012년 11월 1일(목)부터 3일(토) 사이에 공대 엔지니어하우스(310동)에서 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제18회 총회와 제31회 이사회가 개최되었다.

AEARU는 1996년에 창설된 회의로서 한국 3개 대학(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일본 6개 대학(도쿄대, 교토대, 오사카대, 도쿄공대, 도호쿠대, 츠쿠바대), 중국 6개 대학(베이징대, 칭화대, 푸단대, 난징대, 중국과기대, 홍콩과기대), 대만 2개 대학(대만국립대, 대만칭화대) 등 17개 대학이 회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로서 회원대학들 사이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며 매년 동아시아 주요 대학의 총장 간 연례총회 및 심포지엄, 워크숍, 학생하계캠프 등을 열고 있다. 이번 총회는 서울대학교가 주관하였으며 도쿄대, 베이징대, 홍콩과기대 등 14개 대학이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오연천 총장은 환영사에서 AEARU의 회원 대학들은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통해 정치인, 기업인이 할 수 없는 보편적 가치형성을 주도하고 상호번영을 위한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아시아의 역동성과 수월성을 토대로 아시아의 리더로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의 가치 창출을 선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EARU 의장을 맡고 있는 칭화대 천지닝(陳吉寧, Lih J. Chen) 총장은 개회사에서 "18차 총회의 서울대 개최를 축하하며, 이번 행사에서 세계대학랭킹에 대한 아시아 대학들의 견해와 유럽연구중심대학협의회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 대학들과 유럽연구중심대학협의회(LERU)와의 공조 방안, 학사과정 교육 강화, 연구 ·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도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2일(금)에 개최된 총회에서는 내년까지 생의학, 미시전자기학, 선행재료과학, 과학기술공원 조성, 한자문화권 등을 활동 주제로 선정하고 심포지엄 및 워크숍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9) 서울대–북경대, 연석회의 정례화

서울대와 북경대는 2012년 5월 7일 중국 북경대에서 한 · 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서울대(SNU)-북경대(PKU)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를 처음으로 가졌다. 두 대학은 지난 1993년 학술 교류 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다 가시적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양 대학의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 및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계획과 구체적인 교류 · 협력 활성화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아시아 발전을 선도할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한 · 중 · 일 대학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Campus Asia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 간 교환 학생 공동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구축 · 운영하는 것으로 서울대에서는 경영대와 국제대학원이 참여한다.

아울러 서울대와 북경대는 동아시아의 특수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시안 컨센서스(Asian Consensus)를 도출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양 대학은 기초교육 측면에서 한국과 중국의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구 부문에 있어서 공동 연구 추진을 위한 'SNU-PKU Research Dialogue' 프로그램 운영 태스크 포스(TF) 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향후 두 대학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여 학문적 · 지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기록

1) 경과보고

2012년도

3월 14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오전 8시)
3월 23일　서울대본부로부터 지원금 4천만원 수령
3월 29일　교육청으로부터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법인설립 허가서 수령
4월 6일　신임 명예교수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 오전 12시)

4월 12일　신임 명예교수에게 뱃지, 회보, 안내물 등 발송
4월 17일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등기 완료
4월 30일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사업자 등록 완료(금천세무서)
5월 2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오전 8시)
5월 16일　총장초청 간담회 개최(교수회관 오전 11시 30분)

5월 18일　2012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교수회관 귀빈실 12시)
2012년도 명예교수협의회 정기총회 개최(교수회관 제3회의실 오후 2시)

5월 29일
~ 30일　150동 명예교수회 대우조선 견학, 통영, 원예예술촌 등 방문

6월 1일　명예교수회보 제7호 인쇄 완료, 외부 발송(명예교수, 정부 부처)
6월 12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오전 8시)
6월 15일　신양문화재단 정석규 이사장 방문(이인규, 류관희 교수님)
7월 10일　신양문화재단 지원금 1천만원 수령
7월 11일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교수회관 귀빈실 12시)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회 개최(교수회관 귀빈실 오후 2시)

7월 17일　오연천 총장 방문(이수성, 이인규, 류관희 교수님)
9월 6일　의료복지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9월 11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파인룸 오전 8시)
9월 26일　사회봉사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오전 11시)
9월 27일　신임명예교수 초청 오찬간담회(호암교수회관 릴리룸 12시)

10월 11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오전 8시)
10월 12일　명예교수회보 제8호 원고청탁서 발송

10월 17일　광릉수목원 견학

10월 31일　명예교수협의회 이사회 개최(한국학중앙연구원 오전 11시)
11월 7일　사회봉사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12시)
12월 4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샹그리라홀 오전 8시)
12월 6일　부총장 초청 간담회(교수회관 제3회의실 12시)
12월 21일　학술위원회 개최(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2시)

2013년

1월 22일　의료복지위원회(호암교수회관 플럼룸 12시)
1월 24일　협의회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 개최(호암교수회관 라일락룸 오전 8시)
2월 21일　명예교수협의회 및 (사)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이사회 개최(호암교수회관 오크룸 12시)

2) 협의회 주요 사업

(1) 명예교수회보 2011, 제7호 발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2011) 제7호를 2012년 5월 18일자로 발간하였다. 4×6배판으로 총 348쪽의 이 회보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3,000부가 제작되어 전 · 현직 교수, 국회도서관, 주요 언론사, 정부 부처 등에 배포되었다.

(2) 사단법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발전진흥회

3)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임원 명단

회　장: 이수성(법대 1명)
부회장: 이인규(수석, 자연대), 이현복(인문대), 김　인(사회대), 최종태(경영대),
한송엽(공　대), 정하우(농생대), 진교훈(사범대), 문창규(약　대), 지제근(의대),
이종흔(치대원), 정정길(행대원) (이상 11명)
감　사: 이동녕(공　대), 양병이(환대원) (이상 2명)
이　사: 오병남(인문대), 이정민(인문대), 안청시(사회대), 이정복(사회대), 양철학(자연대),
박성현(자연대), 이광웅(자연대), 박정호(간호대), 이정인(공　대), 권욱현(공　대),
나용준(농생대), 최대권(법　대), 이종상(미　대), 이기춘(생활대), 구인환(사범대),
조창섭(사범대), 이흥식(수의대), 이재숙(음　대), 김유영(의　대), 정명희(의　대),
장영일(치대원), 백남원(보대원), 노화준(행대원) (이상 23명)
총무이사: 류관희(농생대) (1명)

4) 각 위원회 업무 및 구성

- 기획위원회: 법인체 추진, 대외협력, 홍보 등
  위원장 – 최종태(경영대)
  위　원 – 이현복(인문대), 나형용(공　대), 정하우(농생대), 진교훈(사범대), 문창규(약대),
  이종흔(치대원)
- 학술위원회: 모교지원, 연구/저술지원, 세미나 등
  위원장 – 진교훈(사범대)
  위　원 – 고영근(인문대), 권태환(사회대), 양철학(자연대), 이정인(공대), 부경생(농생대)
- 의료복지위원회: 의료, 경조사, 회원친목, 회원관리 등
  위원장 – 정하우(농생대)
  위　원 – 김　인(사회대), 이기춘(생활대), 문창규(약대), 지제근(의대), 장영일(치대원),

박정호(간호대)

- 사회봉사위원회: 대외봉사, 자문 등
  위원장 – 이현복(인문대)
  위　원 – 나용준(농생대), 이은방(약대), 이재숙(음대), 백남원(보대원), 김영수(치대원), 노화준(행대원)
- 회보편집위원회: 회보, 뉴스레터, 기타 발간 등
  위원장 – 이흥식(수의대)
  부위원장 – 임홍빈(인문대)
  위　원 – 고재승(치대원), 김병동(농생대), 김효철(공대), 전종갑(자연대), 정명희(의대), 한기상(사범대), 허우긍(사회대),

5)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정관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명예교수의 공적 활동 및 권익을 보호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명예교수회보 및 필요한 간행물의 발간
(2) 연구 및 저술 등 공적 활동의 지원
(3) 국제학술 활동 지원
(4)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필요한 사항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한다.

제6조 (임원)

1.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
   (4) 이　사: 임원 포함 50인 이내
   (5) 감　사: 2인
   (6) 총무이사: 1인
2.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7조 (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의 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유고에 따른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써 실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본회는 제2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은 따로 규정하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임원의 선임, 정관개정 및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또는 5인 이상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총회의 소집 및 부의 사항,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의결한다.

(4) 경미한 회무는 회장, 부회장 및 총무이사로 구성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이사의 서면 결의로써 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하기 위하여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3) 본 회의 회계 연도는 서울대학교의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14조 (사무원)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사무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정관 개정) 이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 의결된 날(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제정 시에 이미 설치 ·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는 이 정관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간주한다.
3. 본회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4. 이 정관은 2009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10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11년 5월 19이부터 시행한다.

6) 명예교수회보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예교수회보와 기타 관련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장과 위원회에 출석한 부위원장 및 위원, 그리고 원고를 제출하여 게재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협의회의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08. 5. 2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협의회의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2011. 5. 19)로부터 시행한다.

3. 공지사항

1) 주소(도로명주소), 전화, 이메일 변경 통보 요망

명예교수회보 제7호까지는 모든 명예교수님의 주소록을 매년 게재하였으나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8호부터는 격년으로 게재하고 신임 명예교수와 주소가 변경된 회원의 주소는 예년과 같이 게재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소나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이 바뀐 회원은 명예교수회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02-880-9019(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팩스, 02-871-8443;
Email, seohee32@snu.ac.kr

2) 재능기부사업 안내

2013년 2월 21일 (목) 12시부터 호암교수회관 오크룸에서 임원 및 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능기부사업의 하나로 명예교수협의회 회원이 각종 사회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초청 특강을 하는 경우 강사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 1인당 10만원씩 20명 이내에서 재정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특강이 결정된 회원은 명예교수협의회 사회봉사위원회(위원장 이현복 명예교수)에 초청기관의 공문이나 초청의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애경사 연락

제3차 정기총회(2010. 5. 20)의 결정에 따라, 명예교수협의회에서는 회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양가부모)의 조사 시에 근조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명예교수협의회 사무실(02-880-9019)이나, 간사 손서희(010-9004-4513)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주셔서 정중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Email의 활용

명예교수 회보는 연간으로 발간되기 때문에 신속한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긴급한 사항은 email로 알려드릴 계획이오니, 각 명예교수님께서는 매일 email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주소가 없으신 분은 대학(전화: 02-880-8282)에 신청하여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명예교수연구동(150동) 연구실 사용 신청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에 입실을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명예교수연구실 담당 직원 김보경 양(전화 02-880-1364)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 이용 안내

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월 중순까지 실내 보수공사를 끝내고 연중 회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경우 이용요금은 75% 할인으로 수영과 헬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1년 회비는 314,000원, 수영만 하는 자유수영 210,000원, 헬스만하는 헬스Pro는 239,000원입니다.

7) 명예교수님을 위한 시설물 등 이용 안내

• 주요내용

구분	내용	신청 등	담당부서 및 연락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명예교수 신분증 발급 신청서 제출	총무과 880-5096
주차장 이용	주차장 무료이용	신청서(차량등록증 첨부) 제출(매년 갱신)	관리과 880-5568
정보광장 이용	퇴직 후 계속 이용, E-mail은 1GB가능	별도신청 없음	정보화본부 880-8282
증명서 발급	국영문 경력증명서, 명예교수 증명서	민원우편(우체국), Fax민원(동사무소), 방문신청	교무과 880-1395
도서관 이용	열람실(명예교수용) 이용, 도서대출	명예교수 증명서 지참	도서관 880-5282
명예교수연구동 이용	책상, 의자 및 컴퓨터 등 사무용품, 세미나실	명예교수 연구동 직원에게 신청	명예교수연구동 880-1364

• 진료비 감면

구 분	내 용	연락처
서울대학교병원	종합건강검진비 30%, 선택진료비 50%, 비급여 행위료 40%	02-2072-1311(본원) 031-787-2030(분당)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센터	종합검진비 30%	2112-5500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	종합검진비 30%, 선택진료비(입원시) 100%	1577-0075

• 기타

○ 셔틀버스 경로석 마련

○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기관을 통하여 받는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 · 지원

○ 본교 홈페이지와 명예교수 홈페이지 링크

명예교수회보의 온라인 열람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는 온라인 상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교수 홈페이지, http://emeritus.snu.ac.kr/publication.htm 이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lib.snu.ac.kr/index.ax 단행본란에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를 접속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4. 투고 안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9호' 발간을 위하여 명예교수님 여러분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명예교수님들의 논설문, 일반칼럼 및 제언과 2013년도(2013년 3월~2014년 2월)에 이룩하신 학술 및 봉사활동 내용을 정리한 회보는 2014년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명예교수회보의 발간을 위하여 명예교수님 모두가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투고 내용
  (1) 논설, 일반칼럼, 나의 제언, 국제학회참가기, 문학 칼럼 등으로, 분량은 활자 11포인트, 행간 160%, 자간 100%, 좌우여백 3센티로 하여 A4 용지 9면 이내(회보인쇄본 10쪽 이내), 또는 글자수 13,000자(자간 포함)나 200자 원고지 65매. 단 1인 1편에 한하며 타지 게재 원고는 불가함.
  (2) 2012년도 학술 및 봉사활동 보고(아래 투고 요령 참조)
- 원고 마감: 2014년 1월 31일
- 보내실 곳: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연구동(150동) 313-2호
  명예교수회보 편집담당 간사 손 서 희 앞
  이메일: seohee32@snu.ac.kr 전화: 02-880-9019

투고 요령

※ 각종 원고 작성 시에는 아래 투고요령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원고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여 국립국어원의 어문규정에 따라 작성하시되, 꼭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접수는 등기 우편도 가능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메일 (seohee32@snu. ac.kr)에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논설이나 칼럼, 나의 제언 등은 그 원고에 저자 성명과 아울러 전 소속 단과대학명과 학과(부)명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술 및 봉사활동 보고에서 저서, 연구논문, 보고서, 강연,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등은 다음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보고 기록항의 맨 끝에 연.월.일.을 달되 그 표기는 'yyyy. mm. dd.' 방식(예 2012. 3. 2.)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학술 및 봉사활동보고 기재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서, 역서, 편저〉
저자(들)명: 서명. 총 쪽수, 출판사명, (출판)연.월.일.

(예시 1) 이무근, 김재식, 김판욱: 실기교육방법론. 총 484쪽, 교육과학사, 2012. 1. 20.
(예시 2) 박환덕, 박열 역: 임마누엘 칸트 저, 영구 평화론 (Zum ewigen Frieden). 총 156쪽, 범우사, 2012. 10. 5.

〈작품 또는 연주〉
발표자명: 작품명. 발표 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월.일. 또는 기간.
(예시) 백병동: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트리오(vn. 김민, vc. 나덕성, pf. 장혜원), 제1회 대한민국 예술원 음악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2012. 3. 30.

〈전시〉
발표자명: 작품명. 전시명칭, 전시주체, 주관기관, 장소, 연.월.일. 또는 기간.
(예시) 한운성: Pimento. 판화공방, 신세계백화점, 신세계갤러리, 2012. 9. 19-12. 26.

〈보고서〉
저자(들)명: 보고서 제목. 총 쪽수, 보고기관명, 연구기관명, (출판) 연.월.일.
(예시) 박삼옥, 남기범, 구양미, 이경진: 경기도 미래형 혁신클러스터 구축방향에 대한 연구 (CSTEP 정책연구 2012-1). 총 117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2.12. 3.(단,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000, 000 외 0명)

〈논문〉
저자(들)명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게재쪽) oo~oo쪽. 다만 온라인 학술지일 경우 doi 기재(단,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000, 000 외 0명, 또는 Yeo SR, Jhun JG, Kim Y, Lee HR, Park JK et al.).
(예시 1) Yeo SR, Jhun JG, Kim Y (2012) Intraseasonal variability of western North Pacific subtropical high based on the El Nino influence and its relationship with East Asian summer monsoon.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ic Sciences, 48(1), 43-53.
(예시 2) Ha KJ, Ho KY, Lee SS, Yun KS, Jhun JG (2012) Variability in the East Asian Monsoon: A review. Meteorological Applications, doi: 10.1002/met.1320.
(예시 3) 변재현, 김현수, 박성현, 정선양, 정성석 (2012) 지속가능과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지속가능연구, 3(2), 21-36.
(예시 4) 오병남 (2012) 예술과 창의성의 개념-I. 칸트의 판단력 비판을 중심으로.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1(1), 1-25.

〈학술회의〉
발표자(들)명: 발표제목. 행사명, 주관기관명, 장소, 연.월.일. (단, 저자가 다섯 명 이상일 때는 000, 000, 000, 000, 000 외 0명, 또는 Yeo SR, Jhun JG, Kim Y, Lee HR, Park JK et al.)

(예시 1) 이동녕, 한흥남, 최현식: Deformation and annealing textures of surface layer of copper sheet cold-rolled under unlubricated condition. 2012년도 대한금속·재료학회 추계학술대회, 창원켄밴션센터, 2012. 10.25.
(예시 2) 안휘준: 한국미술의 특징. 2012년도 공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학술세미나, 공주대학교 입지관 시청각실, 2012. 1. 17.
(예시 3) Je HK, Chon HT: Regional and detailed survey for radon activities in soil-gas and groundwater in Okchon zone, Korea. 2012 European Geosciences Union, Vienna, Austria, 2012. 4. 23-27.

〈강의 및 특강〉
강의제목. 강의 기관명, 장소, 연.월.일 또는 기간
(예시 1) Overview of bone biology. 한국치주과의사회, 강남파이낸스센터, 2012. 10. 22.
(예시 2) 지구의 화학탐사 특론. 세종대학교 대학원, 세종대학교, 2012. 8. 30-12. 13.

특강주제. 특강 기관 부서명, 장소, 연.월.일. 또는 기간
(예시) 장안과 북경-중국역사와 학술문화의 특징을 찾아서. KAIST, KAIST 경영대학 슈펙스 경영관, 2012. 12. 4.

〈사회봉사 및 공공활동〉
봉사 및 공공 활동 직책명. 봉사 및 공공 활동기관 및 부서명, 연.월.일. 또는 기간.
(예시 1) 심사위원. 우수도서 선정심사위원회. 대한민국 학술원, 2012. 4. 3.
(예시 2) 위원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심사위원회, 2011. 3.1-현재.
(예시 3) 위원. 석면안전관리위원회, 환경부, 2012. 6. 1-2015. 5. 31.
(예시 4) 심사위원장. 중앙훈련경연대회, 중앙공무원교육원, 2012. 7. 18-19.

〈기고문〉
주제. 발표지. 쪽수, 연.월.일.
(예시 1) 오늘 우리 시조의 자리매김 문제. 서정과 현실 19호, 12-22쪽, 2012. 9. 30.
(예시 2) 인문학 시야를 넓히자. 교수신문 제640호 A 27면, 2012. 4. 16.
(예시 3) 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교육의 방향. 교육정책포럼 234호, 8-13쪽, 2012. 12. 10.

〈연구〉
연구자(들)명: 연구주제명. 연구지원기관명, 연구기간
(예시) 홍길동: 전기자동차 급전선 보호회로 개발. KAIST. 2012. 3. 1-2013. 2. 28.

〈동정〉

시상: 시상 명칭, 시상기관, 연.월.일.

(예시) 이희근(자원공학과): 2012년도 암반공학회 총회에서 '일암 논문상 시상. 2012. 10. 17.

수상: 수상 명칭, 수여기관, 연.월.일.

(예시) 이정전(환경계획학과): 제 30회 정진기언론문화상(경제경영도서부문) 대상 수상, 2012. 7. 12.

인사: 성명(소속학부/과): 직책명. 인사기관명, 임기 또는 (발령) 연.월.일.

(예시) 고광호(약학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포상위원회 위원장에 선임. 2012. 3. 1.

행사: 성명(소속학과): 행사명. 행사주체 및 직책. 장소, 연.월.일.

(예시) 윤계섭(경영학과) 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원장을 초청해 최고경영자조찬회 개최. 2012. 1. 25.

〈기타 근황〉

(방송 및 신문 대담, 워크숍, 현장답사, 국제협력, 기술자문, 특허, 축사, 기념사, 감사패, 공로패, 해외여행, 출판기념회, 교육지도, 장학금 및 발전기금 희사, 모금운동 및 후원행사 등)

(예시 1) 3 · 1절과 독도문제 대담, MBC 라디오, 2012. 3. 1.

(예시 2) 한정된 연구비 따기 위해 단기성과 연구집중 악순환 대담. 세계일보, 2012. 10. 24.

(예시 3)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부터 공로패 수상. 2012. 1. 9.

(예시 4) ㈜동현시스텍의 고속예인 전차시스템의 제어논리 설계 기술자문. 2012. 1-2012. 4.

(예시 5)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석학과 대화 프로그램을 분당 중앙고등학교 및 낙생고등학교에서 운영.

(예시 6) "직류전류 측정용 자기센서" 특허 등록 제10-1203485호. 2012. 12. 15.

(예시 7) 정년 기념 문집(한국 근 · 현대사 개관) 헌정 받음. 2012. 4. 5.

(예시 8) 566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기념축사. 2012. 10. 9.

(예시 9) 졸업 최우수 학생 장학 기금 1억원 출연. 2012. 10. 8.

회 / 보 / 편 / 집 / 일 / 지

2012. 9. 20. 편집위원 선임

10. 8. 제1차 편집위원회 개최

편집방향 논의

1) 명예교수회보는 학술논문집이 아니라는 점을 회원에게 주지시킴

2) 이미 투고 안내는 7호에 공지되었으나 많은 교수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10쪽 매수 제한을 7쪽으로 함

3) 학술활동은 학술 및 봉사활동으로 수정

4) 원래 공고의 1인 1편 게재 원칙에, 타지 게재 원고는 게재 불가하다는 내용을 추가함

5) 투고안내와 투고요령의 중복되는 내용을 분리하여 단일화함

10. 12. 원고 1차 안내 공문 발송

12. 31. 원고 1차 마감

2013. 1. 3. 원고 2차 안내 공문 발송

1. 22. 원고 2차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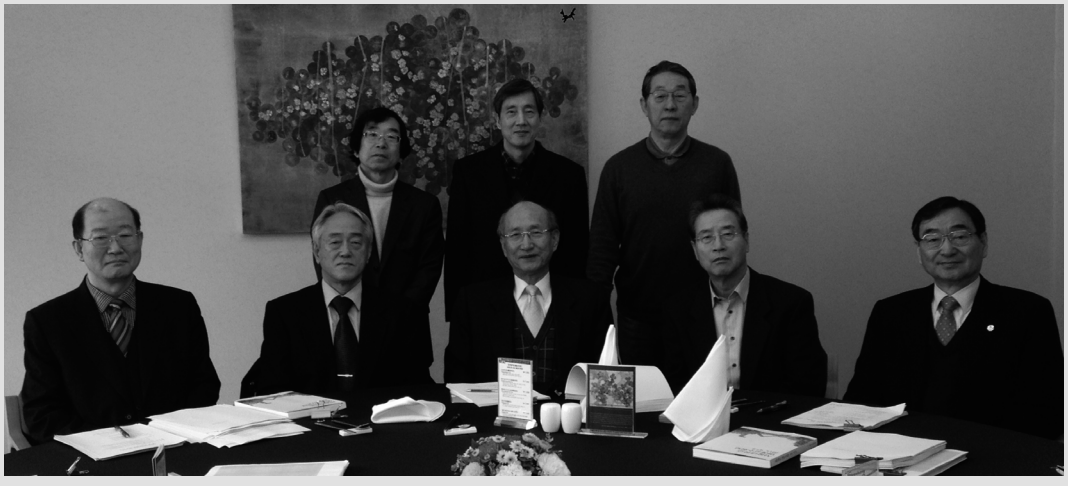
2. 6. 제2차 편집위원회 개최

1) 칼럼 원고 분류 작업

2) 원고 채택 여부 결정

3) 학술 및 봉사활동 보고 교정, 원고 추가 모집 여부 결정

2. 7. 원고 3차 안내 공문 발송



2. 28. 원고 3차 마감

3. 4.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과 출판 관련 합의하고 송고

3. 15. 제3차 편집위원회 개최

1) 학교소식 기사 선정 협의

2) 기사 작성자 선정 협의

3) 편집후기 작성 협의

4) 초교본 교열

5) 투고규정 위반 원고의 건

6) 제9호 특집(좌담회 또는 토론회) 주제 선정 협의

4. 10. 제4차 편집위원회 개최

1) 편집후기 정리의 건

2) 투고규정 위반원고의 건

3) 제9호 특집(좌담회 또는 토론회) 주제 협의

4) 재교본 교열

5) 기타(투고규정 보완 및 수정 등)

5. 1. 제5차 편집위원회 개최

최종점검

편 / 집 / 후 / 기

▶ 공사다망한 중에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제8호에 옥고와 활동내용을 투고해주신 명예교수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명예교수님들의 왕성한 학술 및 사회 활동으로 보아 투고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대학 및 대학원에서 빠짐없이 투고해 주신 것으로 위안이 되었다. <치의학대학원 고재승>

▶ 첫 편집회의에서 투고규정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그러다보니 투고규정에 어긋나는 원고가 많아 마음고생이 심했다. 특히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학술 및 봉사활동 보고가 많은 것은 본보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 호 투고요령에 그 예시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회원 여러분께 투고규정에 맞추어 투고하여 주시기를 거듭하여 간곡히 부탁드린다. <수의과대학 이홍식>

▶ 편집위원이 됨으로 자연과학 특히 공학을 전공하였던 입장에서 미처 살필 수 없었던 새로운 분야의 명예교수님들 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내용보다 투고규정이라는 계량적 틀에 맞추어 교열하면서 각 분야마다 독특한 틀이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발견하였다. <공과대학 김효철>

▶ 원고 교열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특히 오 · 탈자 없는 통일된 체제의 회보를 만들겠다는 과욕 탓이었는지 눈이 너무 혹사되어 심한 안통에 통원치료를 경험했다. 하지만 옥고 전체를 차분히 읽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다. 아무쪼록 명예교수회보가 모든 명예교수님들의 친근한 벗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자연과학대학 전종갑>

▶ 해외 출장 등으로 제3차 편집회의에 처음 참석하였다. 명예교수회보를 젊은 현역교수들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명예교수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현직교수들의 회의에 못지않은 활기차고 진지한 편집회의는 성공적인 명예교수회보 발간을 기대하게 하였다. <의과대학/의학대학원 정명희>

▶ 몇 차례 편집회의를 거치면서 항상 문제가 되는 점은 이미 정해진 규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필자들의 견해차이다. 투고규정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야 되지만 편집위원들의 연륜이 묻어나는 너그러운 마음씨 덕분에 큰 유감없이 마무리 될 수 있어 회의라기보다 흘러가는 세상사를 조금씩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흐뭇한 시간들이었다. <사범대학 한기상>

▶ 원고를 교열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우리 명예교수님들이 문인(文人)으로서의 끼도 대단하다는 점이었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논문쓰기에도 쩔쩔매는 본인에겐 맛깔스런 글을 술술 쓰는 이가 그저 부러울 뿐이다. 퇴임 후 문인으로 거듭나는 분의 글이 명예교수회보를 더 많이 채우기를 기대해 본다. <사회과학대학 허우긍>

▶ 현직에 있을 때는 전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평소에 호기심을 가졌던 분야에 관하여 호된 비평을 살짝 비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모든 명예교수님들이 깊숙이 묻어 두었던 생각들을 꺼내어 햇빛을 보게 하시기를 권유한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김병동>

▶ 천행건(天行健) 군자(君子) 이자강불식(以自强不息). 하늘의 운행은 굳건한 법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스스로 채찍질하여 쉬지 않는다. 이는 주역의 건괘제일(乾卦第一)의 '건괘 10'에서 상왈(象曰)로 나오는 말이다. 이를 박종홍 선생은 '학문의 길'을 밝히는 지표의 하나로 삼았다. 정년을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명예교수님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르곤 한다. 그러한 활동이 회보에도 여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다. <인문대학 임홍빈>

(원고접수순 게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2, 제8호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이 흥 식 (수의과대학)
부위원장: 임 홍 빈 (인문대학)
위　　원: 고 재 승 (치의학대학원)
김 병 동 (농업생명과학대학)
김 효 철 (공과대학)
전 종 갑 (자연과학대학)
정 명 희 (의대/의학대학원)
한 기 상 (사범대학)
허 우 긍 (사회과학대학)
간　　사: 손 서 희 (명예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2012, 제8호

2013년 5월 8일 인쇄
2013년 5월 13일 발행

발행인 이수성
발행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전화 02-880-9019
팩시밀리 02-871-8443
Email seohee32@snu.ac.kr

인쇄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880-5220

ISSN 2005-0526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 2013

이 회보에 실린 논설이나 글들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무단전재나 불법 복제를 삼가 주십시오.